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A Study on Policy Discourse through Concepts and Cases Analysis
of 'Hanok Architectural Style'

손동화 Shon, Donghwa
김종범 Kim, Jongbum
권영란 Kwon, Youngran

(a u r i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A Study on Policy Discourse through Concepts and Cases Analysis of
'Hanok Architectural Style'

지은이 손동화, 김종범, 권영란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02.18.)
인쇄 2019년 12월 27일, 발행: 2019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2,000원, ISBN: 979-11-5659-264-8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손동화 부연구위원

| 연구진

김종범 연구원

권영란 연구원

| 외부연구진

김현섭 고려대학교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김보람 연구보조원

안진희 연구보조원

이서영 연구보조원

| 외부자문위원

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현섭 고려대학교 교수

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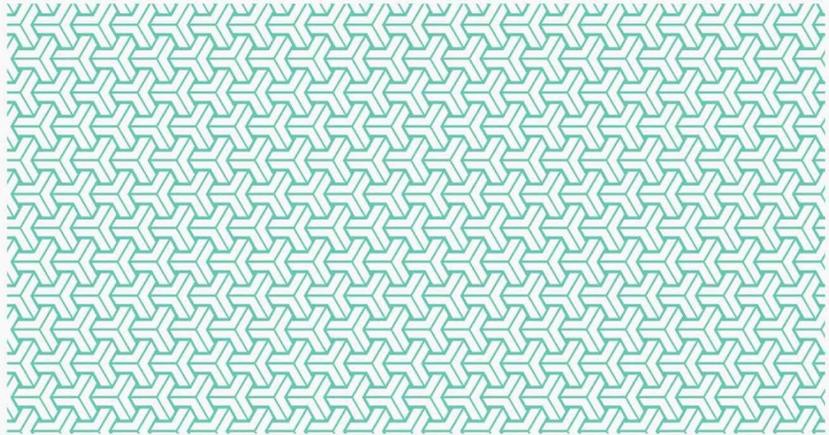
조성호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정구 구가건축사사무소 대표

황두진 황두진건축가사무소 대표

연구요약

Summary



2014년 6월,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여 국가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이 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그동안 한옥에 한정되어 왔던 법적 지원과 범위를 전통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까지 폭넓게 넓히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정책적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한 사례는 총 8건(부여군 1건, 경주시 7건)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조문을 반영한 경우는 전체 84건 중 13건이다.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조문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책적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법률상 정의, 적용 기준 및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법률상 ‘한옥’의 정의는 “목구조에 기둥·보·한식지붕틀 등” 적용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반면, ‘한옥건축양식’은 형태, 구조, 기술, 재료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춘 건축물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정의가 모호한 탓에 ‘한옥건축양식’은 전통적 형태가 충실한 한옥부터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정책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비록 법률의 취지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상(像)이 제시되어야 한다. 건축상이 제시되지 않으면 한옥건축양식 지원을 위한 기준이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옥건축양식의 저조한 정책적 성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옥의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한국건축의 전통성’이라는 이름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었던 쟁점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체가 괄목할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모호한 정의와 기준으로 인해 ‘한옥건축양식’의 보급·확산이 지지부진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한옥건축양식’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화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고, 담론을 통해 정책대상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 구체화는 이론고찰, 설문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2장에서는 법제도 현황과 의미를 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①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기까지 유사 사업과 제도를 검토하고,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이유, 법적 정의 및 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② 관련 정책 성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을 반영한 조례 개정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 및 조례를 통한 지원 건수를 파악하였다. ③ 정책분야와 학계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한옥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옥건축양식’이 이들 연구에서 위치할 수 있는 이론적 범주를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 유형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개념에 가까운 사례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② 수집된 사례에 대해, 건축물 특성과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수집사례를 DB로 구축하였다. ③ 구축한 사례 DB를 SOM(Self-Organizing Map)를 통해 군집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여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파악하였으며, ④ 각 유형의 대표사례를 통해 건축상(像)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한옥건축양식’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이 나아갈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 파악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범위와 방식을 담론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주를 제시하고 ②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6가지로 분류하였고 ③ 정책대상으로써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주는 법제도, 관련 사업,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법 제정 이전까지 한옥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학술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관되어 한옥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봉희·권용찬(2012)에서 구분한 모식도상 ‘한옥건축양식’의 범위는 현대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건축의 범주에 위치할 수 있음을 판단했다.

6가지 유형은 이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유형1-현대한옥)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었으나 외벽의 일부가 개량된 한옥 ②(유형2-하이브리드 한옥) 한옥과 현대건축물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결합된 한옥 ③(유형3-한옥풍 건축)현대건축물에 일부 한옥요소가 적용된 건축물, ④(유형4-정통한옥)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옥, ⑤(유형5-콘크리트 한옥)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조체가 콘크리트인 한옥, ⑥(유형6-한류건축)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한 건축물로 대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은 전통적 충실도 측면에서 폭넓은 범주를 보이고 있으며, 각 유형 안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유형 1, 유형2, 유형4와 같이, 법률상 '한옥'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법적정의가 한옥건축양식이 한옥과 구분된 것이 아닌, 한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다.

한옥건축양식의 발전방향과 시사점은 이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한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옥건축양식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형태, 구조, 재료, 기술 관점에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③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 유형을 토대로 유형의 세분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유형 안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을 선별하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정책화를 위한 정확한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한옥건축양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범주에 대한 쟁점은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⑤ 정책 사업 구상을 위한 한옥건축양식 대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사례분석을 통한 범주와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상(像)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분석틀이 상당부분 건축물 외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형분류 결과 또한 수집된 사례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건축계에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이끌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담론이 필요하며, 지역성에 기반한 한옥건축양식 유형범위 설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큰 범위에서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연구로 의미가 있으며, 추후연구를 통해 연구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옥, 한옥건축양식, SOM 분석, 정책담론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제2장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9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옥건축양식	10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옥건축양식	12
3) 한옥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	14
2.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성과 현황	17
1) 지방자치단체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례개정 현황	17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옥건축양식 사업성과	19
3) 국가가 장려하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고찰	21
3. 선행연구 고찰	26
1) 정책 관련 연구	26
2) 한옥의 유형관련 연구	28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연구사	34
4. 소결	46

차례 CONTENTS

제3장 사례분석을 통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	47
1. 한옥건축양식의 사례수집	48
1) 수집 개요	48
2) 분류기준 설정	48
3) 수집범위 및 방법	52
2. 수집사례 일반현황	56
1) 사례 DB 구축 개요	56
2) 수집사례 일반현황	58
3. 한옥건축양식의 유형화	68
1) 군집분석 개요	68
2) 유형분류 결과	71
3) 유형별 일반특성	72
4) 유형별 세부 특성	78
5) 세부 변수 특성	95
4. 소결	98
제4장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101
1.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개념 및 범주	102
1) 정책분석 개요	102
2) 쟁점사항 1 :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103
3) 쟁점사항 2 : 한옥건축양식의 유형	106
4) 쟁점사항 3 :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및 기준	109
5) 쟁점사항 4 : 한옥건축양식과 지역성	115
2. 정책 지원방향	118
1) 정책 지원방향 개요	118
2) 재정지원·건축특례·기술지원·시범사업 등의 지원방식	118

차례 CONTENTS

3)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 적용 방안	120
4)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와 대상	121
5) 한옥건축양식의 기술지원 방식과 행정지원 방식	125
6) 한옥건축양식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사업	127
3. 소결	130
제5장 결론	133
1. 연구의 성과	134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47
1)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전개	148
2)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9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선행연구 목록	187
4) 온라인 설문조사지	201
5) SOM 분석 결과 데이터	208
6) 한옥건축양식 사례 DB	210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이유	2
[표 2-1]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이유	10
[표 2-2]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11
[표 2-3] 「고도육성법」 제정 이유	12
[표 2-4]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13
[표 2-5]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13
[표 2-6] 전국 지자체 한옥(지원 및 진흥)관련 조례 및 한옥건축양식 포함 현황	17
[표 2-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18
[표 2-8]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19
[표 2-9] 한옥건축양식 지원 건축물	20
[표 2-10] 한옥건축양식의 신축 방식 유형	24
[표 2-11] 한옥건축양식 정책관련 선행연구	27
[표 2-12] 현대 한옥의 다양한 양상	29
[표 2-13] 신한옥과 한스타일 구분	30
[표 2-14] 한옥의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32
[표 2-15] 한옥건축양식 연구사 분류체계	34
[표 3-1] 한옥건축양식 분류체계	50
[표 3-2] 한옥건축양식 전통성 식별 정도	51
[표 3-3] 한옥건축양식 온라인 설문개요	52
[표 3-4] 한옥건축양식 사례 분류체계	57
[표 3-5] 유형분석 결과	71
[표 3-6] 유형별 공공 민간 구분 건수	72
[표 3-7] 유형별 건축연도 건수	72
[표 3-8] 유형별 대지면적 범주 건수	73
[표 3-9] 유형별 건축면적 범주 건수	73
[표 3-10] 유형별 연면적 범주 건수	73
[표 3-11] 유형별 층수 건수	74
[표 3-12] 유형별 지하 층수 건수	74
[표 3-13] 유형별 형태	75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14] 유형별 부위별 비례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5
[표 3-15] 유형별 척도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5
[표 3-16] 유형별 구조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6
[표 3-17] 유형별 외벽 마감재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6
[표 3-18] 유형별 전통의장 외관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7
[표 3-19] 유형별 전통의장 실내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7
[표 3-20] 유형별 기술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77
[표 4-1] '한옥건축양식' 정책분석 개요	102
[표 4-2] '한옥건축양식'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104
[표 4-3] '한옥건축양식' 건축의 보급 확산이 부진한 이유	106
[표 4-4] 쟁점사항3: 한옥건축양식 유형 분류 방식의 적절함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108
[표 4-5]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자 분포	108
[표 4-6]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113
[표 4-7]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옥건축양식 지원책 도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115
[표 5-1] 목적별 방법 및 연구성과	134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흐름도	8
[그림 2-1] 알베르트 슈피어의 Volkshalle(The Great Dome)	21
[그림 2-2] 5가지 한옥유형 분류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영역	33
[그림 2-3] 전통공간의 단면기호	37
[그림 3-1] 현충원 현충문	51
[그림 3-2] 윤봉길 기념관	51
[그림 3-3] 건축사협회 게시판 공고	53
[그림 3-4] 온라인 설문 구성	54
[그림 3-5] 온라인 설문 화면	55
[그림 3-6] 한옥건축양식 DB 구성	56
[그림 3-7] 한옥건축양식 수집사례 전국 분포	58
[그림 3-8] 지역별 한옥건축양식 수	59
[그림 3-9] 건축연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59
[그림 3-10] 대지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60
[그림 3-11] 건축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60
[그림 3-12] 연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61
[그림 3-13] 용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61
[그림 3-14] 층수별 한옥건축양식 수(좌: 지상 층수, 우: 지하 층수)	62
[그림 3-15]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62
[그림 3-16] 형태별 한옥건축양식 수	63
[그림 3-17]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형태별 한옥건축양식 수	63
[그림 3-18] 비례관계별 한옥건축양식 수	63
[그림 3-19] 척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64
[그림 3-20]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전체 사례 한옥부분)	64
[그림 3-21]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65
[그림 3-22] 외벽 재료별 한옥건축양식 수 (전체 사례 한옥부분)	65
[그림 3-23] 외벽 재료별 한옥건축양식 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66
[그림 3-24] 전통의장 외관 적용별 한옥건축양식 수	66
[그림 3-25] 전통의장 내부 적용별 한옥건축양식 수	67
[그림 3-26] 적용 기술별 한옥건축양식 수	67
[그림 3-27] 개과 계통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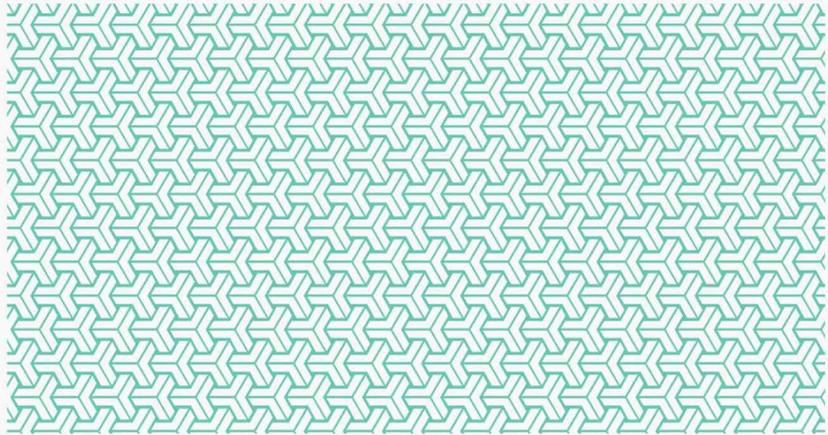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28] SOM의 개본 개념	70
[그림 3-29] SOM 군집분석 결과 (U-Matrix)	71
[그림 3-30] 유형별 사례개수	72
[그림 3-31] U-Matrix 지도와 Plane 지도의 관계	78
[그림 3-32] 유형 1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79
[그림 3-33] 유형 1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79
[그림 3-34] 유형 1 대표사례	80
[그림 3-35] 유형 1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81
[그림 3-36] 유형 2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82
[그림 3-37] 유형 2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82
[그림 3-38] 유형 2 대표사례	83
[그림 3-39] 유형 2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84
[그림 3-40] 유형 3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85
[그림 3-41] 유형 3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85
[그림 3-42] 유형 3 대표사례	86
[그림 3-43] 유형 3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87
[그림 3-44] 유형 4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88
[그림 3-45] 유형 4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88
[그림 3-46] 유형 4 대표사례 1(화천한옥학교)	88
[그림 3-47] 유형 4 대표사례 2(한국가구박물관)	89
[그림 3-48] 유형 4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89
[그림 3-49] 유형 5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90
[그림 3-50] 유형 5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90
[그림 3-51] 유형 5 대표사례	91
[그림 3-52] 유형 5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92
[그림 3-53] 유형 6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92
[그림 3-54] 유형 6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93
[그림 3-55] 유형 6 대표사례	93
[그림 3-56] 유형 6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94
[그림 3-57] Plane Map	95
[그림 3-58] 세부변수 Plane Map	97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1] 한옥과 비교하여 전통적 충실도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110
[그림 4-2] 한옥건축양식에서 외관 전통요소의 표출정도	114
[그림 4-3] 한옥건축양식에 필요한 지원 방식	119
[그림 4-4] 공공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	121
[그림 4-5]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122
[그림 4-6] 한옥건축양식의 재정지원 대상	123
[그림 4-7] 한옥건축양식의 재정지원 방식-일괄/차등 방식의 구분	124
[그림 4-8] 한옥건축양식 기술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126
[그림 4-9] 한옥건축양식 행정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127
[그림 4-10] 한옥건축양식 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1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 외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고조됨에 따라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건축자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이유

내용	
제정·개정문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경우 일반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출처 :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이유는 기존 법제가 건축자산 보전이나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문화재와 주변 지역에 대해 보존 중심의 관리(「문화재보호법」, 1962년 제정)가 이루어졌거나,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역사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관리(「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04년 제정)를 통해 건축자산이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에 치우쳐있거나,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적용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 이에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건축자산(문화재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역사적 가치 외에도 경관, 사회, 문화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1) 이민경·이종민·유광흡(2017),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

□ 한옥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한옥건축양식’의 등장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주목할 점은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건축자산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옥의 가치를 확대하고 전통건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기존에 「건축법」에 의한 한옥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한옥은 자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으며, 기준 충족을 우선시 한 한옥이 증가하다 보니 한옥의 다양성이 결여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통건축의 정체성이 담긴 건축물 까지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한옥이라는 개념은 특정시기의 한옥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며, 시기 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다. 한옥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 형태, 재료, 기술 나아가 공간구조에 이르기까지 한옥의 존재양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 「건축법」에서 정의했던 한옥의 기준대로라면 특정시기의 한옥상(像)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이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야 할 한옥은 양적인 확대를 달성할지 모르나, 획일화된 한옥 규범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지속되어야 할 전통계승이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한옥건축양식’은 다양한 한옥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및 범주 구체화 필요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정의)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다는 점은 ‘한옥건축양식’이 ‘한옥’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형태, 구조, 재료, 기술의 4가지 관점에서 한옥보다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정의만으로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옥’에 대한 정의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에 전통양식이 반영

된 건축물'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옥건축양식'은 '형태·구조·기술·재료'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할 뿐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은 전통적 형태가 충실한 한옥부터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까지 다양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스펙트럼이 넓어짐에 따라 건축적 이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호한 기준 수립이 다양한 한옥을 포용하고 지역성을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으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 정책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때문에 '한옥건축양식'의 최소한의 건축상(像)이 제시되어야 한다.

법적정의의 모호함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은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등 부진한 정책화 실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건축상(像)이 불분명하면 지원을 위한 심의가 어려울뿐더러,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범위를 수립하는 데에도 부담이 된다.

'한옥건축양식'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이미지를 찾기 위한 목적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수선·대수선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한옥건축양식을 대상으로 집행된 보조금 지원 건수는 경주시 7건, 부여군 1건으로 총 8건에 불과하다(2019년 12월 기준). 또한,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이 조문으로 반영된 경우는 전체 84건 중 13건이다(2019년 10월 기준). 한옥건축양식이 조례에 반영되었더라도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조문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국적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2010)에 따르면, 2020년은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을 모토로 한옥이 가진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모색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 동안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라는 법적인 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도에 지어진 콘크리트 한옥 카페들과 지붕과 입면을 개수한 서울의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상점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한옥이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미 우리 일상에 친숙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상속되어진 것, 기록 없이 구전되어 내려온 정보, 사회·문화적 연속성”²⁾ 이라 하는 전통(Tradition)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특정 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통건축이 갖는 과거의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이어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이론분석과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및 범주를 구체화하고, ②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메리엄 웹스터 홈페이지,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radition>, (검색일: 2019.10.0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옥건축양식의 범위는 이론적 범위와 물리적 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론적 범위는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및 기준, 그리고 선행연구 또는 연구사 흐름에서 차지하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론적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부터 실제적인 개념까지 폭넓게 다루고자 한다.

물리적 범위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다.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은 건축물 외에 공간환경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적 특징과 전통요소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내 및 외관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은 ‘형태·비례·척도·조합방식·구조·마감재·의장·기술·부속요소’, 전통요소의 충실도는 ‘기둥·보·한식지붕형상·서까래·지붕·마루·기단·인방·처마·창호·외벽문양·바닥재’의 세부 요소로 구분하였다.

2) 연구의 방법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처음 등장한 ‘한옥건축양식’은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가이드라인 또는 모델개발, 사례 등을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단계로 추진되었다.

먼저,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법제도 배경 및 현황, 선행연구 분석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1차적으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① 「한옥등건축자산법」의 법적정의와 취지, 지원 내용 등 법률에 대한 고찰과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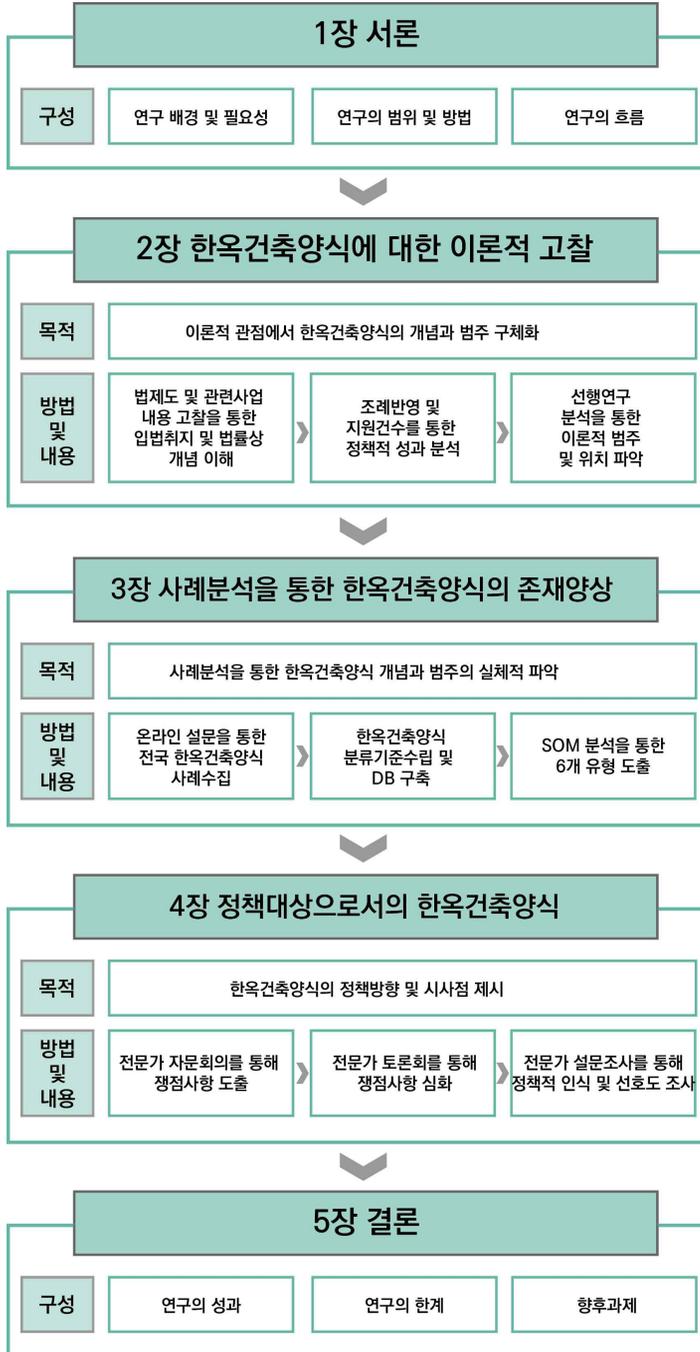
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과 전개양상을 검토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을 반영한 조례 개정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에서 한옥건축양식 지원 실적을 검토하여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③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학술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구의 동향을 살펴 한옥건축양식이 성립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한옥 유형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범주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분석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① 건축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수집하였다. ② 수집된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대상으로 건축물 특성과 전통요소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하여 DB구축을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정보와 연계하여 기초통계를 작성하였다. ③ 구축된 DB에 대해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분석을 실시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④ 유형별 대표사례와 군집에 기여하는 변수의 특성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³⁾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주요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토론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의 법적정의 및 용어, 한옥건축 존재양상에 대한 범주, 정책대상으로써 적용범위 및 지원방식 등의 관점에서 주요 쟁점이 도출되었으며,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쟁점에 대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한옥건축양식 사례는 범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론인 유형학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한옥 등 건축물의 유형분류는 주로 연구자 주관에 의해 이루어졌던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에 의해 유형분류가 가능한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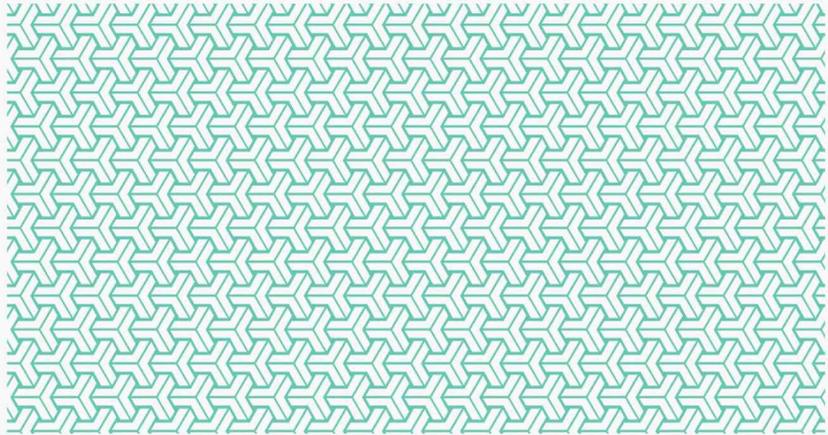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3. 연구의 흐름



[그림 1-1] 연구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2.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성과 현황
3. 선행연구 고찰
4. 소결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옥건축양식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기존 문화재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건축자산과 관련된 기존의 법제도는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을 들 수 있다. 1962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와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⁴⁾ 이와 달리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고도에 대한 역사자원을 ‘보존·육성’하고자 제정된 「고도육성법」은 고도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옥등건축자산법」은 특정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은 개별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보전·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문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 상당수 훼손·방치·멸실되고 있는 바,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⁵⁾

[표 2-1]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이유

구분	내용
제정 이유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경우 일반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출처 :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057호(2018. 12. 24. 일부개정), 제3조.

5)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한옥건축양식은 법률 제2조에서 용어가 정의되고 있으며, 제31조에서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지칭한다. 이는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과 비교하였을 때,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정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보급·확산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동법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제1항제1호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이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지원 범위가 개별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로공간 등 건축물의 근접에 의해 형성된 공간환경까지 확대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을 개발·홍보·교육하는 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자 함으로써 한옥건축양식의 보급·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2-2]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조	내용
제2조 (정의)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2조; 제31조

6)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31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옥건축양식

한옥건축양식은 「고도육성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지자체 조례에도 등장한다.7) 「고도육성법」은 문화유적지나 개별 문화재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이 역사적 문화 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전승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를 대상으로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 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8)

[표 2-3] 「고도육성법」 제정 이유

구분	주요 내용
제정 이유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古都)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寶庫)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문화환경의 포괄적 보호·전승에 어려움 이 있는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역사·문화적 자산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고도의 지정,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 안에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를 특별보존지구로,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및 제8조).
	다.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당해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9조).
	라.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중축·이축과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11조).
	마. 고도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고도 보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도의 보존사업 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사.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당해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출처 : 「고도육성법」, 법률 제14569호(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7) 총 4개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8) 「고도육성법」, 법률 제14569호(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고도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은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표 2-4]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조	내용
제2조 (정의)	<p>7.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p> <p>9.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p>

출처 :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59호(2017. 9. 8. 일부개정), 제2조.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조례를 살펴보면,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기준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표 2-5]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한옥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옥 건축 양식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출처 :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59호(2017. 9. 8. 일부개정),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3) 한옥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⁹⁾

□ 정책대상으로서 한옥의 등장

한옥 건축이 정책 대상이 된 것은 21세기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다. 처음 한옥은 '보존지구'의 집단주택이 정책대상으로서 관심 받게 되었다. 1976년 서울 북촌지역이 '민속경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1983년 가회동, 계동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 1990년대에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가회동의 재개발에 대항하기 위한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옥정책은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이다. 서울 한옥선언이 발표되면서 서촌이 보존대상으로 포함되고, 은평 주택지를 한옥 전용으로 분양한 것이다. 이후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은 정책 대상이 되는 한옥 및 한옥마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2002년 전주의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2006년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 고도 지정지구 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한옥 건축이 정책 사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사업에 발맞춰 국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2007년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이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10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 계획은 한스타일로 정의되는 한국 전통문화를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에서 한옥은 ①전통한옥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③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④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의 5가지 과제가 할당되었다.

한스타일 사업으로 한옥 건축은 정책 전반에서 핵심 과제로 주목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2009년 국토해양교통부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은 제1차 사업기간(2009~2013)동안 전통한옥에 비해 시공비를 60% 수준으로 낮추고 단열 성능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한옥 기술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어진 제2단계에서는 한옥형 공공건축물과 한옥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한옥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성과는 한스타일 6개 분야 중에서 한옥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뒤이어 2010년 5월 3일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다. 신한옥 플랜은 ①살

9) 본 절에서는 이강민의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전개(부록1)」를 요약하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이 정책 대상으로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 좋고 저렴한 한옥 모델 개발, ②한옥의 보급으로 국토의 품격 상승, ③주거문화 자산의 체계적 보전, ④국격 향상을 위한 한옥 관광·문화자산 활용이라는 4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신한옥 플랜이 제시된 다음 해인 2011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국가한옥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한옥정책의 중추역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옥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한옥 인허가 수’를 들 수 있다. 기존 보존중심의 정책이 한옥 멸실률을 조사하여 현존하는 한옥의 숫자를 세었다면, 한옥 건축이 정책의 중심에 자리한 이후 한옥정책 담당자들은 신규 한옥의 인허가수를 카운트하게 된다. 단, 한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조건축의 수를 헤아려 비율로 추정 할 수 있다. 유광흠·신민중(2012)에 따르면, 건축허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2007년 목구조 건축은 전체건축 허가 연면적의 약 0.46%였으나, 4년 만인 2011년에는 두 배로 성장하여, 약 1%에 육박했다.¹⁰⁾

□ 정책대상으로서 한옥의 정의

한옥은 2010년 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정의는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이다. 이후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¹¹⁾로 재정의 된다.¹²⁾

□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의 등장과 정의

한옥건축양식 이전에 등장했던 정책개념으로는 ‘한국적 공간’이 있다. 한국적 공간은 2012년 7월 3일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적 공간이란 한국문화의 디자인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공간으로서, 한국인의 삶의 가치가 표현된 전통디자인을 계승하며 새로운 기술과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부가한 공간¹³⁾으로 정의되는데, 앞서

10) 유광흠·신민중(201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5.

11)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2조.

12) 「건축법 시행령」에서 한옥 정의의 문제점과 「한옥등건축자산법」으로 한옥의 정의가 변화되는 과정은 부록1 이강민의 원고에서 살펴볼 수 있다.

13)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2013), 「한국적 실내공간 디자인 요소 DB구축 연구」,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p.10.

살펴본 한옥의 정의와는 차별된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적 공간 확산사업'은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전략 마련, 기초 DB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국적 실내공간 시범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적 공간 정책사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우수 공간 사례 수집을 꼽을 수 있다. 2013년 3월에 개최한 '제 1회 한국적 스타일 실내 공간 우수사례 선정 공모'를 통해 총 11개소의 공간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정동극장, 배상면주가 세월랑의 문화 공간 2개소, 국립국악고등학교, 통영 용남초등학교의 교육 공간 2개소, 조선히otel, 가마 광주요, 지수 화풍 360 컨트리클럽, 다담, 연타발 해운대점 등 상업 공간 5개소, 지노하우스, 편강한의원의 주거 및 기타 의료 공간 2개소가 있다. 이 우수사례는 언론보도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한국적 공간의 개념과 방향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적 공간 사업은 사라지게 되는데,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되고 정책 및 사업이 한옥의 신축·증축·개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한국적 인테리어 및 디자인 요소의 진흥을 목표로 삼은 한국적 공간 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적 공간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과 함께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제3항에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¹⁴⁾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한옥건축 기준에 비해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과 비정상의 상태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14)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2조.

2.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성과 현황

1) 지방자치단체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례개정 현황

한옥건축양식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어떤 범위에서 규제 혹은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옥등건축자산법」과 「고도육성법」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지자체 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한 '한옥' 관련 조례는 총 84개로 파악된다. 84개의 한옥관련 조례 중 한옥건축양식을 조례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총 13개다. 한옥과 비교했을 때,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은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개 조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4개는 앞서 살펴본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며, 7개는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 외에는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13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한옥건축양식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례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지원 사업의 성과부진과 연결될 수 있다.

[표 2-6] 전국 지자체 한옥(지원 및 진흥)관련 조례 및 한옥건축양식 포함 현황

조례명	지역	한옥건축양식 포함 유무 및 내용	비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제2조(정의)	
	공주시	제2조(정의)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제2조(정의)	
	익산시	제2조(정의),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강원도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지자체 조례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정의가 없는 이유는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16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제12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제20조(지원 대상),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제2조(정의), 제16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제20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사업)	
	전라북도	제15조(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	제2조(정의)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10.31.)

또한 한옥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한옥건축양식이 반영된 경우는 20개 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유일하다. 그러나 조례와 마찬가지로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내용이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의 제1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지지원 신청 등) 제1항제3호를 살펴보면, 한옥건축양식을 수선하는 경우 소유자가 구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용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¹⁵⁾ 용지지원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에 따라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지 지원이 가능하다.¹⁶⁾

[표 2-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

조	내용
제12조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지지원 신청 등)	<p>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p> <p>1. 한옥 수선 등(한옥 지붕 부분수선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보조 및 용지지원 신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p> <p>2.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지원 신청(변경신청 포함) : 별지 제8호 서식</p> <p>3. 한옥건축양식의 용지지원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출처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225호(2018. 5. 17. 전부개정), 제12조.

15)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225호(2018. 5. 17. 전부개정), 제12조.
 16)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092호(2019. 3. 28. 일부개정), 제21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옥건축양식 사업성과

「고도육성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2015년을 시작으로 7년간 479억(국비 335억)원을 투자하여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 지정지구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한옥건축양식은 주거환경 개선 사항에서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경주시 7건, 부여군 1건으로 총 8건이었다.

2019년 3월에는 경주시 5건, 부여군 1건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약 1년 사이 한옥건축양식이 지원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한옥건축양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사업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불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주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나 부여군의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한옥건축양식을 정의하고 있으나, 「한옥등건축자산법」상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된 8개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두 지자체에서 한옥건축양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8개 사례 모두 목구조는 없었으며, 모두 조적식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나타났다. 8건 중 신축은 4건이며, 증축은 1건, 수선이 2건 그리고 기와교체로 지원을 받은 사례가 1건이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였고 한옥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법률적 정의에 따른 한옥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옥의 지붕형태를 비롯하여 기둥, 외벽요소 등 전통요소가 반영되어 형태적으로 한옥과 거의 유사하지만, 구조, 재료, 기술의 관점에서는 ‘한옥’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표 2-8]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지역	구분	위치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구조
경주	신축	황남동 189-2외1	390	234.26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	인왕동 696-1	520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	인왕동 696-9	524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	인왕동 814-4	267	95.58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구조+한식토기와
	근린증축	사정동 326-1외 2	4866	1485.5	지상2층	일반철골구조+목구조+한식토기와
	단독수선	사정동 99-10	467	106.65	지상1층	시멘트벽돌조+한식토기와
	근린수선	사정동 75-10	346	164.7	지상1층	시멘트벽돌조
부여	기와교체	부여읍 구교리 31-1	545	232.89	지상1층(B1층)	철근콘크리트구조+전통한식기와

출처 : 경주시청 왕경조성과,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내부자료, 부여군청 문화재과,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내부자료.

[표 2-9] 한옥건축양식 지원 건축물

사례 사진



황남동 189-2외1



인왕동 696-1(사진의 우측건물)



인왕동 696-9 (사진의 좌측건물)



인왕동 814-4



사정동 326-1외 2



사정동 99-10



사정동 7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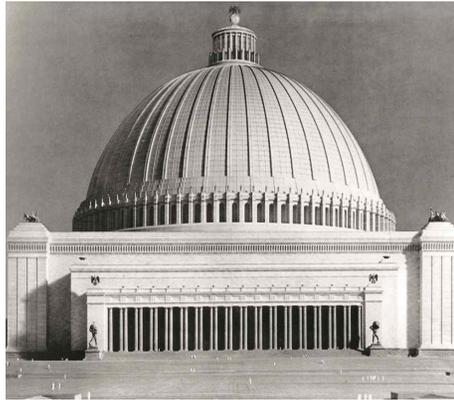
부여읍 구교리 31-1

출처 : 카카오맵 로드뷰,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19년 11월 17일)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jung7979> (검색일: 2019년 11월 17일)

3) 국가가 장려하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고찰¹⁷⁾

국가가 건축양식을 법률로 제정하고 보급 촉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 근대 독일은 1933년 나치의 바우하우스 폐쇄, 알베르트 슈페어(Berthold Konrad Hermann Albert Speer)식의 근엄한 고전주의의 활용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공산권 건축에서 차용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같은 역할을 했다. 이는 모두 근대 이후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가 건축을 규제하거나 강요했던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규정한 ‘한옥건축양식’을 앞선 국가주의 과잉 사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법률 내 정의가 법조문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더라도 법률의 문구가 일상 건축 행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그림 2-1] 알베르트 슈피어의 Volkshalle(The Great Dome)

출처: Jonathan Glancey(2017), "The Unbuilt Nazi Pantheon: Unpacking Albert Speer's 'Volkshalle'", *Ullstein Bild/Getty Images*. Image Courtesy of Laurence King Publishing.

※ 글의 이해를 돕고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이 원고 관련 도판을 추가하였음

김현섭은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갖는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률이 주는 즉각적인 의아함에 대해서 서술을 이어갔다. 이 중 ‘건축양식’이라는 상당히 미학적·역사적·논쟁적 개념을 법조문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디 건축양식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열려있고 언제든지 재조정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로서 건축양식이 정해지면 개념의 유연한 적용은 어려워진다. 또한 현재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 타당한 것인지,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우선

17) 본 절에서는 김현섭의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요약하고, 한국 한옥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효용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는 김현섭의 원고를 요약한 부분이다.

권을 부여한다던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31조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 노력과 지원 중 특히 해외에서 한옥건축양식 유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비추었다. 전통 형태 모방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진행해온 한국 건축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김현섭은 한옥건축양식을 국가주의·민족주의·자본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한편,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현재의 조건에 맞추어 한옥 유형도 검토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김현섭은 한옥건축양식의 등장 배경을 한옥 부흥 현상에 찾았다. 그는 한옥 부흥 현상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측면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할 측면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측면은 현대 한옥에 대한 건축가들의 실험이 발현되는 모더니티에서 기인하고, 비판적 측면은 한옥 부흥이라는 집단적 현상이 상당 부분 국가주의에서 근거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어서 국가주의가 자본주의와 연계되는 사실은 한옥건축양식을 이른바 철 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방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옥 부흥의 양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부터 '전통한옥밀집지역'의 '한옥 수선 등'에 서울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한옥과 관련된 조례가 탄생되었다. 낡은 한옥이 개·보수되고, 리노베이션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현대적 삶에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된 한옥이 신축되기도 하였다. 새로 지어진 한옥은 재래(在來) 목수에 의해 지어지기도 하였지만, 현대 건축가의 실험에 따라 등장하기도 했다. 한옥 건축 제도과 이벤트는 한옥 부흥의 한 축을 보여준다. 전국적인 한옥학교의 설립,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한옥의 부흥은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과 함께 파괴된 전통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건축 정체성을 보여준 결과였다. 한옥 부흥 현상 속에서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전통 건축유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된 점은 무척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김현섭은 '실험과 내적 탐문에 근거한 계속적 재평가와 혁신에 초점'을 둔 앤서니 비들러(Anthony Vidler)의 견해를 전유하여, 오늘날 우리가 과거와 똑같이 살지 않는 이상 건축가들의 과감한 실험적 시도가 한옥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모더니티'라 불리는 현대성이 발현된다고 덧붙였다. 1930년대부터 이른바 도시형 한옥이라는 새로운 도시 조건에 적합한 유형이 도출되었고, 근래에는 한옥도 개인의 취향과 현대적 조건에 맞게 디자인

이 제안된다. 이런 실험은 한옥이 진화하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김현섭은 한옥 부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서는 일종의 신화가 감지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옥건축양식의 법률적 규정이 신화의 제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 현상을 ‘도무스(Domus)의 신화’라 불렀다. 도무스는 본디 로마시대 상류주택을 뜻하는데, 여기서 한옥 현상의 이미지가 중첩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도무스는 일종의 신화화된 하이데거의 거주 및 장소 개념을 상징한다. 하이데거의 에세이 「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는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의 ‘장소의 혼(Genius Loci)’과 케네스 프램튼(Kenneth Frampton)의 ‘무장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 제안으로 이어졌다. 하이데거의 건축과 연계된 사유에 대하여 비평한 영국의 비평가 닐 리치(Neil Leach)는 ‘도무스의 신화’에 대해 비판하였다. 김현섭은 이에 대하여, ‘거주’의 개념이 ‘장소’와의 ‘개념쌍’을 이루면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도무스의 신화에 내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흙과 땅, 장소에 과도하게 집착한 점도 설명하였다. 하이데거는 후에 나치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민족을 묶기 위해 민족주의라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흙에 동화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그의 이론에 녹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써 하이데거의 이론에는 소수자에 대한 배타성과 배제의 논리가 내재된다.

또한 김현섭은 자본주의는 도무스의 상품화를 통해 ‘잃어버린 도무스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조장하고 상품화한다고 말하였다. 이 신화는 다시금 자본주의 욕망을 복돋으면서, 과거 도무스에 대한 동경이 ‘민족적 정체성’으로, 그리고 ‘전통 형태의 감상적 복귀’로 귀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닐 리치는 이를 포스트모더니즘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 개념 역시 장소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세계화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광받는 상품으로 소비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김현섭은 이와 같은 철학적 고찰을 통해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전통적 형태의 감상적 복귀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한옥 역시 도무스의 신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옥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한민족의 집 또는 한국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옥 진흥의 제도적 지원은 한옥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제도에는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한옥 부흥 현상에는 배타성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 역시 이와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김현섭은 특히

조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간접 의무를 제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부터 여타의 건축 유형이 배제된다고 설명하였다. 전술한 관광 측면 역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와 연결된다. 여기서 한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같은 국제관광 진흥사업에서 우선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옥을 포함하는 한스타일을 건축 브랜드로서 소비되도록 만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현섭은 한옥의 이미지와 형태에 대한 집착은 고스란히 한옥건축양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였다. 한옥이 보편적이지 않은 현 시대에, 건축 재료와 구법, 인력과 산업구조, 시대정신은 과거의 것과 다르다. 김현섭은 현대의 건축은 현대의 조건에 가장 솔직하며 합리적이되, 모든 대중을 위한 건축을 지향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옥건축양식을 신축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2-10] 한옥건축양식의 신축 방식 유형

유형1	한옥 건축의 물리적 방식과 논리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현대적 삶에 맞게 설비와 가구 등을 현대화하는 방식
유형2	현대적 건축물의 부분이나 외관에 한옥 이미지만을 도입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방식
유형3	한옥의 논리구조를 가져오되 현대적 공법으로 짓고, 중층구조를 이용하여 건축비를 낮추는 신한옥 방식

출처 : 연구진 작성(외부연구진이 작성한 원고를 표로 구성)

김현섭은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형1은 전통 미학과 현대의 세련미를 영위할 수 있지만, 건축비가 높아 대중의 경제력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유형2는 한옥건축양식의 가장 피상적인 경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형3은 현대적 공법이 대량생산의 산업화를 바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김현섭은 다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대적 건물을 짓지 않고 굳이 한옥 스타일을 짓는 이유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사에서 한옥의 형태보다 공간구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높게 평가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방식은 과거의 이미지와 형태일 것이나, 역설적이게도 중층의 신한옥은 그 또한 전통한옥과 이미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김현섭은 한옥건축양식에 대하여 '잃어버린 도무스'를 욕망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그는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이 갖는 노스텔지어를 자극하고, 민족과 국가라는 정체성을 차이로 상품화한 포스트모던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김현섭은 본고에서 한옥건축양식은 건축양식으로 국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총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옥건축양식은 의미적으로도 국가주의를 노

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본주의와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이라는 우리의 건축자산은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 중에도 한옥 형식 일부를 따르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김현섭은 그간의 한옥정책 흐름과 현대한옥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의 포섭 가능성 등을 추가로 서술하였다.¹⁸⁾ 김현섭은 결론적으로 한옥 전통의 올바른 계승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전통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통의 발명이 무엇에 봉사하는지를 따져볼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한옥’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전통의 구축 논리나 공간 구성보다 형태 만들기에 집착한 결과를 비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옥 모두가 키치(Kitsch)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의 건축 작업이 공간·재료·구조·생산 시스템과 같은 현대적 조건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옥이나 현대한옥과 같은 특정 조건에 국한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실험할 좋은 기회이며, 따라서 한옥의 진화를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여기까지 김현섭에게 의뢰한 원고인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요약하였다. 그의 한옥건축양식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관련 제도를 보완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다. 첫째, 법률 상에서 한옥건축양식 조문 내용의 유지에 대한 찬반공론을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특정하게 지원되는 건축양식이 현대 건축가의 창작성이나 여타 건축물의 창의적 표현에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건축에 내재된 전통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간 형태 중심의 건축지원에 대한 비판적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신축보다, 한옥 리노베이션을 활성화하여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가지는 제도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나아가 한옥건축양식이 한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18) 이 내용은 부록2) (p.168)에 수록된 김현섭(2019),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참조.

3. 선행연구 고찰

1) 정책 관련 연구

아직까지 한옥건축양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양식 개념이 정책대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한옥의 물리적 양상을 확장하고자 시도했던 정책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진 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이다. 2007년 발표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을 시작으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옥양식의 보다 유연한 개념을 제안하는 정책관련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7)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한옥 관련 정책을 넘어서서 대중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한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과 관련한 또 하나의 연구 성과로 국토해양부(2010.2)의 한옥 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가 있다. 국토해양부(2010.2) 또한 한옥을 단순히 과거유산과 같은 문화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스타일 사업 시작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상응하여 2010년 5월 3일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격 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이 발표되었다. 국토해양부(2010.12)는 '보존·보전 정책의 대상으로서 한옥'과 '활성화 정책의 대상으로서 신한옥'으로 정책대상으로 나누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신한옥이란 전통 목구조 방식 및 외관은 그대로 두고 시공방식·재료 등에서 기존의 전통 한옥보다 유연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한옥은 '한옥'이 현대에서 여전히 지속가능한 주거유형임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친환경주거' 유형의 하나로 개념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강민·옥채원(2011)은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확산을 위해 보급 절차를 제도화하고, 한스타일 공공 건축물의 법적 분류기준 및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강민·옥채원(2011)의 연구에서 주목한 '한스타일'은 2005년 5월 '한브랜드 지원전략'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한스타일의 대상은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총 6가지 분야다. 이 연구에서 '한스타일 한옥'이란 전통 한옥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신한옥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부의 한식 인테리어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강민·박민정(2012)은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근대 이후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서술하는데 사용된 슬어를 추출하고, 각각의 슬어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물리적 근거를 추적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서 한옥을 넘어서서 문화로서 한옥을 정의하기 위한 지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강민·박민정(2012)의 연구에서는 ‘한옥’을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와 달리 “한국인의 민족성(한국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건축물”로 정의함으로써 한옥에 대해 보다 유연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보존 중심의 문화재로서 한옥에서 보다 확장된 외연의 한옥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 또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이해하고,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며, 나아가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표 2-11] 한옥건축양식 정책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개요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옥 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한옥공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한옥관련 문헌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 제시 한옥공간의 디자인 방향 제시 실제 대상지(서초 어린이 도서관)를 선정하여 시범 계획안 계획 및 향후 적용가능성 평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한옥 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10.2.)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및 지자체 한옥관련 정책·사업 조사 국내외 한옥 활성화 사례 조사 한옥 건축산업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기존 한옥건축을 조성현황 파악 및 한옥 건축 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산업체 전수조사 한옥 지원 정책·사업 추진 현황 조사 한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한옥 활성화 정책의 주요 실천과제 도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10.12.) 한옥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한옥 활성화 실천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실천방안, 액션플랜 등을 수립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활성화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검토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한옥관련 사업 현황 조사 한옥 건축관련 민간 산업분야 현황 조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활성화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추진전략 제시 정부 및 지자체의 한옥관련 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한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 재정립 현대화된 한옥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신한옥 개념 정립

19) 이강민·박민정(2012),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현대 한옥미학의 기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 • 이강민·옥채원(2011) • 공공건축의 한옥화를 위한 보급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의 한스타일 공공건축 관련 정책·사업 검토 •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사례·경향 분석 • 한옥 및 설계 전문가 자문 • 일반인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스타일 건축 및 공공건축의 개념 재고 •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을 기반으로 한스타일 공공건축의 가능성 검토 • 한스타일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 한스타일 공공건축 공급지원 및 관리방안 제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²⁰⁾ • 이강민·박민정(2012) •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발굴 중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을 밝히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이후 약 100여년간 한옥의 미학적 가치를 서술하는 술어를 추출하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미학적 가치 서술에서 사용된 술어를 통해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과 전개 제시 • 한옥미학 서술 어휘의 특징을 정리하고, 앞으로 한옥미학의 새로운 방향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한옥의 유형관련 연구

① 선행연구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는 한옥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례는 실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건축물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파악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1차적으로 기존 한옥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옥건축양식이 위치할 수 있는 이론적 범주를 찾고자 한다.

한옥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상당수 수행되었다. 이들 유형연구는 한옥의 평면, 형태, 구조 또는 구법 등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로 평면이나 계획기법의 관점에서 한옥유형을 구분하는 연구가 많은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며, 건축물 전체 관점에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 연구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개념과 범주 구체화를 위해서는 건축물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형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20) 이 연구는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리즈로 기획된 연구로 총 3차로 구성된다. 연구의 큰 골자는 한옥 문화의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과 글로벌 시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한옥 문화의 우수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인문학적 가치 연구 중 첫 번째 연구 주제는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을 고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한옥에 깃든 한국인의 세계관을 고찰하고, 마지막 연구는 한옥과 자연관을 주제로 한옥의 입지, 풍수, 재료 등을 다룬다.

건축물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는 적용범위가 개별 건축물로 한정되거나 가로 범위로 확장된다. 가로면 전체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에도 담장이나 가로에 면한 건축물 입면, 나아가 가로의 전통요소까지 다루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한옥의 현대화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 방향은 동일하나, 연구자에 따라 유형구분이 일관되지 않으며 용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7)는 한옥에 대한 구분을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문화재 한옥(주택)', '현대의 전통 한옥', '건축가에 의한 한옥',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 '현대건축 내의 한실', '온돌 난방식 주택' 또는 '자연 친화적 주택'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건축가에 의한 한옥',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 '현대건축 내의 한실'을 한옥건축양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한옥이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형을 갖추고 있는 한옥부터 현대기술이 반영된 한옥, 건축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디자인, 실내에 한국적 요소 그리고 친환경적 요소까지 유형을 구분한 범위와 기준이 다양하다.

[표 2-12] 현대 한옥의 다양한 양상

구분	양상	설명	작품
1	문화재 한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대에 건축된 것으로서 한옥 중 건축연대가 오래된 것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것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한옥의 현대적 계승을 논할 때 참조의 원점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가정
2	현대의 전통한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기법을 전수받은 장인 혹은 목수에 의해 현대에 재현한 한옥 위생시설과 난방 등은 현대 생활에 맞추어 수정한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 부유층의 주택 혹은 별장으로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원형 또한 양반가옥이나 궁궐을 기증함 문화재 공사 경험에 있는 전문 궁궐목수 혹은 절목수가 이러한 주택사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회 심원정사
3	건축가에 의한 한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건축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어 신축·리노베이션 된 한옥 목수와 건축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경우가 많음 한옥을 전체적으로 모방하고 있지만, 내부 설비나 용도의 전환뿐 아니라 형태 및 재료의 사용에서도 자유로운 실험이 일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중음식연구원 (송인호·조정구)
4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의 형태요소를 건물 내·외부 장식요소로 활용함 전통과 관련된 상업시설, 공공기관에 주로 사용됨 한옥의 특징을 내밀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키치한 속성이 주를 이룸 한옥의 실제 공간원리보다 한국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기호로서 한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운동 벽산빌라 리노베이션
5	현대건축 내의 한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건축물 내의 한실의 경우에는 고층·고밀화 된 현대 건축물에서 효율적으로 한옥을 건축물의 일부로 도입한 것 대부분 실내 디자인 위주로 도입되고 있으며, 호텔이나 여관에 존재하는 한실 혹은 온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호텔 한실
6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돌 난방방식을 가진 모든 집 자연친화적 주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23-25.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국토해양부(2010)는 한옥의 다양한 양상을 만들고자 국토해양부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신한옥'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옥의 개념과 달리 신한옥은 전통 목구조 방식 및 외관은 그대로 두고 구조 및 시공방식·재료 등에서 기존의 전통 한옥보다 개선된 한옥을 일컫는다. 신한옥은 다시 '현대한옥'과 '한옥식 건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의 구분은 기준이 적용되는 바탕건물이 한옥인지 현대건축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표 2-13] 신한옥과 한스타일 구분

개념	구분	설명				
신한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한옥이란 한국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미래 한국의 일상적 주거문화로서 역사·문화·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공간 				
	구분	<table border="1"> <tr> <td>현대 한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한옥을 수선하여 보전하거나 옛 건물의 전문적인 고증 과정을 통해 그대로 재현한 한옥이 아닌 한옥의 전통 목구조 구법을 갖추어 새로 지어진 한옥으로서 현대적인 재료로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킨 한옥이며 표준화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타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지어질 수 있음 </td> </tr> <tr> <td>한옥식 건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의 공간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 요소를 현대 건물에 일부 차용하여 한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물 </td> </tr> </table>	현대 한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한옥을 수선하여 보전하거나 옛 건물의 전문적인 고증 과정을 통해 그대로 재현한 한옥이 아닌 한옥의 전통 목구조 구법을 갖추어 새로 지어진 한옥으로서 현대적인 재료로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킨 한옥이며 표준화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타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지어질 수 있음 	한옥식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의 공간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 요소를 현대 건물에 일부 차용하여 한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물
	현대 한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한옥을 수선하여 보전하거나 옛 건물의 전문적인 고증 과정을 통해 그대로 재현한 한옥이 아닌 한옥의 전통 목구조 구법을 갖추어 새로 지어진 한옥으로서 현대적인 재료로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킨 한옥이며 표준화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타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지어질 수 있음 				
한옥식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의 공간적, 구조적, 재료적, 의장적 요소를 현대 건물에 일부 차용하여 한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건물 					

출처: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p.20-23.

전봉희·권용찬(2012)은 앞서 정의한 한옥의 유형을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양상'이라는 모식도를 통해 정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07)에서 정의한 한옥유형 구분과 비슷한 관점이지만, 한국건축 전체를 전통적 충실도와 현대적 편의성 2가지 척도를 통해 구분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구분된 유형은 '문화재한옥', '정통한옥', '현대한옥', '한옥풍한옥', '한류한옥'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 간 경계가 겹쳐있어 영역이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다. 5가지의 구분은 유일성과 완전성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한옥부터 현대설비나 재료 또는 기술이 적용되어 원형보다 변형된 한옥, 나아가 외관이나 실내를 한옥으로 꾸미거나 설계자가 작품에 한국성을 표현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한옥이 해당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폭넓고 다양하다.

이용희·김현섭(2016)은 '현대한옥'을 전체나 일부를 목구조와 한식지붕틀 및 외형을 취하는 가운데 현대적 구법과 마감법을 수용한 건물로 재정의 하면서, 현대한옥의 유형을 기존건물 유무와 전통형식 변화정도를 구분하여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옥이 리노베이션을 통해 활용되는 경우를 고려한 점이 특징으로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증축, 개축, 대수선)의 2가지 경우와 전통형식의 4가지 변화정도의 조합에 따라 현대한옥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였다. 한편, 조성호·김

성우(2014)는 1980년대 이후 전라남도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상을 정하기는 하였지만, 한옥의 변형정도에 따라 한옥유형을 구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료,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옥의 변형정도에 따라 '정통한옥', '변형한옥'(2개), '응용한옥'(2개)의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한옥이라는 큰 범위에서 유형이나 존재양상을 다루고자 하였다면, 손승광·손동화(2018)는 한옥과 현대건축이 결합된 한옥에 대해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손승광·손동화(2018)는 현대건축물과 한옥이 결합되어 상호이점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한옥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한옥 유형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와 전통요소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한옥을 재료, 구조, 볼륨, 형태 등의 구분에 따라 구성모델과 유형을 구분하였다.²¹⁾

이상의 유형분류가 개별 건축물에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이하의 연구는 한옥의 외관과 가로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된 연구이다. 윤효진(1995)은 도시형 한옥 외관의 10가지 유형을 5가지 기본유형과 5가지 변형유형으로 제시하였다. 한옥의 입면을 중심으로 형태, 재료, 설비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이 정성적 방법을 통해 한옥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면, 손동화(2018)는 객관적 기준과 정량적인 분석으로 유형분석을 하였다. 손동화(2018)는 북촌지역 전통 도시가로 경관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통도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한옥의 평면요소, 입면요소, 가로요소로 구분되며, 이들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북촌지역 전체 관점과 가로 단위의 두 단계에서 분석된다. 전체 관점은 가로경관 규칙의 유형을 도출함으로 파악되며, 특정 가로에서만 나타나는 규칙을 도출하여 가로단위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 규칙이 정량적으로 다루어졌다면 도출된 규칙이 유효한지 인간에 의한 정성적 검증도 이루어졌다.

21) 현대건축물+한옥외장, 현대건축볼륨+목조다층한옥, 저층부 현대건축+상층부 목조한옥, 저층부 돌출 현대건축+상층부한옥, 현대건축물 일부에 전통건축양식 접합 등으로 구성모델을 제시하였다. (손승광, 손동화(2018) "하이브리드 한옥의 유형과 구성모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29(6), pp.101-120.)

[표 2-14] 한옥의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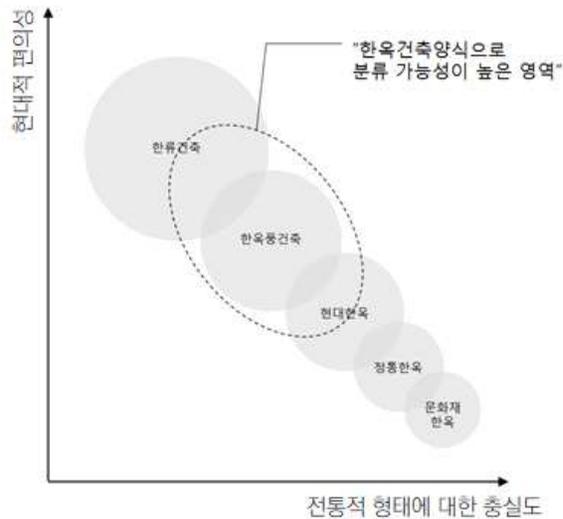
구분	연구개요(연구자/년도/제목)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내용
1	•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옥건축 활성화 위한 기초연구 • 한옥 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한옥공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한옥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략 제시하며 현대에 한옥양상을 6가지로 구분 •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범 계획안 계획 및 향후 적용가능성 평가 • 문화재한옥, 현대의 전통한옥, 건축가에 의한 한옥, 자연친화적 건축, 현대 건축물 내의 한실, 온돌 난방 방식을 가진 집, 한옥의 조형적 요소를 차용한 건축물로 유형을 구분
분류기준 : 재료, 구조, 형태, 설비, 실내외, 친환경			
2	• 국토해양부(2010), 한옥 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한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 한옥건축물 조성현황 파악 및 한옥 건축 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산업체 전수조사 • 신한옥에 대해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적 기술과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로 정의 • 한옥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한옥 활성화 정책의 주요 실천과제 도출
분류기준 : 구조, 시공, 재료, 공간, 의장			
3	• 전봉화·권원찬(2012), 한옥과 한옥주택의 역사 • 한옥의 다양한 층위를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한옥의 유형을 사회과학적 모델로 구분		• 전통적 형태의 충실도와 현대적 편의성의 2가지 기준에 의해 5가지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양상을 분류, 각 유형과 좁은 범위로서의 한옥을 구분하고 한옥의 발전방향을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시
분류기준 : 재료, 구조, 형태, 설비, 실내외, 개념			
4	• 조성호·김성우(2014),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유형과 건축특성 •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발전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주관에 의한 유형구분		• 1980년대 이후 전라남도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료,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옥의 변형정도에 따라 정통한옥, 2개의 변형한옥, 2개의 응용한옥으로 총 5가지 유형을 구분
분류기준 : 재료, 구조, 형태, 설비			
5	• 이용화·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분류 -2000년대 이후 건축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 신한옥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표적 유형을 나타내는 사례를 분석하여 8가지 모델로 구분		• 현대한옥을 전체나 일부는 목구조와 한식지붕틀 및 외형을 취하는 가운데 현대적 건축술과 마감법을 수용한 건물로 재정의하면서, 현대한옥의 유형을 기존건물 유무와 전통형식 변화정도를 구분하여 8가지 유형으로 분류
분류기준 : 구조, 공간, 형태, 재료, 설비, 실내외, 불륨조합 (기존건물 유무, 전통형식의 변화정도)			
6	• 손승광·손동화(2018), 하이브리드 한옥의 유형과 구성모델 연구 •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한옥의 사례분석을 통해 두 요소가 결합된 조합방식을 분석하고 유형을 제시		• 전통과 현대적 건축물이 조합된 경우를 현대건축물+한옥외장, 현대건축볼륨+목조다층한옥, 저층부 현대건축+상층부 목조한옥, 저층부 돌출 현대건축+상층부한옥, 현대건축물 일부에 전통건축양식 접합 등으로 구성모델을 제시
분류기준 : 불륨조합, 재료, 구조, 형태, 실내외			
7	• 윤효진 (1995), 도시형 한옥의 외관 유형 •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북촌지역 도시형한옥의 가로외관의 유형을 파악		• 1992 시점에서 도시형 한옥의 외관의 10가지 유형(5가지 기본유형과 5가지 변형유형)을 제시
분류기준 : 형태, 재료, 설비			
8	• 손동화 (2018), 전통 도시가로 경관구성의 데이터마 이닝 분석 • 북촌지역 한옥에 대해 평면, 입면, 가로공간 요소의 규칙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유형을 도출		• 한옥의 평면, 입면, 가로요소 3가지 관점에서 세부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북촌지역 전통 도시가로 경관에 대해 4가지 유형 유형을 분류하고 데이터마 이닝 기법을 통해 가로별로 나타나는 고유규칙을 도출
분류기준 : 평면요소, 입면요소, 가로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② 한옥유형 관련 선행연구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위치

한옥유형을 구분하는 범위와 대상 그리고 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재료, 구조, 기술, 형태"가 공통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정의하는 기준과 같다. 경우에 따라 설비, 공간, 볼륨 등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기술과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4가지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가지 요소 외에 실내외 요소를 유형구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한옥유형 분류를 검토하여 한옥건축양식이 위치할 수 있는 이론적 범주를 확인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분석에 앞서이론적 범주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국건축을 큰 틀에서 분류한 전봉희·권용찬(2012)의 모식도에서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법적 정의를 토대로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는 한옥풍 건축을 중심으로 한류건축, 현대건축의 일부에 걸쳐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식도에서 유형과 유형이 서로 겹쳐있는 바와 같이, 현대한옥의 일부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류건축 일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2] 5가지 한옥유형 분류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영역

출처 : 전봉희·권용찬(2012),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재가공

이는 사례분석 이전에 이론적 범위에서 한옥건축양식의 대략적인 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옥풍 건축, 현대한옥, 한류건축만이 한옥건축양식이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연구사

본 절에서는 한옥, 한국건축,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국내 연구사 흐름을 정리하였다. 연구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목적은 ‘한옥’, ‘한옥풍 건축’, ‘전통건축의 현대화’와 같이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없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로부터 앞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연구를 개선하는 데에 참고해야할 부분과 후속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한옥·한국 건축 양식·전통건축 양식·한국성·전통성·전통건축 재현의 키워드를 통해 연구 라이브러리²²⁾에 축적된 선행 연구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 조사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개략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이라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실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건축의 양식 연구와 해석에 대한 연구, 역사적 건축물의 외형이나 공간 등을 적용한 건축 설계와 계획·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 5가지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구성한 분류 체계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재조사하였다. 이로부터 선별된 445편의 연구를 통해 연구사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표 2-15] 한옥건축양식 연구사 분류체계

분류	분류체계	연구건수
1	설계와 계획	101
2	공간	75
3	사조와 해석(전통성과 한국성)	148
4	형태와 형식(장식과 색채)	54
5	맥락과 미학(지역성과 특수성, 풍수와 생태건축)	67

출처: 연구진 작성

① 설계와 계획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건축분야 선행연구 및 저작은 총 101편으로 연구사 분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설계와 계획’ 연구 중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한국성을 기반으로 하는 설계·계획 연구는 한국 현대건축과 건축역사 등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실험이 다수를 차지하여, 분류의 중복을 피하고자 ‘사조와 해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사조와 해석’ 분류에는

22) 한국교육원학술정보원(KERIS)의 데이터베이스인 riss.kr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중 국내 학위논문·학술지논문·학술발표대회자료·건축잡지에 실린 기고문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디자인학·문화연구·관광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건축 연구는 '설계와 계획'분야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한옥 설계와 계획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는 한국성이나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자와 건축가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장순용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건축사」에 연재한 “전통건축 연구-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V)”²⁴⁾은 전통한옥을 건축가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첫 계기를 마련했다. 이외 연구에서는 건축의 형태와 조형,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전통성을 해석하거나 차용한 디자인 실험 연구가 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된 용도와의 다양성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집합주택, 종교시설, 마을회관, 교육시설, 숙박시설, 박물관, 문화집회시설, 공원 등이 있다.

건축 설계나 계획요소 도출과 관련된 연구에서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적 특징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추상화된 전통의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설계방법론이나 공간감을 현대화하는 방법, 미학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 인지특성을 적용한 계획방법 등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이 연구되었다. 연구사에서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2010년 이후의 경향에서 나타난다. 한옥을 현대화하는 계획기법보다 한옥 그 자체를 설계하는 방법론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동식 한옥, 한옥카페, 현대한옥, 패시브 건축으로서의 한옥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한옥 등건축자산법」에서 정하는 법적정의에 부합하는 한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통요소를 적극 재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건축디자인을 실험한 연구로 볼 수 있다.

② 공간

공간론과 관련된 연구사의 흐름은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일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75편의 연구에서 전통공간의 물리적 분석, 건축 배치의 문제, 전통공간의 내·외부공간 구성의 특징, 전통주거 공간의 현대적 적용방식이 주된 연구주제이다.²⁵⁾

23) 부록 3) 참조

24)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 『建築士』, v.1992(10). 대한건축사협회. pp.52-57;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 『建築士』, v.1992(11). 대한건축사협회. pp.44-51;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I)”, 『建築士』, v.1992(12). 대한건축사협회. pp.44-51;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V)”, 『建築士』, v.1993(1). 대한건축사협회. pp.56-61;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V)”, 『建築士』, v.1993(2). 대한건축사협회. pp.58-63.

25) 부록 3) 참조

박길룡(2015)은 김수근의 공간사육에 대하여, “김수근이 던진 화두, 전통성은 한국 건축에게 사유의 문을 열게 한 최초의 주제이다. (중략) 김수근으로서는 국립 부여박물관 이후 전통에 대한 보습을 거쳐, ‘공간’에서 한국적 주제를 확신한다.”라고 적고 있다.²⁶⁾ 인용된 박길룡의 저서는 한국건축의 건축가와 건축사무소의 세대 구분과 건축형식 등을 통해 한국 현대건축의 개괄적 흐름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김수근과 한국건축에서의 공간론을 연구 주제로 삼은 연구자는 다수다. 근래의 연구로는 김영철(2015)은 부여박물관 건축심사위원회를 맡은 윤일주 심사위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김수근과 한국 현대건축에서의 공간론을 관계 짓는 저술이 있다. 김영철은 “지금 건축의 흐름은 합리적, 기하학적인 점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구조를 만들자는 데로 가고 있다. 그런 움직임에 부합되는 이 건물은 원시적 생명감이 느껴지는 건축이다.”라는 심사위원회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전통건축의 지붕형상이 부여박물관의 건축 공간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형태 요소로 파악하였다.²⁷⁾ 이는 한국 전통건축을 차용한 건축형태와 공간의 상관성 측면을 탐구한 연구로 평가된다. 김수근의 부여박물관을 전후로 한국건축 전통론의 주된 관점이 형태 중심에서 공간으로 전이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은 한옥건축양식과 공간론의 관계 파악에 있어서, 김수근을 포함한 특정 건축가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과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건축가들의 작업이 오늘날 한옥건축양식과 같은 건축문화의 풍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향후 학술적 담론과 실증 사이에서 더 많은 연구와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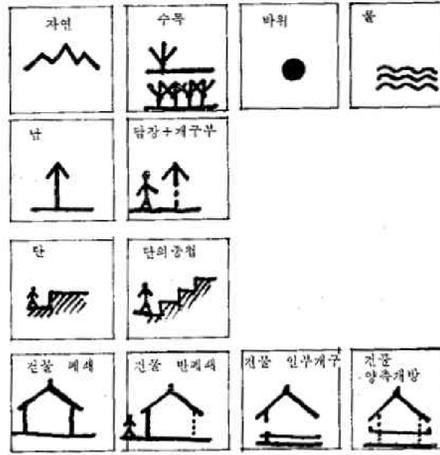
건축가 김수근과 관련된 논의를 제외한 한국건축 공간에 대한 연구사 흐름에서도 1980년대는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한국건축의 전통공간과 그 변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여기에는 김진균(1981)의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박경립(1986)의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²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연구는 현대건축의 공간에 유기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건축 공간에 대한 유형화 작업 및 전통주거와 전통사상으로부터 단절된 전통을 연결 짓는 새로운 건축관에 대한 모색이 주를 이룬다. 주목할 부분은 다수의 연구에서 공간의 내·외부 연

26) 박길룡(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p.114.

27) 김영철(2015), “1967년 김수근의 건축이론 - (구)부여박물관 건축의 ‘양식’-‘공간’-‘텍토닉’”, 「부여학」, v.5, 한국고도육성포럼 부여지회. pp.313-314.

28) 김진균(1981),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축」, v.25(4). 대한건축학회. pp.33-37; 박경립(1986),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결을 한국건축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림 2-3] 전통공간의 단면기호

출처: 김진균(1981),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축』, v.25(4), 대한건축학회, p.35.

공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실증적 대상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공간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도입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한국건축의 공간을 이해하는 연구 방법으로써 서양건축사에서 활용된 위상기하학적 공간구성 이해 방식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간론, 공간구문론 등이 등장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김수근과 같이 전통건축을 공간으로 이해한 건축가와 건축물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연구사의 흐름이다.

③ 사조와 해석

□ 한국건축사와 한국건축의 해석 연구

현재까지 한옥과 관련된 건축사조를 분류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전통건축과 한국성 등을 해석하는 차원의 연구는 연구사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흐름에 참여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 건축물이 양식사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하여 각자의 해석을 가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⁹⁾ 1980년대에는 전통성 표현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계승과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양식과 같은 건축이 차지하는 건축사에서의 시대적 위치를

29) 부록 3) 참조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동규(1980)의 “한국의 현대건축과 조국근대화 그리고 전통의 계승”, 박혜영(1984)의 「현대주택 실내공간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손철송(1984)의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이명호·이동우(1987)의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김병엽(1989)의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등이 있다.³⁰⁾

1990년대에는 전통의 재현과 창작, 민속차원에서의 전통 접근, 한국통사에서의 20세기 건축의 정리 등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된연구로는 김성우(1991)의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과 창작”, 김용균(1994)의 「현대건축사조별로 본 한국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미정·고부영·안창현·윤보윤·이강심·정경숙(1994)의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적 건축요소의 실태분석”, 변태호(1997)의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사고들의 유한적 표상과 '민속건축'에 대한 소고”, 한상석(1997)의 「한국 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표현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³¹⁾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관을 통해 한국건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허진석(2000)의 「역사주의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건축의 이해와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임미정(2001)의 「신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자본, 권력의 공간화 양상」, 김소연(2007)의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 건축가의 정체성」등이 여기에 속한다.³²⁾ 이들은 역사주

30) 김동규(1980), “한국의 현대건축과 조국근대화 그리고 전통의 계승”, 「건축사」, v.1980(9), 대한건축사협회. pp.28-30; 박혜영(1984), 「현대주택 실내공간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철송(1984),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명호·이동우(1987),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7(1), 대한건축학회. pp.29-32; 김병엽(1989),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김성우(1991),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과 창작”, 「미술사학」, v.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79-98; 김용균(1994), 「현대건축사조별로 본 한국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고부영·안창현·윤보윤·이강심·정경숙(1994),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적 건축요소의 실태분석”, 「婦學」, v.27,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pp.61-64; 변태호(1997),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사고들의 유한적 표상과 '민속건축'에 대한 소고”, 「건축역사연구」, v.6(1), 한국건축역사학회. pp.67-79; 한상석(1997), 「한국 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표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 허진석(2000), 「역사주의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건축의 이해와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미정(2001), 「신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자본, 권력의 공간화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연(2007),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 건축가의 정체성」,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의, 신식민주의, 탈식민주주의의 관점으로 한국건축사의 흐름을 분석하여 전통성을 해석하였다.

2010년대에는 한국건축에서의 전통성과 같은 정체성 화두를 해석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건축가들의 작업, 그리고 이를 형성한 성장과 활동 배경을 탐구하는 방법론, 건축이 지어낸 사회적 현상과 한국건축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배형민·우동선·김봉렬·전봉희·이규철(2011)의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김승희와 최옥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김지홍(2014)의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박정현(2018)의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의 생산과 재현」이 여기에 해당한다.³³⁾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진행³⁴⁾된 배형민·우동선·김봉렬·전봉희·이규철(2011)의 연구는 한국 현대건축에서 건축가의 교육배경이 건축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건축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에서 한국 현대 건축의 파편과 체계, 지식과 무지는 창조적 과정의 중도에 놓이고, 또 이러한 상황이 건축 역사가 체계적 지식으로 확립하여 있는 서양과 차이가 나는 점³⁵⁾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건축에 대한 건축가의 부족한 이해와 서양의 건축 디자인 방식이 현재 한국의 건축양식을 만드는 주된 동력임을 밝혔다. 최근의 연구인 박정현(2018)의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의 생산과 재현」은 한국 현대 건축을 국가와 건축가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한국건축은 한국성을 얼마나 잘 표상하였는가에 따라 가치를 판단했다는 점, 1980년대에는 건축가의 창작성이 나타나는 조건을 시대상에서 찾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현대건축에서 국가-건축-건축가의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밝혔다.

2010년 무렵부터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직접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김용미(2009)의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가능성”, 이해준(2011)의 “전통한옥의 활용과 기초자료정리 문제”, 김경수(2011)의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33) 배형민, 우동선, 김봉렬, 전봉희, 이규철(2011),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김승희와 최옥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건축역사연구」, v.20(3), 한국건축역사학회, pp.39-58; 김지홍(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현(2018),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의 생산과 재현」, 서울시립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이 연구는 2000년대 한국건축교육에 적용된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에서 한국건축역사 교육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연구로 알려졌다.

35) 배형민·우동선·김봉렬·전봉희·이규철(2011),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김승희와 최옥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건축역사연구」, v.20(3), 한국건축역사학회, p.39.

본 신한옥”, 이강민(2016)의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이용희·김현섭의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김종범·김상태(2017)의 “한옥건축양식에서의 건축가 역할론: 고전적 전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³⁶⁾ 이와 같은 연구의 등장은 신한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전통성과 한국성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에서의 전통성과 한국성에 대한 연구는 시대별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되는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1979년부터 2018년 사이의 비평문을 포함한 선행연구 흐름을 살펴보았다.³⁷⁾

한국 현대건축 연구에서 전통성과 한국성 연구가 주로 진행된 시기는 1980년대이다. 이를 촉발한 계기는 1983년은 독립기념관의 현상공모이다. 당시 독립기념관의 건립 기초를 살펴보면 설계 기본 사항으로 상징성을 언급하였다. 공모지침에 “민족의 얼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여 민족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창조물, 진실된 민족 역사를 입증하는 장소, 힘찬 민족의 앞날의 예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명소가 되게 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³⁸⁾ 당시 독립기념관 건립은 별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될 정도로 국가적인 건축 프로젝트였다. 이에 대해서 학계를 포함한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김광현(1987)은 독립기념관의 한국성과 기념성에 대한 기고를 통해 설계공모와 건축물의 가치를 밝히기도 하였다.³⁹⁾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한국성을 다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시용(1979)의 “한국현대건축의 전통구현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배화(1980)의 “한국전통건축의 해석과 계승을 위한 창

36) 김용미(2009),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가능성”, 「건축」, v.53(9), 대한건축학회. pp.30-35; 이해준(2011), “전통한옥의 활용과 기초자료정리 문제”, 「역사민속학」, v.37, 한국역사민속학회. pp.375-396; 김경수(2011),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본 신한옥”, 「동양예술」, v.17, 한국동양예술학회. pp.301-331; 이강민(2016),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v.60(8), 대한건축학회. pp.20-23; 이용희·김현섭,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25(5), 한국건축역사학회. pp.51-62; 김종범·김상태(2017), “한옥건축양식에서의 건축가 역할론:고전적 전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017(춘계), 한국건축역사학회. pp.369-372.

37) 부록 3) 참조

38) 건축문화 편집부(1983), “[특별취재] 독립기념관·독립공원 기본계획 및 현상설계공모안”, 「건축문화」, v.1983(6), 월간 건축문화사. p.45.

39) 김광현(1987), “독립기념관의 한국성과 기념성”, 「건축사」, v.1987(8), 대한건축사학회. pp.38-43.

조적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 김기웅(1984)의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이동우(1986)의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구영일(1988)의 「건축형태지각을 통한 한국성인지에 관한 연구」, 강진원(1988)의 「한국 현대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이형재(1989)의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등이 여기에 속한다.⁴⁰⁾ 이 연구들은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을 구현하는 방법론과 전통건축을 해석하고 계승하는 방법론, 또는 이를 수용하는 방법론, 전통성의 표현법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성과 전통성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공존하였다. 안영배(1987)는 “전통성의 실상과 허상 -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고”를 통해 기념적인 공공건축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점, 경복궁 안 국립박물관과 독립박물관, 지방 문화회관에서 지붕형태를 변형시킨 계획안들의 당선사례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피상적 요소들에 의해 민족성이나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기인되어서는 안될 일”이라 비판하기도 하였다.⁴¹⁾ 이와 같은 연구흐름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국내에 프랭크 게리, 렘 쿨하스, 마리오 보타, 톰 메인(Morphosis), 안도 타다오 등의 해외 건축가들의 건축이 국내에 소개되고 또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무대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전진삼(1997)은 “21세기의 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를 통해 해외 건축가들의 표피적인 지역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전통성의 차용이 건축주를 현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민현식(기오현 건축)의 말을 빌려 “전통적 한국의 조형정신 및 기법과 최첨단 미래지향적 이상이 조화된 오늘과 미래의 한국성을 창출하여 건축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해외 건축가의 언설을 허구라고 못 박았고 이는 서구 제일주의에 익숙한 탓이라고 말했다.⁴²⁾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건축

40) 이시웅(1979), “한국현대건축의 전통구현방법론에 관한 연구”, 『THESES OF TAEJON TECHNICAL JUNIOR COLLEGE』, v.25, 대전공업전문대학, pp. 515-524; 이배화(1980), “한국전통건축의 해석과 계승을 위한 창조적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 『UOU Report』, v.11(1), 울산대학교, pp.107-119; 김기웅(1984),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우(1986),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영일(1988), 「건축형태지각을 통한 한국성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진원(1988), 「한국 현대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형재(1989),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안영배(1987), “전통성의 실상과 허상 -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고”, 『건축사』, v.1987(2), 대한건축사협회, p.51.

42) 전진삼(1997), “한국의 건축 / 전통과 모더니즘의 불안한 동거”, 『월간 사회평론 길』,

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흐름은 한국성과 전통성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과거의 전통론과 달리 획일적 방법론을 지양하되, 다양성과 집중된 담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성과 한국성 화두가 한국건축 생태계의 국제화 대응 전략으로 전이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통성과 한국성을 건축계획으로 응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 과거의 연구가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연구였다면, 현대건축에서의 한국성 차용,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주거공간에서의 전통성과 공간론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연구 경향은 전통성과 한국성을 디자인의 영역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는 서울과 전주 등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옥보전정책의 움직임이 태동했던 시기이며, 2000년대 후반은 한스타일의 적용에 대한 정책이 등장한 시기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사한 연구경향이 확인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주택·상업시설 등에 적용 가능한 전통성과 한국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전통성과 한국성에 대한 연구가 관광시설과 일상 건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2010년 중반이후에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상현(2015)의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김현섭(2019)의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⁴³⁾ 이 연구들은 한옥의 전국적인 보급성과가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현대의 전통 계승 논리와 이론 체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지시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상현은 “전통을 현대에 소통 가능한 언어로 번역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건축의 고유성과 새로운 건축으로서의 보편적 개념을 지향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2010년대 후반의 연구 경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구체화 방향과 맥이 닿아있다고 판단된다.

④ 형태와 형식

형태와 형식에 관한 연구사 흐름에서는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모티브로 한 전통양식과 요소 차용, 평면과 의장특성, 상징체계와 표상, 구축성과 형태재현 장식과 색채 등의 연구 54편을 추출하였다.⁴⁴⁾

v.97(6), 사회평론. p.117.

43) 이상현(2015),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24(6), 한국건축역사학회. pp.35-44; 김현섭·이용희(2019),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SPACE』, v.618, 공간. pp.109-120.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연구흐름에서 한옥의 형태와 형식에 관한 재현과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건축 조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건축사들에 의해 한국건축에서 전통양식을 어떻게 계승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고가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통건축을 디자인 요소와 조형 언어로 이해하고, 이를 현대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조형 언어가 더 세분화된다. 재료·평면·건축유형·의장요소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건축의 형식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근래의 연구로는 류미리(2017)의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⁴⁵⁾가 있다. 이 연구는 전통재현을 모티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할 수 있는 현대건축 목록을 구축하였다.⁴⁶⁾

한옥건축양식 형태범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장식과 관련된 역사·디자인 연구이다. 한옥건축양식과 관계된 연구는 총 19건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다수의 연구가 한국전통문양을 현대건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였다. 1990년대까지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정민(1998)의 “건축에 있어서 한국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은경(1999)의 “한국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내장 타일 디자인 연구”가 있다.⁴⁷⁾ 2000년 이후에는 현대한옥이나 개량한옥에 직접 장식을 적용하는 디자인 연구와 경관디자인 관점에서의 장식과 색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관련 연구로는 문선욱(2007)의 “한국 전통문양의 신도시 경관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장영창(2008)의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송미림(2009)의 “한국전통 꽃창살문 도자타일을 활용한 21C 주거공간 방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⁴⁸⁾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44) 부록 3) 참조

45) 류미리(2017),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미리·서치상(2017),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017(춘계), 한국건축역사학회. pp.131-140.

46) 이 연구의 부록으로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를 재현한 건축물 사례 163건을 정리하였다.

47) 문정민(1998), “건축에 있어서 한국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진주여자전문대학 논문집」, v.21, 진주여자전문대학. pp.351-372; 이은경(1999), 「한국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내장 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 문선욱(2007), “한국 전통문양의 신도시 경관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 연구」, v.2(1), 한국공공디자인학회. pp.17-28; 장영창(2008),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미림(2009), “한국전통 꽃창살문 도자타일을 활용한 21C 주거공간 방향에 관한 연

장식과 색채의 적용대상 건축물을 주거 외 용도로 확장하는 연구, 건축의 내부공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승규(2013)의 「한옥형 호텔의 공간구성요소와 체류만족에 관한 실증분석: 경주 보문단지 내 '라궁(羅宮)'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김선영(2016)의 「사용자 중심의 한옥형 호텔 객실공간 실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영·장필구·이한형(2018)의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 - 근대기 왕실벽지를 통하여 본 실내공간의 색」이 있다.⁴⁹⁾ 한옥건축양식이 건축의 외관과 형태, 공간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내디자인과 장식의 적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지속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구체화 시 장식과 색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⑤ 맥락과 미학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서의 맥락과 미학은 서로 다른 계열의 키워드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여 하나의 분류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전통건축에 있어서 맥락 연구는 풍수·생태건축과 환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풍수와 생태건축은 한국건축의 미학적 요인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옥에서 생태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전통주거 분야이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전통주거를 한옥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전통주거는 전래되는 한옥을 통칭할 수 있는 개념어이다. 그러나 전통주거 연구의 대상이 특정 문화재 건조물이나 건조환경에 대한 미학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진 점, 주거형 한옥과 같은 일상적 건축에 대한 맥락과 미학적인 접근이 부족한 점은 현재 제도화된 한옥을 전통주거의 시각에서 연관 짓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핀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1·2·3」은 한옥에 대한 맥락과 같은 인문적 조건과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미학 용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연구이다.⁵⁰⁾ 이외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전

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p.247-257.

49) 박승규(2013), 「한옥형 호텔의 공간구성요소와 체류만족에 관한 실증분석: 경주 보문단지 내 '라궁(羅宮)'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선영(2016), 「사용자 중심의 한옥형 호텔 객실공간 실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영·장필구·이한형(2018),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 - 근대기 왕실벽지를 통하여 본 실내공간의 색」, 「디자인학연구」, v.31(4), 한국디자인학회. pp.171-186.

50) 이강민 외(2012),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현대 한옥미학의 기원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강민 외(2013),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2) 한옥의 세계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강민 외(2014),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3) 한옥의 자연관」, 건축도시공

통건축의 미학 분석을 위한 건축요소 분석이 주를 이룬다. 형태·장식·구조·공간·정서나 사상 등으로 미학요소를 세분화하거나 미학 개념의 전개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문화 속에서의 건축 미학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이 놓이는 위치나 장소는 많은 연구에서 풍수나 당대 사상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 관련 연구 31편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⁵¹⁾

맥락과 관련하여, 한국건축에서의 지역적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 흐름이 특징적이다. 2000년대 이전의 대표적인 연구는 천득엽(1998)의 “전남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계승 :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정재국(1999)의 “전통건축 -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⁵²⁾이 있다. 전통건축의 지역성을 발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활용이나 현대적 수용에 대한 연구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같은 연구 흐름이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된다. 서울 북촌, 서울 인사동, 경주, 제주 등이 주요 대상지다.

본 연구 부록 2)에 담긴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분에서 언급된 무장소성 극복을 위한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한 접근은 한옥건축양식과 관련한 연구의 흐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역주의 경향을 포함한 대표적인 연구는 송문희·성인수(1998)의 “지역주의 건축관으로 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신정훈(2000)의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승조(2000)의 “김중업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양상호·박순관(2009)의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 이송이(2012)의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2000년 이후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⁵³⁾

간연구소.

51) 부록 3) 참조

52) 천득엽(1998), “전남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계승 :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호남문화연구』, v.2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263-291; 정재국(1999), “전통건축 -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建築士』, v.1999(2), 대한건축사협회. pp.76-78.

53) 송문희·성인수(1998), “지역주의 건축관으로 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18(2), 대한건축학회. pp.623-238; 신정훈(2000),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승조(2000), “김중업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상호·박순관(2009),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 : 1950년대 이후의 흐름과 표현양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18(6), 한국건축역사학회. pp.7-22; 이송이(2012),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2000년 이후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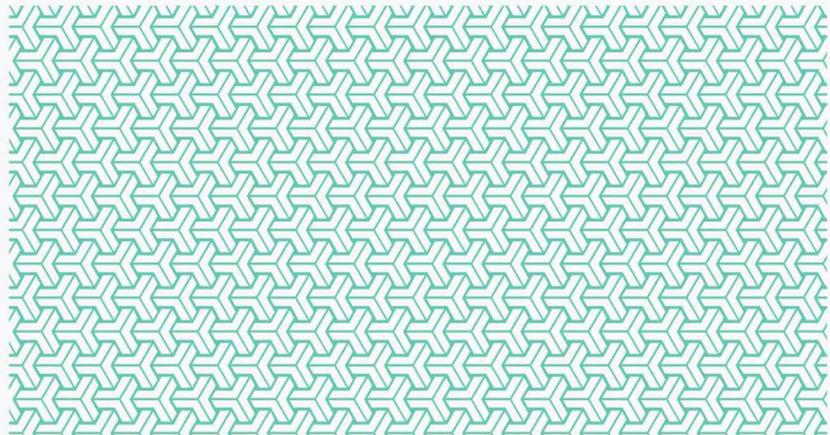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한옥건축양식 법제도와 정책사업 성과를 고찰하고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도상에서의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정의를 고찰하였다. '한옥건축양식' 용어가 처음 등장한 「한옥등건축자산법」과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고 있는 「고도육성법」의 두 법률에 대해 법제정 이유와 관련 조문을 검토한 후, 한옥건축양식이 제도화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 법제에는 건축자산을 보존·확산에 한계가 있었으며, 한옥이 포함된 건축자산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된 배경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한옥등건축자산법」과 「고도육성법」에 의거하여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정책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한옥건축양식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한옥건축양식'이 조례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84개 중 13건이 한옥건축양식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20개 시행규칙 중 서울특별시만이 '한옥건축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조례 및 시행규칙의 경우, 상위법인 「한옥등건축자산법」상 용어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도육성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한 건수는 아직까지 8건에 불과하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공의 지원성과가 미흡한 이유는 한옥건축양식 정의의 모호함, 구체적인 건축상(像)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지원기준의 불명확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과 연구사를 분석하여 한옥건축양식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배경을 검토하였다. '설계와 계획', '공간', '사조와 해석', '형태와 형식', '맥락과 미학'의 5가지 관점에서 연구흐름을 검토하여 추후 사례분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옥유형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이 위치할 수 있는 이론적 범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한옥유형은 범위와 대상 그리고 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재료, 구조, 기술, 형태"가 공통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정의하는 기준과 같다. 법적 정의를 토대로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는 한옥풍 건축을 중심으로 한류건축, 현대건축의 일부에 걸쳐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식도(그림 2-2)에서 유형과 유형이 서로 겹쳐있는 바와 같이, 현대한옥의 일부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한류건축 일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제3장 사례분석을 통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



1. 한옥건축양식의 사례수집
2. 수집사례 일반현황
3. 한옥건축양식의 유형화
4. 소결

1. 한옥건축양식의 사례수집

1) 수집 개요

앞서 2장에서는 법제도 및 정책성과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주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서 법적 정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한옥건축양식의 기준은 한옥의 형태, 구조, 재료, 기술의 4가지 관점에서 유연함을 갖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한옥건축양식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축물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갖는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위해 건축분야 실무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수집하였다.⁵⁴⁾ 전문가가 법률상 정의를 이해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2) 분류기준 설정

사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사례를 구분하기 위한 변수가 많으면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도도 높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변수를 모두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수로 모든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정보처리나 데이터마이닝 관점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설문을 위해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건축물 실내외관의 형태적 관점에서 '건축적 특성'과 '전통요소 인식'을 분류기준으로 두었다. 건축적 특성은 큰 틀에서 건축물의 형태를 구분하며, 전통요소의 인식정도는 동일한 유형 안에서 사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설문조사에 앞서 이 분류기준은 가능한 다양한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건축양식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자체적으로 수집한 후, 설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검증 하였다.⁵⁵⁾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으나, 현대적 설비를 반영한 건축물부터 현대건축물에 외관이나 실내에

54) 유명 건축가들에 의해 건축된 한옥건축양식 사례만 한정하면, 대형 공공 건축물이나 건축가의 작품색이 강한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도 균형있게 수집하였다.

55) 검증을 위한 사례는 전봉희·권용찬(2012)이 분류한 한옥의 다층적 존재양상의 모식도상 한옥건축양식의 범주가 현대건축 일부, 한옥풍건축, 한류건축 일부의 영역에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수집이 이루어졌다.

전통양식이 적용된 경우,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이 조합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유형분류를 위해 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분류기준에 있어 용어와 기준은 법률상 정의와 유형분류 기준 등 이론적 고찰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기준은 한옥건축양식과 한옥의 법적정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정의에 대한 조문을 보면, 한옥과 비교하여 한옥건축양식은 1차적으로 재료와 기술로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옥의 형태와 구조의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한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들이 한옥건축양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이에 한옥건축양식 사례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은 건축적 특성은 9가지, 그리고 전통요소의 식별정도는 12가지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9개의 건축적 특성은 다시 각 항목 안에 속해 있는 세부변수를 설정하여, 응답자가 세부변수들 조합을 통해 사례의 건축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⁵⁶⁾ 한편, 전통요소의 식별정도는 12개의 항목에 대해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통적 식별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⁵⁷⁾

56) 예를 들어, '구조'라는 항목 안에 목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석조 등의 변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 해당하는 세부변수를 선택하게 된다.

57) 예를 들어, '기둥' 항목에서 전통적 요소가 아주 많이 식별되면 5점, 아주 적으면 1점을 부여하게 된다.

[표 3-1] 한옥건축양식 분류체계

건축 개요	선택			
1) 형태	① 한옥 형태	② 비한옥 형태	③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형태	
	※ 목구조가 아니더라도, 주요 구조부 형태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을 모두 갖춘 경우 한옥을 선택하며, 이중 하나라도 식별이 되지 않으면 비한옥 ※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은 한옥과 현대건축이 명백히 구분되어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경우			
2) 한옥 비례	① 비례 준수	② 비례 미준수	③ 일부 준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 기둥·보 및 지붕형상 등의 요소간 관계에 있어서 한옥이 갖는 비례를 말함			
3) 척도	① 한옥 척도 (1칸 2~3m)	② 현대건축 척도 (대경간 적용)	③ 한옥+현대건축 복합 척도	
	※ 한옥(주거용)의 척도가 만들어 내는 인간적 스케일의 불륨감과 현대건축 구조기술에 의한 대형 불륨감을 구분			
4) 조합방식	① 한옥(하층)+비한옥(상층) 수직조합	②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③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④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평조합	
	⑤ 한옥 또는 비한옥 독립구성	⑥ 기타()		
※ 현대건축에 전통요소의 일부가 적용된 경우, 비한옥을 선택				
5) 구조	① 목조_가구	② 목조_귀틀(적층)	③ 목조_경량	④ 철근콘크리트_라멘
	⑤ 철근콘크리트_벽	⑥ 철골조	⑦ 석조_조적	⑧ 기타()
6) 외벽 주요 마감재	① 목재	② 석재	③ 철재	④ 유리
	⑤ 세멘트	⑥ 회벽 및 흙	⑦ 페인트	⑧ 기타()
	※ 외벽면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료를 선택			
7) 전통의장 적용방법	① 외관_재현	② 외관_응용	③ 외관_추상화	④ 외관기타()
	① 실내_재현	② 실내_응용	③ 실내_추상화	④ 실내기타()
	※ 재현은 한옥의 구조, 형태, 비례 등의 규범을 준수하고자 한 경우 ※ 응용은 복합구성 등 현대적 건축물에 전통요소가 적용된 경우 ※ 추상화는 실내외에 전통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 경우			
8) 기술	① 전통방식		② 현대기술	
	※ 공법, 설비, 재료 등에서 현대기술 반영 여부			
9) 부속 요소 (복수선택)	① 없음	② 담	③ 대문	④ 마당 및 정원
	⑤ 탑 및 누각	⑥ 문양	⑦ 기타()	

출처 : 연구진 작성

앞서 건축물 특성을 구분하는 분류기준은 큰 틀에서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함이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전통요소의 식별정도를 분류기준으로 두었다.

예를 들어 국립묘지 현충문과 윤봉길 기념관이 가지고 있는 전통요소의 정도는 단순 지붕의 형상과 서까래, 기와의 유무를 떠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5가지 척도를 두어 각 사례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1] 현충원 현충문

출처: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
(검색일: 2019년 10월 2일)

[그림 3-2] 윤봉길 기념관

출처: VISIT SEOUL, <http://korean.visitseoul.net/>
(검색일: 2019년 10월 2일)

[표 3-2]한옥건축양식 전통성 식별 정도

전통요소 식별정도	선택					
	① 미식별	② 거의 없음	③ 조금 있음	④ 중립	⑤ 다소 있음	⑥ 아주 많음
1) 기둥	①	②	③	④	⑤	⑥
2) 보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식지붕형상 ※ 서까래를 제외하고 한식지붕의 형상만 두고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⑥
4) 지붕_서까래 ※ 추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5) 지붕_기와재	①	②	③	④	⑤	⑥
6) 지붕_마루	①	②	③	④	⑤	⑥
7) 기단 ※ 현대건축물을 하층부에 두어 기단처럼 보이는 경우도 해당	①	②	③	④	⑤	⑥
8) 외벽_인방	①	②	③	④	⑤	⑥
9) 외벽_처마 (층간 분절요소) ※ 지붕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10) 외벽_창호	①	②	③	④	⑤	⑥
11) 외벽_문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 실내외 바닥재	①	②	③	④	⑤	⑥

출처 : 연구진 작성

3) 수집범위 및 방법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추천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설문시스템을 개발하여 건축분야 실무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례뿐 아니라,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폭넓은 관점에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관련 학회 및 협회의 협조를 얻어 각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글을 공고하였으며, 접속링크를 통해 온라인설문에 접속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6건의 사례가 수집되었다.⁵⁸⁾

[표 3-3] 한옥건축양식 온라인 설문개요

구분	내용
대상	건축분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
협조기관	한국건축역사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및 전국 지역건축사협회(17개 지역),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에 협조 요청하여 온라인 설문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방식	온라인 설문을 통한 지역 한옥건축양식 사례 추천
설문구성	사례 사진 업로드 후, 각 사례에 대한 '건축특성'과 '전통요소 인식정도'를 입력
링크	http://isurvey.panel.co.kr/?Alias=1724911405
설문기간	2019년 10월 18일 ~ 11월 17일

출처: 연구진 작성

58) 수집된 사례는 총 222건이나, 중복성 검토 및 신뢰성 검토를 통해 186건의 사례가 선별되었다.

제목	[건축계소식]건축공간연구소 AURI 「한옥건축양식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본회관리자 (kira)		
작성일	2019-10-18 16:49:10 (최종수정일 : 2019-10-22 12:58:39)	조회수	40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한옥센터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는 전국 건축 관계자분들을 통해 전국의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추천 받고자 합니다. 최소 5개에서 15개의 사례를 추천해주시고 건축물의 특성을 입력해주시면, 선착순 100분에 한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온라인 설문 링크 (아래 주소를 복사하여 접속해주세요) http://survey.panel.co.kr/?Alias=1724911405</p> <p style="text-align: center;">*본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조사기간: 2019년 10월 18일 ~ 11월 1일 o 연구진: 손동화 부연구위원, 김종범, 권영란 연구원 o 설문문의: 044-417-9867, ~9864, ~9678 (yrkwon@auri.re.kr)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194(어진동, 중앙타운), 7층 건축도시공간연구소</p>		

[그림 3-3] 건축사협회 게시판 공고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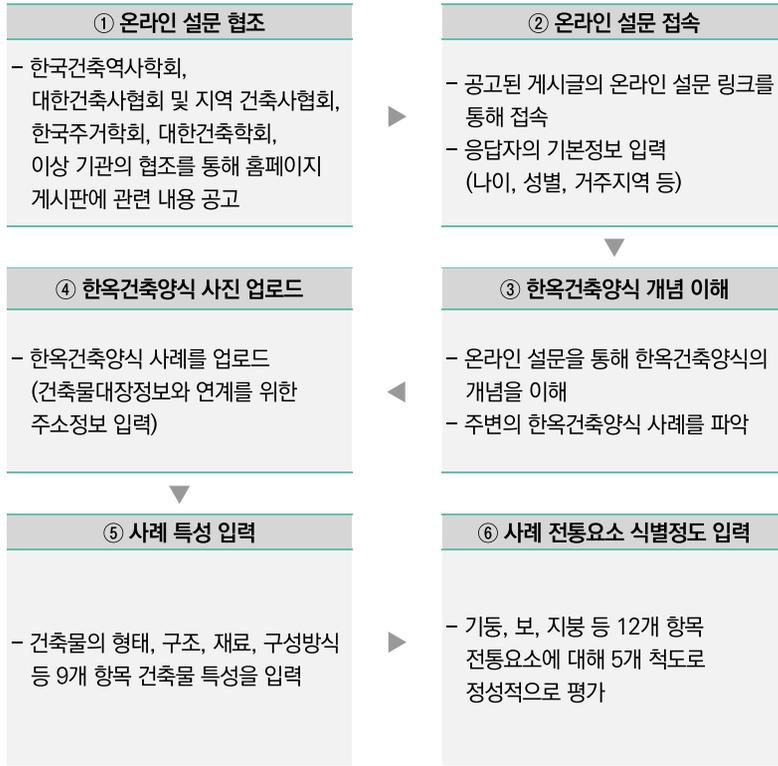
온라인 설문 진행절차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법적개념을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정보를 입력한 후, 사례에 대한 '건축특성'과 '전통요소 인식정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다음으로 설문의 취지와 한옥건축양식의 법적정의 그리고 6가지의 한옥건축양식 사례 예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⁵⁹⁾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응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옥건축양식 사례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며, 사례지의 주소를 웹상에서 입력하게 된다. 주소지 입력은 실제사례 검증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정보와 연계하기 위함이다.

기본정보와 사례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응답자가 입력한 사례에 대해 '건축물 특성'과 '전통요소의 식별정도'를 입력하게 된다. 분류기준에 의해 건축물의 실내 외 요소별 특징을 입력하고 전통요소가 식별되는 정도를 입력하게 된다.

59) 무성의한 응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약 5초의 시간을 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례입력은 설문 1회당 최소 1건부터 최대 15건 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1개의 사례에 대해 사례정보와 설문이 끝나면, 2번째 사례정보와 설문을 시작하게 된다.



[그림 3-4] 온라인 설문 구성

출처: 연구진 작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귀하가 알고 계신 한옥건축양식을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건축 관계자분들을 통해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추천 받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본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9년 10월 18일 ~ 11월 1일
- 연구진 : 손동화 부연구위원, 김종범, 권영란 연구원
- 설문문의 : 044-417-9867, ~9864, ~9678 (yrikwon@auri.re.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질재로 194(어진동, 중앙타운), 7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사 참여 방법 안내 ◀

추천해 주실 만한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지번주소)와 함께 특성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 본 조사는 현업에 계신 건축 관계자 분들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 최소 5건 이상의 사례를 올려 주셔야 하며, 최대 15건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최소 5건 이상의 사례를 올려 주신 분들은 1만원권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품권은 조사기간 종료 후 사례 검수과정을 마친 후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림 3-5] 온라인 설문 화면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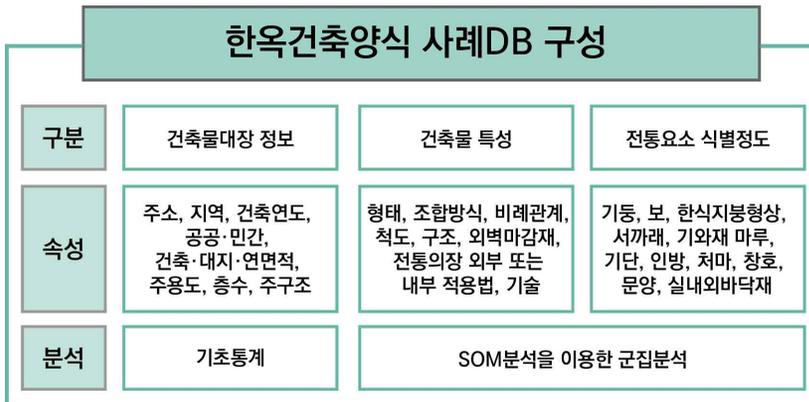
2. 수집사례 일반현황

1) 사례 DB 구축 개요

186개의 사례는 전문가에 의해 건축적 특징과 전통요소 식별정도가 기입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의 개수는 총 222개였으나, 중복사례와 신뢰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86개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 사례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여 건축대장정보와 연계하여 주소, 지역, 건축연도, 공공·민간, 건축 및 연면적, 주용도, 층수, 주구조 등 기본 건축정보를 사례 DB에 추가하였다.

사례 DB는 최종적으로 '건축대장정보', '건축물 특성', '전통요소 식별정도'의 3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옥건축양식 DB가 구성된다. '건축대장정보'는 기초통계를 통해 한옥건축양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건축물특성'과 '전통건축물 식별정도'에 한하여 유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3-6] 한옥건축양식 DB 구성

출처: 연구진 작성

사례 DB의 구성은 '건축대장정보', '건축물 특성', '전통요소 식별정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186개의 사례가 행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다. 아래 표는 DB구성 예시로 나타내기 위함으로 실제 DB의 행과 열이 바뀌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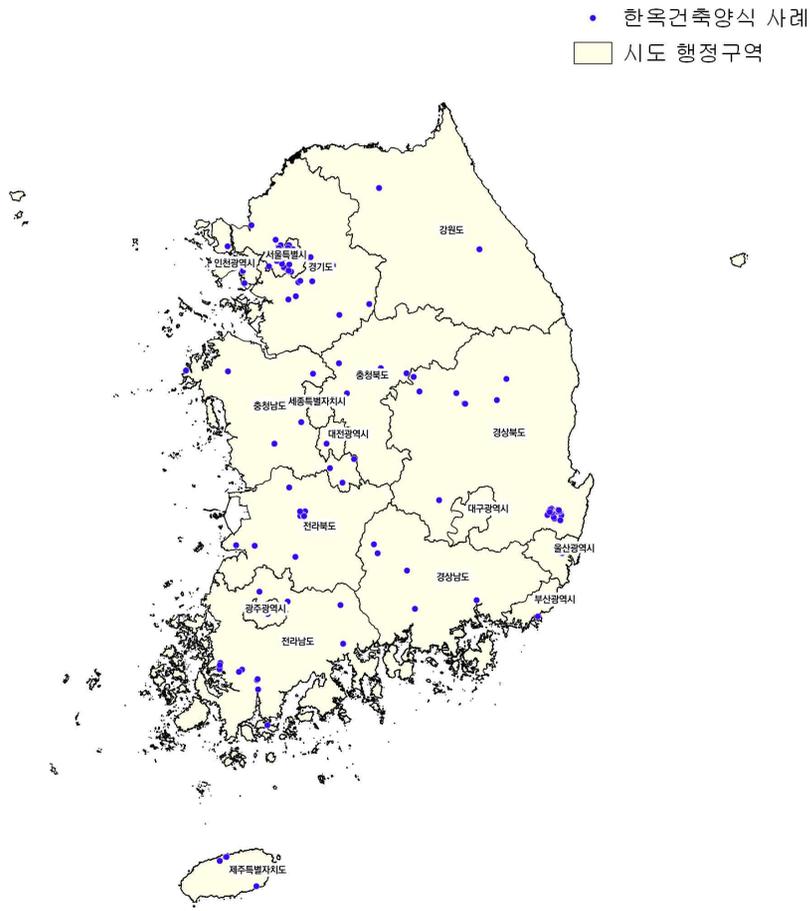
[표 3-4] 한옥건축양식 사례 분류체계

	스타벅스 대릉원점	청운 문학 도서관	...
1. 주소	경북 경주시 황남동 140-2	서울 종로구 청운동 4-20	...
2. 지역구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
3. 건축연도	1985	2014	...
4. 소유주	민간	공공	...
5. 대지면적	1,029㎡	1238.5㎡	...
6. 건축면적	506.74㎡	157.87㎡	...
7. 연면적	1013.48㎡	744.82㎡	...
8.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휴게음식점	...
9. 지상층수	1	1	...
10. 지하층수	1	1	...
1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12. 형태	한옥형태 단독구성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
13. 조합방식	한옥 또는 비한옥 독립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
14. 비례관계	비례 미준수	한옥부 비례준수	...
		비한옥부 비례미준수	...
15. 척도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한옥부 한옥 척도	...
		비한옥부 현대건축 척도	...
16.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	한옥부 목조(가구)	...
		비한옥부 석조(조적)	...
17. 외벽 마감재	세멘트	한옥부 목재	...
		비한옥부 석재	...
18. 전통의장 외관 적용법	응용	한옥부 재현	...
		비한옥부 응용	...
19. 전통의장 내부 적용법	기타	한옥부 기타	...
		비한옥부 기타	...
20. 기술	현대기술	한옥부 전통방식	...
		비한옥부 현대기술	...
21. 전통요소식별정도		5	...
(1) 기둥	3	5	...
(2) 보	3	5	...
(3) 한식지붕형상	5	5	...
(4) 서까래	5	5	...
(5) 기와재	5	5	...
(6) 마루	5	5	...
(7) 기단	1	5	...
(8) 인방	1	5	...
(9) 처마	0	0	...
(10) 창호	2	5	...
(11) 문양	1	1	...
(12) 실내외 바닥재	1	5	...

출처 : 연구진 작성

2) 수집사례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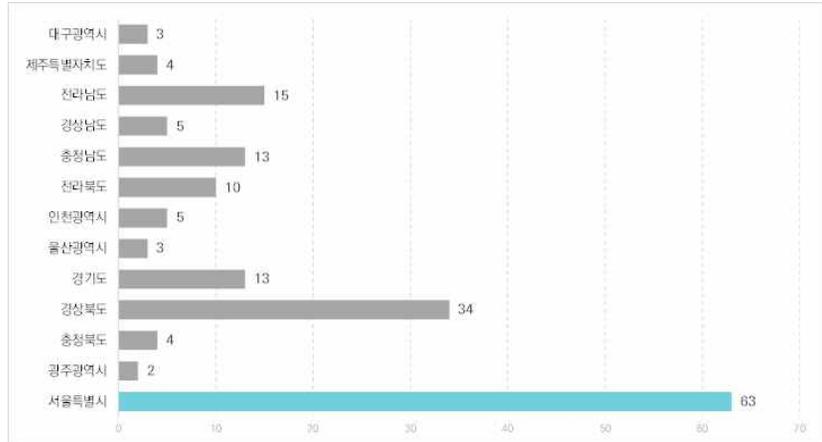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86개의 사례에 대해 용도·규모·구조 등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총 186개의 사례 중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과 같이 국외에 위치한 사례를 제외하고 한옥건축양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63건)와, 경상북도(34건, 이 중 경주시 25건)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나 인구 수 대비 경주시에 사례가 집중된 이유는 고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⁰⁾



[그림 3-7] 한옥건축양식 수집사례 전국 분포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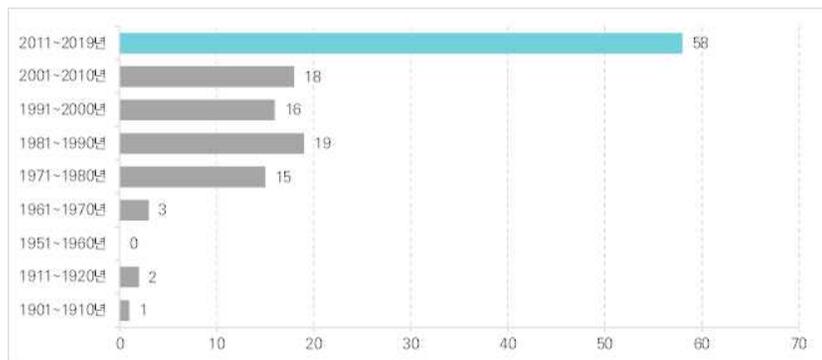
60) 분포지도는 전수조사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특정지역에 한옥건축양식이 많은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으나, 분포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8] 지역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건축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132개의 사례에 대해, 1901년부터 10년 단위로 건축 연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97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어진 한옥건축양식의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으며, 최근 10년 내(2011년부터 2019년까지) 지어진 한옥 건축양식 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다. 이 기간 내에 한옥건축양식 사례가 가장 많이 지어진 해는 2017년 11건이고, 2015년이 10건이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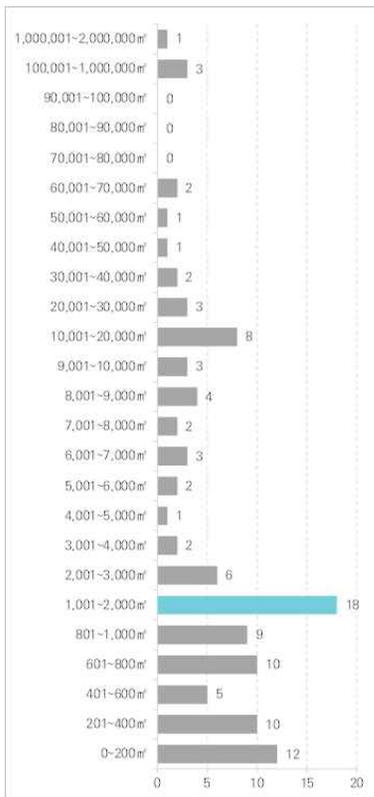


[그림 3-9] 건축연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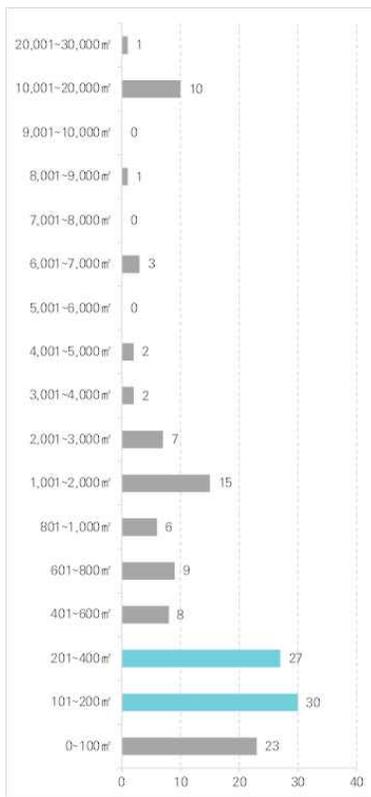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61) 「한옥등건축자산법」이 2015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한옥건축양식’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해당 연도에 건축된 사례는 ‘한옥건축양식’을 조례에 반영한 지자체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법률시행여부와 별개의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수집된 사례 중 대지면적 1,001㎡~2,000㎡인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으며, 건축면적·연면적은 101㎡~400㎡인 경우가 각각 건축면적 57건, 연면적 56건으로 가장 많다. 한옥의 평균면적이 1980년대에 82.4㎡, 2010년대 이후 109.9㎡임을 감안하면, 한옥 건축양식의 건축면적은 크게는 4배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⁶²⁾⁶³⁾ 또한 대지면적도 한옥의 평균이 소형(292.6㎡), 중형(365.3㎡), 대형(511.1㎡)임을 감안하면, 한옥건축양식의 대지면적이 큰 면적임을 알 수 있다.⁶⁴⁾ 이러한 점을 보아,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며, 구조적인 이점을 취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3-10] 대지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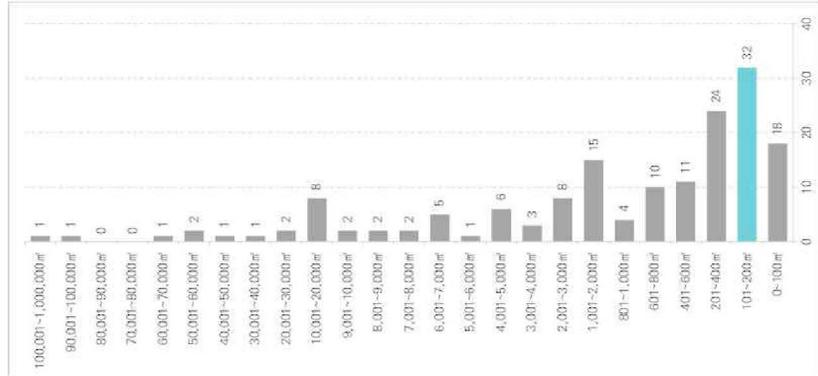


[그림 3-11] 건축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62) 국가한옥센터는 2015년 1월 기준, 전국 4,699호 한옥을 조사하였음

63) 국가한옥센터(2017), 「2017 한옥통계백서」,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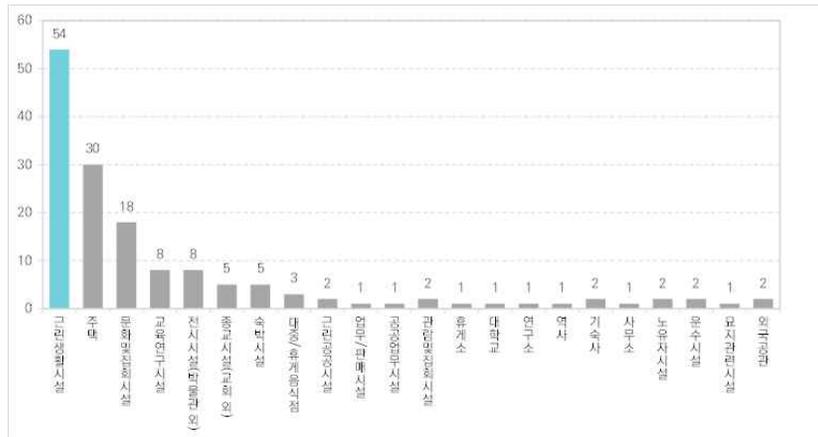
64) 국가한옥센터(2017), 「2017 한옥통계백서」,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72.



[그림 3-12] 연면적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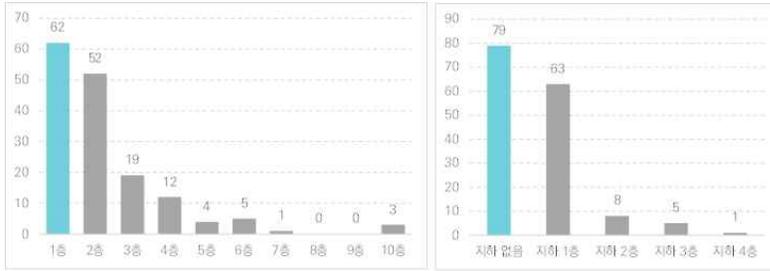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택 30건, 문화 및 집회시설 18건이다. 한옥의 경우 주택용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옥건축양식의 수는 근린생활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그림 3-13] 용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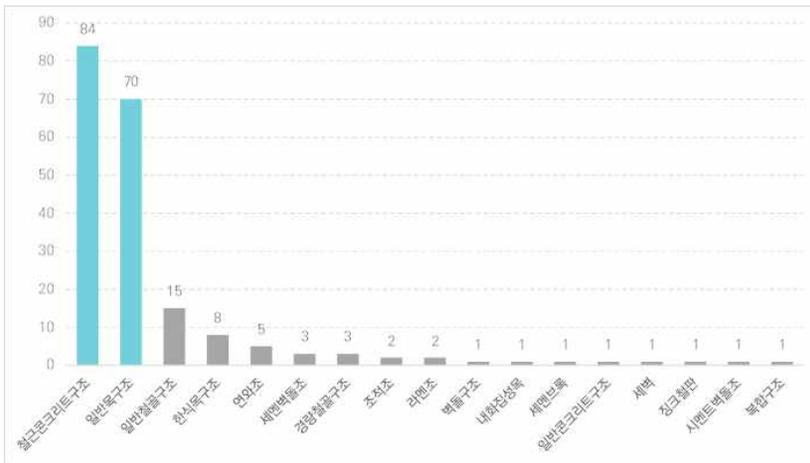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사례 186건 중 건축물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158건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지상 층수는 1층 61건, 2층 52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옥은 대부분 단층임을 고려하였을 때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가장 높은 층은 10층에 달한다. 지하 층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 156건 중 지하가 없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이 79건으로 가장 많지만, 한옥도 지하층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하 1층이 63건의 수치는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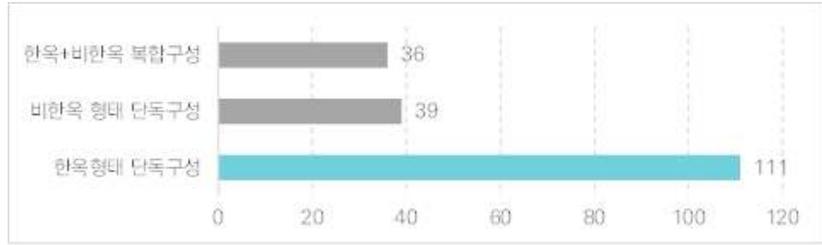
[그림 3-14] 층수별 한옥건축양식 수(좌: 지상 층수, 우: 지하 층수)
출처: 연구진 작성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한옥건축양식 사례가 84건으로 가장 많이 수집되었고, 다음으로 일반목구조가 7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식목구조인 경우는 총 8건이 수집되었다. 한옥이 목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비해 철골콘크리트 비중이 높은 점은 구조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일반 철골구조도 15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구조적 이점을 취하게 되면 용적률 확보에도 유리하다. 이는 앞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와도 연관이 있다.



[그림 3-15]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186개의 한옥건축양식 사례 중에서 형태는 한옥형태가 단독구성인 경우가 111건으로 가장 많으며,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39건,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36건으로 확인되었다.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36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옥+비한옥 수평조합이 10건, 한옥(하층)+비한옥(상층) 수직조합은 1건 수집되었다.⁶⁵⁾



[그림 3-16] 형태별 한옥건축양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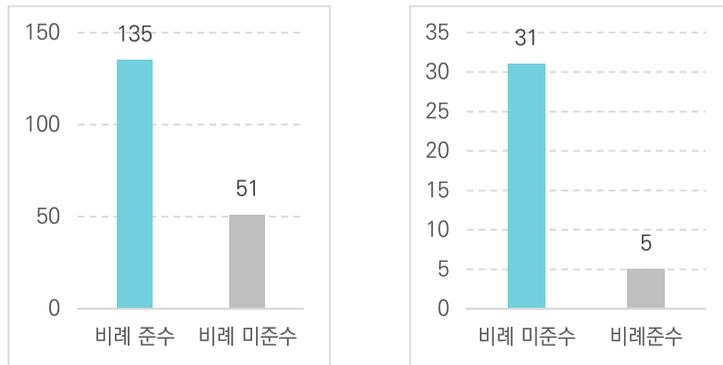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17]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형태별 한옥건축양식 수

출처: 연구진 작성

186건의 사례에서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에 대한 비례관계를 살펴보면, 186건 중 135건이 한옥형태의 비례를 준수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또한, '비한옥 부분'에 대한 비례관계는 36건 중 31건이 비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비례관계별 한옥건축양식 수

(좌: 전체 사례 한옥부분, 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65)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은 외관이 한식지붕, 기둥, 보 중 하나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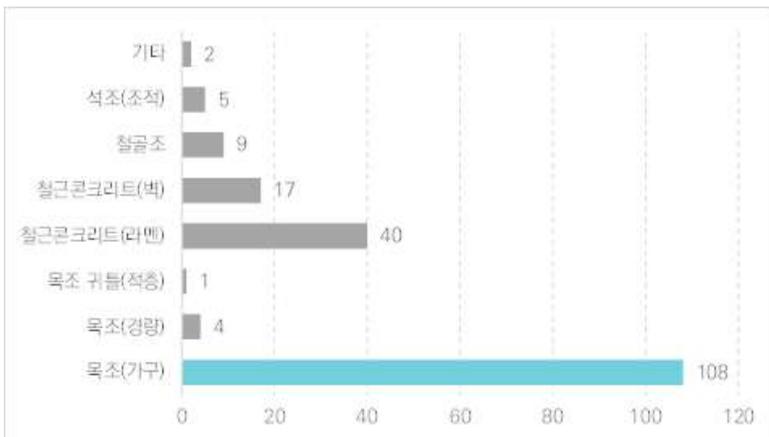
수집된 사례에서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에 대한 척도를 살펴보면, 186건 중 129건이 1칸에 2~3m인 한옥 척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부분'에 대한 척도는 반대로 36건 중 29건이 현대건축의 척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척도별 한옥건축양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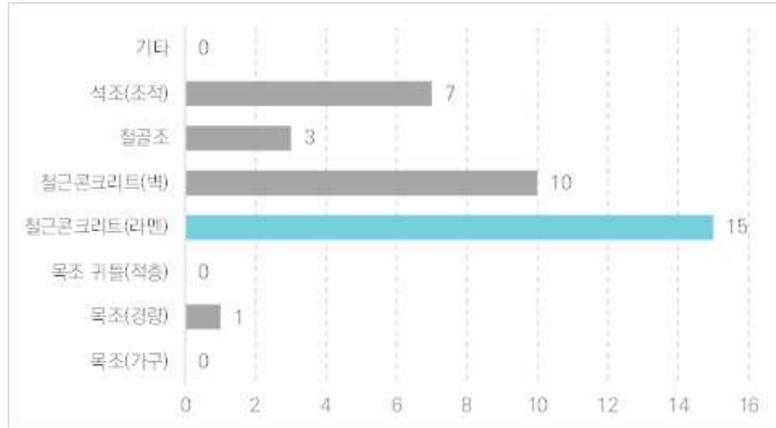
(좌: 전체 사례 한옥부분, 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 186건 중 108건이 가구식 목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부분에 대한 구조는 36건 중 15건이 라멘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나타났다. 한옥의 척도와 마찬가지로 한옥부는 목조(가구)를 사용하게 되면, 기둥 경간도 2~3m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복합구성의 경우, 비목조 구조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아 현대건축과 한옥의 이질적인 건축물이 결합된 형태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3-20]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전체 사례 한옥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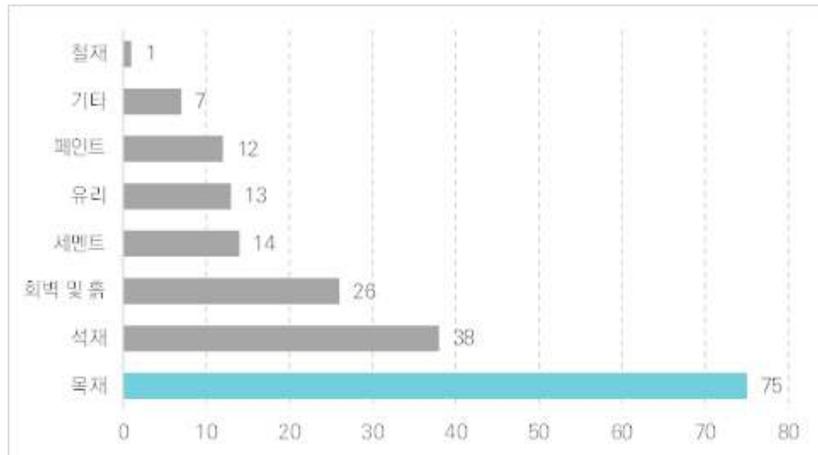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21] 구조별 한옥건축양식 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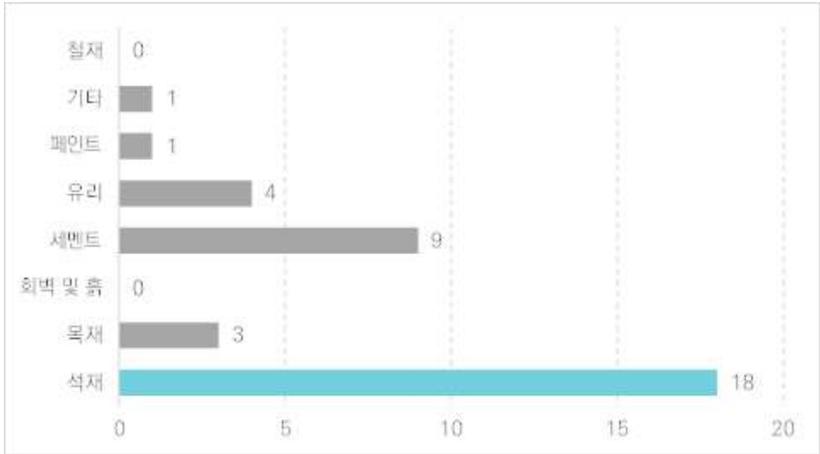
수집된 186건의 사례에서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 구성에서 ‘한옥부분’에 대한 외벽 재료를 살펴보면, 186건 중 75건이 목재 외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석재 외벽의 한옥건축양식이 38건, 회벽 및 흙을 사용한 외벽이 26건으로 많았다.



[그림 3-22] 외벽 재료별 한옥건축양식 수 (전체 사례 한옥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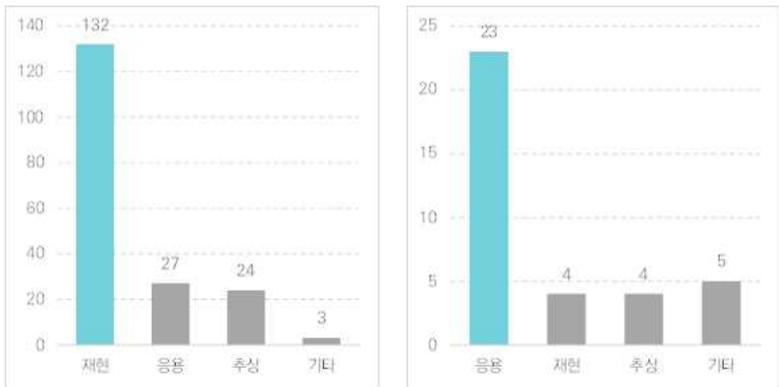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부분’에 대한 외벽 재료는 석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멘트 외벽이 9건이다. 외벽재료를 통해서도 한옥부와 비한옥부가 이질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3] 외벽 재료별 한옥건축양식 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에 전통 의장 외관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186건 중 132건이 ‘재현’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의 외관을 그대로 살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외관에 전통의장 적용방법은 36건 중 23건이 현대적인 건축물에 전통요소를 적용한 ‘응용’의 방식을 사용하였다.⁶⁶⁾ 비한옥부의 구조와 외벽재료, 그리고 척도가 현대건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현대건축물 외관에 전통요소를 일부 반영하여 두 건축물 간에 이질감을 줄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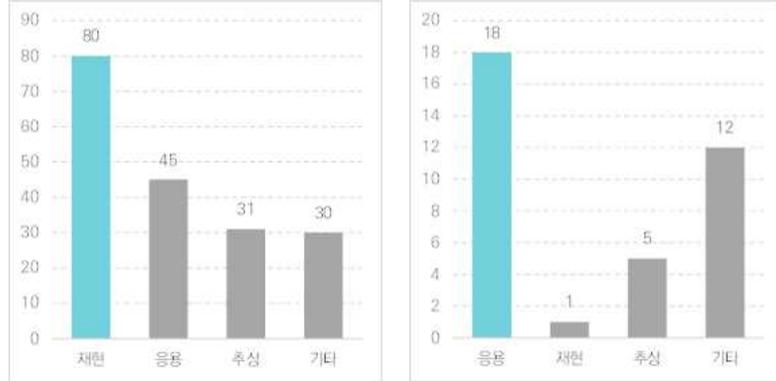


[그림 3-24] 전통의장 외관 적용별 한옥건축양식 수

(좌: 전체 사례 한옥부분, 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66) 재현은 한옥의 구조, 형태, 비례 등의 규범을 준수하고자 한 경우, 응용은 복합구성 등 현대적 건축물에 전통요소가 적용된 경우, 추상화는 실내외에 전통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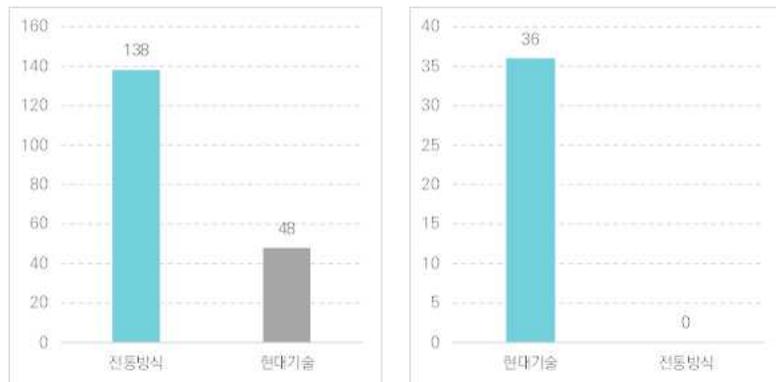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 내부의 전통의장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186건 중 80건이 '재현'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45건이 '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내부의 전통의장은 36건 중 18건이 '응용'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외관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전통성을 드러내고자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5] 전통의장 내부 적용별 한옥건축양식 수

(좌: 전체 사례 한옥부분, 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총 108개의 사례에서 한옥건축양식 단독구성 건축물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에서 '한옥부분'에 적용된 건축 기술을 살펴보면, 186건 중 138건이 '전통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타났으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건축물 중 비한옥 부분은 36건 모두 '현대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적용 기술별 한옥건축양식 수

(좌: 전체 사례 한옥부분, 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중 비한옥 부분) 출처: 연구진 작성

3. 한옥건축양식의 유형화

1) 군집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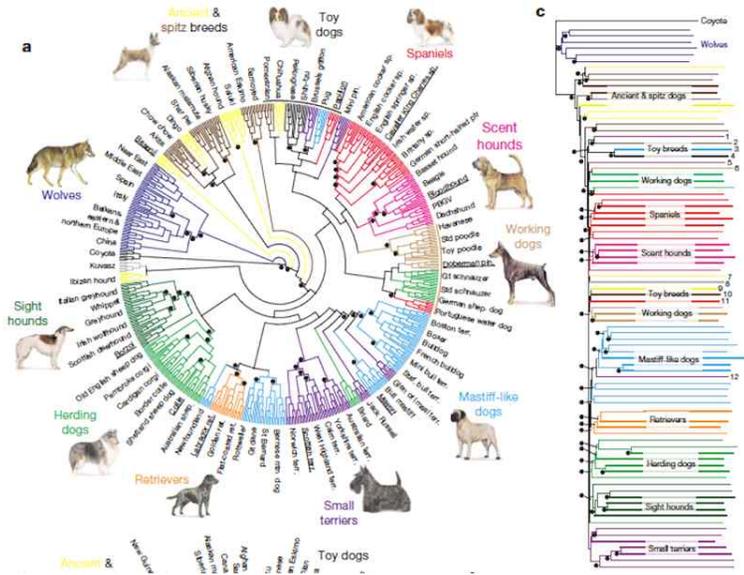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옥건축양식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상 기준을 충족한 ‘한옥건축양식’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 또한 형태, 구조, 재료, 기술적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함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하나의 건축상(像)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 고찰에서 다룬 모식도(그림 2-2)와 같이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많은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사례에서 나타난 특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례끼리 분류하여 유형을 정의한다. 그러나 기존 유형분류 연구는 대부분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기준이 상이하да보니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한계가 있었다.⁶⁷⁾ 이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량적으로 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군집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군집분석에 대한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과(Canidae) 계통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계통도는 DNA에서 나타난 개과 동물의 유전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계통도 가운데 점은 개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줄기로부터 여러 갈래로 나뉘어 여러 종으로 구분되는 계통도(Dendrogram)이다. ‘개과’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 가장 먼저, 코요테가 갈라지고 다음으로 늑대가 갈라진 후, 여러 애완견에 이르기까지 갈래가 세분화됨을 나타내고 있다.⁶⁸⁾ 이처럼 유전적으로 유사한 속성의 종은 동일한 그룹이 되고 세부적으로 개개의 종이 구분되고 있다. 빨간색 유형으로 구분된 스페니얼(Spaniel)은 세부적으로 아메리칸 코카 스페니얼, 잉글리시 코카 스페니얼 등으로 구분되며, 이 종들은 동일한 갈래(유형)안에 서로 인접해 있다. 속성이 비슷할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갈래가 이루어지며, 유사하지 않을수록 갈래는 멀어진다. 이 갈래의 거리를 통해 유형 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의 개수를 정할 수 있다.⁶⁹⁾

67)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옥유형 구분도 연구자 관점에 따라 유형과 용어가 다르다.

68) The Institute of Canine Biology, <https://www.instituteofcaninebiology.org/how-to-read-a-dendrogram.html> (검색일 2019.12.4.)



[그림 3-27] 개과 계통도

출처 : The Institute of Canine Biology, <https://www.instituteofcaninebiology.org/how-to-read-a-dendrogram.html> (검색일 2019.12.4.)

그러나 군집분석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목적과 데이터 구성에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분석은 차원을 감소시키며 최적 군집을 발견하고, K-means 군집분석은 초기부터 군집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 값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들 군집분석은 다차원 데이터에 대한 요약분석은 가능, 차원축소에 의한 결과 값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이마저 선형(Linear)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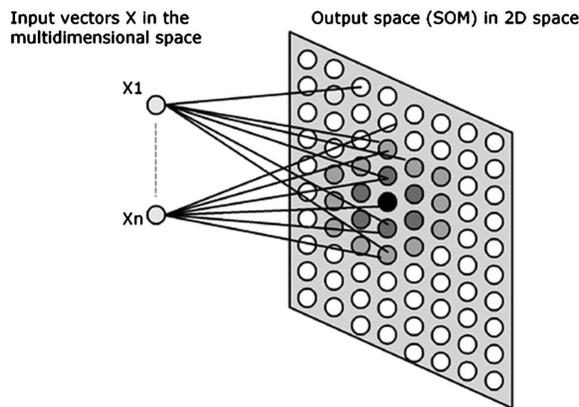
한옥건축양식 사례에 대한 DB는 비선형 (Non-linear) 다변량 데이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의 차원축소 없이 위계를 보존하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M(Self Organizing Map)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SOM은 Teuvo Kohonen에 의해 고안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의 인공신경망 분석법으로 데이터의 차원감소 없이 비선형사영에 의한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방법론이다.⁷⁰⁾

69) 이 계통도를 통해, 수 많은 품종의 동물들을 11개의 유형구분을 통해 전체 개과를 파악할 수 있다.

70) Han, J., Kamber, M., Pei, J. (2015).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Third Edition (The Morgan Kaufmann Series in Data Management Systems), Morgan Kaufmann; 3 edition.

이러한 장점으로 다변량 데이터를 다루는 의학, 생물, 데이터사이언스 분야를 중심으로 SOM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IT,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관심증대로 활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SOM은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구성된 단층 신경망이다.⁷¹⁾ 2차원 형태의 출력층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노드마다 가중치 벡터 값을 가지고 있어 인접한 노드는 유사한 값이 위치하게 되는 자기조직화 특성을 갖게 된다.⁷²⁾ 이처럼 유사한 속성끼리 서로 군집되는 특성을 통해 군집분석이 이루어지며, 다변량 변수의 위계가 보존되어 있어 특정 변수가 각 군집에 기여하는 정도 (Contribution Degree)와 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파악할 수 있다.⁷³⁾



[그림 3-28] SOM의 기본 개념

출처 : Koua, E. L. and Kraak, M. J. (2004), Geo-visualization to support the exploration of large health and demographic survey data, *Health Geographics*, 3(1).

수집된 한옥건축양식 사례는 SOM을 통해 군집분석이 이루어진다. 사례를 나타내는 특징은 유전자 정보와 같이 다루어, 여러 변수에 의해 구분된 한옥건축양식 사례 DB로써 기록된다. DB에 기록된 사례는 다변량 변수의 특징을 토대로 군집 분석이 이루어져, 상호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례끼리 묶이게 되며, 성격이 다른 유형은 서로 먼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통도가 생성되는데 계통도를 통해 전체 사례를 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의 수를 선택하게 된다.⁷⁴⁾

71) 신경망의 종류는 다양하며,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은닉층의 개수와 연결관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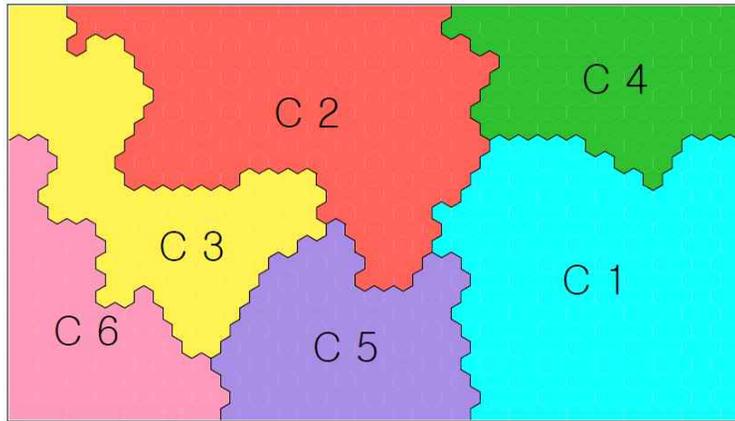
72) Kohonen, T.(2001), "Self-Organizing Maps, Springer Series in Information", *Sciences*, 30(Springer).

73) 손동화(2018), 「전통 도시가로 경관구성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 북촌지역 한옥입면과 가로요소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4) 계통도에서 나타나는 갈래위치에 따라 유형개수는 1개에서 전체 사례 개수만큼 다양

2) 유형분류 결과

수집된 186개의 사례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최적의 군집을 도출하였다.⁷⁵⁾ SOM 분석을 통해 생성한 U-Matrix 지도는 6개의 유형으로 나뉜 군집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군집영역의 면적 크기는 사례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U-Matrix에서 나타난 각 유형의 면적 크기 및 영역 간 거리를 통해 최적의 유형 개수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유형 간 인접할수록 속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사례는 아래 유형 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영역 중간에 위치하는 사례일수록 각 유형의 평균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9] SOM 군집분석 결과 (U-Matrix)

출처: 연구진 작성

186개의 사례 중, 유형 1(48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 1 다음으로 유형 2(35개), 유형 4(32개), 유형 6(28개)이 비슷한 규모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유형 3(23개), 유형 5(20개)가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⁷⁶⁾

[표 3-5] 유형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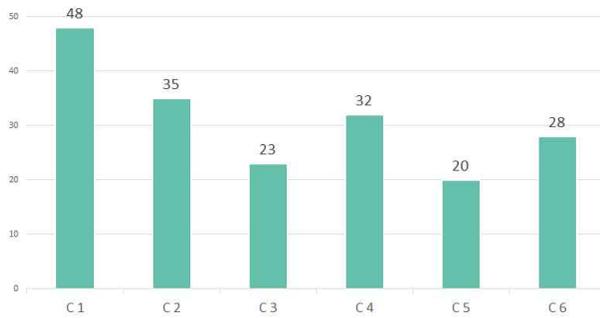
Cluster	C 1	C 2	C 3	C 4	C 5	C 6
개수	48	35	23	32	20	28
비율	25.81%	18.82%	12.37%	17.20%	10.75%	15.05%

출처: 연구진 작성

하게 나타날 수 있다.

75) 유형의 개수구분은 갈래의 큰 줄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각 군집유형이 차지하는 면적이 최대한 균일하게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야한다. 6개의 유형은 5개 또는 7개와 비교하여 6개의 군집이 최적의 유형임을 판단하였다.

76) U-Matrix에서 기재되어 있는 C는 Cluster의 약어로 이하 유형으로 표기



[그림 3-30] 유형별 사례개수

출처 : 연구진 작성

3) 유형별 일반특성

186개의 한옥건축양식 사례 DB를 유형별로 검토하면, 유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C1유형이 공공 건축물보다 민간 건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에 건축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유형별 공공 민간 구분 건수

구분	공공	민간	총합계
C1	13	31	44
C2	10	20	30
C3	7	13	20
C4	9	18	27
C5	11	7	18
C6	14	8	22
총합계	64	97	161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7] 유형별 건축연도 건수

구분	50년대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합계
C1	2	0	1	2	4	4	23	36
C2	1	1	0	1	5	2	18	28
C3	1	1	2	5	0	5	5	19
C4	5	1	2	2	3	4	7	24
C5	0	0	5	3	2	3	4	17
C6	0	2	5	4	4	1	6	22
총합계	9	5	15	17	18	19	63	146

출처 : 연구진 작성

대지면적은 C1, C2 유형에서 200㎡ 이하, 200~400㎡ 범위의 대지면적에 분포해 있으며, 4,000㎡ 이상은 전체 유형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건축면적은 C1이 0~400㎡ 이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C2, C4 유형은 101~400㎡ 범위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 연면적도 대지면적, 건축면적과 비슷하게 C1이 0~400㎡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C6가 5,000㎡ 이상에서 11건 정도 분포되어 있다.

[표 3-8] 유형별 대지면적 범주 건수 (단위: ㎡)

구분	0~200	201~400	401~600	601~800	801~1,000	1,001~2,000	2,001~3,000	3,001~4,000	4,000 이상
C1	6	4	2	4	3	4	0	1	7
C2	3	4	0	3	2	2	1	0	7
C3	0	1	0	0	2	4	0	0	5
C4	2	0	2	2	1	4	1	0	5
C5	1	1	1	0	1	1	2	1	4
C6	0	0	0	1	0	3	2	0	8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9] 유형별 건축면적 범주 건수 (단위: ㎡)

구분	0~100	101~200	201~400	401~600	601~800	801~1,000	1,0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 이상	총합
C1	13	5	10	2	5	0	2	1	1	0	1	40
C2	5	7	6	0	1	0	3	2	0	0	4	28
C3	1	5	1	1	0	1	4	1	0	1	2	17
C4	4	8	4	2	0	2	2	0	0	0	1	23
C5	0	4	4	2	1	0	2	1	0	0	2	16
C6	0	1	2	1	2	3	2	2	1	1	6	21
총합	23	30	27	8	9	6	15	7	2	2	16	145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0] 유형별 연면적 범주 건수 (단위: ㎡)

구분	0~100	101~200	201~400	401~600	601~800	801~1,000	1,0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 이상	총합
C1	8	11	9	4	3	0	4	2	0	1	2	44
C2	4	5	3	3	3	0	1	0	1	1	8	29
C3	1	4	3	1	0	1	1	1	2	2	4	20
C4	3	8	5	3	1	2	2	2	0	0	1	27
C5	2	3	2	0	2	0	3	2	0	1	3	18
C6	0	1	2	0	1	1	4	1	0	1	11	22
총합	18	32	24	11	10	4	15	8	3	6	29	160

출처 : 연구진 작성

건축물 층수는 C1, C2, C4가 1~2층 내외의 건축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하층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대부분 지하층을 두지 않거나, 마련하는 경우에도 C1, C2에서 지하 1층까지만 마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1] 유형별 층수 건수

구분	1	2	3	4	5	6	7	10	총합계
C1	22	19	2	1	0	0	0	0	44
C2	7	12	2	4	1	1	1	1	29
C3	6	3	6	1	1	1	0	2	20
C4	14	9	3	1	0	0	0	0	27
C5	7	4	3	3	1	0	0	0	18
C6	6	6	4	2	1	3	0	0	22
총합계	62	53	20	12	4	5	1	3	160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2] 유형별 지하 층수 건수

구분	없음	1	2	3	4	총합계
C1	24	16	1	0	0	41
C2	14	12	1	1	1	29
C3	9	8	3	0	0	20
C4	19	8	0	0	0	27
C5	8	9	1	0	0	18
C6	5	10	2	4	0	21
총합계	79	63	8	5	1	156

출처 : 연구진 작성

유형별 건축물 형태는 C1, C4, C5 전부 한옥 건축물을 단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통건축의 척도와 비례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동일하게 2-3m 경간의 한옥척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한옥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3, C6는 비한옥 형태의 단독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례 또는 척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유형 모두 한옥의 비례는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C6은 모두 현대건축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현대건축물에 전통 요소가 차용된 건축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C2는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옥부의 비례와 척도는 전통건축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비한옥부는 전통건축의 비례나 척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하층부에 현대건축물이 놓여있고 상층부에 한옥이 놓인 하이브리드 한옥유형임을 알 수 있다.

[표 3-13] 유형별 형태

구분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한옥(하층)+비한옥(상층) 수직조합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한옥형태 단독구성	총합계
C1	-	-	-	-	48	48
C2	2	22	1	10		35
C3	11	3	-	-	9	23
C4	-	-	-	-	32	32
C5	-	-	-	-	20	20
C6	26	-	-	-	2	28
총합계	39	25	1	10	111	186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4] 유형별 부위별 비례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비한옥부			비한옥부		
	비례 미준수	비례준수	총합계	비례 미준수	비례준수	총합계
C1		48	48			
C2		35	35	28	5	33
C3	23		23	3		3
C4		32	32			
C5		20	20			
C6	28		28			
총합계	51	135	186	31	5	36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5] 유형별 척도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비한옥부			비한옥부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 (대경간적용)	총합계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 (대경간적용)	총합계
C1	48		48			
C2	34	1	35	7	26	33
C3	2	21	23		3	3
C4	32		32			
C5	13	7	20			
C6		28	28			
총합계	129	57	186	7	29	36

출처 : 연구진 작성

단독 한옥건축물인 C1, C4는 목조를 구조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C5은 목조보다 콘크리트를 구조재로 사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한옥인 C2는 한옥부는 목조가 많지만, 비한옥부는 철근콘크리트, 석조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한옥 형태인 C3, C6은 구조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벽마감재도 주구조재의 재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목조구조가 많은 C1, C2(한옥부), C4는 목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콘크리트구조인 C2(비한옥부)와 C5은 구조체 위에 페인트마감을 하고 있다. 비한옥 형태인 C6은 석재마감이 많다.

[표 3-16] 유형별 구조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기타	목조 가구	목조 경량	목조 귀틀 적층	석조 조적	철골 조	철근 콘크 리트 라멘	철근 콘크 리트 벽	총합 계							
										목조 경량	석조 조적	철골 조	철근 콘크 리트 라멘	철근 콘크 리트 벽	총합 계	
C1		42	3		1	1	1		48							
C2		28				3	2	2	35	1	7	2	14	9	33	
C3		3				4	9	7	23			1	1	1	3	
C4		29		1	2				32							
C5	2					1	16	1	20							
C6		6	1		2		12	7	28							
합계	2	108	4	1	5	9	40	17	186	1	7	3	15	10	36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7] 유형별 외벽 마감재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기타	목재	석재	세멘 트	유리	철재	페인 트	회벽 및 흙	총합 계							
										기타	목재	석재	세멘 트	유리	페인 트	총합 계
C1	1	22	7		6		1	11	48							
C2	1	25	3	1	2			3	35	1	3	18	7	3	1	33
C3		2	10	6	3		1	1	23				2	1		3
C4	2	19			1			10	32							
C5	2		1	5	1	1	9	1	20							
C6	1	7	17	2			1		28							
합계	7	75	38	14	13	1	12	26	186	1	3	18	9	4	1	36

출처 : 연구진 작성

건축물에서 전통의장의 적용은 실내와 실외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외관에 전통의장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단독 한옥건축물인 C1, C2(한옥부), C4, C5는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C3은 건축물에 전통요소를 '응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한옥인 C2의 한옥부는 그대로 한옥을 재현하고자 하였지만, 비한옥부에는 비한옥인 C3와 같이, 전통요소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외관을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경우, 실내도 전통의장을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그 외의 경우는 전통의장이 적용되지 않거나 응용되는 경우가 많다.

[표 3-18] 유형별 전통의장 외관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기타	응용	재현	추상	총합계	기타	응용	재현	추상	총합계
C1			48		48					
C2			35		35	5	20	4	4	33
C3		23			23		3			3
C4		1	31		32					
C5	1	1	18		20					
C6	2	2		24	28					
총합계	3	27	132	24	186	5	23	4	4	36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19] 유형별 전통의장 실내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기타	응용	재현	추상	총합계	기타	응용	재현	추상	총합계
C1	10	14	19	5	48					
C2	5	6	24		35	10	17	1	5	33
C3	9	14			23	2	1			3
C4	3	6	23		32					
C5	2	5	13		20					
C6	1		1	26	28					
총합계	30	45	80	31	186	12	18	1	5	36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3-20] 유형별 기술 적용 (복합건축인 경우, 右 비한옥부)

구분	전통 방식	현대 기술	총합계	구분	전통 방식	현대 기술	총합계
C1		48	48	C1			
C2	16	19	35	C2		33	33
C3		23	23	C3		3	3
C4	32		32	C4			
C5		20	20	C5			
C6		28	28	C6			
총합계	48	138	186	총합계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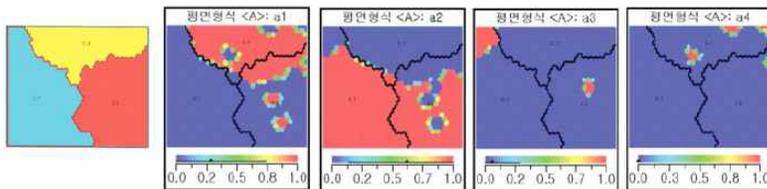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4) 유형별 세부 특성

앞서 한옥건축양식 사례 DB에 대해 유형별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에 있어 군집에 기여한 세부변수와 유형별로 분포하고 있는 변수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군집분석을 통해 생성된 U-Matrix에는 6개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하나의 유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영역은 면적 크기에 비례하여 186개의 사례가 고정된 위치에서 분포하고 있다. 한편, 각 사례의 특성을 구분한 세부변수는 사례의 위치와는 별개로 전체 군집영역에서 자유롭게 분포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례는 하나의 유형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부 변수는 전체 영역에 모두 걸쳐 있을 수도 특정 유형에만 집중되어 분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부변수의 특성은 Plane 지도를 통해 나타나며, U-Matrix 지도와 관계를 가지며 해석될 수 있다.

전체 유형(U-Matrix)과 세부변수(Plane 지도)의 관계를 아래 그림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의 유형 영역과 비슷한 영역에 분포한 변수는 그 유형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변수이다. 예를 들어, 평면형식 a1이 유형 3에만 나타났다면, 군집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평면형식 a2가 유형 1과 2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a2가 유형1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 어렵다.⁷⁷⁾



[그림 3-31] U-Matrix 지도와 Plane 지도의 관계

출처 : 손동화(2018), 「전통 도시가로 경관구성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 북촌지역 한옥입면과 가로요소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따라서 유형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영역에만 걸쳐 있는 변수를 파악해야 한다. 그 변수가 유형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도가 높은 변수이자 유형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해당 유형에 가장 기여하는 변수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좌측은 기여하지 않은 정도, 우측은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유형별 프로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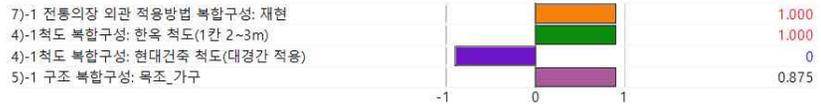
77) 손동화(2018), 「전통 도시가로 경관구성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 북촌지역 한옥입면과 가로요소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은 변수가 해당 군집영역에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유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유형 1 - 현대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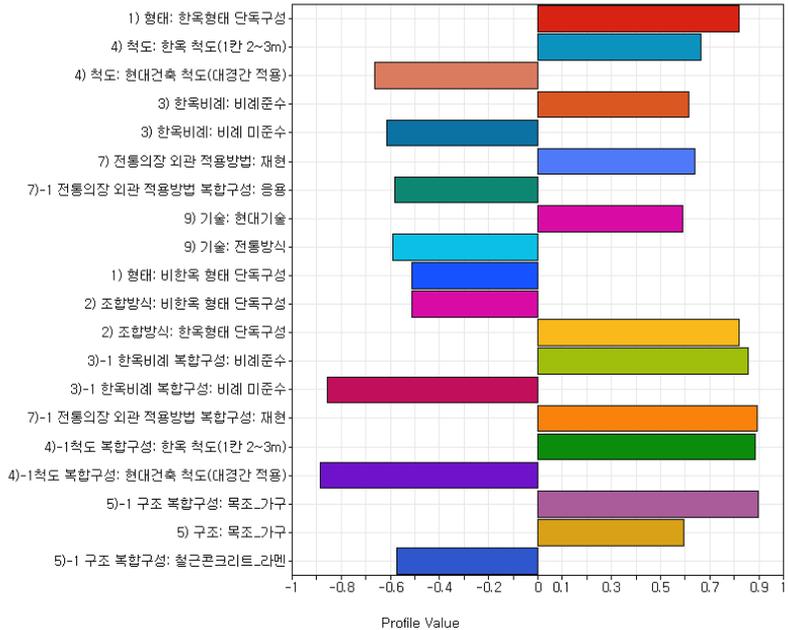
유형 1은 목구조에 보, 기둥, 한식지붕틀을 갖춘 현대한옥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옥의 척도와 한옥형태 재현, 그리고 가구식 목조구조의 변수가 유형 1 군집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출현정도를 확인해보면, 목구조에 비해, 척도를 준수한 전통적 한옥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변수가 나타난다.

C 1



[그림 3-32] 유형 1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3-33] 유형 1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유형1의 사례는 앞서 전봉희·권용찬(2012)이 분류한 모식도상 ‘현대한옥’ 정의와 같이, 지붕, 기단, 벽체에서 전통적 형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유형 1로 대표될 수 있는 사례는 캐틀앤비 황남관점, 카페베네 울산성안점, 안국동 어니언 카페, 목경헌, 화경당 등을 들 수 있다.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어, 구조와 외관 형태가 한옥과 같으나, 현대식 마감, 기술 및 설비가 반영된 사례이다. 신한옥으로 개발된 화경당은 목구조에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단열재나 외장재 등 현대적인 재료와 설비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한옥건축양식이 신한옥의 범주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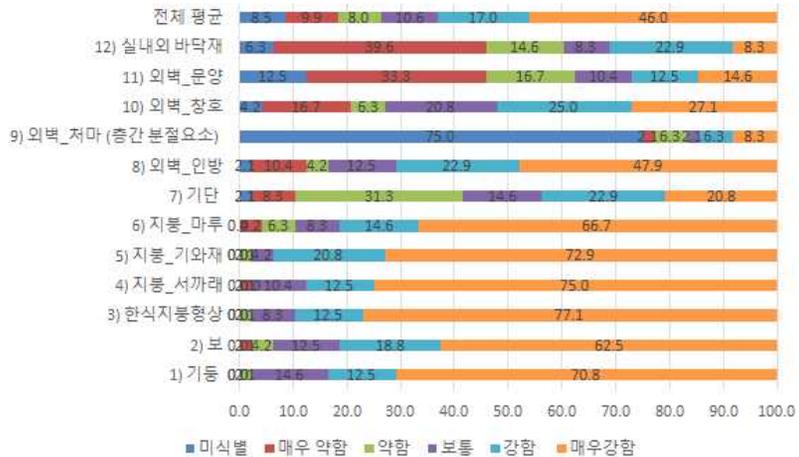


[그림 3-34] 유형 1 대표사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캐틀앤비 황남관점, 카페베네 울산성안점, 안국동 어니언 카페, 목경헌, 은평한옥마을 시범한옥 화경당)

출처(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funky6782/>;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4021116130174075>;
 블루리본 서베이, <https://www.bluer.co.kr/magazine/modal/106G>;
 행복이 가득한 집 매거진,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사이트, <http://m.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유형 1 안에서도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검토해보면, 한옥의 형태를 재현한 유형의 특성상 전통요소의 식별정도가 대체적으로 강한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내의 바닥재나 문양은 전통적 식별도가 적고, 주로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 특성상 층간 분절요소인 외벽처마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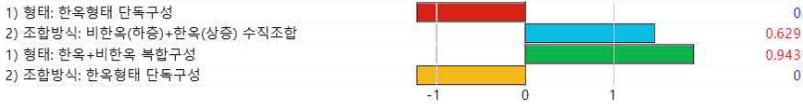
[그림 3-35] 유형 1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유형 2 - 하이브리드 한옥

유형 2는 한옥과 비한옥이 하나의 건축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한옥’이다. ‘한옥과 비한옥의 복합구성’과 ‘수직조합’의 변수는 유형2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수를 통해 유형2가 수직조합의 한옥과 비한옥의 복합건축물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직조합’ 변수의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유형 2에 수직조합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직조합’ 변수의 기여도는 0.629 정도로 완전성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평조합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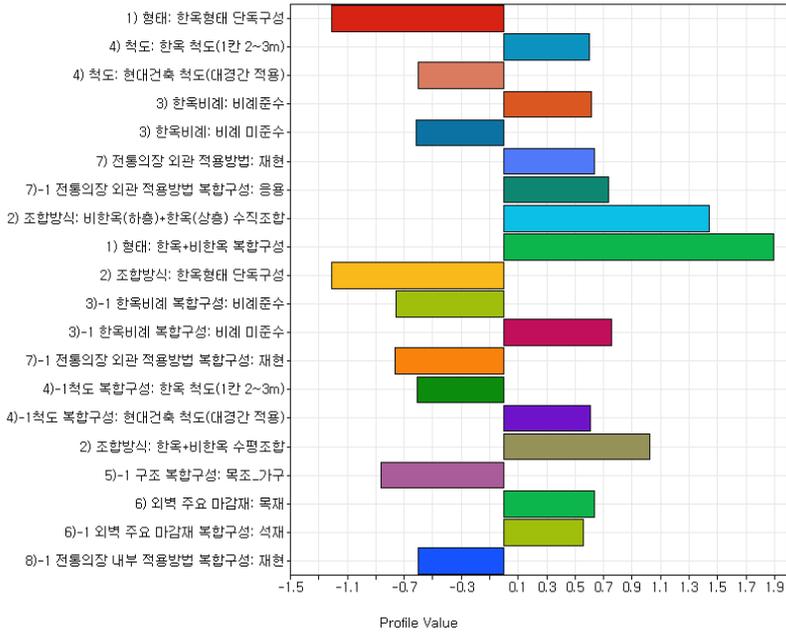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출현정도를 확인해보면, 한옥 구성부는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고 있으며, 척도와 비례를 준수한 일반 한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적 건축물과 결합된 경우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하층부에 현대건축물이 위치하고 상층부에 한옥이 위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평조합의 경우도 이 유형을 형성하는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형 2가 수직조합뿐 아니라 수평조합도 포함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한옥 유형이라 할 수 있다.

C 2



[그림 3-36] 유형 2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37] 유형 2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하이브리드 한옥으로 설명되는 유형 2는 청운도서관, 장석교회, 아산주택, 함양재 등으로 들 수 있다. 현대 건축과 한옥이 확연히 구분되지만, 수직(또는 수평)조합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다. 수직결합의 경우, 한옥이 갖는 구조, 기능적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저층부에 현대 건축물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옥과 비한옥의 복합구성 건축물은 구조체가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나, 장석교회와 같이 구조체가 동일하면서, 형태가 현대건축과 한옥으로 구분되어 나타난 경우도 있다.



[그림 3-38] 유형 2 대표사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운문화도서관, 장석교회, 아산주택, 함양재, 은평한옥마을 근린생활시설)

출처(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티스토리 블로그, <https://photohistory.tistory.com/15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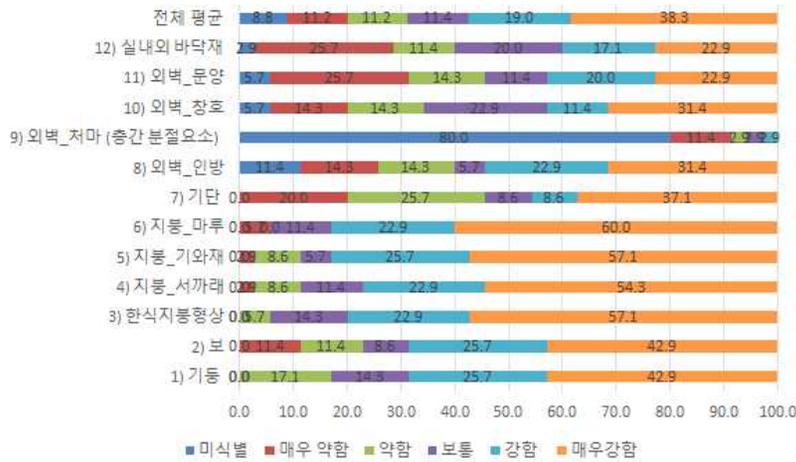
월계문화복지센터, <http://wgwcw.or.kr/>; 구가도시건축 홈페이지, <http://www.guga.c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signwhoswho/221178560530>;

모노그래프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www.monograph-studio.com/blank-2>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유형 2 안에서 전통요소 식별정도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 한옥인 유형1에는 미치지 못, 상층부나 수평으로 접한 한옥부가 외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전통요소가 상당부분 식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층부에 위치한 비한옥부 건축물을 석조로 마감을 하여 외관을 기단이나 전통재료로 마감을 하면 단독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와 전통요소 식별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기능은 확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9] 유형 2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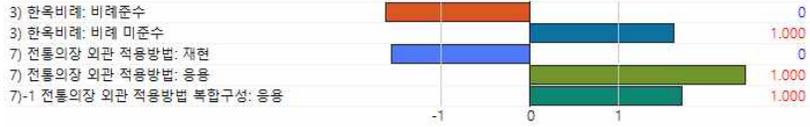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유형 3 - 한옥풍 한옥

유형 3은 현대 건축물에 전통요소를 일부 반영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유형 3의 특징은 한옥의 비례를 준수하지 않으며, 외관에 전통의장을 '응용'하여 적용한 변수가 유형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유형분류 기준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의장을 '응용'한 건축물은 현대건축물에 전통요소를 반영한 건축물이다. 따라서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옥의 비례를 준수하지 않고 대경간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출현정도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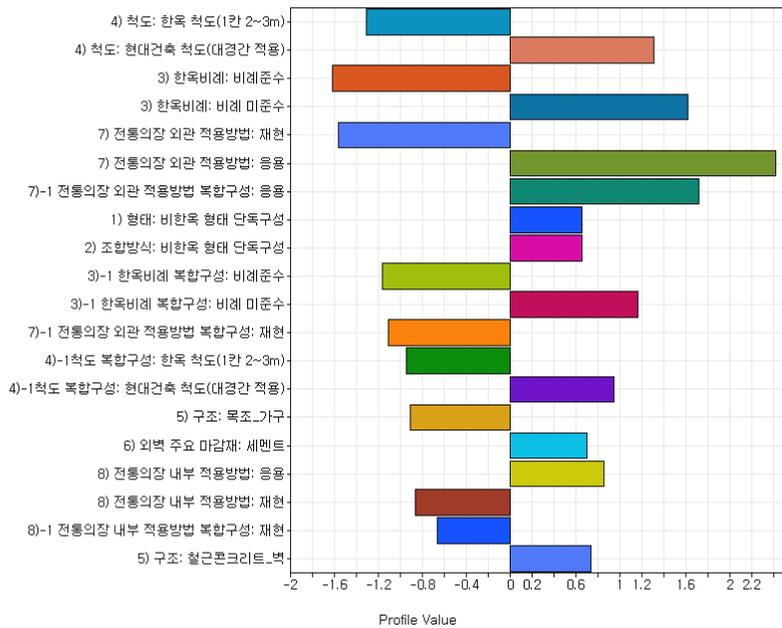
콘크리트 한옥인 유형5도 콘크리트 구조와 대경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옥의 비례와 형태에서 나타난다. 유형 3은 한옥의 비례가 준수되지 않으며, 기둥·보 및 한식 지붕의 하나 이상 요소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C 3



[그림 3-40] 유형 3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3-41] 유형 3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유형 3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중원대학교, 서울 진각종 전승원, 윤봉길 기념관, 스타벅스 문경새재점, 부산 코모도호텔 등을 들 수 있다. 현대건축물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식지붕, 기둥, 보의 요소를 온전히 갖추지 않고 있다.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용적률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경우, 현대건축물에 수장재를 붙이거나 한식 지붕을 엮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둥, 보, 한식지붕 등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전통요소 일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소 간 비례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림 3-42] 유형 3 대표사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원대학교, 서울진각총 전승원, 윤봉길 기념관, 스타벅스 문경새재점, 부산 코모도호텔)

출처(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wu.ac.kr/site/siteView.jwu>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ashoka108/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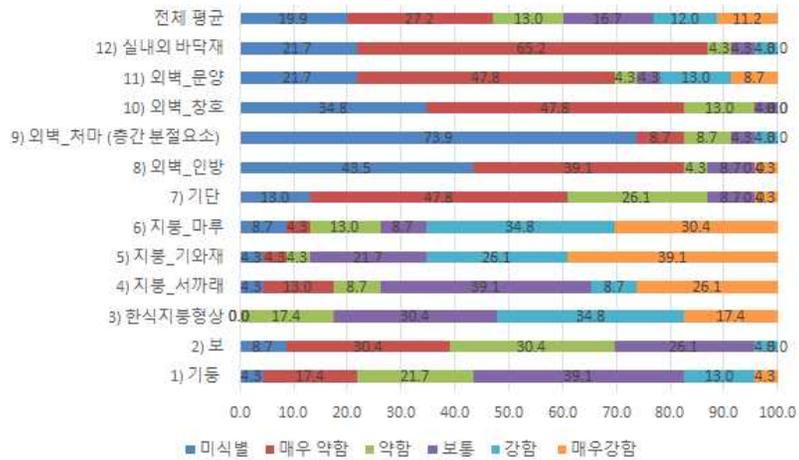
VISIT SEOUL, <http://korean.visit.seoul.net/>;

THE QOO, <https://theqoo.net/square/344361735>;

BOOKING.COM, <https://www.booking.com/hotel/kr/commodore-busan.ko.html>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때문에 유형 3의 전통요소 식별정도는 전체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다층 현대건축물에 한식지붕을 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붕에서 나타나는 전통 식별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창호, 기단, 인방, 보와 같은 요소는 식별정도가 낮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층 건축물임에도 전통식별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부산 코모도 호텔은 기둥, 보, 지붕형상 요소뿐 아니라 처마 등 층간 분절요소가 있어 외관 전체적으로 식별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3-43] 유형 3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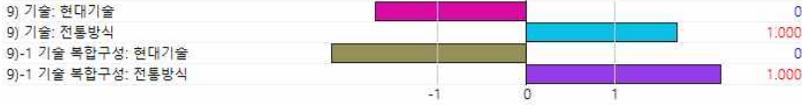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 유형 4 - 정통한옥

유형 4는 목구조에 보, 기둥, 한식지붕틀을 갖춘 전형적인 한옥이다. 이 유형은 전봉희·권용찬(2012)의 분류에 의하면 ‘정통한옥’으로 구분된다. 한옥의 척도와 한옥형태 재현, 그리고 목가구식 구조를 갖추고 전통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법, 설비, 재료 등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유형 1과 구분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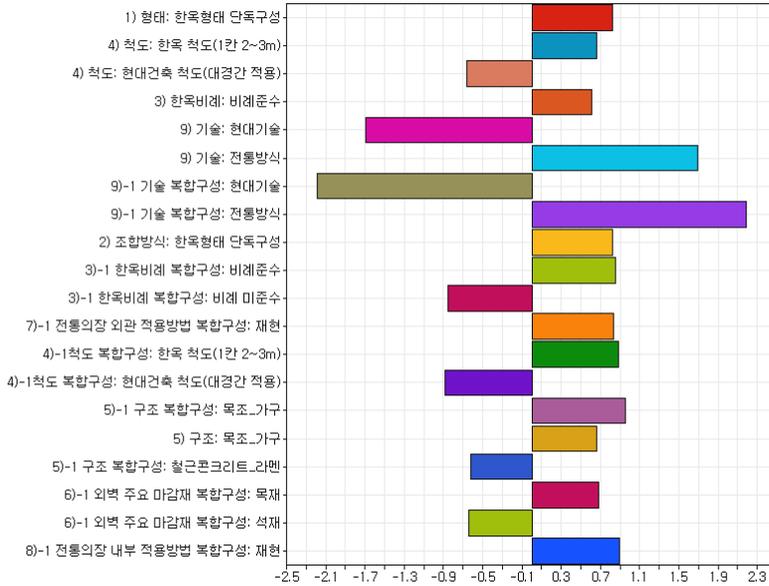
이론적 범주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옥건축양식의 범주가 현대건축의 일부에 만 걸쳐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많은 수의 현업 종사자들은 ‘정통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유형은 「한옥등건축자산법」상 ‘한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례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이 한옥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정책적으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옥과 구분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C 4



[그림 3-44] 유형 4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45] 유형 4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유형 4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전통적인 한옥이다. 사례는 한국가구박물관 내 사대부집, 화천한옥학교, 백인제 가옥 등이 수집되었다.



[그림 3-46] 유형 4 대표사례 1

(화천한옥학교)

출처: 화천한옥학교, http://www.hanokschool.co.kr/bbs/board.php?bo_table=sub_2
(검색일(사진 모두): 2019년 10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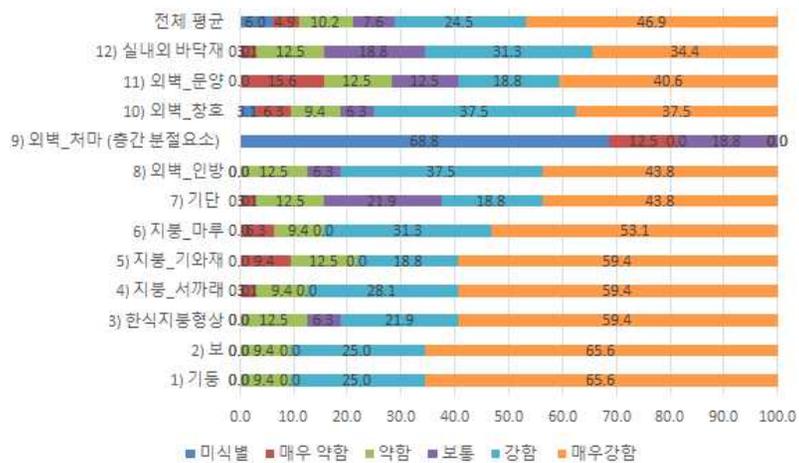
[그림 3-47] 유형 4 대표사례 2

(한국가구박물관)

출처 : CNN Travel, <http://edition.cnn.com/travel/article/top-things-do-and-see-seoul/index.html>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한옥의 형태를 재현한 유형 4의 특성상 전통요소 식별정도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재료, 공법, 설비에서 현대기술을 반영한 유형 1보다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림 3-48] 유형 4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유형 5 - 콘크리트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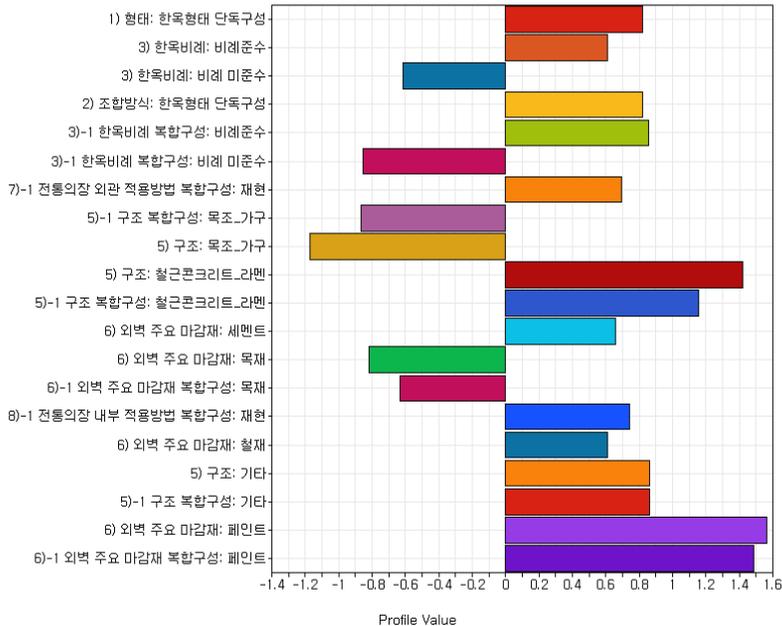
유형 5는 ‘콘크리트 한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부분의 요소가 한옥의 비례를 준수하였으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과 세멘트 외벽마감을 한 경우가 유형 5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출현정도를 확인해보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경간, 전통의장을 재현, 비례 준수, 단독 건축 등의 변수가 특징적이다.

C 5



[그림 3-49] 유형 5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50] 유형 5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유형 5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청와대, 현충문, 독립기념관, 스타벅스 대릉원점, 경북도청 등을 들 수 있다. ‘콘크리트 한옥’이라고도 불리는 이 유형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지만, 구조재가 목조에서 콘크리트로 바뀐 경우이다. 각 요소간의 비례는 한옥과 유사하며, 구조체 특성상 경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체

적인 건축물 볼륨도 커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 요소 간 비례가 지켜지지 않으며, 기둥, 보, 한식지붕틀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은 유형 3과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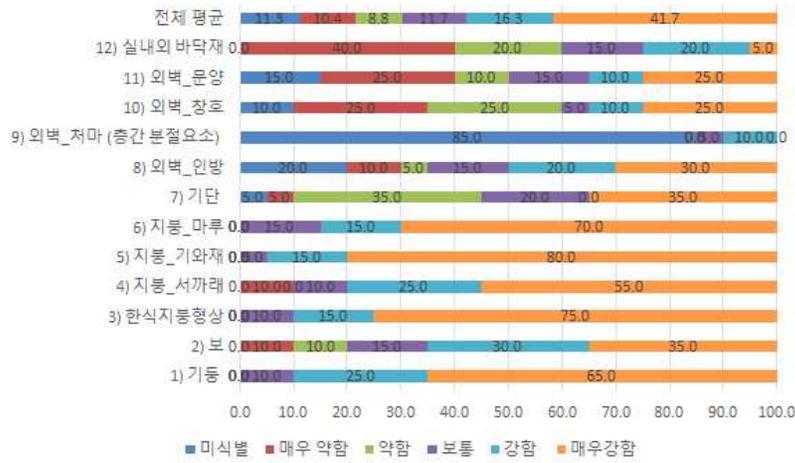


[그림 3-51] 유형 5 대표사례

(위부터 아래방향으로 청와대 본관, 현충원 현충문)

출처(위부터 아래방향으로)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bout/history>;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유형 5 내에서도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검토해보면, 유형 1 못지않게 전통요소가 높게 식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콘크리트 한옥의 경우,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벽의 문양이나 창호에서 전통요소가 유형 1보다 높게 식별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와 서까래에서는 유형 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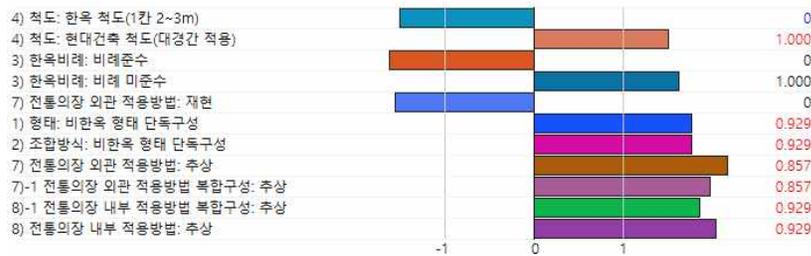
[그림 3-52] 유형 5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유형 6 - 한류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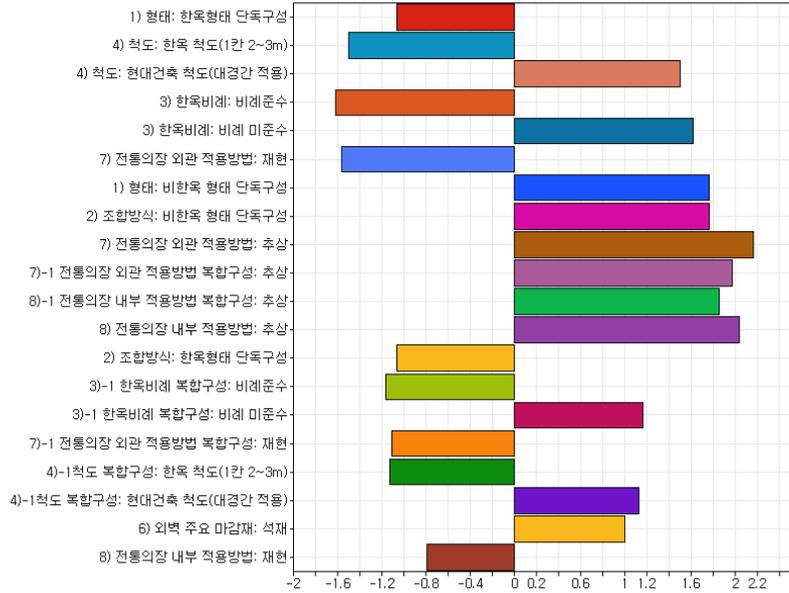
유형 6은 외관과 실내에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추상화한 건축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전봉희·권용찬(2012)의 ‘한류건축’에 가까운 유형으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외관에서 전통성을 추상화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우이다. 또한 외관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형상 외에도 한국적 공간구조를 갖는 건축물도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유형 1 ~ 5까지 한옥 외관에 비교적 가까운 유형과 거리가 있음에도 유형 6의 사례(15.05%)가 적지 않다.

C 6



[그림 3-53] 유형 6 형성에 기여도가 큰 요소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3-54] 유형 6 프로파일 (유형 구성요소 특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유형 6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는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수출당, 국립국악원, 천리포수목원 플랜트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55] 유형 6 대표사례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립국악원, 천리포수목원 플랜트센터, 수출당,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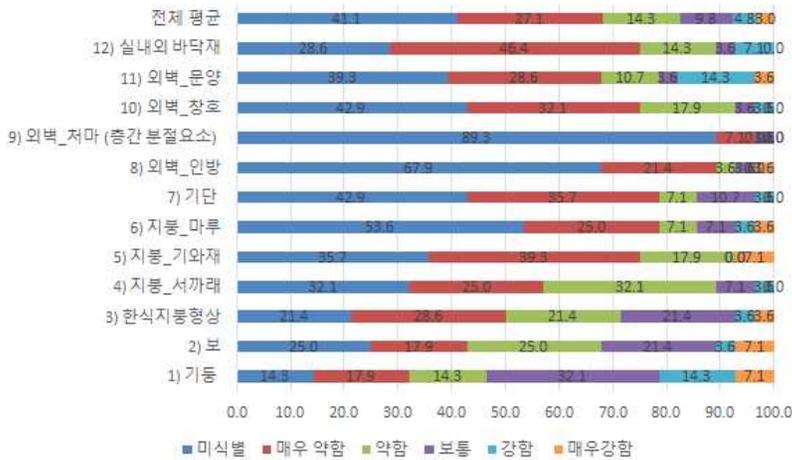
출처(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구가도시건축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gugau/posts/>;

Jodesign, <https://jodesign.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8258730>

(검색일(사진 모두) : 2019년 10월 2일)

유형 6의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검토해보면, 전통성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건축물 특성상 다른 유형에 비해 전통요소 식별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 속에서 기둥이나 보 그리고 지붕과 서까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다. 유형 6과 같이 전통성을 재해석하거나 추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위는 주로 기둥, 보, 지붕 서까래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56] 유형 6에서 나타나는 외관 전통요소 식별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이처럼 현업 종사자가 법률상 한옥건축양식 정의를 보고 ‘한옥건축양식’이라 판단하는 사례에 대해 6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6가지 유형을 통해 나타난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은 전통적 충실도가 높은 한옥(유형 1, 4)에서 현대적 건축물에 가까운 건축물(유형 6) 그리고 한옥과 현대건축물이 융합된 사례(유형 2, 3, 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봉희·권용찬(2012)이 분류한 5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하이브리드 한옥(유형 2)이 포함된 것이다.

이 결과는 현재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의 정의가 한옥뿐 아니라 현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도출된 유형을 토대로 한옥건축양식의 구체적 범위설정이 필요하며, 담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을 다루기 위한 담론은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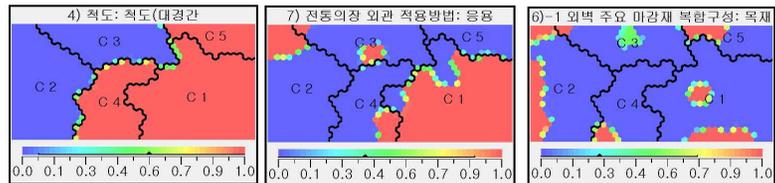
5) 세부 변수 특성

앞서 한옥건축양식 사례에 대해 6가지 유형분류를 하였고 변수의 기여도를 통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SOM은 인공지능망 기반으로 여러 변수의 위계가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은 단순히 유형분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부 변수들의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Plane Map에서 나타난 정보는 각 유형 군집에 기여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 외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세부 변수들은 분류기준의 항목에 속해 있는 변수이다. 각 Plane Map은 전체 군집을 나타내는 영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변수마다 붉은 영역의 점유면적과 위치를 통해 유형 또는 변수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예로 들면, 대경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유형1, 4, 5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붉은 영역의 분포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형 1에는 하나의 유형 안에서 현대건축물에 전통요소를 적용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형 1을 나타내는 고유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벽의 주요 마감재를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유형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변수가 유형군집에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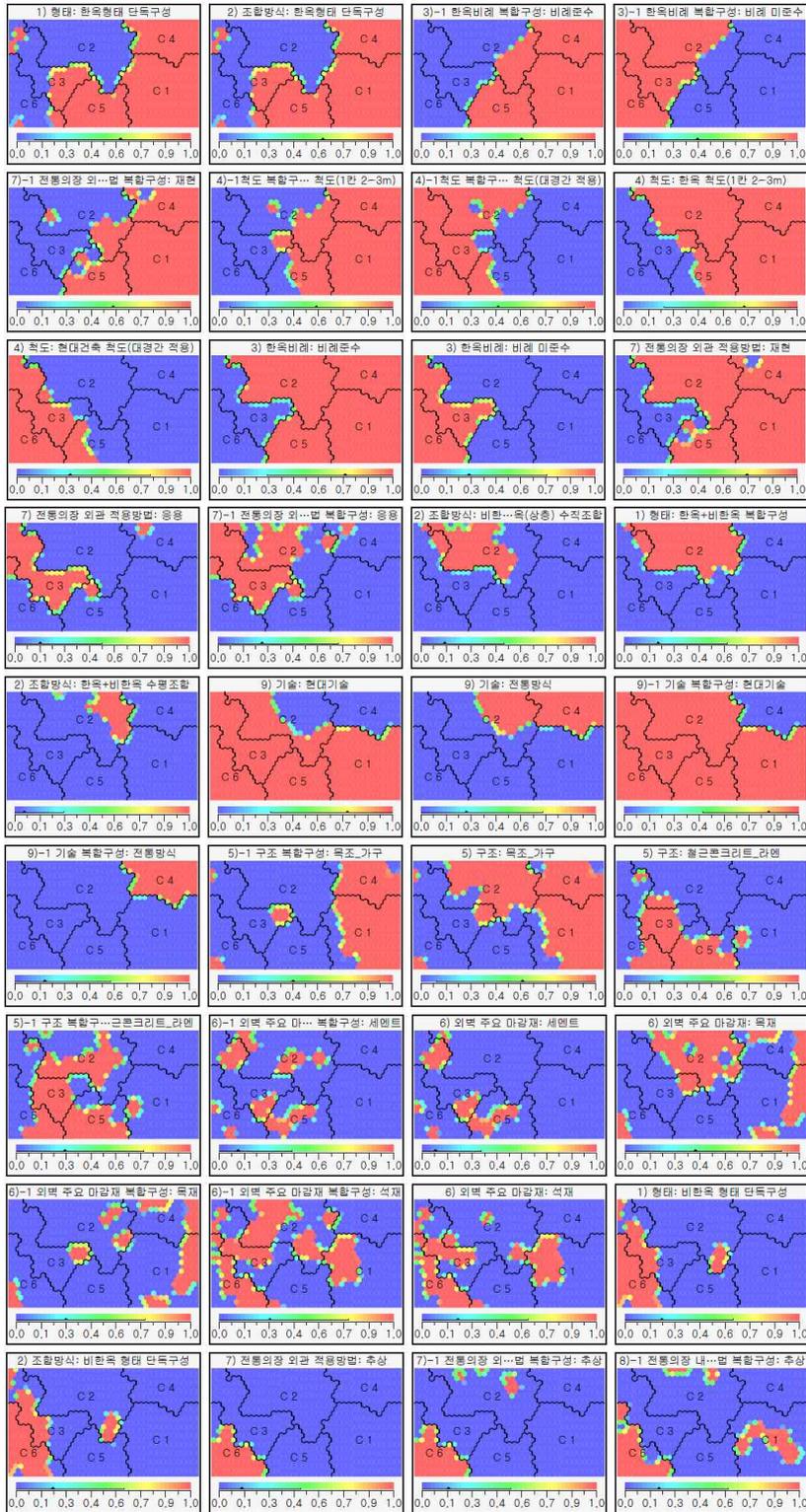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도 파악이 가능하다. 동일한 영역에 점유되어 있는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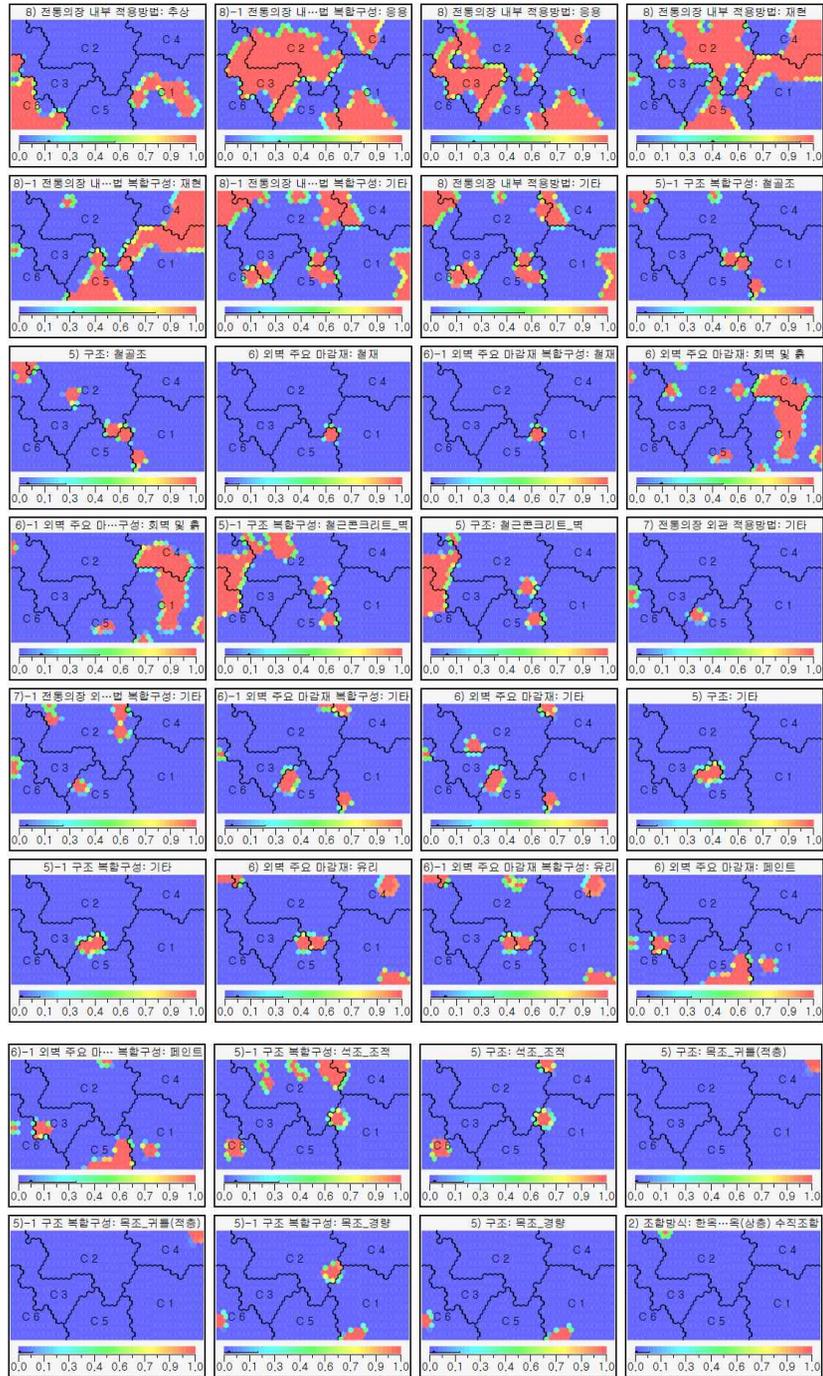


[그림 3-57] Plane Map

출처 : 연구진 작성

온라인 설문을 통해 출력된 Plane Map은 이하와 같다.





[그림 3-58] 세부변수 Plane Map

출처 : 연구진 작성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옥건축의 개념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통해 법률상 정의를 만족하는 전국의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건축물 특성과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DB는 다시 건축물 대장과 연계하여 수집사례 정보에 대한 기초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분석을 통한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의 유형은 6가지 유형을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군집기여도와 유형별 대표 사례를 통해 분류하였다.

6가지 유형은 이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유형1-현대한옥)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었으나 외벽의 일부가 개량된 한옥 ②(유형2-하이브리드 한옥) 한옥과 현대건축물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결합된 한옥 ③(유형 3-한옥풍 건축)현대건축물에 일부 한옥요소가 적용된 건축물, ④(유형 4-정통한옥)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옥, ⑤(유형 5-콘크리트 한옥)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조체가 콘크리트인 한옥, ⑥(유형 6-한류건축)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한 건축물로 대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은 전통적 충실도 측면에서 폭넓은 범주를 보이고 있으며, 각 유형 안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⁷⁸⁾

이는 2장 이론적 고찰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법적정의를 기준으로 선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현행 법적정의를 한옥건축양식이 한옥과 구분된 것이 아닌, 한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다.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으로써 6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지만, 정책대상으로써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분류한 여섯 가지 유형을 정책대상으로 재분류하면 유형1, 유형2, 유형4는 현재 통용되는 정책대상인 한옥의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먼저, 유형1과 유형4는 「한옥등건축자산법」상 “목구조에 기둥·보·한식지붕틀 등”을 만족하기 때문에 한옥 정책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유형2는 한옥과 비한옥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결합한 형태의 건축물이다. 한옥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옥의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만, 타 구조와 복합구조를 이룬다. 또한, 복합구조 적용 시 부재 사용에 있어 목재 외 재료를 15개 이내로 한정하는 「한옥 건축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78) 용이한 설명을 위해 ‘현대한옥’, ‘정통한옥’, ‘한류건축’는 전봉희·권용찬(2012)에서 정의한 용어를 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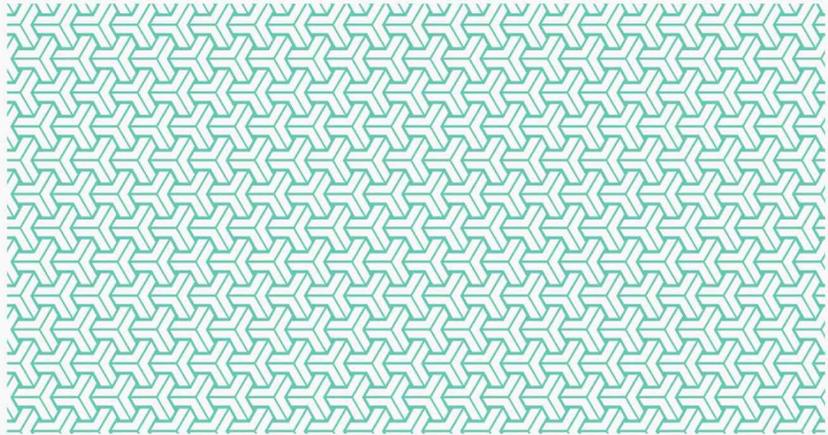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따라서 유형2는 향후 한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 및 심의에서 그 범주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옥의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유형3, 유형5, 유형6이다. 이들은 현재 「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한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선 유형화 분류에서 유형3의 경우 현대건축물에 일부 전통요소를 형태적으로 차용했으나, 구조나 형식이 한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 유형5는 형태적으로는 한옥과 동일하나 목재 사용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유형6은 건축가의 의지에 따라 전통 공간이나 실내 요소, 또는 형태를 현대적으로 건축한 유형으로 형태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일반 건축물에 가깝다.⁷⁹⁾

이들 유형을 바탕으로 정책대상으로써 한옥건축양식의 기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인지 전문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옥건축양식 쟁점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전문가 토론회, 자문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79) 유형3, 유형5, 유형6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가 아닌 경우가 다수이다.

제4장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1.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개념 및 범주
2. 정책 지원방향
3. 소결

1.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개념 및 범주

1) 정책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여러 쟁점 사항과 이를 통해 앞으로 정책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에서 구체화된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인식 및 정책선호도를 조사하였다.⁸⁰⁾

[표 4-1] ‘한옥건축양식’ 정책분석 개요

구분	일시	대상	목적
전문가 자문	2019년 8월	전통건축 이론 및 실무 전문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건축양식 관련 활동 한옥건축양식 쟁점사항 도출 한옥건축양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전문가 토론회	1차 : 2019년 11월 22일 2차 : 2019년 11월 29일	전통건축 이론 및 실무 전문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건축양식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쟁점사항 : 법적정의, 유형, 적용범위, 지역성 등
전문가 설문조사	2019년 12월 20~30일	전통건축 이론 및 실무 전문가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점사항을 세분화 하여 다수의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출처 : 연구진 작성

한옥건축양식의 쟁점 도출은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정의된 한옥건축양식의 의미와 정책추진 배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용어의 적절성과 법적 정의와 취지에 대한 적절성 등을 화두로 하였다. 둘째는 기존 한옥 정책의 흐름과 최근에 한옥건축물의 구축 및 의장 경향에서 한옥건축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3장에서 도출된 6가지 유형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다루었다. 셋째는 한옥산업·시장 등 한옥건축의 자생력에 대한 부분과 한옥의 변화 요구를 한옥건축양식이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제도상 한옥건축양식을 체계화하는 4가지 기준인 재료·기술·구조·형태와 한옥과의 관계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역성 구체화와 공공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80) 전문가는 법제화 단계에 참여한 연구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전통건축 설계 및 의장 분야 전문가, 정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쟁점사항 1 :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① 용어의 적절성

앞서 살폈듯이,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정의된 ‘한옥건축양식’ 용어가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용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총 40명 중, 긍정평가 27명, 부정평가 13명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은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탄생이 학술적 의미를 규명한다기보다,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한옥건축양식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평가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책적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법적 용어가 의미하는 대상 건축물을 판단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 현대적 사용행태에서 한옥형을 지향한다는 점, 대체용어의 대안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용어의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는 긍정적 평가보다 응답 수가 적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옥건축양식’ 용어와 ‘양식’에 대한 범위를 국가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한, ‘양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의 범위가 요구되지만, 한옥건축양식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양식’이라는 용어에 담겨있는 시대적 공감과 역사·문화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 제시에 대한 공론화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식’이라는 용어에 앞서,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한옥’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옥’이라는 용어는 韓과 屋의 합성으로 용어가 내포한 건축물의 규모 자체가 역사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옥의 인식범위가 주거용도라는 제한된 인식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한옥이라는 개념이 시대성을 반영한 용어가 아니므로, 근대건축이나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다양한 절충식 건축물을 포함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 용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는 21명,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3명, 현행보다 보다 모호한 정의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자는 6명이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앞서 살핀 용어의 적절성과 관계하여 향후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표 4-2] '한옥건축양식'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긍정평가	• 민간·공공부문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에서의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는 적절
	•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용어
	• 전통양식과 구별되는 현대식 목구조로 이해할 수 있음
	• 한옥건축양식이라는 법적 용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음
부정평가	• 국가 주도적으로 '양식'을 정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가 건축가에게 전달될 경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축양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가주의 과잉이라고 판단되며, 법률로서 양식을 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소용되어야 하는 양식 범위가 필요한데 한옥건축양식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한옥이라 하면 살림집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큰 규모의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용납할 수 있는 용어로 귀결될 필요가 있음
	• 한옥건축양식의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용어가 담고 있는 개념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임
	• 근대건축과 절충식 양식을 포함하여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옥건축양식의 대상이 시대를 대변하는 수준의 대상이 아님
	• 한옥에는 이미 양식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중복된 용어 개념은 부적절
	• 한옥의 범주가 모호하므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용어로 바뀔 필요가 있음

출처 : 연구진 작성

②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취지와 한옥건축양식의 개념부합 여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조(목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법률로서 적고 있다. 법률의 제1조(목적)에 이어서, 제2조(정의)에서는 건축자산·한옥·한옥건축양식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은 「한옥등건축자산법」의 법률 목적을 적은 조문 내에서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은 법 내의 개별 조문을 해석할 때 지침으로서 역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옥건축양식 또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미래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⁸¹⁾ 그러나 앞서 제시한 김현섭의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같이, 「한옥등건축자산법」의 법적 효용성과 한옥건축양식의 개념 사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본 연구과정에서 다수 수집되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 한옥건축양식이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 이래 뚜렷하게 추진된 성과나 연계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게 현재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취지와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이 적절히 부합

81)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중,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38&astClsCd=>
 (검색일: 2019.12.26.)

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 내에서 한옥건축양식을 통해 다양한 건축 현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응답자는 40명 중 27명이었다. 현재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정의가 「한옥등건축자산법」의 목적에 부합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옥 저변확대를 위해 한옥건축양식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행 한옥건축양식의 장점은 정책의 대상자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한옥건축의 가치판단 범위의 확장성, 모호한 기준이 양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신한옥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명이 제기하였다. 한옥건축양식이 법률로 정해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된 의견이 다수였다. 우선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짓는 것은 건축주 개인의 취향에 대한 문제로,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을 꾀하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부각 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옥을 한국 또는 한민족의 고유한 건축자산으로서 적극적인 보전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한옥건축양식은 보전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③ 「한옥등건축자산법」상 한옥건축양식의 적용범위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을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옥건축양식’ 또한 전통양식에 준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의 전통양식에 준하도록 제한할 경우,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명확한 범위를 한옥과 분리하여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의견과 연계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재료를 목구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료를 제한하되, 나머지 형태·구조·기술은 범위를 넓혀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옥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및 보급의 부진 이유

한옥건축양식 개념의 확산과 보급이 부진한 이유는 실수요자가 부재한다는 의견이 17명, 개념의 적용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7명, 지원 필요성 및 방법이 부재한다는 의견이 5명, 용어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명, 한옥건축양식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명, 적절한 참고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명이었다.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 실수요자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한옥건축양식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 의견에서 지배적이었다. 두 응답은 한옥건축양식의 적용대상을 주택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은 다양하겠지만, 한옥의 적절한 변용을 통해서 공급된 다수의 공공건축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의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공건축으로 확대할 경우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전체적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옥건축양식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한옥주택에 대한 건축 보조금과 관련된 응답으로 판단된다. 한옥주택 지원과 관련된 심의 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은 각 지자체별 재량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는 고도지역 역시 유사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외부에 고시된 적용기준 없이, 지원건별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이나 행정지원 또는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책이 다변화될 경우, 주택 위주로 제한되었던 실수요자 부족 문제와 한옥건축양식의 적용기준의 불명확함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한옥건축양식' 건축의 보급 확산이 부진한 이유

내용	응답자 수(명)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실수요자 부족	17
한옥건축양식 적용기준의 불명확함 때문	17
한옥건축양식 지원 필요성 · 방법 부재	5
'한옥건축양식' 용어의 모호함 때문	2
한옥건축양식이 추구하는 이미지의 부재	2
한옥건축양식의 참고사례 부족	1

출처 : 연구진 작성

3) 쟁점사항 2 : 한옥건축양식의 유형

① 6개 유형 구분에 대한 적절성

'한옥건축양식'의 범주에 관련된 쟁점사항이다. 앞서 사례분석을 통해 6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구분된 유형에 속하지 않으나 한옥건축양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건축유형을 포함하여 유형을 더 세분화하거나, 이와 반대로 분류체계를 소략하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기

와집 형상을 갖지 않는 한국 전통건축의 형상을 모방한 건축물이나 재료의 차원에서 기와를 쓰지 않는 너와집 같은 경우를 한옥건축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비단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기된 논의는 아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들 건축물은 분류한 유형에 포함되며, 각 유형의 갈래를 세분화하면 해당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분석은 큰 범위에서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 것이며 동등한 위계에서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유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가시적인 형태나 물성에 대한 접근 외에도 한옥의 마당공간을 추상적으로 재현한 건축물이나 한국적 정서를 건축으로 표현한 경우를 한옥건축양식의 유형으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한류건축인 유형 6이 이에 해당한다.

6개 유형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40명 중 29명이 동의하였으며, 11명이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1부터 유형6까지의 분류가 다양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본 유형 분류가 양식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도라고 평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분류가 직접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변경 수정할 여지가 있고, 한옥을 범주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6개의 유형 중 유형1, 유형2, 유형4에 속하는 유형은 한옥의 범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한옥건축양식 유형 분류에서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유형만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6개의 유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분류한 구체성, 분류기준, 유형축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분류된 유형은 재료와 기술에 대한 한옥건축양식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콘크리트 한옥과 전통성을 재해석한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포함 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4] 쟁점사항3: 한옥건축양식 유형 분류 방식의 적절함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한옥건축양식의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가한옥센터가 분류한 5개 분류 외에도, 전통목구조에 평지붕을 얹는 방식·마당을 중심으로 현대적으로 설계된 공간이 있는 건축·한국적 정서가 있는 건축 유형 등 한옥건축의 개념이 투여된 유형도 필요
한옥으로 분류 가능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옥건축양식의 논의가 '기와집 형상'에서 출발했다는 데에 유형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너와집을 차용한 한옥건축양식의 경우 현재 6개 유형에 속하기 어려움 • 연구진 측에서 제안한 6개 유형 중 '정통한옥'과 '현대한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한옥건축양식 제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필요 • 한옥 정책에서는 정통한옥과 현대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 있으므로, 기존 유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어 보임
재료·기술 중심의 유형 개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이 있어야 함 • 특히 '재료'나 '구법'은 계량화나 구체적 적시가 가능하지만, '공간'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출처 : 연구진 작성

② 현행 법령상 한옥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에 대한 개념 포섭 필요

6개 유형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추가 질문으로 한옥건축양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유형과 선택이유를 물었다. 이 질문은 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린 응답자와 부정평가를 내린 응답자 모두가 문항에 답을 내릴 수 있게 하여, 개별 유형이 갖는 한옥건축양식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에서는 전통성을 재해석한 건축물인 유형6을 한옥건축양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6은 의미적으로는 한옥이 갖는 다양성을 담고 있지만, 한옥건축양식 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형6은 적용대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6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정할 경우, 국내 모든 건축물이 한옥건축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축에서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행위 자체가 건축가의 주관적인 작업이므로, 유형6은 한옥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표 4-5] 한옥건축양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대한 응답자 분포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없음
5	2	14	1	9	24	9

출처 : 연구진 작성

유형3은 전통요소가 일부 현대건축물에 반영된 건축물인데, 이를 한옥건축양식

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자는 14명이었다. 국내에 존재하는 유형3의 건축물이 '한국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건축의 구성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이며, 단순한 요소 차용을 하나의 양식으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목재 활용 측면에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가 아닌 건축물을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 또한 다수 제기되었다. 한옥의 일부만 차용하는 경우, 한옥의 비례를 계승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시에 향후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많은 경우에 한옥을 요소화하여 일부만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콘크리트 한옥인 유형5는 9명의 응답자가 한옥건축양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응답자가 공통으로 콘크리트 한옥을 유형에서 제외한 이유는 목구조를 한옥건축양식의 중요한 속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부 응답자는 한옥의 기본 속성을 목구조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료 외에도 콘크리트 한옥에 한옥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형에 포함하는 것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정책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의 목재산업, 한옥기술개발 연구에 의한 신공법 등을 적용한 목조건축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지, 또는 재료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서 정책제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유형1과 유형2, 유형4에 대해서도 한옥건축양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유형1과 2는 신한옥의 범주에 포함되며, 전통기술이 적용된 유형4의 한옥은 현재 법적 정의에서도 한옥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유형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현재 법적 정의에서 한옥으로 포함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옥건축양식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재료와 기술 측면에서 한옥건축양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연장선에서 유형1과 유형2, 유형4를 한옥건축양식에서 제외하되 한옥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정책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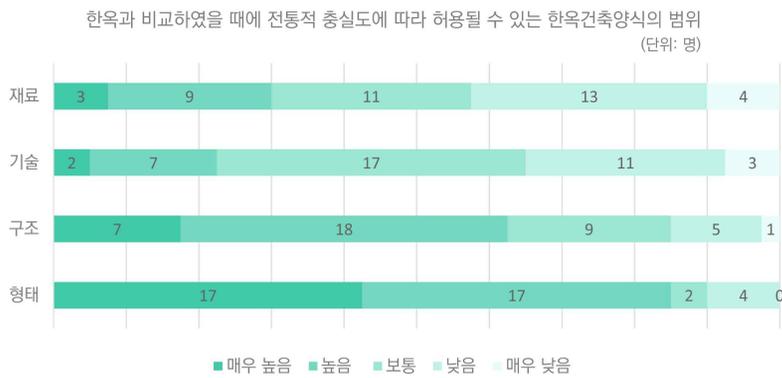
4) 쟁점사항 3 :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및 기준

① 한옥건축양식 기준별 전통적 충실도

한옥건축양식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과 별개의 정의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건축에서는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다. 제3장에서 도출된 한옥건축양식의 유형에서도 일부 유형은 현재 한옥의 정책 틀에서 지원·관리되고 있다. 이에

한옥건축양식을 한옥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앞선 설문조사 항목에서 다양한 의견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과 비교하여 한옥의 전통적 충실도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의 범위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질의하였다. 조사는 한옥 관련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설명하는 재료·기술·구조·형태에 대하여 각각 전통적 충실도와 한옥건축양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⁸²⁾

조사 결과의 해석은 ‘매우 높음’과 ‘높음’을 한옥건축양식의 필수 조건 범위로 적용하였다. 보통은 중립적 의견으로 간주하였으며, ‘낮음’과 ‘매우 낮음’은 전통으로부터 변용이 자유롭다는 의견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4-1] 한옥과 비교하여 전통적 충실도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출처 : 연구진 작성

재료 측면에서 전통적 충실도는 매우 높음 3인, 높음이 9인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2인이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옥의 목재와 석재 등 전통 재료를 활용한 한옥건축양식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립 의견은 총 11명으로 27.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 재료 외 다른 재료의 활용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에서 낮음 13인, 매우 낮음이 4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17인으로 42.5%에 해당하는 의견이 기존 전통 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활용한 한옥건축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새로운 재료를 통한 한옥건축양식 구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82) 본 설문조사에서는 전통적 충실도가 높으면 한옥의 원형에 가깝고, 전통적 충실도가 낮으면 한옥의 원형이나 원재료, 원기술과 거리가 먼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충실도가 낮은 항목이 변용의 자유도가 높다.

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 측면에서 전통적 충실도에 대한 조사는 매우 높음 2인, 높음이 7인으로 전체의 22.5%에 해당하는 9인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료와 비교하여 전통적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여 응답한 비율이다. 중립 의견은 총 17명인 42.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적절한 융합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으로 보인다. 기술에서는 낮음 11인, 매우 낮음이 3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14인으로 35%에 해당하는 의견이 기존 전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을 활용한 한옥건축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새로운 재료를 통한 한옥건축양식 구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료와 달리 한옥의 기술은 2010년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이후, 지속적인 한옥 신기술 개발과 확산 노력이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기술 측면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수용하는 데에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옥 신기술이 건축의 외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역시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보인다.

구조 측면에서 전통적 충실도는 매우 높음 7인, 높음이 18인으로 전체의 62.5%에 해당하는 25인이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료와 기술 측면과 비교하여 한옥의 목재를 활용한 가구식 구조의 보전과 활용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옥중립 의견은 총 9명으로 22.5%로 나타났다. 구조에서 낮음 5인, 매우 낮음이 1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6인으로 15%에 해당하는 의견이 기존 전통 구조 외에 타구조 및 복합구조를 활용한 한옥건축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새로운 구조를 통한 한옥건축양식 구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한옥의 전통적 구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구조에서 전통적 충실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전체의 62.5%의 응답자가 한옥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목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콘크리트 한옥과 같이 외견상 목구조의 형식을 유사하게 적용하나, 재료가 다른 부분으로 치환된 건축의 경우도 한옥건축양식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형태 측면에서 전통적 충실도는 매우 높음 17인, 높음이 17인으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34인이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재료·기술·구조 측면과 비교 시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외관이 유사한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옥 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옥중립 의견은 총 2명으로 5%에 그쳤다. 형태에서 낮음 4인, 매우 낮음이

0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4인으로 10%에 해당하는 의견이 기존 전통 형태를 반영하지 않는 한옥건축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새로운 형태를 통한 한옥건축양식 구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립 의견이 5%, 형태 변형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10%에 그친 점은 한옥건축양식에서 한옥의 형태가 갖는 비중과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사항목으로 응답을 구한 재료·기술·형태·구조 외에 한옥건축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공간, 기능, 비례, 전통조경, 색채, 내부 인테리어, 건축 스케일, 전통성이라는 무형의 가치, 지역성, 평면 형식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② 한옥 부재별 전통적 충실도 인식 분석을 통한 요소별 기준

본 조사의 결과로 제시된 6개의 한옥 유형에 대한 한옥건축양식으로서의 판단 정도는 외관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부터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옥의 형태를 차용하거나 변형하더라도 한옥건축양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주를 한옥의 각 요소별 전통적 충실도를 묻는 응답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요소는 기둥·보·한식지붕형상·서까래·기와·(지붕)마루·기단·인방·외벽처마·창호·문양·실내외바닥재료, 12개 요소로 구분하였다.⁸³⁾ 기둥·보·서까래·인방·외벽처마는 목 부재와 관계된 요소이다. 기와·기단·창호는 한옥의 외관 요소를 구성하는 건축요소이고, 한식지붕형상과 마루는 한옥의 전체적인 형상을 가늠하기 위한 요소이다. 본 조사에서는 요소별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해석은 보통에 해당하는 의견을 중립 의견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적 충실도의 매우 높음·높음을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하고, 낮음·매우 낮음을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하였다. 기둥·한식지붕형상·보·서까래·기와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옥건축양식에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갖도록 해야 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 요소들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정의하는 한옥의 정의와 구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법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옥 건축 기준」 제5조(지붕)에서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를 암키와와 수키와 형상이 있는 한식기와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과 기와를 형태적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로 꼽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옥과 유사한 형태요소를 가진 건축물이 한옥건축양식으로 이해되고 있

83) 여기서 외벽처마는 한옥의 층을 구분하기 위해 외벽에 달아 낸 부설지붕이나 차양 등을 의미한다.

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창호·마루·외벽처마·기단은 한옥건축양식의 외관 전통요소의 표출정도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의 불일치함을 보이고 있으나, 27.5%에서 37.5% 사이에서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방, 문양, 실내외바닥재는 한옥건축양식에서 20%미만의 전통적 충실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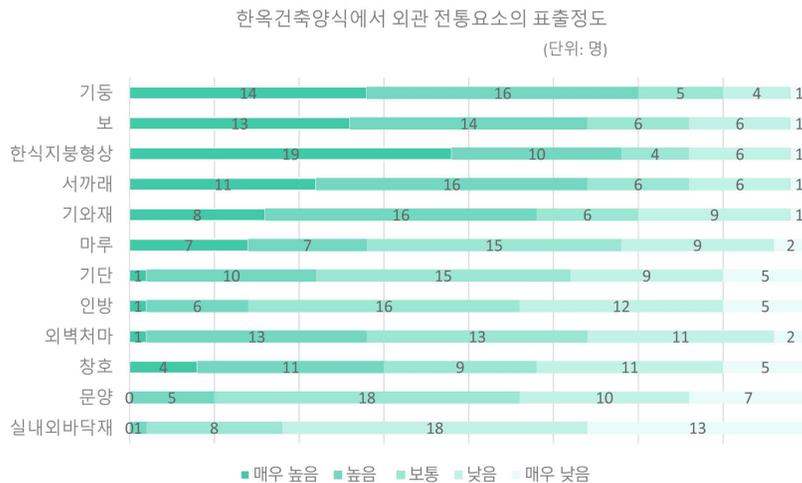
본 연구의 개진을 위해 개최했던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주요이슈 발굴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와 한옥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 조사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용어 적합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두 정의의 사이 간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두 개념을 정리하는 방향을 반드시 서로 양분되는 개념으로 나누자는 의견과 동시에 한옥을 중심으로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낮은 수준의 한옥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본 조사항목은 한옥건축양식이 형태차원에서는 한옥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4-6]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구체적 정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용어 사용에 혼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용어가 되기 위해서 정의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 국가한옥센터가 한옥에 대한 전통적 형태에의 충실도와 현대적 편의성을 축으로 구분한 ‘한옥의 다층위적 양상에 관한 개념 모식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건축양식 이전에 한옥에 대한 정의부터 탄탄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한옥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단하게 좁혀나갈 필요도 있음
한옥건축양식의 물리적 범위에 대한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의 정의는 한옥이 조선시대 건축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옥건축양식은 미래에 ‘한옥형 목조건축’이 성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함 • 한옥과 대비하여 한옥건축양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옥의 형태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건축형태의 특정 비율까지를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축의 역사에서 다보탑과 같은 석조건축은 목조건축을 다른 재료로 재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인 한옥을 다른 재료로 짓는 것을 규제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일반적으로 한옥을 정의할 때, 형태 및 재료의 다양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음
 - 목구조를 한옥건축양식의 기본으로 하고, 한국건축의 DNA라 볼 수 있는 나머지 건축 요소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 한옥 진흥 정책은 초기(2000년대 초반)단계에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지관리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한옥 신축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식적으로 한옥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나 '미덕' 없는 한옥을 짓는 결과를 가져왔음
 -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한옥의 형식적 조건을 충족한 건축물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 한옥 진흥 정책과의 관계**
- 콘크리트 한옥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좋은 건축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제도라면, 한옥건축양식을 기존 한옥 제도에서 독립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 함(설계나 디자인 자문, 텍토닉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
 - 한옥건축양식을 별도의 정의로 구분하지 말고, 한옥의 등급을 다분화하여 그 중에 낮은 등급의 한옥으로 구분하는 정책 제안 필요

출처 : 연구진 작성



[그림 4-2] 한옥건축양식에서 외관 전통요소의 표출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한옥건축양식이 비단 한옥의 형태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옥의 진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추진과정에서 문화재한옥·정통한옥·현대한옥·한옥풍건축·한류건축의 구분을 근간으로 정책이 세분된 경향이 있다. 국가한옥센터가 발간한 '한옥의 정의와 범위'에는 한옥의 다층적 양상을 '전통적 형

태에의 충실도'로 구분하여 한류 건축·한옥풍 건축·현대 한옥·정통 한옥·문화재 한옥으로 구분하였으며, ○○한옥으로 명명된 현대 한옥·전통 한옥·문화재 한옥을 본격적인 정책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⁴⁾ 본 조사에서 한옥건축양식의 형태에서 전통적 충실도가 한옥의 정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한옥의 다층적 위상으로 한옥건축양식을 포함하여 한옥의 개념을 재편하고,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범위를 체계화하는 방안 고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사항 4 : 한옥건축양식과 지역성

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옥건축양식 지원책 도입 필요

한옥건축양식의 정책적 지원은 공익이 증대되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한옥 정책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한옥은 보전의 대상이었고, 이 배경에는 한옥 경관 보전을 통해 지역을 특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한옥건축양식이 국가적 차원의 진흥책으로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한옥건축양식 지원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고도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20년 2월 현재 경주시 7건, 부여군 1건(최근 5개년)에 그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이지만 지원성과는 미미하다. 고도지역에 한정된 현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 지원 정책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용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진흥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한옥건축양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층 한옥과 같이 도시 내 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유형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4-7]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옥건축양식 지원책 도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의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古都)지역 또는 고밀도 지역, 전원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도시 내 저밀도 단독주택 유형을 지향하는 한옥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하는 것은 오늘날 도시문제를 양산하
--------------------	--

84) 전봉희·이강민(2011), "한옥의 정의와 범위", 「한옥정책BRIEF」,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7-8.

	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도심지역 한옥의 밀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예로써 다층 한옥)에 대한 검토 필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지역 공공성 기여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에서 건축형태를 통해 공공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현행 지원금 제도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공무원 건축의 일부이며, 향후 일반건축의 층위에서 관련 논의가 다뤄질 필요가 있음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이 공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역사문화환경 내에서의 한옥건축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이나 진흥을 위한 도구로써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작동하고 있으며, 심의제도가 있으므로 법률로써 한옥건축유형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음 역사문화환경에서 경관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4~5층의 고층건축물이며, 이는 고도를 제한할 문제이지 디자인 세부사항을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심의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양식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그 기여도를 자발적인 심의 요청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연구진 작성

② 조례 개정을 통한 한옥건축양식의 확산 필요

본 전문가 설문조사에 선행하여 시행하였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한옥건축양식과 지역성 고려의 화두를 관계 짓는 정책으로서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구체화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서 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총 40명의 응답자 중 35명이 조례를 마련하거나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지역 조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근현대 건축물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을 잘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 중 많은 수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이 실행력을 갖게 하도록 조례로써 한옥건축양식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위해서는 결국 지원사업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심의 차원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이 적극 참여하여 맞춤형 한옥건축양식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지역 차원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지만, 「한옥 건축 기준」처럼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통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조례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공통적으로 상위 법률인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개정을 선행하고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오늘날 한옥이 각 지역의 특색을 두드러지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진흥책이 시행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예측된다. 한옥건축양식이 반드시 한옥의 차집합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겠으나, 한옥의 지역성을 표명하는 과업은 한옥건축양식의 지역성을 수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한옥의 지역성을 밝히는 일이 한국건축의 지역성을 밝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으며, 문화재와 달리 한옥은 건축의 특징이 발현되는 시대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한옥과 한국건축의 양상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옥 역시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 건축양식이다.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은 과거의 완벽한 재현에 의해 지어질 수도 있지만, 과거의 한옥양식건축을 추상화하거나 창안하는 디자인의 결과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의 지역성 화두가 조례로써 지역 차원의 논의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건축특징을 도출하기 위한 과업이 필요하다.

2. 정책 지원방향

1) 정책 지원방향 개요

본 연구에서 한옥건축양식 정책은 현행 「한옥등건축자산법」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이를 위한 정책 사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본 법에서는 한옥건축양식 지원 방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 방향은 크게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건축 및 공간조성 사업·한옥건축양식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과 보급·한옥건축양식 홍보 및 교육·해외 공관의 한옥건축양식 적용 등이 있다. 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에서 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정책 지원방향은 「한옥등건축자산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전문가 의견청취와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옥건축양식이 가져야할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담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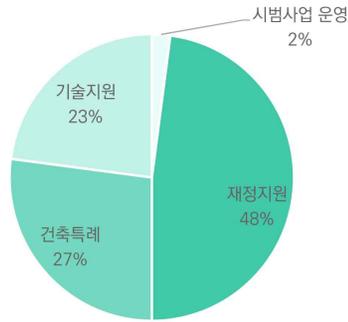
아래에는 연구에서 추진한 정책 지원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방향을 기술하였다. 설문조사의 관련 응답항목은 제시된 정책 관련 사항은 기존 한옥정책이나 유사 추진 정책에서 활용된 사례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본 연구의 4장 1절에서 조사와 동일한 참가자 40명으로 구성하였다.

2) 재정지원·건축특례·기술지원·시범사업 등의 지원방식

한옥건축양식에 필요한 지원방식을 묻는 문항은 재정지원·기술지원·건축특례·시범사업 운영으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 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옥건축양식에 꼭 필요한 지원방식으로 전체 40명의 응답자 중 48%가 재정지원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건축에서의 특례를 꼽은 응답자가 27%, 기술지원이 23%, 시범사업 운영이 2%였다. 이외의 기타 사업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원의 대상을 민간과 공공으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의 응답자가 한옥건축양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재정지원의 대상은 보조금 지원 사업부터 공공건축물의 건립 지원, R&D실증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옥건축양식에 꼭 필요한 지원 방식 (복수응답)



[그림 4-3] 한옥건축양식에 필요한 지원 방식

출처 :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언급한 건축특례는 기본적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특례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 특례 증 완화 적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법」 등과 관계된다. 다만,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가 한옥건축양식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옥의 독특한 건축형태로부터 발생하는 법률상 한계를 보완하거나, 공공적 가치를 위하여 한옥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부 용도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한옥건축양식에 유사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책적 담론형성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없이 정책을 적용하기에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법률 목적과 현장에서의 정책 사업이 작동되는 여건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부조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건축설계, 구축법, 시공법 등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산, 홍보 등과 관계되는 정책 방향이다. 한옥기술개발 R&D가 진행된 이후, 한옥에 대한 신기술 개발부터 인문학적 조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성과의 많은 부분이 한옥에 편입되기 어려운 신한옥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더욱이 한옥건축양식의 형태나 구조, 재료와 기술 특성에 대한 정책적 담론을 형성하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의 정책 범주를 고민함과 동시에 기술과 인식 등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통해 한옥의 양식, 한옥건축양식의 건축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 한옥기술개발 R&D가 추진하는 연구 방향은 ‘한옥형 목조건축’에 있으며, 이 사업의 근간은 목조건축을 현대적인 것으로 치환하되, 여전히 한옥에 포함된 전통적 요소나 가치를 활용하는 데에 있기 때문

이다.⁸⁵⁾ 한옥건축양식이 반드시 목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앞선 조사에서 살폈듯이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옥건축양식의 각 요소와 재료 간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의 근본적인 요소를 해제하는 연구가 기술지원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옥건축양식의 지원방식 중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인 시범사업 운영은 한옥건축양식의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을 말한다.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는 1명이다. 한옥과 관련하여 실행된 유사 시범사업으로는 한옥기술개발R&D에서 추진한 신한옥 실증구축 사업이 있다. 2010년부터 진행된 한옥기술개발R&D를 통해 총 7개의 실증사업이 수행되었으며 하나의 전통방식 사례와 6건의 신한옥 기술을 활용한 주택, 커뮤니티 홀, 한옥체험센터, 어린이집, 전시장이 지어졌다.⁸⁶⁾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이 사업 중에 포함되어있으며, 한옥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통합마스터플랜이나 디자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한 사업이다. 사업의 지원 단계를 지자체로 하여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사업총괄계획가·디자인검토제 운영·추진협의체 운영·사업 모니터링 추진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관리하였다.⁸⁷⁾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과 같이 한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19년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성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한옥건축양식의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3) 한옥건축양식의 공공건축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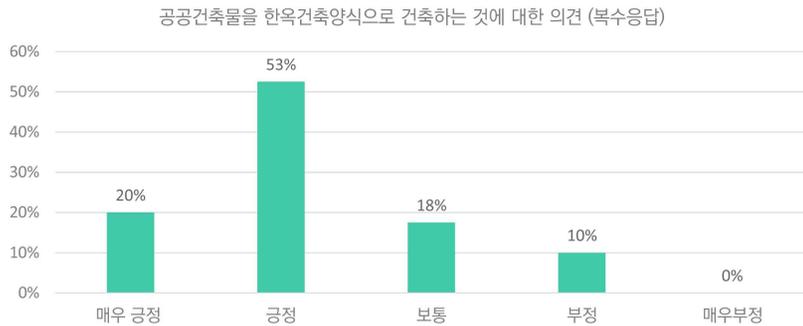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시범사업은 대부분 공공건축으로 건축되었다. 공공건축은 공동체 단위에 따라 일정한 디자인 과정의 협의를 통해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할 가능성을 갖는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디자인 검토제와 추진 협의체를 통해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어 온 사례이다. 한옥건축양

85) 국가한옥센터가 개최한 <한옥건축양식 개념 및 주요이수 발굴을 위한 제2차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2019.11.27.)> 중 김왕직 발언을 인용함.

86) 서누리·강승희·이윤섭·김진휘·정예훈·정영수(2019), “실증구축을 통한 신한옥의 신공법 및 공사비 변화 요인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3), pp.86-88.

87)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2014 since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세종: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

식을 공공건축에 적용하여 진행할 경우, 계획의 총괄을 맡는 책임자 또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 등을 통해서 공동체에 널리 이해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동체 내 담론, 나아가 정책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지구 또는 한옥밀집지역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공건축물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총 40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을 통한 한옥건축양식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매우 긍정 8명, 긍정 21명으로 72.5%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보통은 6명, 부정은 4명, 매우 부정은 0명이었다.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낮은 응답률이 나왔지만, 공공건축을 통한 한옥건축양식의 활성화는 시범사업을 제외한 다른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4] 공공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출처 : 연구진 작성

4)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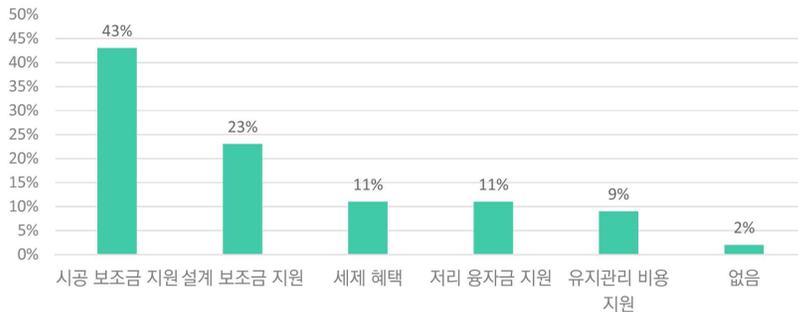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옥건축양식이 필요한 지원방식을 묻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옥건축양식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세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재정지원의 방식을, 두 번째는 재정지원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괄 또는 차등 지원에 대해 물었다.⁸⁸⁾

한옥건축양식 재정지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시공보조금 지원, 설계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3%, 23%로 높았다. 시공보조금과 설계보조금을 나누는 이유는 현행 한옥보조금은 시공과 설계를 구분하지 않지만, 한옥 정책 초기에는 설계비에만 특별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서울 은평한옥마을

88) 각 질문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 방식을 시공보조금 지원을 선택하고, 지원 대상을 건축주라고 선택하였더라도 둘 사이의 인과 관계는 없다.

의 경우 토지 분양 당시 토지계약 후 착공 필증 제출 시 설계비의 50% 한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본 조사에서 보조금 수혜 대상자는 건축주였지만, 그 보조금을 직접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이외에는 세제 혜택 저리 용자금 지원이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세제 혜택은 재산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의미하며, 저리 용자금은 이차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시공 시에 건축주 자부담금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례로는 역사미관지구에 있는 한옥이 건축규제를 받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이 지원되었고, 저리 용자금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었다. 유지관리 비용 지원은 신축 외에 한옥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수선비용 일부를 한옥 건축 시 지원하는 비용에서 일정 비율로 감하여 지원하는 방식과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수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방식이 한옥과 유사하게 짓는 방식이라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복수응답)



[그림 4-5]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출처 : 연구진 작성

조사의 결과를 통해 한옥건축양식에 적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방식은 건축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공보조금과 설계보조금을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므로,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이어서 논하도록 한다. 이외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질문으로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시 대상의 적절함에 대해 질의 하였다. 본 조사는 건축주 등 일반인을 제외하고 진행된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에 대한 재정지원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잇고 있는 대상은 설계자로 16%이다. 시공자에 대한 지원은 4%, 거주자 및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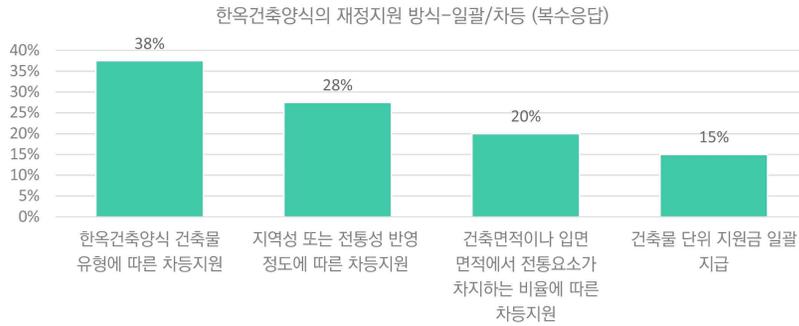
영자에 대한 지원도 4%로 응답률이 나왔다. 한옥건축양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에 대한 직접 지원은 현행 한옥 건축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조사에서 건축주의 대상을 민간 건축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공공의 사업주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한옥건축양식 건축물 건축 시, 이를 짓고자 하는 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던 설계자에게 직접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된 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면, 한옥건축양식의 진흥 초기 단계에는 건축주 대신 설계자에게 보조금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시공자와 거주자, 운영자는 현재 한옥 정책에서 이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4-6] 한옥건축양식의 재정지원 대상

출처 : 연구진 작성

재정지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재정의 일괄 지급 또는 각 상황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물었다. 여기서 일괄 지급은 건축물 단위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에는 건축양식의 건축물 유형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지역성 및 전통성 반영 정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평면과 입면의 전통요소의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차지하는 방식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림 4-7] 한옥건축양식의 재정지원 방식-일괄/차등 방식의 구분

출처 : 연구진 작성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방식은 건축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8%의 응답률을 보인 지역성 및 전통성을 반영한 정도에 따른 지원이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는 면적비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한옥건축양식 6개 유형에 대해 각기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조사에서 제시한 유형은 크게 한옥의 원형과 유사한 한옥이 제시되었고, 동시에 한옥의 현대적 변용과 일부 차용, 또는 건축가의 전통성 해석에 따른 표현도 허용하는 유형이 제시되었다. 각 유형에 있어 어떤 유형에 더 많이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책적 담론이 형성되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유형별 차등지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성과 전통성의 반영 정도는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해야겠지만, 재정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한옥건축양식의 지역성과 전통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보다 8% 낮은 수치를 보이는 면적 비에 따른 차등 지원은 다른 차등 지원방식과 비교하면 정량적으로 구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한옥건축양식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일괄 지급방식과 차등 지급방식은 현행 한옥 제도에서도 지자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옥 개량적으로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시행 시 차등 지원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등에 필요한 유형·전통성 및 지역성·면적 구분 방식 등 한옥건축양식의 형식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5) 한옥건축양식의 기술지원 방식과 행정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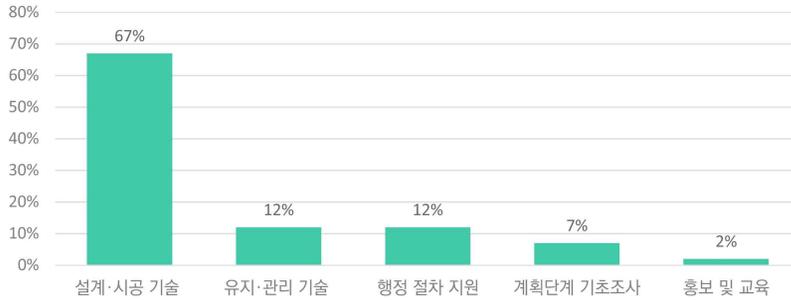
본 조사에서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도 기술지원과 행정지원 방식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설계기법 및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행정지원은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들은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건축 관련 특례사항 및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해서 한옥건축양식의 지원 방향과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다.

우선 기술 부문에 대한 지원은 설계·시공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행정 절차 지원, 계획 단계 기초조사,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식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은 67%의 설계 및 시공기술이었다. 한옥건축양식의 구조나 재료, 적용 기술 등이 비단 한옥 목구조의 연장선에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설계와 시공 기술 지원은 한옥과 일부 건축자산, 한옥을 형태적으로 닮은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옥기술개발 R&D에서 개발한 한옥신기술을 한옥건축양식에 확대 적용하는 과제 또한 이와 연결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유지·관리 기술 지원, 행정 절차지원이 동일하게 12%의 응답률을 보였다. 유지와 관리 기술은 한옥의 경우 목부재의 파손과 부식, 벽체의 탈락, 주기적인 기와 교체 등으로 인한 유지와 관리와 관련하여 거주자 상담과 지원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다. 한옥건축양식 또한 목구조를 중심으로 건축될 경우, 콘크리트와 같이 높은 내구성을 가진 재료와 비교하면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건축물을 재생하여 한옥건축양식 건축물로 활용하는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기술지원에서의 행정 절차 지원은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건축기술, 수선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받는 절차와 표준설계도서나 구조와 성능 검토 등에 대한 절차 및 상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한옥기술개발단에서는 2018년부터 '한옥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옥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 부문에서의 행정 서비스 지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계획 단계의 기초조사와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한옥건축양식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성과 전통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획 단계의 기초조사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전문가와 학생 교육도 기술지원 부문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으로 판단된다.

한옥건축양식 기술지원 방식 (복수응답)



[그림 4-8] 한옥건축양식 기술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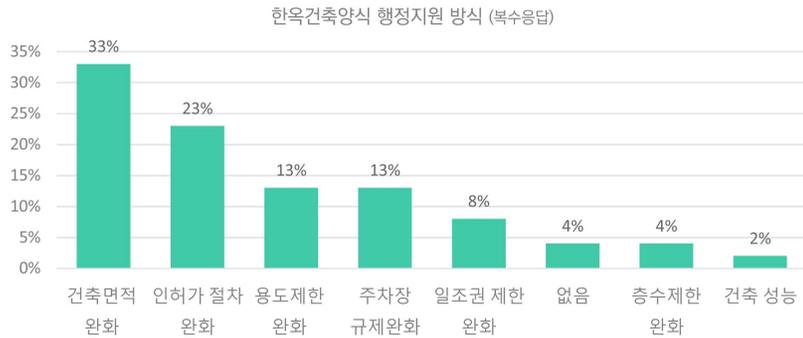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한옥건축양식 행정지원 방식에 대해 현재 한옥과 관련된 특례 및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건축면적 완화·인허가 절차 완화·용도 제한 완화·주차장 규제 완화·일조권 제한 완화·층수 제한 완화·건축 성능 완화로 구성하였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2]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적용기준(제19조 제1항 관련)에서는 총 6가지 특례적용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⁸⁹⁾ 이 특례는 한옥 건축 형태특성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제약들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사항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 「한옥등건축자산법」 제14조에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로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 문항에 적용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인 항목은 건축면적 완화에 대한 것으로 33%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한옥 특례와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한옥의 가구구조와 형태 기준을 한옥건축양식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여 기준으로 포함하는지가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8%의 응답률을 보인 일조권 제한 완화, 2%의 응답률을 보인 건축 성능 완화 역시 한옥의 형태와 재료 기준을 한옥건축양식에 적용하는 비율에 대한 문제이므로, 건축면적 완화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응답으로 판단된다.

인허가 절차 완화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은 현실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표준설계도서로 인가받은 「한옥표준설계도서」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와 같이 표준설계도서를 통한 인허가 절차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89) 6가지 특례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이다.

서는 한옥건축양식의 표준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공공과 공유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허가 절차의 완화는 비단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의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한옥건축양식의 건축허가, 사업승인, 용도 제한 등과 같은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한옥건축양식의 대상을 먼저 규정하는 작업이 제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용도 제한 완화, 주차장 완화, 층수 완화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대상건축물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는 단위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한옥건축양식은 법률상 정의에서 건축자산과 다른 호에 의해 정의되고 있지만, 향후 한옥건축양식의 활용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림 4-9] 한옥건축양식 행정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출처 : 연구진 작성

6) 한옥건축양식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사업

정책방향 제안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한옥건축양식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하였으며, 복수응답이 불가한 조건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항 구성은 특별건축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구상, 관련 기술개발사업,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 가로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우수건축 공간 공모사업, 우수사례발굴사업, 전문 인력 및 학생 교육사업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업 항목은 특별건축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28%가 해당 사업이 중요하다

고 선택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와 관련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나 지역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2호 나목에서는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적용하면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활용을 위한 공간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⁹⁰⁾ 이와 같은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로써 지역을 특화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은 한옥건축양식의 향후 정책방향 결정 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로 동일했다. 이는 앞서 기술지원 정책의 방향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기초조사와 기술개발, 설계모델 개발, 한옥건축양식 정보 관리 등이 기술개발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응답률이 높다는 점이다. 표준주택 설계도서에 있어 그간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의 성과가 대체로 저조하였던 점에도 불구하고, 표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이 표준 모델의 적용대상이 비단 민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지역에 건립되는 소규모 공공건축인 마을회관이나 경관 시설물 등에 적용된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 모델 개발도 정책 사업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문항은 표준설계도서로 제한하여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에 대해서도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변용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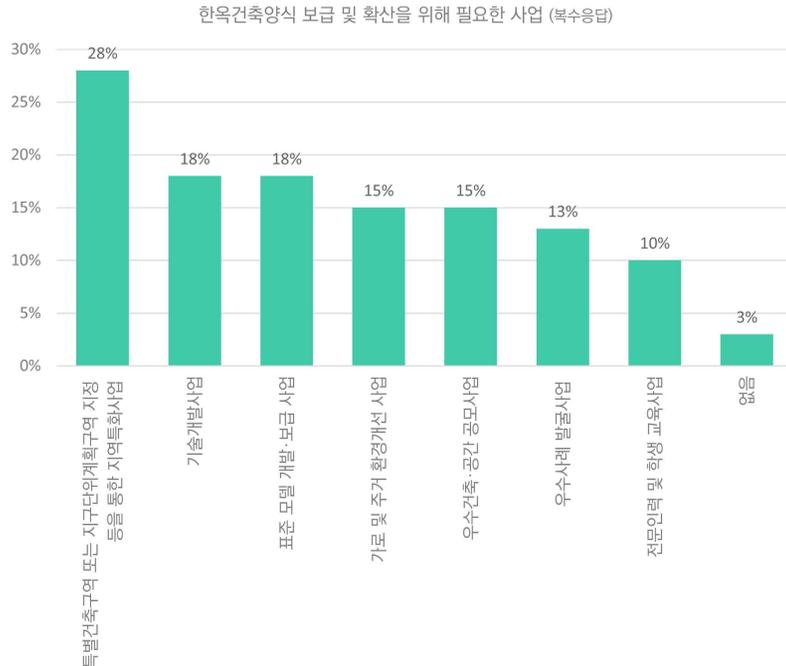
가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고도지역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고도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옥건축양식 사업을 타지역에 적용하였을 때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도지역은 대부분 문화재와 관련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을 통한

90)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공간을 특화한 대표적인 사례는 세종시 1-1생활권 D10 블록 한옥마을이다. 이 한옥마을은 2016년 6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에 적합한 건축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마련하여 한옥마을 건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옥마을에 필요한 처마, 마당, 인접대지와외의 경계 등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서 한옥을 관리하고 있다. 은평 한옥마을과 경북도청신도시 한옥마을의 경우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적합한 지침을 정하여 마을 현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자산진흥구역이나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는 특화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도구 활용되고 있다.

지역 경관과 주거환경의 향상은 비단 건축물의 신축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노후·불량 주택 정비에도 적용 가능한 제도이므로, 노후 한옥이 밀집한 지역에 적용하는 한옥건축양식 지원 사업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건축 공간 공모사업과 우수사례발굴사업에 대한 응답은 각각 15%와 13%의 비율을 보였다.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명확한 건축의 이미지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우수사례를 만드는 방법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진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수사례를 만드는 방법으로 새로운 건축을 도모하는 공모사업과 기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사업 등 각각의 방식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여 정책 효과가 높은 쪽을 택하여 정책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문 인력 및 학생 교육사업이었다. 정책 사업의 다양한 유형 중 교육사업은 정책 효과를 보는데 가장 긴 시간을 요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의 중장기적인 질적 재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가와 건축사, 건축학과 학생 등 실제 한옥건축양식 설계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과 우수사례 소개, 전통 한옥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은 향후 정책 사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10] 한옥건축양식 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
출처 : 연구진 작성

3. 소결

한옥건축양식의 정책대상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핀 본 장에서의 주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한옥과의 관계 설정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 유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화를 위한 정확한 기준마련과 이를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사업 구상을 위한 한옥건축양식 대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첫째,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용어의 모호함과 관련된다. 현행 한옥건축양식의 제도상 정의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있었지만, 더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거나 한옥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의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통해 제도상의 개념을 제한할 필요성과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둘째,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한옥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옥건축양식이 한옥 목구조의 확장된 개념으로 정리되거나, 형태·구조·재료·기술 측면에서 더욱 폭넓은 의미로서 정리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책 공론화를 통해, 향후 정책추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우선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옥양식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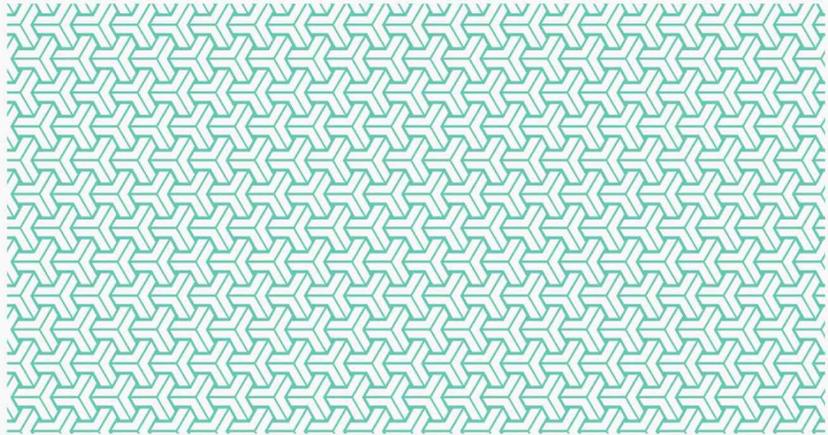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 유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 유형은 군집분석을 통해 정책 담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해석한 본 연구 4장에서 도출한 현 6개 유형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옥과 유사한 유형을 한옥건축양식으로 포함하여 향후 정책을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화를 위한 정확한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양상에 있어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할 범주를 명확히 가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전반적

인 공감대 형성 및 건축문화 전반에 걸쳐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특히 전통적 충실도에 대한 건축형태와 건축요소 조사에서 현행 한옥 관련 제도의 연장선에서 한옥건축양식을 이해하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그 세부 내용에는 한옥건축양식의 모호함 때문에 제도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사업 구상을 위한 한옥건축양식 대상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결의 전반에 걸쳐 제시된 네 가지 필요성과 연관된다. 본 조사에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유사 정책은 현행 한옥과 건축자산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이었으며, 이를 한옥건축양식으로 확대 또는 개편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옥건축양식의 정책대상 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제5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성과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확산하기 위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었다. 법률에 새롭게 등장한 ‘한옥건축양식’은 전통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 성과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성과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한옥건축양식’의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옥’과 달리, ‘한옥건축양식’은 ‘형태·구조·기술·재료’ 측면에서 폭넓은 관점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한옥을 포용하고 지역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법률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책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 및 기준수립과 함께 건축상(像)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고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 목적별 방법 및 연구성과

장	목적	방법 및 연구성과
2장	· 이론적 관점에서 개념과 범주 구체화	· 법제도 및 관련사업 내용 고찰을 통한 입법취지 및 법률상 개념 이해 · 조례반영 및 지원건수를 통한 정책적 성과 분석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범주 및 위치 파악
3장	· 사례를 통한 개념과 범주의 실제적 파악	·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건축적 특성을 분석
4장	· 정책방향 및 시사점 제시	·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심화 · 4가지 관점의 쟁점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를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책적 적용방안, 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

출처 : 연구진 작성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건축양식과 관련된 법률, 정책성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이유와 기존 법제의 한계를 확인하였고, ‘한옥건축양식’의 법적정의를 기준이 ‘한옥’에 비해 불명확하게 제정된 배경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한옥건축양식의 기준과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적 성과도 저조할 수밖에 없음을 지자체 조례반영 여부와 재정지원 실적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률 제정 이전까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흐름을 고찰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입법취

지와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제정 이전까지 한옥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학술적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연관되어 한옥의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인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이론적 범위는 현대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건축의 범주에 위치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⁹¹⁾

두 번째로, 사례분석을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를 통해 '한옥건축양식'의 법적 정의에 해당되는 186개의 전국 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건축물 특성'과 '전통요소 식별정도'를 분류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정보와 연계하여 DB로 구축했다. 분석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군집분석이 가능한 SOM(Self-Organizing Map)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다양한 스펙트럼 속 '한옥건축양식'의 존재양상을 6개 유형으로 확인하였으며, 각 유형의 특징과 대표사례를 통해 건축상을 제시하였다. 6가지 유형은 이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유형1-현대한옥)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었으나 외벽의 일부가 개량된 한옥 ②(유형2-하이브리드 한옥) 한옥과 현대건축물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결합된 한옥 ③(유형 3-한옥풍 건축)현대건축물에 일부 한옥요소가 적용된 건축물, ④(유형 4-정통한옥)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옥, ⑤(유형 5-콘크리트 한옥)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조체가 콘크리트인 한옥, ⑥(유형 6-한류건축)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한 건축물로 대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은 전통적 충실도 측면에서 폭넓은 범주를 보이고 있으며, 각 유형 안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유형 1, 2, 4와 같이, 법률상 '한옥'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앞서 이론적 범주에서 구분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법률의 입법취지, 제정 이전까지의 흐름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범주와는 달리, 법률상 법적정의 자체만으로 이해하였을 때에는 한옥건축양식이 한옥과 구분된 것이 아닌, 한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양식'의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심화하여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적 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쟁점은 크게 ① 법제도(용어, 취지, 적용범위, 보급확산 등), ② 유형 (6개 유형의 적절성, 새로운 유형 등), ③ 한옥건축양식의 범위 및 기준 (적용기준, 전통요소

91) 전봉희·권용찬(2012)의 한옥의 다층적 존재양상의 모식도상 범주를 인용하였다.

등), ④ 지역성 적용 (지역성을 고려한 지원책, 조례개정 여부 등)으로 도출되었다. 4가지 관점의 쟁점에 대해 한옥건축양식의 발전방향과 시사점은 이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법적정의를 구체화함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관점에서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한옥과의 관계 설정 필요하다. 한옥과의 관계가 명확히 되어야 한옥건축양식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형태, 구조, 재료, 기술 관점에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③ 본 연구에서 제안한 6개 유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유형 안에서 정책대상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을 선별하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정책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 한옥건축양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범주에 대한 쟁점은 전문가들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⑤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한옥건축양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가 미비한 원인은 법률상 불명확한 기준과 범주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하고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이하와 같다.⁹²⁾

먼저, 본 연구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한 범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정의와 기준을 다루고자 한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제적 범주에서 파악된 6가지 유형은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다면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6개의 유형이 ‘한옥건축양식’ 전체를 대표하거나 완전성을 갖는 결과가 아닌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가·제외될 수 있으며 변형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 번째로 법률상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상(像)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관점과 분석기준이 건축물의 형태적인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이 갖는 가치는 형태적인 요소 외에도 사회문화, 역사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비형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 용어, 적용기준, 범주 등 특정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대립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거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전문가 뿐 아니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성에 기반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창하였으나, 본 연구는 지역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역성에 따라 한옥건축양식 유형의 인정범위나 적용가능성이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지역 단위 연구에 기반하여 한옥건축양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역별 한옥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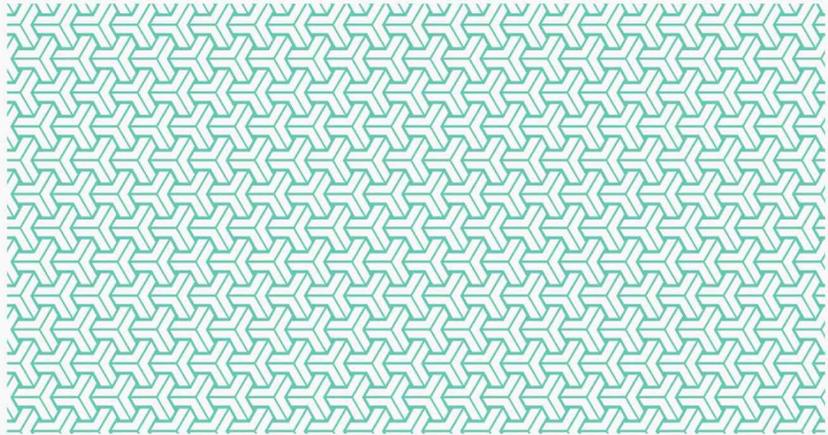
92) 이론적 범주 구체화 단계에서 특정 연구자가 제시한 모식도를 인용하는 것이 선행연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편향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 한옥건축양식의 범주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용어의 전달을 위한 이 목적임으로 연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식의 보급·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에도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파악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강진원(1988), 「한국 현대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8),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10),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1」, 국토해양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서울학연구소(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 국토해양부.
- 건축문화 편집부(1983.6), “[특별취재] 독립기념관·독립공원 기본계획 및 현상설계공모 안”, 「건축문화」, n.25, p.45.
- 경주시청 왕경조성과,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내부자료.
- 구영일(1988), 「건축형태지각을 통한 한국성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한옥센터(2016), 「한옥마을 이야기」.
- 국가한옥센터(2017), 「2017 한옥통계백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2014 since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해양부(2010), 「한옥 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10), 「한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든다」, 이마.
- 김경수(2011),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본 신한옥”, 「동양예술」, v.17, 한국동양예술학회. pp.301-331.
- 김광현(1987), “독립기념관의 한국성과 기념성”, 「건축사」, v.1987(8), 대한건축사협회. pp.38-43.
- 김기웅(1984),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규(1980), “한국의 현대건축과 조국근대화 그리고 전통의 계승”, 「건축사」, v.1980(9), 대한건축사협회. pp.28-30.
- 김미정·고부영·안창현·윤보윤·이강심·정경숙(1994),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적 건축요소의 실태분석”, 「婦學」, v.27,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pp.61-64.
- 김병엽(1989),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범·권영상(2010), “신한옥마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공공정책연구」, v.17(2), 한국공공정책학회. pp.91-122.
- 김선영(2016), 「사용자 중심의 한옥형 호텔 객실공간 실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우(1991),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과 창작”, 「미술사학」, v.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79-98.
- 김소연(2007),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 건축가의 정체성」,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철(2015), “1967년 김수근의 건축이론 - (구)부여박물관 건축의 ‘양식’-‘공간’-‘텍토닉’”, 「부여학」, v.5, 한국고도육성포럼 부여지회. pp.313-314.

- 김용균(1994), 「현대건축사조별로 본 한국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2009),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가능성”, 「건축」, v.53(9), 대한건축학회. pp.30-35.
- 김중범·김상태(2017) “한옥건축양식에서의 건축가 역할론:고전적 전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017(춘계), 한국건축역사학회. pp.369-372.
- 김지홍(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균(1981),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축」v25(4), 대한건축학회. pp.33-37.
- 김현섭(2014.2), “건축의 한류(韓流)는 가능한가”, 「건축사신문」.
- 김현섭, 이용희(2019.5),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SPACE」 618.
- 남해경(2010), “전주한옥마을 주거건축 평면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21(4), 한국주거학회.
- 대한주택공사(2009), “2009 신한옥 공모전 설명문”, 대한주택공사.
- 류미리(2017),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미리·서치상(2017), “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017(춘계), 한국건축역사학회. pp.131-140.
- 마르틴 하이데거(2008), 「강연과 논문」, 이기상 외 역, 서울: 이학사.
- 문선욱(2007), “한국 전통문양의 신도시 경관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 연구」, v.2(1), 한국공공디자인학회. pp.17-28.
- 문정민(1998), “건축에 있어서 한국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진주여자전문대학 논문집」, v.21, 진주여자전문대학. pp.351-372.
- 문화체육관광부(2007),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경립(1986),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길룡(2015), 「한국 현대건축 평전」, 공간서가.
- 박승규(2013), 「한옥형 호텔의 공간구성요소와 체류만족에 관한 실증분석: 경주 보문단지 내 '라궁(羅宮)'의 방문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현(2018),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의 생산과 재현」, 서울시립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영(1984), 「현대주택 실내공간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형민·우동선·김봉렬·전봉희·이규철(2011),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김승희와 최옥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건축역사연구」

- v20(3), 한국건축역사학회. pp.39-58.
- 변태호(1997),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사고들의 유한적 표상과 '민속건축'에 대한 소고", 「건축역사연구」, v.6(1), 한국건축역사학회. pp.67-79.
- 부여군청 문화재과, "한옥건축양식 지원 현황", 내부자료.
- 서누리·강승희·이윤섭·김진휘·정예흔·정영수(2019), "실증구축을 통한 신한옥의 신공법 및 공사비 변화 요인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3), pp.86-88.
- 손동화(2018), 「전통 도시가로 경관구성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북촌지역 한옥입면과 가로 요소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승광, 손동화(2018) "하이브리드 한옥의 유형과 구성모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29(6), pp.101-120.
- 손철송(1984),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문희·성인수(1998), "지역주의 건축관으로 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18(2), 대한건축학회. pp.623- 238.
- 송미림(2009), "한국전통 꽃창살문 도자타일을 활용한 21C 주거공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pp.247-257.
- 송인호(1990),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 1930~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승효상, 이종건, 공철, 김현철, 김현섭, 한동수(2016.3), 「건축비평집담 2016 첫 번째: 승효상의 건축 - 수졸당과 빈자의 미학」, 건축평단.
- 신정훈(2000),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배(1987), "전통성의 실상과 허상 -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고", 「건축사」, v.1987(2), pp.50-57.
- 양상호·박순관(2009), "제주의 지역주의 건축: 1950년대 이후의 흐름과 표현양상에 대한 비평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18(6), 한국건축역사학회. pp.7-22.
- 유광흠·신민중(201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민·옥채원(2010) 「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민·박민정(2012),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민 외(2013),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2) 한옥의 세계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민 외(2014),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3) 한옥의 자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강민(2016),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v.60(8), 대한건축학회. pp.20-23.
- 이동우(1986),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호·이동우(1987),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7(1), 대한건축학회. pp.29-32.
- 이민경·이종민·유광흠(2017),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배화(1980), “한국전통건축의 해석과 계승을 위한 창조적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 『UOU Report』, v.11(1), 울산대학교, pp.107-119.
- 이상현(2015),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v.24(6), pp.35-44.
- 이송이(2012),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2000년 이후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용(1979), “한국현대건축의 전통구현방법론에 관한 연구”, 『THESES OF TAEJON TECHNICAL JUNIOR COLLEGE』, v.25, 대전공업전문대학, pp.515-524.
- 이용희, 김현섭(2016.10),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v25(5), pp.51-62.
- 이은경(1999), 「한국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내장 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장필구·이한형(2018),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 - 근대기 왕실벽지를 통하여 본 실내공간의 색”, 『디자인학연구』, v.31(4), 한국디자인학회, pp.171-186.
- 이해준(2011), “전통한옥의 활용과 기초자료정리 문제”, 『역사민속학』, v.37, 한국역사민속학회, pp.375-396.
- 이형재(1989),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정(2001), 「신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자본, 권력의 공간화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형택 외(2010),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
-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 『建築士』, v.1992(11), pp.44-51.
-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 『建築士』, v.1992(10), pp.52-57.
-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I)”, 『建築士』, v.1992(12), pp.58-63.
-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V)”, 『建築士』, v.1993(1), pp.56-61.
-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V)”, 『建築士』, v.1993(2), pp.58-63.
- 장영창(2008),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봉희·권용찬(2012),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동녘.
- 전봉희·이강민(2011.11), “한옥의 정의와 범위”, 『한옥정책브리프 No.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진삼(1997.6), “한국의 건축 / 전통과 모더니즘의 불안한 동거”, 『사회평론 길』 v97(6),

pp.114-117.

- 정재국(1999), “전통건축 –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建築士』, v.1999(2), 대한건축사협회. pp.76-78.
- 조성호·김성우(2014),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유형과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30(1), pp.81-90.
- 천득염(1998), “전남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계승 :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호남문화연구』, v.2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263-291.
- 최상희·박신원·송기옥(2011), “신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 특성과 구매 결정요인 실증분석”, 『국토계획』, v.46(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256.
-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2013), 『한국적 실내공간 디자인 요소 DB구축 연구』,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신한옥마을 시범사업 시행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 토지주택공사.
- 한상석(1997), 『한국 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표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진석(2000), 『역사주의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건축의 이해와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조(2000), 『김중업 건축에서의 지역주의적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exei Tarkhanov and Sergei Kavtaradze(1992), *Architecture of the Stalin Era*, New York: Rizzoli.

Anders Åman(1992), *Architecture and Ideology in Eastern Europe during the Stalin Era: An Aspect of Cold War History*, Cambridge MA: MIT Press.

Anthony Vidler(2008),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Cambridge MA: MIT Press.

Barbara Miller Lane(1985),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enedict Anderson(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Christian Norberg-Schulz(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edric Jameson(1984.7-8),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Fredric Jameson(1994), “The Constraints of Postmodernism”, *The Seeds of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an, J., Kamber, M., Pei, J. (2015).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Third*

Edition (The Morgan Kaufmann Series in Data Management Systems),
Morgan Kaufmann; 3 edition.

Jean Baudrillard(1998), *The Consumer Society: Myths and Structures*, London: Sage.

Jean-François Lyotard(1991), "Domus and the megalopolis", *The Inhuman: Reflections on Time*, Polity Press, Cambridge.

Jonathan Glancey(2017), "The Unbuilt Nazi Pantheon: Unpacking Albert Speer's "Volkshalle"", *Ullstein Bild/Getty Images*. Image Courtesy of Laurence King Publishing.

Kenneth Frampton(1983),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Port Townsend WA: Bay Press. pp.16-30.

Kohonen, T.(2001), "Self-Organizing Maps, Springer Series in Information", *Sciences*, 30(Springer).

Koua, E. L., and Kraak, M. J. (2004). "Geo-visualization to support the exploration of large health and demographic survey data." *Health Geographics*, 3(1).

Martin Heidegger(1954), *Bauen Wohnen Denken*, Vorträge und Aufsätze, Neske, Pfullingen.

Martin Heidegger(1971), *Building Dwelling Thinking*, trans. Albert Hofstadter, London: Harper and Row.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6), *Han Style: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eil Leach(1998), "The dark side of the domu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v.3(1).

Roland Barthes(1972), *Mythologies*, New York: Noonday Press.

Victor Farias(1987), *Heidegger et le nazisme*, Paris: Verdier.

「건축법」, 법률 제17091호(2020.3.24. 타법개정), 제2조제1항제9호; 제58조; 제61조제1항;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시행), 제2조.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59호(2017. 9. 8. 일부개정), 제2조; 별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69호(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6418호(2019. 4.30. 일부개정) 제14조; 제15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057호(2018. 12. 24. 일부개정), 제3조.

「민법」, 법률 제14965호(2017. 10. 31. 일부개정), 제242조제1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092호(2019. 3. 28. 일부개정), 제21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225호(2018. 5. 17. 전부개정), 제12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48호(2012.2.17. 개정), 제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제1조; 제2조; 제31조.

BOOKING.COM, <https://www.booking.com/hotel/kr/commodore-busan.ko.html/>
CNN Travel, <http://edition.cnn.com/travel/article/top-things-do-and-see-seoul/>
Jodesign, <https://jodesign.kr/>

The Institute of Canine Biology 홈페이지, <https://www.instituteofcaninebiology.org/>

THE QOO, <https://theqoo.net/square/344361735/>

VISIT SEOUL. <http://korean.visit-seoul.net/>

구가도시건축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gugaua/posts/>

구가도시건축 홈페이지, <http://www.guga.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www.gugak.g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signwhoswho/221178560530/>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funky6782/>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jung7979/>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ashoka108/1165/>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402111613017407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사이트,

<http://m.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

메리엄 웹스터 홈페이지,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radition/>

모노그래프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www.monograph-studio.com/blank-2/>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38&astClsCd=/>

블루리본 서베이, <https://www.bluer.co.kr/magazine/modal/106G/>

월계문화복지센터, <http://wgwc.or.kr/>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8258730/>

중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wu.ac.kr/site/siteView.jwu/>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bout/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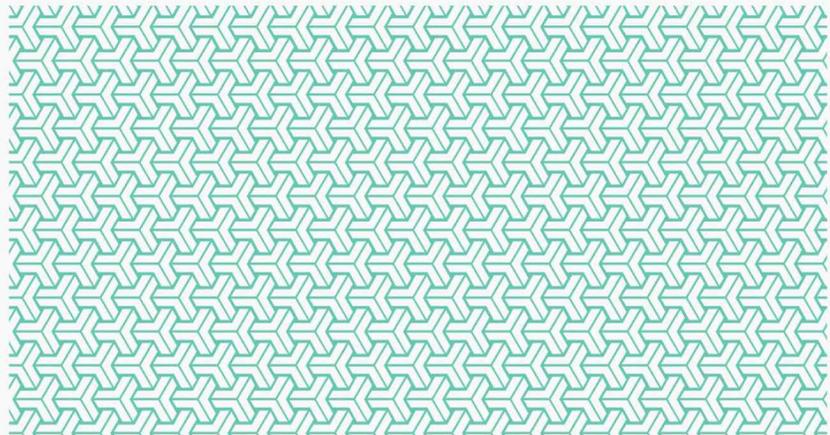
카카오맵 로드뷰, <https://map.kakao.com/>

티스토리 블로그, <https://photohistory.tistory.com/15755/>

행복이 가득한 집 매거진,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

화천한옥학교, http://www.hanokschool.co.kr/bbs/board.php?bo_table=sub2_2/

부록



- 1)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전개
- 2)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선행연구 목록
- 4) 온라인 설문조사지
- 5) SOM 분석 결과 데이터
- 6) 한옥건축양식 사례 DB

1)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전개¹⁾

① 한옥 규정의 제도화 과정

□ 21세기 한옥정책의 전개

한옥 건축이 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21세기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다. 한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후 100여 년 동안 한옥이 건축 정책의 대상으로 전면에서 드러난 사례는 거의 없다. 신영훈, 김홍식 등 한옥이라는 용어를 표제로 사용해 한국의 전통건축을 개념화하려던 학자를 제외하면 학계에서도 널리 통용된 용어는 아니다.

한옥은 보존지구의 집단 주택을 대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1976년 서울 북촌 지역이 ‘민속경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83년에 가회동, 계동 일대를 도시계획법상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하였다. 1990년대에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가회동은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옥은 정책 이슈로 대두되게 된다. 가회동의 폭력적 재개발에 대한 ‘북촌가꾸기 기본계획(2001)’은 새로운 세기를 여는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괄목할만한 한옥정책의 성과를 거둔 것은 ‘서울 한옥선언(2008)’이 발표되면서 서촌이 보존대상으로 포함되고 은평의 주택지를 한옥 전용으로 분양하면서부터이다.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은 정책 대상이 되는 한옥과 한옥마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하나의 이슈를 몰고 온 전주한옥마을은 2012년 조사 결과, 총 530여 동의 한옥이 남아있는데, 1920년대부터 계속 지어져 왔으며, 194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각각 20%씩을 차지해서 당시 건축 붐을 짐작할 수 있다.²⁾ 전주한옥마을 역시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는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었다. 1997년과 1998년에 미관지구가 해제되었다가, 1999년 다시 ‘전통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는 과정도 북촌과 유사하다. 전주한옥마을의 극적인 변화는 2002년 전주시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2002)’가 제정된 사건이다. 이왜여듬해부터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현재 전주한옥마을의 모습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에 이루어졌다. 전주시의 통계에 따르면, 월드컵 때 30만 명 정도였던 연간 관광객 수가 2006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또, 2009년과 2010년에 극적으로 폭발하여 350만 명에 이르렀으며, 현재 6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가장 많은 한옥을 건축한 정책 사업은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행복마을 사업은 2006년에 시작했다. 한 마을에서 10호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대지에 20호 이상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 전라남도

-
- 1)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관련 정책 흐름’ 원고는 이강민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학과)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되었음.
 - 2) 남해경(2010), “전주한옥마을 주거건축 평면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21(4), 한국주거학회. p.141.

서 건축비를 보조한다. 행복마을 사업은 한옥발전 기금 500억 원을 조성해서 2014년까지 135개 마을, 약 2,00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행복마을 사업에 의해 전라남도에 지어진 한옥은 21세기 한옥에서 양적으로는 단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가장 최근에 인기를 끈 것은 경주 황리단길이다. 후발주자이지만 단숨에 유명세를 탔다.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개년 간 479억(국비 335억) 원을 투자하여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 지정지구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의 개선을 도모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은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하는 건축물에 대해, 발굴조사비(실비)를 지원하고, 설계 및 공사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보도, 소공원, 유적 보존지역, 담장, 대문, 간판,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 황리단길과 공주 공산성 앞 금성동 등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황리단길의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사업과 보조를 맞추며 국가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2007년 발표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하여 총 10여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계획에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의 6개 분야가 포함되며, 이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하여 전통문화를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한옥은 이처럼 전통문화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한스타일'로 명명된 한국 전통문화 브랜드는 한국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 및 상징성이 분명하나 자생력이 부족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6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명품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분야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류열풍 및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등,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당시 세계 제13위 수준에서 2015년까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2월에 발표되었다. 40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 중 한옥에는 5가지 과제가 할당됐다.

- 전통한옥의 보전·관리 및 활용
-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한옥건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한스타일 사업의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옥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재조명이 이루어졌고 정

책 전반에서 한옥 건축이 주요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2009년에 출발한 국토해양교통부의 한옥기술개발(R&D) 사업은 제1차 사업기간인 2013년까지 전통한옥에 비해 시공비를 60% 수준으로 낮추고 단열 성능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한옥 기술의 첨단화를 추진했다. 이어진 제2단계에서는 한옥형 공공건축물과 한옥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한옥기술의 성취는 마스크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고성능 저비용 한옥기술의 개발은 한옥이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렸고 현대 한옥이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한옥 건축의 정책적 성공가능성은 한스타일 6개 분야 중에서 한옥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0년 5월 3일 제3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은 한옥문화가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구체적인 요인을 진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별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2020년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의 목표로 삼고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신한옥 플랜은 기존 ‘한스타일 육성 기본계획’에 비해 가시적인 시점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옥 플랜은 한옥의 개발·보급·보전·활용의 단계에 각각 개입하고 있다.

- 살기 좋고 저렴한 새로운 한옥 모델을 개발한다.
- 한옥의 보급으로 국토의 품격을 높인다.
- 주거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
- 국격 향상을 위해 한옥을 관광·문화자산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한옥건축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한옥의 건축비 3.3㎡당 약 1,000만 원에서 60% 수준인 600만 원 내외를 맞추기 위해 기술을 단순화, 표준화했다. 기술적용의 기대효과로는 민간 한옥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약 5,000채 정도의 한옥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5,000채는 약 1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단위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약 13,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으로 전통적인 한옥에 대한 접근자세인 보전가치가 높은 한옥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한옥 플랜은 한옥정책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토해양교통부로 이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이 분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건축 행정의 발상 아래 구체화되는 한옥건축기준이 성립하게 되며, 종래의 브랜드 육성은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신한옥 플랜에서 제시되면서, 그 다음 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국가한옥센터가 설치되었다. 국가한옥센터는 정부 차원의 한옥정책 싱크탱크로서 초기 한옥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필요한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최전선에 자리 잡았다.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여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준공 부문, 계획 부문, 사진 부문을 접수받는데, 올해로 9년 차가 되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으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라든지, 한옥설계와 공사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국가 주도의 정책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시기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촉발되어 2000년대 후반에 주요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동시에 한옥을 주목했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한옥 붐이 일었던 시기이다. 이를 '한옥현상'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³⁾. 즉, 한옥 현상은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대두된 국민들의 한옥에 대한 높은 수요와 그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과 건축적 논쟁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

□ 한옥정책의 배경과 동력

한옥정책 성과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는 단연 한옥의 인허가수이다. 기존의 보존 정책이 멸실률을 조사하여 살아남은 한옥의 숫자를 세었다면, 한옥현상 속에서 한옥정책 담당자들은 신규 한옥의 인허가수를 카운트하게 된다. 단, 한옥은 건축 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조건축의 수를 헤아려 비율로 추정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생했다. 목구조 건축물의 인허가수 역시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허가 연면적을 살펴보면, 2007년 목구조 건축은 전체건축 허가 연면적의 약 0.46%였으나, 4년 만인 2011년에는 두 배로 성장하여, 약 1%에 육박한다.⁴⁾ 최근 산림청의 발표에 의하면, 1999년 총 건축허가 건수 95,286건 중 목조건축이 1,265건으로 1%에 해당했지만, 2018년 270,811건 중에서 12,750건을 차지해서 약 5%로 성장했다고 한다. 수량으로 보면 약 10배에 해당하는 증가량이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이들의 평균 연면적은 약 30평을 조금 넘는 정도이므로 단독주택이 수요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단독주택 수요에서 목조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조건축은 해마다 10,000여 채 이상 건축되고 있으며, 당분간 성장세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옥은 목구조의 일부를 차지한다. 정확한 숫자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기와지붕을 가진 건축물을 추출하여 이를 항공사진과 대조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옥은 매년 약 1,500채가 지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 목구조 건축물의 10%~2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 이전까지 신축되는 한옥의 수는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겠지만, 다른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21세기가 되면서 목조건축과 한옥이 부상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기와지붕과 목조는 전근대를 상징하는 해결의 대상이었고, 철근과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전체 인허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한 것으로서, 획기적으로 국토경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상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건축되는 한옥이 지역의 특별한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3) 이강민(2016), "한옥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v.60(8), 대한건축학회, pp.20-23.

4) 유광홍·신민중(2012), 「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5.

이와 같은 목조건축과 한옥건축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커다란 전환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0년대에 들어 크게 바뀐 삶의 방식이 그 근처에 있을 것이고 이는 사회적 지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달성이다. 건국 이후 요원한 것처럼 보였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것도 IMF의 여파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상황이었다. 가용 소득의 증가는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다. 한옥 수요와 관련해서 본다면, 생활환경에서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의 발현이다. 놀라운 경제성장은 그 원인을 찾는 자연스러운 탐구로 이어졌고, 이에 뛰어난 민족성이 답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로서의 전통문화가 대두되었다. 한옥은 현재의 위대한 한국인을 탄생시킨 요량으로 설정되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개막이다. 1990년대 중반 처음 우리의 드라마가 아시아로 수출되면서 고조되기 시작한 소위 한류 열풍은 2000년대에 들어와 케이팝(K-Pop)을 통해 결정적인 상승을 이루었으며, 현재 압도적인 인기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문화 전반에서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울 북촌과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되었으며, 한국을 떠올리는 아이콘이기도 하다. 한옥이 주는 이국적인 분위기는 한복이나 한식 등 다른 전통문화와 어울릴 뿐만 아니라 뮤지엄, 와인, 파스타와 결합한 퓨전 문화를 형성하면서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획득했다. 외국인의 경탄은 한국인과 다른 것이 아니어서 한옥건축이 지닌 상업적 잠재력은 수많은 사업적 영감을 자극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가로변과 골목의 한옥은 상인들이 매입하여 카페, 쇼핑, 레스토랑, 갤러리로 바꾸었다.

셋째, 주택보급률 100%의 초과이다. 이는 보통사람이 한옥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지나며 100%를 넘겼다. 사실 주택보급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90% 후반 대에 자리 잡고 있던 중이었다. 주택문제의 시대에 추첨과 분양의 대상이었던 주택이 온전한 상품성을 갖추어야만 경쟁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론 공간의 구성과 설비 등 현대적 편의성이지만, 재료와 형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등장했다. 2002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웰빙은 건강이나 여유를 표현하는 우아한 삶의 태도로 여겨졌고, 넉넉한 삶의 상징으로 통했다. 웰빙을 붙이는 상품은 대체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강조하는 것들이다. 콘크리트와 철골은 웰빙을 표현하기 힘들고, 대신에 목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 농촌에 지어지는 목조주택은 저렴하고 고급스럽지 않은 경량목조주택이 대부분이었지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나무와 흙이 주는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었고, 다양한 건축적 시도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전환기에 한옥은 놀라운 선호도를 획득했다. 국가한옥센터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한옥 거주 희망자의 비율은 53.1%에 달한다. 아파트

28.7%와 단독주택 16.0%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치이다. 한옥 선호도가 아파트를 추월한 것은 2008년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당시 한옥 선호도는 41.9%로서 아파트의 29.3%를 훨씬 앞질렀다. 2012년의 조사는 국민들의 기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에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선호도가 곧바로 실현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앞으로 3년 안에 이사할 수 있는 주택유형에 대한 설문에서는 아파트가 46.2%로, 한옥 30%, 단독주택 18.5%를 역전한다. 한옥 거주를 희망 이유는 새로운 주택유형에 대한 욕구가 4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귀농·교외 생활이 17.3%를 차지했다. 한옥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옥의 입지에 관한 설문에서, 자연환경의 쾌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향후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또한 무시되지 않았다. 또, 장년층에서 자연환경을 중시한데 비해, 청년층에서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도심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환경이 쾌적한 도시 근교가 적절한 한옥의 입지로 지목되었다. 도심에서 자동차로 약 20~30분 정도의 거리이다. 마을의 규모는 20~50세대 이하의 소단위를 선호했고, 공동 텃밭, 피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응급의료 시스템 등이 제안되었으며, 개별주차장을 원하는 등 한적하고 여유로운 교외의 풍경을 상상했다. 또 응답자의 53.3%가 토지를 분양 받은 후 각자 한옥을 설계하고 시공하길 원해서 맞춤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한옥의 규모는 아파트에 비해 넓은 면적을 원했고 일반주택보다 약 5,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약 100평, 건물면적 약 35평의 규모에 3억 4천만원대의 가격이 적절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 방은 3개, 화장실 2개를 갖추고 수납공간이 충분한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원했다. 건축물의 형태는 목구조와 기와지붕을 유지하되, 실내에는 현대화된 공간을 원했다. 이와 같은 한옥 수요의 구체적인 양상이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정밀해졌다.

□ 한옥의 사회적 개념과 법률적 정의

한옥의 법률적 정의는 2010년 2월 18일에 탄생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이 추가되면서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즉, 자연재료, 한식목구조, 전통양식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옥의 대중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것이었고, 한국 전통건축의 외관적 특징을 정리한 것이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한옥은 법률에서 정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문제가 되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걸림돌이 되었다. 먼저,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의 자연재료는 필연적으로 교체가 필요했다. 단열성능이 우수한 벽체와 창호의 대안, 가볍고 값싼 기와의 개발, 단순한 기술로 조립이 가능한 목조결합부가 개발되고 있는 와중에 전통

적 법식과 기법을 강조하는 정의는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한옥의 정의는 큰 논쟁을 불러왔고, 2015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합의의 과정을 겪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한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⁵⁾

2010년의 정의와 비교해보면, 자연재료 규정이 사라졌고,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라고 하여, 주요구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료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한옥건축기준’에 명시하기로 하고 법령이 추진되었다.

한옥의 정의는 형태 미학적 개념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장치들을 숨겨둔 것이었다. 재료와 구조를 한정하고, 문양 등을 반영케 하는 것은 예전 국가주도의 전통계승 사업들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건축계에서는 이에 크게 반발했던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건축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중소 주택업자들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대한건축학회의 학회지 「건축」에서 21세기 한옥을 다루고 있는 주요한 특집은 다음과 같다.

- 전통건축, 미학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2008년 3월호, 한동수 기획)
- 한옥창신(韓屋創新)을 위한 실천과 전망 (2009년 9월호, 송인호 기획)
- 한옥 및 한국 목조건축의 현주소와 미래 (2013년 4월호, 김왕직 기획)
- 한옥정책의 현재와 미래 (2016년 8월호, 김영재 기획)

특집을 구성하는 주제와 필자의 특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술의 강조이다. 특집 제목이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한옥은 ‘미학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대신에 환경, 재료, 창호, 온돌, DB건축까지 기술에 매진했다. 이들 글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회귀가 드러나지 않는다. 가치 평가와 비평의 관점이 결여되었다고 느껴질 만큼 미래지향적이다. 한옥에 대한 놀라운 수요를 바탕으로 가야할 길을 정해 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전의 특집을 보면 한옥은 과거의 건축으로부터 교훈을 찾거나, 잘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미와 가치가 강조되고 변경에 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② 한옥건축기준의 성립

□ 신한옥 개념의 등장

한옥 현상의 전개과정에서 불거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그리면

5)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2739호(2014. 6. 3. 제정), 제2조.

서 잠재적인 진영을 형성했다. 한옥의 정의를 둘러싼 입장이 확장된 것인데, 특히 한옥기술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양측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입장들은 논리적이기 보다는 신념에 가까운 것이어서 논쟁을 통해 판결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일군의 학자들과 문화재 관련업자들이 뜻을 같이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구들, 아궁이, 벽체, 창호, 기와, 지붕 속이 현대식으로 교체되고, 나아가 목수의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목조의 철물 결합이 진행되는 모습에 크게 우려를 표했다. 본드로 겹겹이 붙인 공학목재와 철물결합의 사용은 한옥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철판구조의 혼합이나 트러스 구조의 적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겨졌다. 소위 '진정성' 논쟁이 불거졌다.

한옥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옥의 역사를 근거로 정통성을 반박했다. 한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건축유형으로서 더 나은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한옥을 짓는 행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옥에서의 건강한 환경과 따뜻한 심상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신한옥' 개념이 등장한다. 각종 연구성과로 제시한 신한옥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신한옥이란 한국전통적인 목구조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이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⁶⁾
- 한옥의 전통가치와 더불어 선진화된 목조건축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대적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선한 건축물⁷⁾
- 신한옥은 기존의 한옥의 전통성에 현대의 건축성능을 접목시킨 새로운 의미의 한옥⁸⁾
-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이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미래 한국의 일상적 주거문화로서 역사·문화·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공간⁹⁾
- 한옥의 전통가치와 더불어 선진화된 목조건축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대적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도록 개선한 것¹⁰⁾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8), 「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건축 연구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2.

7)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신한옥마을 시범사업 시행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대한주택공사(2009), “2009 신한옥 공모전 설명문” 대한주택공사.

9) 국토해양부(2010), 「한옥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p.22.

10) 김상범·권영상(2010), “신한옥마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공공정책연구」, v.17(2), 한국공공정책학회. pp.91-122.

- 기존의 한옥 개념이나 규정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형시킨 것. 즉 새로운 한국의 건축¹¹⁾
- 전통적인 한식목구조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설계·성능·시공기술 분야에서 현대적 재료와 공법·기술 등을 적용하여 한옥의 가치를 종전보다 증진시키는 건축물¹²⁾

이처럼 신한옥의 키워드는 기술과 현대이다. 신기술을 통해 성능향상을 꾀하며, 현대적 생활의 편의성을 부가한 건축물이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한옥은 이 정의에 의한 신한옥이다. 그러나 신한옥 개념은 교묘하게도 건축법시행령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목구조와 외관의 특징적인 요소를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곳의 개선을 통해 단점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어디까지 교체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신한옥의 건축기준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급히 고시된 ‘한옥건축기준’은 위와 같은 신한옥의 조건을 보다 정밀하게 묘사했다. 이미 법률에서 바뀐 한옥의 정의 중 유일하게 깨어지지 않은 한옥의 조건인 ‘전통양식’이 정밀하게 규정되었다. 기둥 아래에 주춧돌을 받쳐야 하고, 지붕의 처마는 90cm 이상 내밀며, 기와는 암수의 형상을 갖춰야 하는 것은 주로 형태적인 모습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하층과 바닥, 계단 등에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상 층에도 주요부재가 아닌 일부 구조부재를 철골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은 큰 성과이다.

한옥건축기준의 기본방향은 한옥건축에서 공공 영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한옥 정책이 규제가 아니라 진흥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옥 건축의 공공성의 영역, 즉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추어 열린 기준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신기술 개발과 적용의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고려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일반시민 등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문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적 사양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철저히 건축자산법에 한정된다. 즉, 제24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26조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한옥건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한식지붕

11) 김경수(2011),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본 신한옥 -최근 뉴욕의 몇몇 현대건축에 대한 비평을 실마리로”, 『동양예술』, v.17(0), 한국동양예술학회. pp.308-309.
 12) 최상희·박신원·송기옥(2011), “신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 특성과 구매 결정요인 실증분석”, 『국토계획』, v.46(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256.

틀, 처마선, 처마깊이에 대한 정의를 마련했으며, 제4조제1호에서는 바닥 및 주계단을 제외한 지상 층의 주요구조부에 목재 사용 원칙을 확인했고, 제4조제2호에서 일부 구조부재에 목재 이외의 재료사용을 허용했다. 제5조제1호에서는 지붕에 기와를 얹을 경우, 암·수키와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고, 제5조제2호에서는 최소 처마깊이가 90센티미터 이상 되어야 할 것을 권장했고, 제5조제3호에서는 처마물로 인한 목재의 부식·부패 및 인접대지 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는 구조재 및 수장재를 노출하고, 외벽면은 그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했으며, 제6조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각 층은 목재 부재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설비에 관한 부분인데, 특례 적용에 대한 에너지설계기준 마련했다. 또, 제7조제4항에서는 현대건축물에서 수반되는 시설 및 설비를 차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8조제2항은 가로에 면한 담장의 최고 높이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4조제6호, 제5조제5호는 특별히 중요한데 지역적·경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4조제6호에 따라 용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체 구조부재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 이외의 재료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역 및 경관 특성에 따라 기와 이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붕을 잇거나, 기와의 형태 및 재료, 처마깊이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옥건축기준의 한계와 지향점

법률에 명시된 한옥의 정의와 여기서 파생된 한옥건축기준은 모두 ‘말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한옥은 단순히 구성요소의 합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평균적인 형태와 수치가 강요되어서도 안 되는 범주의 개념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임의적인 재단이 필수적이라는데 모순이 있다. 한국인의 정의가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혈통이나 거주지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도 유사하다. 한옥을 규정하는 일은 한국인의 정의보다 훨씬 복잡하다.

인체 비유를 반복하자면, ‘한옥건축기준’은 예를 들어 한국인의 얼굴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인의 표준 머리카기, 눈동자의 표준 색깔, 표준 코높이 등은 통계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벗어나는 사람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이것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한 ‘미의 정상관념’을 상기시킨다. 정상관념은 종(種)을 묘사하고 재생산할 때 필요한 원형이지만 개체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옥건축기준’은 한옥이라는 관념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벗어난 ‘비정상’적인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③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 한국적공간 정책사업의 시작

한국적공간은 한옥건축양식 이전에 성립했던 정책개념이다. 한국적 공간이란 한국문화의 디자인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공간으로서, 한국인의 삶의 가치가 표현된 전통디자인을 계승하며 새로운 기술과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부가한 공간¹³⁾으로서, 한옥의 정의와는 차별된다. 국악, 한복, 마당놀이 등 보전, 정체성, 모범적, 특수성으로 정의되는 전통문화를 K-pop, K-drama, K-food 등 응용, 변화, 일반적, 보편성으로 정의되는 한스타일을 통해 한국성을 정립해야한다는 의도에서 발생했다.

그간 1970년대 정치적 수단으로서 민족적 전통에서 1980년대 민중적 관점에서의 전통, 1990년대 경제적 관점에서의 전통, 2000년대 문화적 가치로서의 전통을 이야기했던 연장선상에서 2010년대에는 일상적 가치로서 전통을 논해야 한다. 건축 역시 한옥의 외형적 요소를 직접 차용했던 문화에서 한국적 모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또 한옥의 공간적 특성을 변용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전통공간의 의미의 계승과 일반화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인대 선별적 전통의 재현에서 전통표현의 시각화, 대중화, 전통소재의 확장 및 다변화 전통요소의 간접적 차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간환경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졌는데,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세 가지 공간을 제안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다. 한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 설화와 역사 등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다. 두 번째, 친환경 공간이다. 나무를 비롯해 황토, 한지, 온돌 등 자연 재료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 번째, 소통 매개의 공간이다. 문과 루, 처마와 마루 등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간이다. 한편 한류 3.0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되었다. 한국드라마(K-Drama), 한국음악(K-Pop), 한국문화(K-Culture)의 한류(K-wave) 열풍을 한국적 원형(Standard)과 한국적 양식(Style)의 수출로 발전할 필요에서 6대 한국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한국적 공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적 공간이란 전통공간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해석을 통해, 그 형식과 내용을 현대화·세계화하여, 일상적인 문화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다.

한국적 공간 활성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조성주체는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산하고, 공간범위는 실내공간에서 시작해서 외부공간으로 넓혀가며, 활용수단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문화전반으로 확장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공공시설 실내공간 디자인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원형 재현적' 방법이란 한옥건축의 직접적인 차

13)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2013), 「한국적 실내공간 디자인 요소 DB구축 연구」,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p.10.

용을 말한다. 주로 현대적으로 변형된 신한옥이나 기존 한옥의 리모델링에 주로 적용할 수 있다. '원형 변형적' 방법이란 한옥의 구성요소나 소재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부각하고자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에 주로 적용할 수 있다. '재해석 및 추상화' 방법이란 한옥의 세부 공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전통문화의 요소를 재해석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경우로 현대건축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적 공간의 장점은 인문학적, 과학적, 디자인적 측면으로 해석하여 각각 정겨운 공간, 건강한 공간, 열린 공간으로 상징되었다. 정겨운 공간은 한국 고유의 정서, 역사, 문화 계승하는 공간이고, 건강한 공간은 자연적인 재료 활용으로 친환경 성능 달성하는 공간이며, 열린 공간은 유기적 연결과 조화를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간이다.

사업 추진에서 주목한 부분은 부처 간의 협력체계이다. 각 부처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등은 정부의 역점과제로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적공간의 디자인과 체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었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적 공간 사업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또,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한국적공간의 설계안을 지원하는 방식도 논의되었다.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한국적 공간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문화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국토교통부와도 중요하다. 문화부와 국토부의 '한옥 활성화와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천명하는 행사였다.

□ 한국적 공간에서 한옥건축양식으로

한국적 공간 정책의 시발은 2012년 7월 3일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시작했다. 업무협약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이고, 한옥과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옥 및 한국적 공간 모델 가이드라인 제시, 공간 선정 및 시상, 한옥 관련 포럼과 전시회, 공모전을 비롯한 국내외 홍보 행사,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12년에 시작한 한국적 공간 확산 사업은 첫 해에는 한국적 공간을 정의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고품격 한국적 스타일 모델개발 및 확산 사업'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였으며, 한국적 공간 확산 전략과 기초DB 구축 부문, 한국적 실내공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부문, 한국적 실내공간 시범설치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먼저 한국적 공간 확산 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한국적 실내공간 시범사업 추진 절차 마련하고, 성과 관리 시스템 마련하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하는 일이 구상되었다. 한국적 공간 관련 DB구축 및 우수 사례 발굴이 병행되었는데, 우수사례의 발굴과 홍보를 위해 한국적 스타일 우수공간 선정 사업 등 기존 공모사업에 관한 정보

를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하고,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통건축과 관련한 기원과 그 의미, 설화적, 철학적 요소를 한국적 공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 제공하며, 한국적 공간 관련 제품 DB를 만들어 성능의 개선이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변용되는 전통건축 요소들을 수집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건축에 디자인을 시범 적용하여 한국적 실내공간 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리모델링, 신축, 조성 사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처별 기존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 및 지자체 사업 추진 시 공모를 통한 선발, 지원을 계획했다. 또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인 관리하고 안정적인 확산을 도모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지원을 검토했으며, 시공 제품,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인증한 고품질 목재, 국토부 한옥전문인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적 공간의 우수 사례가 부족한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한옥 디자인의 요소를 아카이빙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아카이빙 작업과 다른 점은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적극 고려했다는 점이다. 아름답고 우수한 디자인 요소라도 그를 빛나게 하는 이야기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대 마케팅의 교훈이고, 특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상품일 경우 스토리텔링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한옥센터에서는 디자인 요소들 상호 간의 형식적 관계, 디자인 요소의 의미와 유래, 활용 방식의 사례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또한 건축 잡지, 가정 잡지, 인테리어 잡지에서 한국적 공간으로 광고하거나 설명되고 있는 사례를 수집했다. 이는 「한국적 실내공간 디자인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되었다.

한국적공간 정책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우수공간 사례를 수집한 것이다. 2013년 3월에 개최한 ‘제1회 한국적 스타일 실내 공간 우수사례 선정 공모’에서 선정된 공간은 총 11개소이다. 여기에는 정동극장, 배상면주가 세월랑의 문화 공간 2개소, 국립국악고등학교, 통영 용남초등학교의 교육 공간 2개소, 조선히otel, 가마 광주요, 지수화풍 360 컨트리클럽, 다담, 연타발 해운대점 등 상업 공간 5개소, 지노하우스, 편강한의원의 주거 및 기타 의료 공간 2개소이다. 이들 우수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또한 소개 팸플릿의 제작을 통해 널리 홍보되었고, 한국적 공간의 개념과 방향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한옥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한옥정책과 함께 가지 못했다. 특히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축소되었다. 법률에서는 한옥정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국토교통부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했고, 한옥의 신축, 증축, 개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 요소의 진흥을 포인트로 삼았던 한국적 공간 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법령에서 한국적 공간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정했다. 그러나 한옥건축양식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한 용어였고, 학계와 건축계에서 통용되는 양식의 의미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이한 말로 여겨졌다. 법령에 한옥건축양식을 정의해 둔 것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적 공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사업은 크게 축소되었다.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

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한옥건축기준에 비해 한옥건축양식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과 비정상의 상태에 대해 융통성이 있다.

□ 한옥건축양식의 지향점

건축계에서 한국성에 관한 논의는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와 1967년 여름에 발생한 부여박물관 디자인의 왜색 시비를 계기로 촉발되었다. 당시 중앙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큰 여론이 일어났으며, 당선안을 두고 건축전문잡지 「공간」에서 특집을 기획기도 했다. 정인국과 이경성을 비롯한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문화계와 언론계 인사 22명의 비평을 게재되었고, 동아일보를 통해 당대의 라이벌 김종업과 김수근이 논쟁을 벌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건축전문잡지들이 다수 창간되면서 「공간」 이외에도 한국성과 전통성에 관한 주제들이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많은 건축가와 비평가가 전통논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의 당선자인 강봉진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의 계승이라는 것은 사실에 충실해야 하며 임의의 창조를 불허한 양식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인국은 세계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전통을 계승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을 지향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형식상 또는 표현상의 전통 추구를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추상적 문구로 묘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민현식, 이상해, 김성우 등에 의해 이어졌으며, 전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재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형태를 모방한 외관보다는 내면에 축적된 어떤 것이 현대적 양식과 어우러져 창조적 표현으로써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1990년대에는 형태 논의에서 더욱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 공간의 배치 및 전개 수법 등 한국건축에 내재된 추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현대건축으로 차용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한옥의 정수, 혹은 한국적인 것의 추구에서 한국성을 규정하려는 논쟁들이 대체로 이론적인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실제 건축과정은 보다 실천적인 맥락에서 작동한다. 옛 건축문화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가 되며,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옥이 단순히 구성요소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을 제거하는 작업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잘 구획되고 정돈된 한옥의 공간 배치는 사실 악독한 신분제도와 끔찍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화목한 가정, 평등한 부부, 어린이에 대한 배려 등은 전통 한옥을 계획하는 기본개념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한옥의 대청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었고, 한옥의 부엌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1자나 2자로 꺾인 한옥에서 안방은 남향의 넓은 창을 가진 밝은 공간이 될 수 없다.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의 공간구성은 현대적인 삶의 방식과 맞지 않다.

자연과 소통하는 거주환경이라는 관념에도 그림자가 있다. 자연과의 소통은 '외풍'이라는 한옥의 약점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 외기와 소통하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이 당연하다.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외벽의 기밀

성을 극대화한 현대 한옥에서는 덜 덥고 덜 추운 실내 환경을 만들어냈지만, 반대로 겨울에 가슴기를 켜야 하는 옷지 못 할 상황을 만들어냈다. 약점을 제거한 것이 장점까지 도려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한옥의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현대인이 감당하기 힘든 불쾌함이 공존한다. 전통에 대한 숭배와 편리를 향한 욕심은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으며 양가감정을 야기한다. 불쾌함을 견어내고 아름다움만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힘들다. 구성요소의 더하기와 빼기를 통한 취사선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향한 복고주의적 취향은 포기되지 않는다. 계산으로 산출되지 않는 숭고함은 복고주의 상품의 핵심을 이룬다.

④ 민족건축양식의 사례

□ 건축에서 전통과 민족의 발견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족이나 전통을 하나의 발명품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서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에릭 홉스봄(Hobsbawm E.)의 「만들어진 전통」(2004), 베테르트 앤더슨(Anderson B.)의 「상상의 공동체」(2002) 등이 있으며, 건축에서는 프랑스와즈 쇼에(Françoise Choay)의 「역사적 기념비의 발명」(2001)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등장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국민국가의 성립이다. 국민국가(Nation-state)는 사회·경제·정치생활을 공통으로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성립된 국가를 가리킨다. 국민국가는 공통적으로 전통을 확정하고 그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1760년대 제임스 맥퍼슨(James Macpherson, 1736-1796)이 아일랜드의 발라드를 수집해 '서사시'를 쓴 후 그 배경을 스코틀랜드로 바꾼 것, 18세기의 제철업자 토마스 로린슨(Thomas Rawlinson)이 발명한 작업복 '킬트'가 19세기 조지 4세의 방문을 계기로 공식화되고 의례화 된 것,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대영 제국의 번영에 따라 왕실 의례가 새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등이 전통 발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에도 잘 알려진 무사도가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의 발명이며,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등에 의해 일본정신의 전형으로 확립되는 과정이 잘 연구되어 있다. 카라타니 코진(柄谷行人)은 오늘날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개념들이 사실은 메이지 시대에 수입된 서양사상에 의한 새로운 고안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건축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건축사가 니콜라스 페브스너(Pevsner N.)는 1955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BBC 라디오 특강을 통해 영국 예술에서의 영국성(The Englishness in English Art)을 강의했다. 또, 토론토대학의 마크 치탐(Cheetham M. A.)도 18세기 초부터 영국에서 미술이론, 민족정체성, 미술작품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분석하여 '민족' 문제를 논했다. 저명한 건축학자 존 러스킨(Ruskin J., 1819-1900)은 애국심을 자극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가 발견한 건축에서의 영국성에 기인한다. 러스킨은 영국적 경험주의(English empiricism)가 자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실험을 의미한

다고 보았으며, 이는 윌리엄 터너(Tuner W., 1775-1851)의 작품에 대한 비평에서 잘 드러난다. 러스킨은 미술가의 국적이 곧바로 그의 시각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터너의 유명한 작품들은 대체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의 경치를 표현하고 있지만 영국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터너의 힘은 바로 국가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러스킨은 영국의 직물 디자인이 인도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 자연을 향한 영국인의 의지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인도(혹은 대륙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건축이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요소를 정의했는데, 이중 가장 영국적인 특징으로 순종(Obedience)을 들었다. 이는 영국의 초기 고딕 양식의 장식적 특징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또 유일하게 적절한 양식으로 13세기 유럽 북부의 고딕양식을 꼽았으며, 링컨이나 웰즈 성당의 사례가 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페브스너는 영국에서 나타난 건축과 디자인 영역의 실용성과 장식성의 분리에 대한 거부는 자기완결적 사고방식을 강화시키고 미적 관점을 제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18세기부터 제시되어왔던 영국적 관찰의 태도를 긍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 일본건축의 국민양식 논의

일본에 부임한 최초의 건축교수인 조사이어 콘더(Josiah Conder)는 강의 시간에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부단히 강조했다. 이는 ‘건축은 예술’이라는 관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부대학교 건축과 제1기 졸업생들은 졸업논문의 테마로 ‘일본장래의 주택에 대해서’라는 표제를 받았는데, 이는 민족양식에 대한 강조였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제자인 타츠노 킨고는 1890년, 제국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강연에서 ‘건축진보의 유래’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당시 일본 건축의 상황을 서양의 여러 건축양식이 뒤섞여있는 박람회장으로 비유하며, 이와 같은 혼돈의 상황을 거쳐 일본 고유의 신건축양식이 탄생할 것임을 설파했다.

1933년 일본에 망명한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는 카츠라리큐(桂離宮)와 닛코 토쇼구(日光東照宮)의 비교를 통해 건축에서의 일본성을 정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일본」, 「일본미의 재발견」 등의 저서를 통해 카츠라리큐에서 일본 건축의 정통을 볼 수 있으며 모더니즘이 담겨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카츠라리큐의 아름다움은 파르테논에 비유되면서 유명세를 탔고, 근대주의자들이 일본건축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츠라리큐가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영원한 기념비로 간주되었다. 특히 이세진구와 카츠라리큐는 모두 천황의 미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진짜(훈모노)이고, 토쿠가와 쇼군의 사당은 가짜(이카모노)라는 설명은 강력한 대비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는 카츠라리큐를 ‘기능의 건축’ 또는 ‘동기 유발의 건축’으로 정의했다.

제국주의의 심화에 따라 등장한 테이칸 양식(帝冠樣式)은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절충주의 양식이다. 이는 정부에서 인증한 디자인 방법론이며 ‘양식’은 ‘만드시 동양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일본 취향을 기반으로 한다’는 강령을 갖는다.

모더니즘과 민족주의를 연결하는 문제는 근대 일본건축가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테이칸 스타일이 일본건축으로서 인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카츠라리큐의 재해석은 전통계승의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시켰다. 새로운 모델로 성립한 카츠라리큐의 정통성은 곧 천왕의 정통성과 모더니스트의 원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일본 건축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호리구치 스테미(堀口捨己)는 일본건축의 다실을 깊이 연구하여 그 정수를 추출하고 현대화하였다. 차시츠(茶室)의 확장인 스키야(数奇屋) 건축을 당시 모더니즘의 문맥에서 합리주의, 선과 면에 의한 구성 등으로 재해석하여 일본의 전통건축을 근대건축과 연결시켰다. 오카다 저택(岡田邸, 도쿄, 1933)은 목조의 일본식 건물과 콘크리트층 상자가 정원을 마주보고 통합되어 있다. 공간의 변용과 장식의 절제 등 쇼인즈쿠리(書院造り) 건축의 특징은 일본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호리구치는 1934년 “건축에 있어서 일본적인 것”을 저술하여, 신사, 주택, 다실을 일본건축의 대표로 꼽았다.

1940년대에 들어서서 당계 겐조(丹下健三), 마에카와 쿠니오(前川國男) 등 근대적 의미에서 일본성을 표현하는 건축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에 대동아기념관(1942년), 방콕 일본문화원(1943년) 등 대규모 공모전에서 잇달아 입상한 당계 겐조는 일본 고대 건축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일본국민건축양식을 성립시켰다. 단, 일본의 패망으로 이러한 건축물은 실현되지 못했다. 나아가 앞으로 더 이상 표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거대한 지붕 등 일본의 양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요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요소, 즉 기둥과 보의 비례관계라든지 규칙적인 평면구성 등이 살아남았다. 이후 일본적 공간의 근원에서 근대 건축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패전 이후 195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철골과 철근콘크리트의 아키텍토닉은 일본의 전통적인 목구조의 비례체계로 옮겨졌고, 근대적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었으나 노출된 기둥과 보를 이용한 일본 전통을 드러내게 되었다. 당계 겐조의 히로시마 기념관, 가가와 현청사 등의 건축은 이러한 과정을 일단락하는 성과로 여겨진다. 이후에도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를 비롯한 건축가들에 의해 일본성에 대한 고찰은 계속되었다. 이소자키는 7세기부터 건축에서의 ‘일본적인 것’의 본질을 탐구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적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래의 일본적인 것과는 정반대인 것일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양식화란 글로벌화의 압력에 대항한 섬나라 특유의 합리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 중국건축의 현대화 과정

중국 고대 문명에 대한 자부심은 유럽의 문명과 동급이거나 더 우세하게 여겨져 왔다.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의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에 대한 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형태와 서구의 내용을 선택했다. 중체서용, 화혼양재, 동도서기 등 근대기 아시아 국가의 대응은 대동소이한 자세를 취했다. 제1세대 중국건축가 역시 마찬가지로의 관점을 공유했다.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건축 유학을 떠난 것은 1911년 청이 몰락하고 1949년 중화민국이 건립하는 사회적 변화와 깊은 관

련이 있다. 청의 몰락에 따라 문화·정치·경제 등 사회구조가 대규모의 전환을 이루면서 새로운 건축적 실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유학 후 귀국한 젊은 중국 건축가들이 해외 건축양식을 적극적 보급했다.

중국에서 근대 유학정책은 두 차례 존재했다. 첫 번째는 1870년대와 1880년대에 청나라 황실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중배척정책으로 중단되었다. 두 번째는 1910년대에 역설적이게도 의화단 운동(1900~1901)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 1910년대의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은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학생만이 참여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시점에는 50여 명의 제1세대 건축가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미국 학문의 혜택을 입었다. 당시 실업구국(實業救國: Shiye jiugou)은 유학생들의 목표였다. 해외 유학생들은 대부분 의화단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고자 미국에서 수학하였다. 최초의 장학생 주양준(庄俊)이 1914년 일리노이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코넬의 뤼엔지(呂彥直), 시카고 공대의 윌리엄 차운드(William Chaund),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주빈(朱彬) 등이 크게 활약했다. 뤼엔지와 윌리엄 차운드는 짧은 건축활동을 했으나, 주빈은 유학 후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미국 내 대학 중 특히 펜실베이니아대가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었는데, 이는 초기 유학생 주빈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펜실베이니아대 건축대학 학장인 폴 크렛(Paul Philippe Cret)의 역할이 크다.

미국에서 보자르(Beaux-Arts)식 교육을 받고 귀국한 건축가 첫 세대는 서양의 고전주의와 중국의 전통양식이 비교적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음을 포착했다. 그들이 배운 보자르 건축의 원칙을 중국건축에 대입해보면, 보자르 건축의 원칙이 이미 중국건축 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자르 건축은 정형적인 형태와 돔을 갖췄으며, 정면에 중요한 비중을 두는 점 등은 중국이 큰 저항 없이 수용 가능한 건축양식이었다. 보자르 건축과 중국건축의 공통점은 ① 4면의 차폐, ② 건축의 평면적 확장, ③ 대칭적 배치를 통한 균형의 추구, ④ 독립적 건물이 아니라 집합과 부분으로서의 건축 구성, ⑤ 형식적 정문, ⑥ 내부공간의 돔과 볼트, ⑦ 다양한 색채와 장식의 구사, ⑧ 모듈 공법의 목구조로 정리된다. 이처럼 보자르 양식은 웅장하고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건축양식과 공통점을 가진다. 이 같은 유사성은 중국의 궁궐 건축과 종교 건축 등 권위건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학생들 중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건축가는 비록 량스청(梁思成) 정도이나, 이들이 중국 내에서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근대 이전의 중국 전통건축은 동질적이었으며 건축에 관한 기록에 설계안에 대한 자료가 극히 드물다. 20세기 초 송나라 문헌인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대한 연구가 건축계에서 공유되면서 19세기 이전까지 중국 전통건축의 요소들을 원칙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통건축의 규범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건축의 관습적 획일성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발생시켰다. 중국의 전통건축은 공예가들에 의한 예술분야에 가까웠지만, 1세대 건축가들이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건축사들이 점차 장인의 역할을 대체했다. 량스청(梁思成), 류둔전(刘敦桢), 양칭바오(杨廷宝)를 비롯한 1세대 건축가들은 근대 및 보

자르식 건축가, 중국건축사 학자, 문화재 복원전문가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최초로 전문가 집단을 형성했다. 특히, 근대 이전 중국 건축에 관한 기초 자료들 대부분이 이 시기의 활동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다. 이 때 조사된 건축물은 제2차 세계대전과 문화혁명 등으로 소실되었고, 이들의 조사는 더욱 의미 있게 되었다.

근대 건축이론의 등장과 함께 성능면에서 중국 전통 목조의 취약점이 지적되면서 상당 부분이 서양건축양식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자르 방식은 다른 서양건축양식만큼 배타적이거나 자기완결적이지는 않아서 중국 전통건축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특히 장엄함과 대칭 같은 중국 전통건축의 엘리트적 특성과도 가장 잘 부합하는 양식이었다. 1세대 건축가들이 보자르식 건축에 매력을 느낀 것은 보자르의 통합(Composition)과 장식(Decoration)의 특성이 중국 전통 관식건축의 웅장한 시각적 경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기에 보자르식 건축은 1920~1930년대 격변기에 기존의 중국건축 및 사회시스템에서 큰 저항없이 수용가능한 양식이었다. 보자르 양식의 수용과 함께 예견되었던 중국건축의 커다란 변화는 그 이후 사회주의의 흥기로 힘과 방향을 잃어갔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보자르는 1950~1960년대의 반엘리트주의 노동자운동의 여파로 자취를 감출 뻔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계획가들이 중국 도시 재건에 참여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 보자르 건축은 중국에 다른 서양건축이 유입되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또한 모더니즘의 국제적 특성이 중국 건축에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

⑤ 한옥건축의 전망

□ 복고주의의 가능성

한옥을 향한 복고주의의 소비 행태는 세 가지 태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엔틱(Antique) 취향이다. 오래된 문화재급 한옥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그 소유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한옥은 활용되지 않으며 다만 접촉 없이 관념적으로 소비될 뿐이다. 두 번째는 빈티지(Vintage) 취향이다. 빈티지는 엔틱에 비해 활용성이 높다. 서울 북촌의 한옥을 개조해서 주택이나 상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레트로(Retro)는 완전히 현대적인 호환성을 지니면서 전통을 표상하는 것이다. 현대 한옥 수요의 상당수는 레트로 취향에서 기인한다.

레트로 취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매되는 라이카(Leica)의 디지털 카메라를 떠올려볼 수 있다. 라이카 디지털 카메라는 전자장치로 속이 꽉 찬 완전한 디지털 카메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겁고 복잡한 조작계의 형태를 이어받았다. 사용자는 간단한 터치나 버튼이 아닌 다이얼을 돌리고 초점을 맞추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기계식 작동원리가 표현된 대부분의 형태는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라이카 카메라의 소비 심리는 현대 복고주의 시장의 실체를 요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위대한 공학자들이 협업으로 만들어내고 유명한 사진가들이 애호해 온 라이카 카메라의 내러티

브를 소비한다. 에른스트 라이츠와 오스카 바르낙 등 제작자의 불굴의 인생 역정이 카메라 성능의 아우라를 형성하고,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나 세바스티앙 살가도 등 걸출한 작가의 명품사진은 항상 큰 감동을 보장한다. 라이카를 손에 든 사람은 그들의 작가정신을 느끼고 그들의 동작을 반복하면서 사진을 찍는 경이로움을 체험한다. ‘공기를 찍는다’는 과장된 전설은 동일한 형태의 카메라를 통해 동일한 의식으로 재현된다.

한옥을 소비하는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다. 매끄럽고 무결한 현대건축물을 대신해 한옥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한옥에 얽힌 내러티브에 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들은 편리하고 쾌적한 가장 현대적인 건축물을 원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선조들의 움직임과 자세를 음미하고 재현하는 온갖 수고를 감당하려는 자들이다. 한옥에서 신을 벗고 올라서고 걸터앉고 창문을 여닫는 수고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오랜 역사에 연결시킨다. 이때 전통적인 형태는 내러티브를 매개하는 실제적 장치로 기능한다. 형태가 변하면 내러티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복고주의의 상품에서 최적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한옥의 모든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 여기서 비롯한다. 이 때문에 익숙한 형태를 건드리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통을 표상하는 부분들은 재질, 공법, 형태, 색상까지도 매우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칫 사소한 변경에도 그 신비한 내러티브가 소멸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보존주의 역시 레트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다. 복고주의 소비자들은 한옥이 현대건축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 현대건축의 대안

한옥과 목조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와 정책적 대응이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한옥이 지닌 많은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정서와 미학이 살아있으며, 아직은 본격적인 산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목조건축물 역시 보호 육성해야 할 소중한 미래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한옥과 목조건축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영세하다. 스스로 가격절감을 위한 시스템을 실험하기도 어렵거니와 신기술을 받아들이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국가 차원의 R&D를 통해 고급기술을 공유하고, 벤처기업 지원 등과 같은 육성정책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목조건축은 업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실내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목재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목재를 사용하는 시설물의 목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및 부속공사를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하는 절차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전문가의 육성이 중요하다. 현재 한옥과 목조건축의 전문가는 극소수뿐이다. 한옥은 전통 장인의 문하에서 소수의 대목들이 기술을 전수받고 있으며, 3개월 정도의 실습과정을 개설한 직업학교가 교육기관의 대부분인 실정이다. 목조건축 역시 정규 교육기관의 학과나 과목으로 개설되지 못했고, 외국의 매뉴얼을 번역한 자료나 직업학교의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한옥과 목조건축물이 보다 발전적

인 건축물로서, 또한 현대건축의 주요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고급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적절한 인증기준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위의 두 여건으로 볼 때, 현재의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을 곧바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리한 기준의 적용은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던 기존 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한옥과 목조건축물에 적절한 인증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정책의 서로 다른 추진체계에서 나타난 두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 한옥건축기준은 전통의 입장에서 한옥의 성능과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옥건축양식은 현대건축이 한국성을 지향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된다.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의 지향점에는 공통적으로 한옥의 정의가 자리 잡게 된다. 자연재료와 목구조, 전통기반의 문양 등 외관으로 정의되는 한옥의 개념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발생했지만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한옥 개념과 현대적인 가치가 반영된 한옥 개념이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합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성을 지향하는 한옥건축기준과 가치를 모색하는 한옥건축양식의 긴장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미 고시를 완료한 한옥건축기준에 비해, 법률적 용어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한옥건축양식의 내용에서 혼동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해 본질과 다르게 용어의 의미에 집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은 모두 정책사업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옥건축기준은 한옥등록이나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공공의 재화를 투자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한옥건축양식은 주로 실내공간과 건축의 외관에서 한국적인 특징을 표현하여 다른 문화상품들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방향을 가리킨다. 현재 고도보존사업 등에서 역사문화거리의 건축물 입면이나 보존지구의 지붕의 색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의 효용이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시작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대상을 선별해나가는 기준으로서 한옥건축기준과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¹⁴⁾

① 국가 법률이 제정한 ‘건축양식’?

과연 국가가 건축의 ‘양식(style)’이라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고 그 보급을 촉구할 수 있을까? 국가주의의 과잉 아닌가? 논리를 조금 과하게 진전시킨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옛 독일의 “나치 건축”마저도 떠올릴 수 있다. 1933년 바우하우스를 폐쇄한 나치가 게르만 민족의 순혈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토속의 전통건축 유형을 강요하는 한편으로, ‘제3제국’의 정통성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알베르트 슈페어 식의 근엄한 고전주의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¹⁵⁾ 물론 스탈린 시대(1934~53) 이래 공산권에서 흔히 차용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 역시도 비근하다.¹⁶⁾ 이들은 모두 무척 극단적인 사례이긴 근대 이후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가 건축을 규제하거나 강요했던 경우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한국에서 하나의 ‘건축양식’을 규정하고 그것의 보급을 촉구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2014년 제정된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규정한 ‘한옥건축양식’이 바로 그것이다. ‘양식’이라는 용어를 직설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설령 그에 대한 정의가 법조문 내에서만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고 할지라도 막강한 법률의 문구는 그 범위를 넘어 일상의 건축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오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만 먼저 밝히자. 무엇보다, 필자가 이 법률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려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시사했듯, 이 법을 대하며 즉각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핵심은 ‘건축양식’이라는 상당히 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논쟁적인 개념을, 그래서 다양한 이견에 열려있어 언제든지 재조정되어야 하는 융통성 있는 카테고리를, 법조문이 못 박아 강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이라는 것이 속성상 무엇인가를 한번 규정하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구속력을 갖게 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뒤따르는 또 다른 의문 중에는 그 개념적 ‘정의’의 타당성이라든가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우선권 부여도 포함된다. 현재로서라면 여러모로 모호하면서도 미심쩍은 건축 유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14)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고는 김현섭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작성되었음.

15) ‘나치 건축’의 세분화된 양상과 더 폭넓은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Barbara Miller Lan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Germany 1918-1945*,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5.

16)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정치적 권위를 칭송하던 문학적, 예술적 방법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건축에 있어서 보통 고전주의적이고 기념비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했다.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있으나 개설서로 다음을 참조하시오. Alexei Tarkhanov and Sergei Kavtaradze(1992), *Architecture of the Stalin Era*, Rizzoli, New York; Anders Åman(1992), *Architecture and Ideology in Eastern Europe during the Stalin Era: An Aspect of Cold War History*, MIT Press, Cambridge MA.

이러한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 법의 내용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 법의 근본 취지를 밝힘으로 시작한다: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⁷⁾ 그리고 ‘제2조(정의)’의 2호와 3호에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각각 규정했다.

한편 이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이다. 여기에서 법조문의 구속력을 암시하며 이 양식의 지원에 대해 기술하기 때문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¹⁸⁾ 뒤따르는 각 호는 한옥건축양식의 적용 및 확산을 거론한다. 그런데 더 눈길이 가는 바는 해외의 건축물에 이 양식의 적용을 적극 권하는 다음 항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¹⁹⁾ 결국 대한민국 건축의 정체성을, 특히 해외에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미심쩍은 건물 유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형태의 모방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논의를 진행해온 우리 건축계가 과연 이에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문과 법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고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규정한 ‘한옥건축양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비판은 결국 글머리에서 언급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향하게 되는데, 이는 현 사회의 또 다른 권력인 자본주의와도 연계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고찰의 한편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현대적 조건에 맞는 한옥 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소 타협적이긴 하나 이 법률을 위해 ‘한옥건축양식’의 대안이 있을지 현대적 한옥의 유형 역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현대의 한옥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② ‘한옥건축양식’과 국가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우리는 먼저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 ‘한옥건축양식’이라는 건축 유형이 규정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배경은 결국 근래의 한옥 부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한옥 부흥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역설적으로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현대의 한옥에 대한 건축가들의 실험에 발현되는 모더니티(modernity)에 기인하며, 비판적 측면은 한옥 부흥의 집단적 현상이 상당 부분 국가주의에 근거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필자는 한옥 부흥에 대한 양면적 해석의 상황을 최근 ‘한옥 패러독스’라 명명한 바 있다.²⁰⁾ 이 논고는 특히 후자의 비

17)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6057호(2018. 12. 24. 개정), 제1조.

18)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6057호(2018. 12. 24. 개정), 제31조.

19)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 제16057호(2018. 12. 24. 개정), 제31조.

판적 논점에 집중할 텐데, 그러한 국가주의가 자본주의와 연계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옥건축양식’이라는 것이 (이미 철지난)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전략적 방편으로 간주될 수 있음도 보일 것이다.

□ 한옥 부흥의 양상과 모더니티

근래의 한옥 부흥은 200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에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전부터 있었던 한옥의 보존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북촌과 같은 ‘전통한옥밀집지역’의 ‘한옥수선 등’에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었는데,²¹⁾ 비슷한 시기 전주에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러한 조례는 이후 여러 다른 도시로도 퍼져가게 된다.²²⁾ 이에 따라 서울 북촌과 전주 교동 등의 여러 지역에 있던 낡은 한옥이 개보수와 리노베이션을 거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특히 당초 주택 용도였던 한옥이 갤러리나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사무소 등 다른 용도의 건물로 재탄생된 사례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게 된다. 또한 기존 한옥의 리노베이션뿐만 아니라 현대적 삶에 맞게 디자인된 신축 한옥 역시도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재래의 목수나 한옥 전문가에 의한 건물도 있지만 현대 ‘건축가’가 설계한 매우 실험적인 한옥도 존재한다. 한편, 개별 한옥의 차원을 넘어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역시도 북촌과 교동처럼 기존 한옥마을이 새롭게 단장된 곳뿐만 아니라 서울의 은평한옥마을이나 세종 한옥마을처럼 완전히 처음부터 조성되는 곳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²³⁾

게다가 우리는 한옥 건물의 실제적 구현에 발맞추어 진행된 각종의 제도와 이벤트가 한옥 부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컨대 한옥 목수나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해 여러 한옥학교들이 설립되었고,²⁴⁾ 대학을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의 연구자들이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타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과 관

20) 김현섭·이용희(2019),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SPACE』, v.618, 공간, pp.110-120. 이번 장의 내용은 주로 이 논문의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21) 예컨대 ‘한옥수선 등’(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이 외관에 해당할 경우 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지원 가능하고 내부의 경우 2,000만원까지 용자지원 가능하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는 2009년과 2016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발전했고, 2019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며 한옥의 전면수선, 부분수선, 신축과 “한옥건축양식” 등 더욱 세분화된 방식으로 지원을 넓히게 됐다.

22) 특히 전라남도의 지자체 다수가 한옥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주목할 만하다.

23) 국가한옥센터에서 발행한 「한옥마을 이야기」(2016)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 기관은 웹사이트에서 전남의 한옥마을 100여 곳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검색일: 2019. 9. 1.))

24) 신영훈의 지용한옥학교와 김경수의 다물장원을 비롯해 경주전통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단양한옥학교 등 다수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련된 공모전과 전시회 역시도 다양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옥의 진흥을 도모하고 제도화한 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이라 하겠다. 그중 하나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에 2011년 설립된 국가한옥센터이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한옥 지식 체계화를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산업 지원에 앞장서며,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²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한옥등건축자산법」이다.²⁶⁾ 이 법률은 우리 정부가 한옥의 진흥을 천명한 공식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시도되어 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진흥 정책을 종합하고 있고, 국가한옥센터의 존립근거로서도 역할 한다.

이와 같은 한옥의 부흥은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과 함께 우리 전통을 파괴하기만 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고 하겠는데, 그와 더불어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옥의 부흥에 대해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듯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 말이다. 우선 한옥의 부흥은 일반 대중이 역사 및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개별 건축가들이 한옥이라는 전통의 건축 유형을 두고 다양한 도전적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이다. 전통의 건축 유형을 현대적 조건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관례적 요소를 과감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요소와 적극 융화하거나 충돌시킬 필요가 따른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이상, 건축가들의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옥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타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른바 ‘모더니티’ 즉 현대성이 발현되는 것이다.²⁷⁾ 1930~50년대의 이른바 ‘도시형 한옥’은 새로운 도시의 조건 속에 적합한 유형이 도출된 예인데, 근래의 한옥도 현대적 조건과 개인의 취향에 맞게 흥미로운 디자인이 제안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몇몇 건축가들의 프로젝트에서 한옥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키거나 한옥의 본질로 여겼던 목구조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찾아보게 된다.²⁸⁾ 이러한 실험적 시도야말로 한옥이 진화해 나갈 길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개별 한옥에 대한 건축가의 혁신을 긍정적인 것과는 달리, 이 논고는 집단적

25) 국가한옥센터 웹사이트의 소개말.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 <http://www.hanokdb.kr/>(검색일: 2019. 9. 1.))

26) 2014년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9.1.))

27) 모더니티에 대한 여러 입장에서 이 논고는 “실험과 내적 탐문에 근거한 계속적 재평가와 혁신”에 초점을 둔 앤서니 비들러의 견해를 전유해 따른다. (Anthony Vidler(2008),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Cambridge MA: MIT Press. p.198.)

28) 황두진의 목경현(2015)과 도미이 마사노리의 남산동 한옥(2014)이 각각에 대한 유의미한 예라 하겠다. 리노베이션 한옥 작업의 좋은 사례로는 서승모의 아틀리에 R(2004)이나 최욱의 학교재(2007) 등을 들 수 있다. (김현섭·이용희(2019),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SPACE』, v.618, 공간. pp.110-120.)

현상으로서의 한옥 부흥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거기에 일종의 신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옥건축양식’의 법률적 규정은 그러한 신화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

□ 한옥의 신화와 ‘도무스의 신화’: 국가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한옥의 부흥에서 감지되는 신화는 ‘도무스의 신화’로 설명 가능하다. 로마시대 상류주택을 뜻하는 ‘도무스(domus)’의 이미지가 한옥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바는 여기에서 도무스라는 것이 일종의 신화화된 하이데거의 거주 및 장소 개념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건축 담론에서 빈번히 인용되며 높게 평가받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실존주의적이고 현상학적인 개념 말이다. 특히 1950년대 그의 에세이 「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Bauen Wohnen Denken)」가 그러한 생각을 가장 잘 나타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⁹⁾ 크리스티안 노르베르그-슐츠가 근대의 추상적 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의 혼(genius loci)’을 내세우거나 케네스 프램튼이 현대 도시에 편재한 ‘무장소성(placelessness)’을 극복하기 위해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를 제안하는 데에 이 에세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³⁰⁾ 그런데 건축과 연계된 하이데거의 사유에도 반대자가 없지 않았다. 근래의 건축계에서 가장 뚜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로 영국의 비평가 닐 리치(Neil Leach)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도무스의 신화’는 그가 하이데거를 비판하기 위해 「도무스의 어두운 측면」(1998)이라는 논문에서 사용한 말이었다.³¹⁾ 리치의 하이데거 비판의 주요 타깃은 신화화된 ‘거주(Wohnen; dwelling)’ 개념인데, 이는 결국 ‘장소(Ort; place)’와의 개념쌍이라 볼 수 있다.

리치가 하이데거의 ‘도무스의 신화’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한 것은 거기에 내재한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이며, 여기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 역시도 수반된다. 첫째, 하이데거의 민족주의적 입장은 흙과 땅과 장소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의 나치 복무와 반유대주의 전

29) Martin Heidegger(1954), “Bauen Wohnen Denken”, *Vorträge und Aufsätze*, Pfullingen: Neske. pp. 145-162. 이 글의 영어 및 한글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Martin Heidegger(1971), “Building Dwelling Thinking”,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Albert Hofstadter, London: Harper and Row. pp. 143-161; 마르틴 하이데거(2008),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기상 외 옮김, 서울: 이학사. pp.183-209.

30) Christian Norberg-Schulz(1980),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Kenneth Frampton(1983),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Six Points for an Architecture of Resistance”,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ed. Hal Foster, Port Townsend WA: Bay Press. pp.16-30.

31) Neil Leach(1998), “The dark side of the domu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3(1), pp.31-42. 이 논문의 발판이 된 것은 하이데거를 비판한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수아 료타르의 다음 글이다. Jean-François Lyotard(1991), ‘Domus and the megalopolis’, *The Inhuman: Reflections on Time*, Polity Press, Cambridge. pp.191-204.

력이 알려지며 좀 더 명확해졌고,³²⁾ 많은 이들의 비판을 낳게 한 주요 원인이다. 하이데거의 사유와 나치즘과의 연루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예로 1933년의 프라우엔부르크대학 총장 취임연설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존재의 본질'을 '민족의 흙과 피'로 연계시키며 나치의 열망에 부응했다.³³⁾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집단을 (혹자의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라 하더라도)³⁴⁾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까지는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흙의 철학, 장소론, 결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문제인 이유는 "그 흙에 동화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리치는 주장한다.³⁵⁾ 이는 소수자나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배제의 논리'를 의미한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아우슈비츠 아닌가. 둘째, '도무스의 신화'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도무스의 상품화를 위해 '잃어버린 도무스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조장하는가 하면, 상품화된 신화가 다시 자본주의의 욕망을 북돋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상적 과거로서의 도무스에 대한 동경은 '민족의 정체성'으로서의 '전통 형태의 감상적 복기'로 귀결되는데, 리치는 이것이 프레드릭 제임슨(1984)이 주장했던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³⁶⁾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술했던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장소성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동질화되는 힘과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대한 '저항'을 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임슨(1994)의 진단은 달랐다.³⁷⁾ 프램튼의 테제가 중시한 장소의 '차이'야말로 실상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광받는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무스의 신화'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이 장소의 차이와 민족/국가의 차이를 중시하는 것에서 보듯 자본주의와 민족주의/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단단히 연계되어 서로를 부양한다고 하겠다.

한옥의 신화 역시 도무스의 신화에 내재한 민족주의/국가주의 및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옥에서 민족주의/국가주의가 표출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다. '한옥'이라는 말 자체가 '한민족의 집' 또는 '한국의 집'이라는 뜻을 담기 때문이다. 근래에 국가나 지방 정부적 차원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음은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이다. 2000년대 초부터 서울과 전주를 시작으로 각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한

32) 특히 다음을 보시오. Victor Farias(1987), *Heidegger et le nazisme*, Paris: Verdier.

33) Neil Leach(1998), "The dark side of the domu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3(1), pp.31-42.

34) Benedict Anderson(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35) Neil Leach(1998), "The dark side of the domus", *The Journal of Architecture*, 3(1), pp.31-42.

36) Fredric Jameson(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pp.59-92.

37) Fredric Jameson(1994), "The Constraints of Postmodernism", *The Seeds of T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29-205.

옥지원조례, 2011년 설립한 국가한옥센터, 2014년 제정한 「한옥등건축자산법」 등이 그렇다. 이러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한옥의 보존과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제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개별성으로 하여금 전체성에 봉사할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타성’과 ‘배제의 논리’를 작동시킨다. 특히 이 논고가 문제시하는 ‘한옥건축양식’의 규정이 그러하다. 국가 법률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건축양식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발현인데, 그 양식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으니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노력하여야’ 하는 간접적 의무이긴 하지만, 이로써 여타의 건축 유형은 배제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전술한 일련의 한옥 진흥 정책의 목적 가운데 한옥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도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특히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24조는 「한국관광공사법」의 관광진흥 정책 제12조와 연계되어 있다.³⁸⁾ 다시 말해, 한옥 사업은 관광 사업을 진흥하는 경우,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같이 ‘국제관광 진흥사업’에 도움이 될 경우 우선적으로 기술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세계 시장을 향한 한류 산업과 한옥과의 연계성으로도 확장된다. 국가가 육성하려는 ‘한스타일’의³⁹⁾ 건축 브랜드로서 한옥이 각광을 받는 것은 장소, 지역, 국가의 ‘차이’가 후기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으로 소비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한옥이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좋은 상품성을 획득할 수 있다니 환영할만하겠지만, 한옥의 부흥과 그 진흥책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이미지와 형태에 대한 집착을 험겁게 하는 것이며,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롤랑 바르트(1972)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는 현재의 지배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한다.⁴⁰⁾ 도무스의 신화가 내포하는 국가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라 여전한 지배 권력 아닌가?

□ “한옥건축양식”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그렇다면 한옥 부흥의 집단적 현상과 관련해 우려한 ‘현실을 은폐하는 이미지와 형태에 대한 집착’은 결국 고스란히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우려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왜 지금 굳이 한옥건축양식이어야 하는가? 이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금 우리가 한옥이라 부르는 전통의 건축이 보편적인 방식일 때에는 그것에 맞는 건축 재료와 구법과 인력, 그리고 당대의 산업구조와 시대정신을 전제로 했던

38) 이 법률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3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6), *Han Style: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0) Roland Barthes(1972), *Mythologies*, New York: Noonday Press. pp.10-11.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 조건이 과연 여기에 부합할까? 현대의 건축은 현대의 조건에 가장 솔직하며 합리적이되, 모든 대중을 위한 건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한옥 혹은 ‘한옥건축양식’을 신축해 살아갈 수 있는 유형을 세 가지로 단순화시켜 생각해보자. 첫째는 한옥 건축의 물리적 방식과 논리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되 현대적 삶에 맞게 설비와 가구 등을 현대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전통의 미학과 현대의 세련미를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실상 건축비가 상당히 높아 일반 대중의 경제력과는 거리가 크다. 둘째는 현대적 건축물의 부분이나 외관에 한옥 이미지를 도입하는 매우 포스트모던한 방식이다. 이 유형은 ‘한옥건축양식’의 가장 피상적인 경우라 할 만한데,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셋째는 앞의 두 유형의 크고 작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옥의 논리구조를 가져오되 현대적 공법으로, 그리고 빈번히 중층구조를 활용해, 건축비를 낮추는 이른바 ‘신한옥’ 방식이다. 이 유형은 꽤 설득력이 있어 각광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적 공법이 대량생산의 산업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본질적인 의문이 뒤따른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현대적 건물을 짓지 왜 굳이 한옥 스타일을 고집하는가? 우리의 현대건축사를 돌아보면, 한옥의 형태보다 오히려 공간구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높이 평가되어오지 않았나?⁴¹⁾ 결국 이 유형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과거의 이미지와 형태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유형에 종종 적용되는 중층구조의 한옥은 우리의 전통 한옥 이미지와 다른 생경한 느낌을 줄 때가 많다.

거칠게 유형화해 설명하긴 했지만 모두를 종합해 보면, ‘한옥건축양식’은 ‘잃어버린 도무스’를 욕망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과거의 도무스는 현대적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고스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능한 것은 ‘전통 형태의 감상적 복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스텔지어에 대한 자극은 ‘민족/국가 정체성’이라는 ‘차이’를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문화논리로서의 포스트모던 전략과 맞물린다. 결국 앞 절의 한옥 부흥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한옥건축양식’에는 민족주의/국가주의 및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신화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③ 현실로의 귀환: ‘한옥건축양식’ 대 ‘현대한옥’

지금까지의 논점은 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옥건축양식과 같은 건축 ‘양식’을 국가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국가주의를 강하게 느끼게 된다. 둘째, 법률의 양식 규정이라는 형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양식이 진술하는 의미론적 차원 역시도 국가주의를 노출하며, 여기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또한 동반된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41) 여러 전통건축물의 형태 요소를 따와 조합한 강봉진의 국립민속박물관(1966-68)이 신랄한 비판 대상이었음과 부여박물관(1965-68) 왜색시비로 곤욕을 치른 김수근이 공간사옥(1971-72; 1976-77)을 통해 ‘공간’ 탐색으로의 전환을 보여준 바는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승효상의 대표작인 수출당(1992-93)은 공간구조에 있어 도시형한옥의 전형을 따른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부흥에 대한 이론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보자.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옥은 우리의 건축자산임이 분명하며 그 중 다수가 개보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신축 건물 가운데에도 한옥의 형식을 전부 혹은 일부 따르려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의 가치를 담는 건축 프로젝트의 진흥을 위해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확장된 한옥의 범주를 규정하거나 그 범주 안의 세부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은 한옥건축양식을 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명칭과 내용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까닭에 대안이 모색된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확장된 한옥의 범주’를 살펴보고 과연 한옥건축양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리해보고자 한다.

□ 한옥 범위의 확장과 새로운 유형 규정의 시도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조건과 삶의 양식에 맞게 계속 변화한다. 한옥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도시형 한옥이 좋은 사례이다. 익히 잘 알려졌듯, 이 유형은 1930~50년대 서울 도심에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필지를 분할하여 훨씬 작으면서도 밀도 높은 주택을 짓게 된 경우이다.⁴²⁾ 좁은 필지에 맞추어 평면은 C-자형이나 R-자형이 되었으며, 마당도 작아졌고, 공간 구성과 구조 및 설비의 디테일도 변화했다. 대개 부동산 업자에 의해 대량으로 건설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⁴³⁾ 이처럼 도시형 한옥은 전통의 한옥이 특정한 콘텍스트 가운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다하지 않았다. 현재의 한옥 부흥의 바탕이 도시형 한옥인 까닭이다. 서울 북촌은 도시형 한옥의 핵심 개발지 아닌가. 우리는 그곳에서 쇠락했던 도시형 한옥이 개보수와 리노베이션을 거쳐 매력적인 현대적 한옥으로 재탄생해온 것을 보아왔다.

한옥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은 한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청한다. 200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옥지원조례에 한옥에 대한 규정을 넣었고,⁴⁴⁾ 2010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또한 한옥을 정의했으며,⁴⁵⁾ 서론에 인용했듯 「한옥등건축자산법」에도 유사한

42) 도시형 한옥에 대한 초기 연구 성과의 대표 사례로는 다음이 꼽힌다. 송인호(1990),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 1930~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3) 특히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경민(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든다」, 이마.

4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2002.5.20.)) 전주시의 규례는 당초(2002.2.15; 2004.3.30.) ‘한옥’에 대한 정의 없이 ‘전통도시한옥’에 대해 규정했으나 2012년 개정된 조례부터 ‘한옥’에 대한 정의를 삽입한다.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벗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후략).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48호(2012.2.17. 개정), 제2조.)

정의가 마련되었다. 한옥에 대한 정의는 한옥이 아닌 것에 대한 역규정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한옥의 부흥에 발맞추어 좀 더 확장된 한옥의 범위, 현대적 한옥의 범위를 추가할 필요를 상기시킨다. 즉, 현대적 구법이나 재료를 포함함으로써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옥의 정의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새롭게 제안된 대표적인 개념 가운데 전술했던 신한옥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학연구소가 제안한 「(가칭)한옥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신한옥”이라함은 주요 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목구조 방식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대적 기술 및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⁴⁵⁾

이러한 신한옥의 정의는 주요 구조를 전통의 목구조로 하는 것에서 한옥의 조건과 같지만, ‘건축 성능’의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사용함을 내세운 점이 분명한 차이이다. 이는 전통의 구조와 외관 가운데 현대적 복합구조와 혁신적 시공법을 도입해 시공비의 절감을 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⁷⁾ 그러나 그러한 신공법 등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게다가 현대의 한옥이 신공법 이외에도 건축가나 건축주의 기능적·미학적 판단 등에 따른 여타의 실험 역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한옥만으로 근래의 다양한 한옥 유형을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까닭에 한옥의 다양한 존재 양상을 조망하려는 시도도 몇몇 나오게 되는데, 그중 유의미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전봉희(2011; 2012)가 제안한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 양상’에 대한 개념과 다이어그램이며,⁴⁸⁾ 다른 하나는 필자(2016)가 제안한 ‘현대한옥’의 여덟 가지 유형이다.⁴⁹⁾ 각각을 검토해보자.

□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먼저 전봉희의 제안이다. 그는 한옥 및 그와 연관된 건축 범주를 ‘전통적 형태에의 충실도’와 ‘현대적 편익성’에 따라 ‘문화재 한옥’, ‘정통 한옥’, ‘현대 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 건축’ 순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각을 양쪽의 범주에 조금씩 겹쳐지게 했다. 그에 따르면 앞의 세 유형은 전술했던 한옥의 정의에 속하는 ‘좁

45)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시행), 제2조.)

46) 건축도시공간연구소·서울학연구소(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연구」, 국토해양부. p.199.

47)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1」, 국토해양부.

48) 전봉희·이강민(2011), “한옥의 정의와 범위”, 「한옥정책브리프」, v.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 전봉희·권용찬(201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p.34.

49) 이용희·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v.25(5), 한국건축역사학회, pp.51-62.

은 의미의 한옥'인 반면, 후자의 두 유형은 사실상 한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개념이다. '문화재 한옥'은 지은 지 50년 이상이 지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며, '정통 한옥'은 전통의 기법에 최대한 충실하되 부엌과 욕실 및 각종 설비를 현대화한 것이다. 그의 '현대 한옥'에 대한 규정인 "지붕과 보, 지붕틀 등의 주요 구조부를 목조로 하였고, 외관의 [가장] 주요한 요소인 지붕과 기단, 벽체 등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따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술구조가 다소 명료하지 않지만, 한옥의 기준에 최소한으로 만족하면서 '정통 한옥'보다 자유로운 유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⁵⁰⁾ 한편, 전봉희는 '한옥풍 건축'을 현대 건축에 '한실'을 둔 경우나 형태를 모방한 '의사 한옥'으로, '한류 건축'은 한국성에 대해 건축가의 '예술적 성취가 뚜렷한 경우'나 '폭넓은 사용자의 지지를 받는 경우'로 설명한다.

한옥을 둘러싼 여러 건축 유형의 범위를 설정한 전봉희의 연구는 매우 유용하며, 특히 다이어그램으로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각 범주들이 이웃과 겹쳐짐으로써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대한 배려 역시 담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다이어그램의 가로축에 대해 본문에서 '전통적인 기법'이라는 말로 설명하지만 실제 다이어그램에서는 '전통적 형태'라는 말을 쓰고 있다. 건축에서 '형태(form)'에 대한 논의는 무척 깊고 민감하며 전통계승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다이어그램에서는 자칫 전통의 '형태'에만 충실하면 '정통'에 가깝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문자 텍스트보다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자료에서 정보를 얻는다.) 둘째는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 '전통적 형태'(전통적 기법)에 충실함과 동시에 '현대적 편의성'도 뛰어난 한옥이 여럿 있을 법한데, 그 부분을 비워두었다. 그의 구분에서라면 아마도 '현대 한옥'의 범주 가운데서 두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개략적' 다이어그램에 대한 지적이 얼마나 타당할까를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옥 작업자들의 주안점이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삶에 부합한 한옥을 제안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 부분의 누락은 아쉽다. 그리고 본문 텍스트에서도 그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셋째, '현대 한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앞에서 추론했듯 이것은 한옥의 정의에 부합하면서도 '정통 한옥'은 아닌 현대의 한옥일 것이다. 저자는 아마도 그 정의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아직 그 복잡한 양상을 규정하는 것이 무모하기 때문에 정의를 생략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제기될만하다. '현대 한옥'이라 부르기에 적합하지만 '한옥'의 규정을 벗어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기존 한옥을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주요 구조부의 목재 일부를 철골로 바꾸었다고 해보자. 이것은 '한옥'의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현대 한옥'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찌면 이 경우는 위에서 검토한 '신한옥'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한옥'의 범주와 '현대 한옥'의 관계는 아직 이 다이어그램에 도입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류 건축'에 대해 이견이 크다.⁵¹⁾ 전봉희도 '강한 의견 대립'을 예상하

50) 2011년과 2012년의 문장은 동일하나 2012년의 것에 '가장'이 삽입됨.

51) 필자도 언젠가 사용했던 '건축의 한류'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류 건축'

기도 했다. 그가 승효상의 수졸당을 이 범주에 넣은 것도 수공하기 힘들다.⁵²⁾ 그리고 무엇보다 ‘한류 건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다. 이 사안은 본고와 연관되지만 핵심적이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더 깊은 논의를 전개하지 않겠다. 아마도 추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전봉희의 개념과 다이어그램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것은 한옥(과 관련된 건축)의 현대적 스펙트럼에 대한 본격적 고찰의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한옥센터에서도 ‘한옥건축양식’의 재규정을 위한 준거로 이를 적극 참조하고 있는 것 같다.⁵³⁾ 필자의 비판적 논점이 유효하다면 보완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전봉희의 연구가 한옥 및 그와 관련된 건축 전반을 아울러 각 범주를 설정한 것과 달리 필자의 연구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는 근래 지어지는 현대식 한옥에 집중했다.⁵⁴⁾ 전봉희의 용법으로 말하면 정통 한옥보다는 ‘현대 한옥’에 집중한 것인데, 그의 입장에 이견을 제시했던 바인 ‘한옥’의 규정을 벗어나면서도 ‘현대 한옥’이라 부를만한 사례에도 큰 중요성을 두었다. 즉, 현대적 조건에 따른 건축가들의 새로운 실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신한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명칭을 ‘현대한옥’이라 붙여 쓰며 고유명사화했다. (‘현대 한옥’은 맥락을 떼어 놓고 보면 현대에 지어지는 모든 한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현대한옥’에 대한 자체적 정의도 시도했다.

- 현대한옥이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통의 목구조와 한식지붕틀 및 외형을 취하는 가운데, 현대적 구축술과 마감법을 수용한 건물이다.⁵⁵⁾

이라는 말은 미심쩍은 건축의 카테고리를 재단하여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김현섭(2014.2), “건축의 한류(韓流)는 가능한가”, 「건축문화신문」.)

52)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류 건축’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다. 이에 더해 수졸당이 도시형 한옥의 공간구조와 여러 한국적 건축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이라 말하기 힘든 요소 역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그의 ‘마루마당’은 우리 전통의 마당과 달리 ‘관상용’에 가까워 보인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편, 승효상 자신은 수졸당의 공간구조를 도시형 한옥의 것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승효상·이종건·공철·김영철·김현섭·한동수(2016), 「승효상의 건축 - 수졸당과 빈자의 미학」, 건축비평집담 2016 첫 번째, 페이지 정보 없음. (2016.3.19.))

53)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중간의 가설적 분류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필자와의 자문회의(2019.8.5) 자료는 100여 개의 수집된 ‘한옥건축양식’ 건물을 일일이 ‘현대 한옥’, ‘한옥풍 건축’, ‘한류 건축’이라는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54) 이용희·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v.25(5), 한국건축역사학회, pp.51-62.

55) 이용희·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v.25(5), 한국건축역사학회, pp.51-62.

이러한 규정은 ‘한옥’ 및 ‘신한옥’의 정의를 근간으로 하되 현대 건축의 융통성과 자유도를 크게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증·개축 혹은 신축된 건물이 전통 한옥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보유한다면, 현대 건축의 구법 및 마감 비중이 때로 전통의 부분을 초과하더라도 ‘현대한옥’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사회적 조건 속에서 한옥이 진화해나갈 방향을 찾기 위한 건축가의 창작과 실험을 존중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된 ‘현대한옥’ 내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고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대상 한옥의 ‘기존(既存) 여부’와 ‘전통 형식의 변화 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첫째 기준에 따라 ‘리노베이션 한옥’과 ‘신축 한옥’의 두 유형을, 둘째 기준에 따라 ‘전통 형식의 유지’,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전통과 현대의 병치’라는 네 유형을 도출했다. 그런데 둘째 기준에서의 ‘형식’은 한옥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구조, 공간, 형태 등의 범주를 통칭한 것이다. 그리고 ‘전통 형식의 유지’는 실내 공간, 설비 등을 현대화하되 전통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유형,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는 전통의 형식 속에서 실내 공간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장 및 분화하는 등 변화시키는 유형,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는 전통 목구조 일부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거나 2층 한옥을 시도하는 등 전통의 틀을 변화시키는 유형, ‘전통과 현대의 병치’는 한옥과 현대 건축이 결합해 병치된 건물의 한옥 부분을 지칭하는 유형이다. 후자의 한옥 부분은 자체로서 앞의 세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결국 두 기준을 결합해 여덟 유형이 나왔는데, 편의상 두 가지 기준의 영문명에서 핵심부를 취해 아래 표와 같이 각 유형을 명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 형식의 유지’의 두 유형(Re-Main & New-Main)에 각각 한 가지 사례를, 나머지 여섯 유형에 각각 두 가지 사례를 보였다.

[표 부록-1] 현대한옥의 유형

	리노베이션 한옥	신축 한옥
전통 형식의 유지(Maintain)	Re-Main	New-Main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Space)	Re-Space	New-Space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Frame)	Re-Frame	New-Frame
전통과 현대의 병치	Re-Combi	New-Combi

출처: 김현섭 교수 직접 작성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라는 연구는 자체로 ‘현대한옥’을 명확히 규정한 후, 두 가지의 뚜렷한 기준으로 여덟 유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노베이션(증축, 개축, 대수선)과 신축을 구분함으로써 두 유형의 ‘존재론적’ 조건이 다를 것을 보인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한옥을 되살린다는 면에서 대체로 반론이 없지만, 신축의 경우 현대적 조건 속에서 왜 한옥 형식으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대한옥’ 내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개괄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건축가들의 창의적 실험을 통한 한옥의 진화 방향을 탐색했다는 면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쉬움과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우선 아쉬움에는 여덟 가지 유형의 이름을 한글로 간략화하지 못한 점이 있다. 낯선 영문 조합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그 명칭만으로 해당 유형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으로 조합된 영문명은 지칭하려는 유형의 뜻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추후 간결하면서도 의미론적으로도 타당한 한글 이름을 붙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란의 여지는 역시 ‘현대한옥’의 정의와 범위에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자체로 ‘현대한옥’을 정의한 것은 큰 장점이며, 앞으로 한국 건축계에 공인된다면 보편적 정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그 정의는 이 연구만의 시도로 끝날 것이다. 특히 ‘현대한옥은 한옥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유형은 한옥과 무관한 그저 현대 건축의 한 사례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New-Frame’의 사례로 제시한 도미이 마사노리의 경주 남산동 한옥(2014)은 대들보를 없앴으로써 전통 목구조의 형식을 깨트렸는데,⁵⁶⁾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이 원고의 입장에서 이 건물은 ‘한옥’은 아닐지 몰라도 (이 말은 ‘한옥’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는다) ‘현대한옥’에는 분명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전봉희의 개념과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 그에게 ‘현대 한옥’은 ‘한옥’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통 형식의 유지’ 유형은 전봉희의 ‘정통 한옥’과,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유형은 그의 ‘현대 한옥’과 대체로 조응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통 형식 틀의 변화’ 유형은 그의 ‘현대 한옥’에 일부 속할 수도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 (‘한옥풍 건축’도 아닌) 다른 지점을 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비교는 현대적 한옥 형식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한옥건축양식’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옥건축양식’의 대안 모색

우리는 서론에서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의를 이미 보았다. 이 정의는 무척 말끔하게 되어있는데, 쟁점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유형은 ‘신한옥’이나 필자가 규정했던 ‘현대한옥’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으니, 한옥건축양식은 결국 전통적 목구조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현대적 재료와 구법으로 교체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건축양식의 정의로서야 문제될 게 없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축양식으로 이것이 타당할까? 현대적 재료와 구법이라면 전형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를 떠올릴 만하다. 철골의 경우 목조 가구식의 구조 형식을 현대적으로 변안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조체를 벗어나 전통 한옥의 형태만을 모방한다면

56) 대신 구조의 필요를 위해서 보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면서 서까래 형태를 연상시키는八字 모양의 부재를 연속으로 설치했다. 필자는 이를 “의사(擬似)-서까래”라 명명했다. (이용희·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v.25(5), 한국건축역사학회, pp.51-62.)

문제의 소지가 따른다. 굳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건축 유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까?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한옥 유형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철근콘크리트로 목구조의 형태만을 모방해 건축한 건물을 크게 비판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⁵⁷⁾ 이미 겪어온 논의의 층위와 교훈을 건너 뛰어 다시 이전의 의식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한옥건축양식의 법률 규정은 한옥건축양식이라는 용어 자체에서와 그 정의 모두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용어가 타당치 않음에 대해서는 이 논고가 일관되게 주장한 바이다. 국가주의의 과잉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양식’이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사용한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첫째는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서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물론 이 용어가 포함된 다른 조항 역시도 함께 삭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제2조(정의) 3호’와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가 대상일 것이다. 필자는 이 선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옥건축양식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보이며, 한옥에 대한 규정과 지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굳이 미심쩍은 한옥 언저리의 형식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자칫하면 한옥의 형태만을 모방한 역사주의의 포스트 모던 건축을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의 가치를 계승할 만한 어떤 건물 유형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그건 별도의 방식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선택은 한옥건축양식을 대체할 더 적합한 용어와 정의를 넣는 것이다. 현재의 「한옥등건축자산법」 체계와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로써 조금 더 넓어진 범위의 한옥 유형을 진흥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히 대상 건물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한옥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봉희가 규정한 ‘현대 한옥’은 ‘한옥건축양식’의 대체 개념으로 어떠한가? 아쉽게도 불가하다. 이것은 이미 ‘한옥’의 범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다이어그램에서는 오히려 ‘한옥풍 건축’이 ‘한옥건축양식’과 많이 겹칠 수 있겠다. 그러나 ‘한옥풍 건축’이 필자의 고려 대상이 아님은 자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정의했던 ‘현대한옥’이 ‘한옥건축양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불가하지 않겠지만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 형식의 유지’ 유형 및 ‘전통 형식 내 공간의 변화’ 유형은 전통의 형식을 최대한 지키려 하기에 국가가 지원할만하나, 전봉희의 ‘현대한옥’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옥’의 규정 내로 포섭된다.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유형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아마도 국가적 입장에서는 외관이 전통성을 유지한다면 내부에 발견되는 관례로부터의 탈피는 문제시하지 않을 것 같다. 필자가 ‘New Frame’ 유형으로 분류한 은평 한옥마을의 목경현(2015)의 경우가⁵⁸⁾ 그러

57)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은 한옥 형태의 철근콘크리트조 문화시설로 정권의 문화적 정통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 여러 건축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58) 목경현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황두진의 수직적 확장 개념이 적용된 다층 한옥이다. 그러나 거실을 위로 뚫어 층층의 공간감을 주고 ‘구름다리’로 2층 방을 연결한

지 않을까? 그런데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경주 남산동 한옥은 오히려 다른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옥’이라는 이름으로 건축해 경주시의 지원금을 받았지만⁵⁹⁾ 전통 목구조 형식의 관례를 깬으로써 그 이름에 합당한지 논란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사례는 ‘한옥건축양식’의 범주에도 들기 어려울지 모른다. 한옥의 구조를 갖추거나 그 구조를 현대적 재료로 대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새로운 실험을 증시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현대한옥’의 ‘전통적 형식 틀의 변화’ 유형이 ‘한옥건축양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 유형의 ‘현대한옥’은 ‘한옥건축양식’이 추구하는 바와 정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한옥건축양식’은 전통의 틀을 깨는 것이 아니라 형태 모방을 통해서라도 한옥의 형식을 갖추려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한옥건축양식’을 대체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콘텍스트에서 ‘현대한옥’의 개념 및 유형이 갖는 유익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현대의 여러 한옥 작업의 지형도를 펼쳐 보여주는 것과 이로써 한옥건축양식의 위상이 어떠한지, 정확히는 이것이 현대의 건축담론과 상당히 동떨어져있음을 보이는 것 아닐까? 한편, ‘신한옥’은 정의에 있어서 ‘현대한옥’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실제로는 현대적 공법에 대한 강조로 그 범위가 아직 모호하다고 하겠다. 전통으로부터 탈피한 혁신적 구법으로 한옥 형식을 구현할 경우 매우 고무적일 수 있으나, 그 역시 보편적 법률에서 국가적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한옥건축양식’의 항목은 첫 번째 선택을 따라 아예 법률에서 삭제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옥’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개별 건축가에 의해 한옥의 관례를 뛰어넘는 혁신적 ‘현대한옥’이든, 산업화를 향한 신공법을 추구하는 ‘신한옥’이든, 이제 스스로의 생존력을 입증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한옥의 진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⁶⁰⁾ (만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벗어난 일부의 한옥 관련 유형의 건축물을 여전히 법률을 통해 진흥하기 원한다면, 필자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타협점으로 다음 정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한옥’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한옥’이나 전통건축의 가치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제도적·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구를 넣는 것.⁶¹⁾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에 굳이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면 - 꼭 그럴 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 한옥건축양식을 더욱 타당한 것으로 바꾸어야 할 텐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현대한옥이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 ‘부득이한 타협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⁶²⁾

것, 현대적 지하 공간을 둔 것 등에서 보듯 실내는 전통의 형식에 과감한 변형을 가하고 있다.

59) 필자와 건축주와의 대화. (경주 남산동 한옥, 2017.10.27.)

60) 지금까지 ‘신한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다양한 경로로 있었고, 현재도 진행형인 듯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 법률과 연관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61) 필자가 참석한 국가한옥센터의 한옥건축양식 제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2019.11.22.)

62) 여기에서 제시한 ‘부득이한 타협점’은, 필자가 참석한 국가한옥센터의 한옥건축양식

④ 결론: 한옥 전통의 올바른 계승을 향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이 논고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과 거기에 한옥건축양식이 규정된 배경으로 근래의 한옥 부흥을 꼽으며, 그 현상이 내포한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한옥 부흥은 우리 건축의 전통에 대한 가치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한옥의 실험이 한옥의 미래를 개척할 모더니티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집단적 현상으로서의 한옥 부흥은 국가주의/민족주의 및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신화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은 그러한 신화가 제도화된 결정체로서 그 정의 자체가 모호해 논란을 야기하는 한편으로, 레트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과거의 포스트모던 논의를 귀환시킨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건축양식'을 규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위 법률상의 한옥건축양식을 대체할만한 한옥 관련 건축 범주나 유형은 딱히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전봉희의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 양상'과 필자의 '현대한옥', 그리고 기존의 '신한옥' 등과 같은 개념을 검토한 결과 이 논고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건축양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부득이한 타협점'의 여지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그러하다.) 이 법률에서 '한옥'에 대해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다. 굳이 여러모로 모호하고 미심쩍어 논란을 야기하는 '한옥건축양식'을 법조문에 넣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한옥건축양식의 법률적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 대안을 생각해본 것은 모두 한옥 전통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근래의 한옥 부흥과 현대의 한옥 전반에 대해 필자의 몇 가지 비판적이고 실제적인 논점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는 한옥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옥 부흥의 신화적 측면인 민족주의/국가주의 및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전통이 발명되어왔는데, 그 같은 '전통의 발명'이 무엇에 봉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⁶³⁾ 둘째, 우리는 '이미지로서의 한옥'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미지로서의 한옥'이란 우선 전통의 건축 논리나 공간 구성보다 형태 만들기에 집착한 한옥으로서 콘크리트로 전통의 형태만을 모방한 경우가 전형적이다. 또한 필자는 이 카테고리 소비문화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고급 상품으로 소비되는 '기호-가치'로서의 한옥과 싸구려 '키치'로서의 한옥 모두를 지칭하고자 한한다.⁶⁴⁾ 셋째, 현대의 건축작업은 공간, 구조, 재료, 생산 시스템과 같은 현대적 조건을 바탕으로 진행되

제1차 토론회(2019.11.22)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 수용해 발전시킨 것이다. 즉, 괄호 안의 내용이 토론회 전 준비된 원고에 새롭게 삽입되었다.

63) 본문에서 바르트를 참조해 적었듯, 결국 봉사 받는 대상은 현상을 영속화하려는 기존의 권력일 것이다. 한편, '전통의 발명'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임형택 외(2010),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 사상.

64) Jean Baudrillard(1998), *The Consumer Society: Myths and Structures*, London: Sage.

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옥’이나 ‘현대한옥’과 같은 건축 유형이 특정 조건과 목적의 건물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한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위치는 현대건축의 폭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일부의 특수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넷째, 한옥의 ‘신축’은 별개의 문제이나 기존 한옥의 보존 및 보전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데, 한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실험할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실험은 온건하든 급진적이든 미래를 향한 한옥의 진화를 돕게 된다. 이와 같은 필자의 몇 가지 논점은 확정적이기 보다 잠정적이라 하겠는데, 앞으로 여러 논의를 통해 더 유용한 담론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3) 한옥건축양식 관련 선행연구 목록

□ 설계와 계획

박형민·김영훈(2019), “어포더블 한옥형 공공건축물 아카이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대한건축학회

안치우·김영민(2019), “서양 전통목구조의 전단벽 구조형식 고찰을 통한 한옥의 전단벽 설계에 관한 연구 - 고대 로마, 이탈리아, 벨기에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대한건축학회

유근록(2019), “10m급 대공간 한옥 실증구축 설계 -(가칭)용인 처인성 한옥역사문화교육관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11), 한국건축역사학회

황용운(2019), “현대 아파트 평면도와 한옥표준평면도의 공간배치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8), 한국산학기술학회

황용운(2019), “한옥표준설계도의 평면도 공간배치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6), 한국산학기술학회

황용운(2019), “전통 한옥표준설계도의 공간의 깊이와 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노호원(2018), “패시브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한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승관·손동화(2018), “하이브리드 한옥의 유형과 구성모델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6), 한국주거학회

김이환(2017), “한옥의 특성을 활용한 무대미술 표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연환(2017), “한국 전통 정주공간의 계획개념을 적용한 한옥마을을 기본계획 : 전북 완주군 용정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지민(2017), “한국의 전통 자연관을 적용한 집필자를 위한 레지던스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벤자민 박 타운센드(2016), 「미국시장에서 적용가능한 현대 한옥의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세은(2016), 「근대건축물 미국창고를 활용한 전통주 양조장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우영(2016), 「한옥의 차양요소 특징을 반영한 창호의 음영면적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현일·김주원(2016), “프라이버시 변화수용이 가능한 현대 한국 주거 평면”,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6(2), 대한건축학회

김흥식·최인서(2015), “전통마을 친환경계획요소의 현대주거단지 적용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7(2),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문진희·유진형(2015), “게스트하우스에서 활용 가능한 한옥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0(5),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박미주(2015), “도시의 역사적 콘텍스트의 재해석을 통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진(2015), 「추상과 재현으로 본 르 꼬르뷔지에와 김종업의 필로티공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원(2015), 「한국 전통주거의 현대적 해석에 의한 주거공간계획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시인(2015), 「제주 표선면 성읍리 단독주택단지 : 전통주택의 지역성을 반영한 현대주택모델의 기본 타입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인서(2015), 「전통마을 친환경계획요소의 현대주거단지 적용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보람·최상현(2014), “현대 호텔객실에 적용된 전통의 현대화 표현방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8), 대한건축학회

김나리(2014), 「현대화된 한옥공동주택」,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호겸(2014), 「한국 전통 건축의 재해석을 통한 게스트하우스 계획」,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윤경(2014), 「전통건축이 현대적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모경(2014), 「대규모 공공청사건축에 적용된 전통건축요소의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준봉·백홍열·유우상(2013), “전통한옥 설계기법을 적용한 북한의 현대한옥설계 기초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Ondol, 국제온돌학회

김예선(2013), 「전통사찰 구성의 의미를 적용한 현대사찰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진형(2013), 「한옥카페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시화(2013), 「전통주거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도심형 저층공동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대천(2012), 「서촌 전통문화센터와 사료관 계획」,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량(2012), 「한국 전통 담장 조형요소의 모티브를 통한 현대 건축디자인 활용방안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환·이은량(2012), "전통담장 조형 요소의 모티브 활용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11(3), 디자인융복합학회

이주옥·한필원(2012), "한옥 설계의 최근 경향 연구 : 최근 10년간 건축전문 잡지에 게재된 신축 한옥을 대상으로", 「건축역사연구」, 21(1), 한국건축역사학회

최미희(2012), 「한옥의 레벨차를 현대적으로 재구성 하는 방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주희(2012), 「도시한옥의 현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용(2011), 「도시한옥 기반 레스토랑의 실내디자인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연금·김해경·김영모·진양교(2011), "백제정원을 주제로 한 리조트 외부 공간 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9(2), 한국조경학회

김홍식(2011), 「전통 문화 마케팅을 도입한 해외여행자의 게스트텔 공간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보라(2011), 「한옥의 전통적 요소를 도입한 한국형아파트 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기협(2011),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상현(2010), 「재생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한 한옥의 재구축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혜영(2010), 「한옥 현대화를 위한 이동식 한옥 구법 개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준배(2010), 「크로스오버를 통한 도심의 전통 상업거 재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창(2010), 「전통마을의 공간분석을 통한 주거단지 계획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개천(2009), "현대 한국불교건축의 방향과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불교문화」, Vol.3,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경광현(2009), 「소격동 도시형 한옥을 이용한 복합 문화시설 계획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훈(2009),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Visitor center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완건(2009), "현대건축에 나타난 신한옥 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8(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태현(2009), 「색채와 도형으로 풍경을 심어주는 유치원 계획 : 풍수지리 한국 건축 개념을 적용한 현대 유치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영민(2009), 「신한옥의 단위공간 모듈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경숙·백재화(2009), "복원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향유여건 조성방안 : 국립국악원의 공연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19, 국립국악원

김연혁(2008), 「전통 건축기법을 이용한 학교건축의 배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우철(2008), 「하이브리드적 복합문화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용서(2008),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나타나는 모더니티와 이응노의 예술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9), 대한건축학회

정수영(2008), 「도심 속 역사 문화 환경의 새로운 건축적 제안」,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영(2007), 「미국 관광지 내 한국 리조트 타운 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화(2007), 「도시호텔 로비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영신(2006), 「인사동 민익두 가옥의 장소 마케팅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영재(2006), 「인사동길의 연속성 보존을 위한 Gate Zone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민호(2006), 「구들의 현대적 이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현주·김진욱(2006), "한국의 전통적 조형요소를 적용한 호텔객실 리모델링 제안에 관한 연구 -부산 코모도 호텔을 대상으로", 「디자인학연구」, 19(1), 한국디자인학회

김개천(2005), "현대적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 「대각사상」, 8, 대각사상연구원

윤원(2005), 「전통주거의 시지각적 공간특성을 적용한 농촌주거계획 요소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명주(2004), 「소재원 공간의 재해석을 이용한 도심지 공원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원용(2004), 「한국 전통건축의 생태적 특징의 고찰을 통한 현대 주거건축의 수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용(2003), 「한국적 미를 적용한 외국인 문화체험 전문호텔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원민(2003), 「전통주거 특성을 이용한 전원주택 계획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자영(2003), 「주택실내건축에 있어서 전통적 자연경관개념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성도(2002), 「한국적 형태 특성을 고려한 현대주거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민정(2002), 「생태학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 한국 전통의 현대화 연구 -창호와 문의 활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주아(2002), 「한옥의 보전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철희(2002), 「도시맥락의 재해석을 통한 박물관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규현·김민정(2002), 「생태학적 공간 디자인에 있어 한국 전통건축의 현대화 응용연구」, 「디자인학연구」, 50, 한국디자인학회

권윤경(2001), 「조선시대 목가구를 응용한 아파트 실내가구 및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희(2001),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주(2001), 「전통 주거 건축 공간의 시지각적 특성을 적용한 집합 주거 계획」,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도(2000), 「“현대”라는 용어 속에 함축된 제 의미와 “도시사찰”의 정의에 대한 소고」, 「사찰조경연구」, 8,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임한진(2000), 「마루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집합주거형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정식(2000), 「도시사찰의 현대화를 위한 건축적 과제와 방향」, 「사찰조경연구」, 8,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진수언(2000), 「향촌가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내 디자인 계획」,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선희(2000), 「한국전통건축의 생태학적 특성에 의한 환경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삼능(1999), 「전통주거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생태학적 분석 - 생태학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3), 한국농촌건축학회

노정희(1999), 「조선후기 반가의 주거문화 고찰과 공간분석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태우(1999), 「양동 마을회관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주연(1999), 「전통건축공간의 시각구조 분석을 통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종표(1998),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응용한 Sign Design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재명·손세관·양우현·이승엽(1998), 「도심 한옥주거지 개발방향 모색과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서성동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대한건축학회

김용진(1997), 「도시형 한옥지역에서의 집합주택 설계 :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철호(1997), 「문화재 보호 구역내에 위치할 현대 건축물에 관한 연구 및 제안」,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선희(1997), 「현대 미니멀 건축의 형태적 특성과 한국 전통 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동훈·최희철(1995), 「현대 집합주거에서 전통주거의 방어공간개념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15(1), 대한건축학회

이정민(1994), 「전통주거공간의 조형적 재해석에 의한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희(1993), 「한국 전통건축의 자연환경 조절방법과 그 원리의 현대화」, 「건축」, 37(5), 대한건축학회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V)」, 「建築士」, Vol.1993 No.2, 대한건축사협회

장순용(1993),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V)」, 「建築士」, Vol.1993 No.1, 대한건축사협회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I)」, 「建築士」, Vol.1992 No.12, 대한건축사협회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I)」, 「建築士」, Vol.1992 No.11, 대한건축사협회

장순용(1992), 「전통건축연구-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 「建築士」, Vol.1992 No.10, 대한건축사협회

이동수(1989),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디자인 요소의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공간

김민희(2019), 「김수근의 공간사육에 관한 건축담론의 역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다나카미카·한태권·김주연(2018), “한국과 일본 전통 창호의 현대적 공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50,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송연민(2018), 「미학의 관점에서 본 차문화 공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수(2017), “사찰건축 공간구성의 역사, 그리고 지속과 변형의 가능성”, 「남도문화연구」, 32,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박효정(2017), 「한국전통 찻집의 조형적 특성을 적용한 모듈형 전시공간 디자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지화(2016), “제1세대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공간에서 보는 디아스포라적 해석”, 「디아스포라 연구」, 10(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조민영·김은주(2016), “한옥에서 찾은 유아교육기관 공간구성의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21(1),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최윤영·이현수(2016), “조선시대 전통 외부공간의 위계성 관점에서 본 절두산성당의 배치계획 분석”,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6),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박정해(2014), “불교사상과 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응용 : 마곡사 입지의 풍수환경과 공간구성”, 「동아시아불교문화」, 19,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박하나(2014), 「활성화된 근린 소규모 전통시장 도시·공간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준혁(2014), 「경남지역 현대한옥의 공간사용실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선미(2014), 「현상학적 시각체계를 통한 체험공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유리·남경숙(2014), “북촌한옥 실내공간의 전통과 현대적 융합특성”, 「기초조형학연구」, 15(3), 한국기초조형학회

권혜정·박찬규·김영석(2013), “한국 전통 공간의 특성을 적용한 전시시설 계획”,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류인혜(2013), 「도시형 한옥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형(2013), “제주 전통건축 공간과 조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1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사라·남경숙(2013), “전통공간의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1(4),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김학래(2012), “지붕가구법의 변용을 통한 신한옥 포복공간의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12(1), 한국농촌건축학회

김정아(2011), 「해학이 담긴 열린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수경(2011),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민희(2011),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디자인학 연구」, 16,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허준·송병화(2011), “전통주거공간의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추출 및 현대적 적용 -경상북도 독막당을 사례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한국전통조경학회

김남경(2010), 「한옥의 전통적 공간 개념을 적용한 외식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소영(2010), 「양택풍수의 공간구조와 내부상징성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은지(2010), 「생태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림·이동연(2010), “1990년 이후 한국 현대건축의 비움 공간에 대한 비판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최민정(2010), 「한·중·일의 주거 형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 실내 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설단(2009), 「현대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동양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경애(2009), 「주택문화관 실내공간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준호(2009), “전통 건축 공간에서의 비움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14), 한국동양예술학회

최혜정(2009),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은수(2008), 「낙산 성곽 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진동(2008),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수연(2007), 「한국 전통건축 전이공간의 연계 및 경계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민성(2007), 「한국 전통 단청 금문의 현대 공간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우(2007),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독락당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태준(2006), 「한국음식과 한국문화의 감성적인 체험공간디자인」,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재(2006), 「한국 전통주거의 미적 관점에 의한 공간 연계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세중(2006), 「한국 전통건축 외부공간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별님(2006), 「한국전통건축공간의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재·정무용(2005), 「한국 전통주거 공간 특성의 현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25(1,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박주영(2005), 「전통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지닌 순환의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강원·김문덕(2004), 「한국 전통건축 공간에 나타난 위상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곽경숙(2004),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특성과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광호·이종협·강건희(2004), 「한국사상과 전통건축공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24(2,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김주연(2003), 「한국 전통주거공간의 기호론적 해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성원(2002),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깊이감의 형상화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성준(2002), 「한국 전통 공간에 나타난 동적시선에 의한 공간 인식 변화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주·류호창(2002), 「풍수지리사상적 관점에서 본 전통 주거 공간구성의 생태학적 특성」, 「기초조형학연구」, 3(1), 한국기초조형학회

김종훈(2002), 「전시시설 외부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전통건축 외부공간의 특성과 비교 연구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도현정(2002), 「현대주거 공간구성에 관한 풍수 이론적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범식(2002), 「시지각적 관점에서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현병(2002), 「한국전통마을 입지선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23, 부천대학

김남혜(2001), 「전통한옥의 현대적 사용에 따른 변형 실태와 보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전통한옥의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재규(2001), 「한국 현대 주거건축의 전통 공간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연(2001), 「한국전통실내건축의 여허공간의 개념과 종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석(2001), 「전통주거공간의 전이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세희(2001), 「현대 상업공간의 수공간 현장 연구 : 전통 수공간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자형(2000), 「건축의 위상기하학적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그리스 신전건축과 한국 사찰 건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형래(2000),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송종렬(2000), 「시각예술에서 드러나는 사유체계분석에 의한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소영(2000), 「한국전통주택의 전이공간 분석에 의한 환경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미현(2000), 「구조주의적 접근에 의한 한국 전통공간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네덜란드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태호(2000), 「한국 전통 주거건축 외부공간 구성의 특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희(1999), 「건축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혜연(1999), 「전통마당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민구(1998), 「추사고택의 공간구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양균(1997), 「전통마을과 현대적 집합주거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비교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17(2), 대한건축학회

김경숙(1996),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연속성과 공간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현(1995), 「전통건축공간 구성체계의 현대 건축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혁준(1995), 「김수근의 네가티비즘에 의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준연(1989), 「전통사상으로 비추어본 한국건축표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중우(1988),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경립(1986),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진균(1981), 「전통공간 조직체계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건축」, 25(4), 대한건축학회

□ 사조와 해석(1)

김현섭·이용희(2019), 「한옥 패러독스: 한옥의 부흥에 나타난 현대성과 신화」, 「월간 SPACE」, 공간

박기현·원호성(2018), 「한국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신희리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2), 대한건축학회

박정현(2018), 「발전국가 시기 한국 현대 건축의 생산과 재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범·김상태(2017), 「한옥건축양식에서의 건축가 역할론: 고전적 전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7(춘계), 한국건축역사학회

유정아·윤은경(2017), 「현대건축에 나타난 한국전통 디자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연호(2017), 「한국전통건축 요소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강민(2016), 「한옥 현상 되돌아보기」, 「건축」, 60(8), 대한건축학회

이용희·김현섭(2016), 「현대한옥의 유형 분류」, 건축역사연구, 25(5), 한국건축역사학회

변정희(2015), 「2000년도 이후 현대건축에 나타난 한국적 실내디자인 사례의 사용소재 및 표현경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현(2015),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24(6), 한국건축역사학회

차명열(2015), 「형태 지식을 이용한 전통요소의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공학논문집」, 17(1),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권현철·주요일(2014), 「현대 실내건축에 나타난 한국 전통 건축적 유형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12(4), 한국주거환경학회

김지홍(2014), 「1960~70년대 국가건축사업과 전통의 재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원종호(2014), 「한국기념공간의 구성특성과 기억문화론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용준(2013),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섭(2012), 「국제박람회 한국관의 역사와 건축적 의미」,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4월 월례), 한국건축역사학회

김경수(2011), 「21세기 한국건축의 한 원천으로 본 신한옥」, 「동양예술」, 17, 한국동양예술학회

배형민·우동선·김봉렬·전봉희·이규철(2011), 「1990년대 이후 건축역사와 건축설계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승희와 최옥의 교육배경과 작업을 사례로-」, 「건축역사연구」, 20(3), 한국건축역사학회

이상림(2011), 「한국 현대건축의 양태적 비움에 대한 비판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해준(2011), 「전통한옥의 활용과 기초자료정리 문제」, 「역사민속학」, 37, 한국역사민속학회

김용미(2009), 「현대건축과 한옥의 결합 가능성」, 「건축」, 53(9), 대한건축학회

윤성식(2009), 「한국전통기옥의 조형미에 관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준호(2009), 「전통 건축 공간에서의 비물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양예술」, 14, 한국동양예술학회

황현미(2009), 「한국 근대건축가의 고전해석을 통한 설계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소연(2007), 「탈식민주의 담론으로 본 해방 전후 한국 건축가의 정체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소연·이동연(2005), 「“오리엔탈리즘”의 재해석으로 본 일제강점기 한국건축의 식민지 근대성: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일본, 한국 건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4), 대한건축학회

김은정(2005), 「전통과 현대의 고리 근대건축」,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창모(2004), 「심포지엄 : 예술용어와 예술현장 - 한국 근, 현대 예술의 기원과 성격; 한말 '건축'에 대한 인식과 '건축' 개념」, 「미학·예술학연구」, 20, 2004, 한국미학예술학회

안은실·최재희(2003), 「현대 문화 시설: 한국 전통들의 반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3(2), 대한건축학회

이광배·조종수(2003),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전통건축언어의 재해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3(2), 대한건축학회

이은진(2002), 「1960-7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론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종덕(2002), 「한국 현대건축에서 표현되는 전통건축언어의 패러디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종숙(2002), 「양택론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익수(2001), 「한국건축의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논문집」, 9,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임미정(2001), 「신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 건축에서의 자본, 권력의 공간화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진석(2000), 「역사주의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건축의 이해와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택(1999),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봉렬(1999), 「한국건축사의 시대구분」, 「학술심포지엄」, (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김용규(1998), 「전통건축 형태요소의 현대적 표현 방법에 관한 시험적 연구」, 「논문집」, 19, 부천대학

변태호(1997),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사고들의 유한적 표상과 '민속건축'에 대한 소고」, 건축역사연구, 6(1), 한국건축역사학회

한상석(1997), 「한국 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표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성진(1996), 「한국 전통조형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논문집」, 10, 서라벌대학

이재현·한상석·박재평(1996), 「현대 건축작가의 전통 건축사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16(1), 대한건축학회

이중우·이인희(1995),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이론화 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8), 대한건축학회

김미정·고부영·안창현·윤보윤·이강심·정경숙(1994),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적 건축요소의 실태분석」, 「부학」, 27,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김용균(1994), 「현대건축사조별로 본 한국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우(1991),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과 창작」, 「미술사학」, 5, 한국미술사교육학회

김병연(1989), 「한국 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우갑·지광석(1987), 「한국현대건축의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7(1), 대한건축학회

이명호·이동우(1987),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7(1), 대한건축학회

박혜영(1984), 「현대주택 실내공간에 있어서 한국적 이미지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철승(1984),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동규(1980), 「한국의 현대건축과 조국근대화 그리고 전통의 계승」, 「건축사」, 1980(9), 대한건축사협회

박상호(1979), 「도시속에서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조화」, 「건축사」, 1979(12), 대한건축사협회

□ 사조와 해석(2): 전통성과 한국성 관련 연구

류미리(2017),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적 모티프의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호성·양현정(2017), 「한국 석조건축에서의 한국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37(2), 대한건축학회

박훈(2015), 「전통성 구현을 통한 현대적 기능의 단지설계 전략 연구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상설계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1), 한국농촌건축학회

이재석(2016), 「건축적 전통성 : 한국 현대건축(1956-2015)에 나타난 전통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원·윤성호(2015), "한국 현대 주거공간에 반영된 전통성 표현 연구 -1990년대 이후 전통성이 표현된 단독주택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34,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이상현(2015),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의 이론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24(6), 한국건축역사학회

박지혜(2014),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나타난 한국적 감성표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아영(2014), 「초가와 너와집을 표방한 음식점의 한국 전통성 표현 실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혜영(2014), 「2001년 이후 한국 현대주택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시대적 경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한나(2014), 「한옥 건축재료의 전통성 및 심미적 인지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윤영·이현수(2014), 「이희태의 건축에 나타난 위계구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2), 대한건축학회

박훈(2013), "공동주택단지에서 전통성 구현 전략과 단지외부공간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5(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오현주(2013), 「한국성 표현방법을 반영한 디자인호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현영(2013), 「한국성이 표현된 저층집합주택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해은(2012),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지(2012),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한국성 표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규덕(2012), "총리공간 현상설계를 통한 전통성 표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이준호(2011), 「현대 주거건축에서의 한국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승연(2011), 「한국 디자인에서의 '전통 담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현미(2011), 「호텔 로비 공간에서의 전통적 이미지 표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기용·이현수(2010), "한옥기반 레스토랑의 실내건축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에 관한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10), 한국디자인학회

장동국·박민아(2010), "한국현대주택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구조계」, 30(1,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김해영(2009), 「전통성 개념을 표출한 현대주택의 내-외부공간 경계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시영(2009), 「거주자 선호분석에 의한 공동주택의 한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세욱(2008), 「전통성을 표출한 주거건축의 공간 및 재료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수(2008), "김수근 건축철학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1(3), 한국일러스아트학회

오세욱·김형우(2007), "전통성을 지닌 현대주거건축의 공간 특성과 재료 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구조계」, 27(1), 대한건축학회

조창희(2007), 「한국성을 반영한 유기적 건축에 관한 설계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균(2006), 「독재정권기의 민족주의와 디자인에서의 '한국성」, 「디자인학연구」, 19(5), 한국디자인학회

양수진(2006), 「상보적 이론론을 통한 주거 실내공간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경(2006),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한국성 표현방법의 경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은(2005), 「리모델링 주택공간의 공간요소 분석과 전통성 표현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희(2005), 「실내건축공간에 '한국성' 적용을 위한 디자인개념 추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경희·남경숙(2005), "한국 현대실내 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경희·남경숙(2005), "전통성의 한국 현대 실내공간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25(2), 한양대학교

류춘화·박전자(2004), "현대주택 리모델링의 전통성 표현을 위한 한옥 리모델링 사례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구조계」, 24(2,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이완건·차명열·김원갑·박연곤(2004), "디자인 개념을 통한 전통건축 디자인 지식의 현대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7), 대한건축학회

류은미·이동연·강훈(2004), "현대건축의 '전통' 해석방식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와 '가다머'의 해석학 논쟁'을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7), 대한건축학회

김미경(2003), 「한국 현대 공동주택 단지계획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수경·오영근·이한석(2003), 「업무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7),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신경화(200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완건(2003), 「의식과 무의식을 통한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건축된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주희(2003), 「물성에 의한 현대 실내건축의 한국성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혜(2002),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4),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경수(2001), 「건축미학에서 본 한국성 문제」, 「미학·예술학연구」, 13(-), 한국미학예술학회

윤주호(2001),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 「논문집」, 22, 54-64, 부천대학

이종하·권기덕·김정재(2002), 「한국현대건축가 작품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구조계」, 22(1), 대한건축학회

이원석(2001), 「한국 현대주거건축에 표현된 전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41, 한국디자인학회

이은진·심우갑(2001), 「1960-70년대 한국 현대건축의 전통론과 그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1(2), 대한건축학회

최상현(2001), 「전통성, 한국성 그리고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 「건축」, 45(2), 대한건축학회

허진석·정용환(2001), 「현대주택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전통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2(3), 한국주거학회

홍종덕·오덕성(2001), 「한국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전통건축언어의 패러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21(1), 대한건축학회

김현준(2000), 「현대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정미(2000), 「실내건축에서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근홍(2000), 「재외 공관건축 계획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혜원(2000), 「미래주거유형 디자인 사례연구 : 전통사상에 의한 공간적 가변성 적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진영(2000), 「호텔 로비공간에서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영민(1999), 「"한국성" - 건축에서의 한국성?」, 「황해문화」, 24, 새얼문화재단

김경재(1999),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김남희(1998), 「한국성을 주제로 한 현대건축물의 공간구성기법 분석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국(1998), 「한국현대건축의 한국성 개념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연심(1998), 「국내건축 '97년 건축계를 돌아보며 - 한국성과 정체성의 해결책 '방어형 주택」, 「건축사」, 1998(1), 대한건축사협회

손헌재(1998), 「한국성 표현의 GOLF CLUB HOUSE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서영(1998), 「실내환경디자인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방법적 모색과 공간 작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동제·김종영(1998), 「현대 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의미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1(2), 한국산업융합학회

한상석·이재현(1998), 「한국 현대건축작가의 전통사상 표현에 관한 연구」, 「산업과학연구」, 15(3),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김정신(1997), 「한국 현대 종교건축에 있어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진삼(1997), 「한국의 건축 / 전통과 모더니즘의 불안한 동거 : 21세기의 건축, 왜 다시 '한국성'인가」, 「월간 사회평론 길」, 97(6), 사회평론

하태호(1997), 「전통의 현대적 기승과 장소의 신화」, 「건축역사연구」, 6(1), 한국건축역사학회

김흥수(1995), 「한국 건축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 60년대이후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경북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태준(1995), 「현대 한국 주거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 상보적 이원구조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엽(1995), 「한국 실내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은아(1994), 「한국 전통성에 기초한 리조트 호텔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대준(1994), 「동아시아의 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대해」, 동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성(1993), 「한국건축의 전통성에 대한 고찰과 현대건축에서의 수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봉식(1992), 「한국 현대건축에서 전통성표현의 수용과 계승에 관한 연구 : 60년이후 전통성 논의 및 전통성표현 건축물의 경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영식(1992), 「상보적 이원구조로 본 현대한국건축의 한국성 표현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나영(1991), 「한국 현대 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기(1990),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반성과 과제」, 『건축』, 34(2), 대한건축학회

송민구(1990), 「현대건축 사조와 전통성 구현문제」, 『건축』, 34(2), 대한건축학회

김경수(1990),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자세와 작품경향」, 『건축』, 34(2), 대한건축학회

김영희(1989), 「전통주거공간의 시지각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홍택·이형재(1989),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의 형태적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구조계』, 9(2), 대한건축학회

이형재(1989), 「한국 현대 건축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진원(1988), 「한국 현대건축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구영일(1988), 「건축형태지각을 통한 한국성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현(1987), 「독립기념관의 한국성과 기념성」, 『건축사』, 1987(8), 대한건축사협회

안영배(1987), 「전통성의 실상과 허상- 국립현대미술관」, 『건축사』, 1987(2), 대한건축사협회

조인철(1987), 「건축가 김종업·김수근의 작품경향에 관한 연구 : 그들의 건축작품에 보이는 한국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종현(1986), 「현대건축의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 고건축 의장 요소를 모티브로한 작품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우(1986),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수용에 관한 연구 : 전통수용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비평을 위한 시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기웅(1984),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배화(1980), 「한국전통건축의 해석과 계승을 위한 창조적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 UOU Report, 11(1), 울산대학교

이시웅(1979), 「한국현대건축의 전통구현방법론에 관한 연구」, 『논문집』, 25, 대전공업전문대학

□ 형태와 형식(1)

대나가 미카(2018), 「한국과 일본 전통창호의 비교 및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수(2017), 「한국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를 활용한 한옥호텔 주요공간계획에 관한연구」, 2017.,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유라·신상섭(2016), 「전통민가와 사찰에 나타난 꽃담의 형태와 상징성 연구 - 전라북도 문화재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4(3), 한국전통조경학회

심관수(2015), 「한국 현대건축 작품에 나타난 전통건축 요소와 선호도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재석·송하엽(2015), 「한국의 현대건축에 적용된 전통적 건축요소의 변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조성호(2015), 「철근콘크리트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계획 유형과 표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민정(2014), 「현대 건축 실내 공간에 나타난 전통 표현 경향의 유형과 디자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미경(2014), 「한국 전통 기와의 현대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진(2013), 「현행 건축 관계 법규가 한옥 형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호(2011), 「산업건축 실내공간의 한국 전통의장 요소 영향력 평가」,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진욱(2011), 「한옥의 칸 체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임정(2011),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의장의 친자연적 요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희(2010), 「현대건축 디자인의 감성적 표현요소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천상우(2010), 「한국 전통주택의 현대화 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국(2009), 「현대 주거건축에서 기호론으로 본 상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관수(2009), 「한국 현대건축 작품에 표현된 전통건축 요소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김영준(2007), 「국내 휴건축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홍석(2005), 「한국 근대 적벽돌 건축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인경(2001), 「한국현대건축의 구축성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원(1999), 「한국전통건축 간의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경진(1999), 「한국전통주거건축의 형태구성 유형화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순영(1998), 「한국 근·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표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령(1996), 「한국 창살무늬를 이용한 조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현중(1996), 「한국현대건축의 형태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석수(1995), 「한국현대건축의 전통표상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윤수(1994), 「한·일 현대건축의 전통 표현경향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현·김석수(1994), 「한국현대건축의 전통표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14(2), 대한건축학회

장승대(1992), 「한국현대건축에 있어서 전통조형언어의 인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수(1990),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전통건축 디자인 요소의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수(1988),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전통을 수용한 현대건축양식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광석(1987), 「한국 현대 건축의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익수(1984),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조형언어의 의미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창규(1983), 「건축양식과 전통」, 「건축사」, 1983(10), 대한건축사협회

한규봉(1977), 「한국건축전통양식계승을 위한 제언」, 「건축사」, 1977(9), 대한건축사협회

한창진(1977), 「한국건축의 전통양식계승」, 「건축사」, 1977(10), 대한건축사협회

□ 형태와 형식(2): 장식과 색채

이지영·장필규·이한형(2018), 「한국 근대기 왕실 생활공간 내 도배지의 실내디자인사적 의미와 디자인 재현 연구」, 「디자인학연구」, 31(4), 한국디자인학회

박현준(2017), 「한옥형 호텔 객실의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대규(2017), 「전통의 현대화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채배하(2015), 「현대 한옥카페의 조명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4, 한국디자인지식학회

원마리나(2012), 「아파트 옥외공간에 사용된 한국의 전통적 조형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팬스스(2012), 「한·중 레스토랑의 전통장식요소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주환·주림(2011), 「한·중 전통을 주제로 한 가로경관색채 비교연구 -서울 인사동, 상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3), 한국전통조경학회

안성일(2011), 「한국 전통건축 색채의 계승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선영(2010), 「한국 전통기와 문양에 의한 문화 상품 개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성민(2009), 「조선시대 궁궐 색채 특성 분석을 통한 색채 팔레트 및 배색 유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림(2009), 한국전통 꽃창살문 도자타일을 활용한 21C 주거공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장영창(2008), 「현대 개량한옥에 사용된 전통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선욱(2007), "한국 전통문양의 신도시 경관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학연구」, 2(1),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정은숙(2006), 「경관에 나타나는 전통색채와 문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하동금(2002),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나타난 전통색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효일(2001), "한국전통건축 담의 시시각적 의장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19, 경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김종식(2000), 「금속난간 장식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전통문양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정민(1998), "건축에 있어서 한국전통문양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논문집」, 21, 진주여자전문대학

이은경(1999), 「한국 전통문양을 모티브로 한 내장 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맥락과 미학(1)

최문용·김문영(2019),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도시재생과 도시브랜드 조성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박다숨(2018), 「펠드먼의 미술비평단계를 적용한 조선건축 감상수업이 한국 전통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세현·한지애(2018), "한국 모더니즘의 의미론 본 이응노미술관의 구분의 감각",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2), 대한건축학회

문정필(2017), "불국사의 아름다움에 나타난 시간적 DNA", 「사회사상과 문화」, 20(1), 동양사회사상학회

장동국(2016), "한국 주택의 풍수 지표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1),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김민수(2015), "남산골 한옥마을: 이미지로써 전통 문화의 소비", 「문화콘텐츠연구」, (6),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유방성(2014), 「풍수이론을 고려한 생태건축에 대한 연구」,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혜·남경숙(2013), "북촌 한옥게스트하우스에 나타난 한국적 감성디자인 표현경향", 「디자인이식저널」, 28, 한국디자인이식학회

신경승(2013), 「풍수지리사상으로 본 한옥의 패시브 건축 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주희·김상협(2012), "독락당의 미학적 요소에 대한 건축 계획적 접근", Journal of Oriental Culture&Design, Vol.4, 국민대학교 동양문화디자인 연구소

김경수(2011), "신한옥의 미학적 문제와 지향", 「동양예술」, 16, 한국동양예술학회

이중우(2010), "한국 전통건축의 생태미학과 그 현대적 변용",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유창남·천인호(2009), "한국의 문화: 전통양택의 삼오 적용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문화재급 양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9, 한국사상문 화학회

진형무(2008), 「전통적 풍수이론의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수경·남경숙(2007), "한국 현대 실내건축에 나타난 한국적 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생활 과학 연구」, 27(2), 한양대학교

박성희·정무용(2006), "한국전통건축 생태요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9), 대한건축학회

위유(2006),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나는 한국적감성의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호정(2004), "주거 건축으로 보는 근 현대건축사, 건축과 풍토 - 보이지 않는 전통", 「월간 컨셉」, (65), 현대건축사

김성수(2003), 「한국 현대건축에 나타난 장소성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태경(2003), 「관계성 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특성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미경(2002), 「차경 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명주(2002), 「현대 한국건축에 나타나는 전통적 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우(2000), 「맥락적 측면에서 역사적 건축물에 현대건축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석연(2000),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전통공간 특성의 현대실내건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연(1999), "맥락주의를 건축이론화 하기 위한 시도(1)", 「건축역사연구」, 8(2), 한국건축역사학회

이한중·박재승(1998), "풍수리론과 전통마을 배치기법에 관한 건축학적 고찰", 「공학기술논문집」, 7(1),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이미애(1996), 「컨텍스츄얼리즘적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적 공간 조형의 실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재훈(1996), "맥락주의(1) : 20세기초 맥락주의 이론과 미적 기준", 「건설기술논문집」, 15(1),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김현수(1993), 「한국의 생태 지향적 생활과 건물」, 하노버대학 박사학위 논문

강병근·김삼능(1991), "생태적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 전통주거 분석과 그 현대적 수용(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11(2), 대한건축학회

한재수(1983), 「전통 건축 공간미의 현대적 표상에 관한 귀납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맥락과 미학(2): 지역성과 특수성, 풍수와 생태건축

고창호(2018), 「제주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동희·원호성(2018), "한옥에서의 PORUS적 특성이 한국현대건축에 나타나는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2), 대한건축학회

김형준(2018), "제주 현대건축의 지역성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3), 한국산학기술학회

권윤구·주신하(2016), "인사동 문화지구의 장소성 해석", 「휴양 및 경관연구」, 10(4),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박상구(2014), 「한국 전통마을의 비보경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영수(2014), 「역사문화자원 현황분석을 통한 도심재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정윤(2014), 「역사지구 내 현대건축물 심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윤구(2013), 「도시 가로 의 장소성 형성 구조와 의미 : 혼합연구방법을 통한 인사동과 대화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승이(2012),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2000년 이후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훈(2011), 「한국 전통 주거에 나타난 환경조절방식의 현대화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민희(2011), 「제주 전통가옥 공간디자인 특성 및 요소의 활용사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충민(2011),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태호(2010), 「고도경주의 역사문화경관 특성과 보존 대책」,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한국전통조경학회

홍사철(2010), 「역사도시 경주를 위한 경관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해경(2009), 「사회적 구성으로 본 서울의 역사문화경관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희정(2008), 「경주 양동마을 '관자정'과 '향단'의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광진(2007),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동오(2007),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화(2006), 「기를 바탕으로 한 주거환경의 현대적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성원(2006), 「제주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기·오희영·박동성·최종희(2005), "한국 역사경관의 보전관리 전략",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 한국전통조경학회

선은수·박철민(2005), "전통민가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생태적 특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첨단기술연구소논문집」, 16(2),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첨단기술연구소

이완건(2005), 「서울의 역사성 표현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선영(2004), 「한국전통가옥에서 나타나는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은실(2004), 「서울 북촌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통한 지역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근영(2003), 「현대 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해자(2002),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풀리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순옥(2001), 「현대 지역주의 건축의 지역성표현 해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연진(2000),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수현(2000), 「현대 제주 주거건축의 정체성 모색」, 「논문집」, 24, 제주한라대학

신정훈(2000),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경희·김자경(2000), “자연성에 근거한 전통주거건축의 생태학적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5,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정재국(1999), “전통건축 - 강릉의 전통건축과 그의 현대적 수용”, 「건축사」, 1999(2), 대한건축사협회

천득염(1998), “전남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계승 : 전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과 원형보존 및 활용방안”, 「호남문화연구」, 2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이한중(1997), 「풍수이론과 전통마을 배치기법에 관한 건축학적 고찰」,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정아(1997), 「현대건축의 지역성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온라인 설문조사지



0% 50% 100%

조사참여가이드



조사 중 뒤로가기 금지

조사 중에 뒤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조사가 중단됩니다.

조사참여하기

지적재산권 보호

조사를 통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당사자 조사 의뢰 회사에 있으며, 조사내용을 제 3자에게 발설하거나 관련 자료나 조사 회반을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 50% 100%

귀하기 알고 계신 한옥건축양식을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과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건축 관계자분들을 통해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추천 받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 본 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9년 10월 16일 ~ 11월 1일
- 연구진 : 손종화 부연구위원, 김동원, 권영환 연구원
- 설문문의 : 044-417-9967, ~9964, ~9678 (yrikwon@auri.re.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어진동, 중앙타운), 7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사 참여 방법 안내 ◀

추천해 주실 만한 한옥건축양식 사례를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지번주소)와 함께 특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는 원업에 개인 건축 관계자 분들에게 한하여 진행됩니다.
- ▶ 최소 5건 이상의 사례를 올려 주셔야 하며, 최대 15건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최소 5건 이상의 사례를 올려 주신 분들은 1만원권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품권은 조사기간 종료 후 사례 접수과정을 마친 후 월급 지급일 예정입니다.)

다음



0% 50% 100%

▶ 본 조사의 취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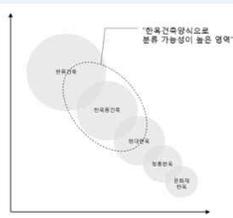
- ▶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이며,
- ▶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정리하자면 "한옥건축양식"은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의 정체성 혹은 전통을 담고 있는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통 한옥보다 재료, 구조, 구법 등에서 보다 유연성을 지향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0% 50% 100%

▶ 아래 그림은 한옥의 다층위적 존재양식 다이어그램에 한옥건축양식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한옥건축 양식의 영역은 한옥용 건축을 중심으로 현대한옥과 원형건축의 일부에 걸쳐있거나, 이 영역에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5가지 한옥유형 분류에서 한옥건축양식의 영역
출처 : 한종원 외(2012), 한옥과 한국주택의 역사, 재가공

- (문화재정책) 50년 이상 경과하여, 유일성, 희귀성으로 한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통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옥
- (정통한옥) 문화재 한옥의 형식을 최대한 계승하여 기둥, 보, 서까래, 지붕 등 외관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전통기법으로 완성했으나, 실내공간, 설비, 부속 현대화한 한옥
- (현대한옥) 기둥, 보,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를 육조로 하고 지붕, 기단, 벽체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는 한옥
- (한옥용 건축) 현대건축의 실내에 한식으로 마감한 경우 또는 외관을 한옥형태로 지은 의사(擬)한옥
- (원형-건축)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한옥상이나 지역성을 표출한 건축물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건축양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건축물의 존재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수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5% 85% 95%

▶ **한국건축양식 사례 예시** ◀

이와 사례 예시는 "한국건축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유형 외에도 보다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한국건축양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한국건축양식 사례를 추천해 주세요.

▼ **한국건축양식 사례 #1. 목구조 한옥의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현대식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5% 85% 95%

▶ **한국건축양식 사례 예시** ◀

이와 사례 예시는 "한국건축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유형 외에도 보다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한국건축양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한국건축양식 사례를 추천해 주세요.

▼ **한국건축양식 사례 #2. 한옥의 외관(전통건축의 형상과 비례감을 취하고 있으나 비목조 구조체인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한국건축양식 사례 #3. 외관, 실내, 공간구조 등 전통요소를 현대건축물에 적용하거나 형태적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난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5% 85% 95%

▶ **한국건축양식 사례 예시** ◀

이와 사례 예시는 "한국건축양식"에 포함될 수 있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나타내고 있는 유형 외에도 보다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한국건축양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한국건축양식 사례를 추천해 주세요.

▼ **한국건축양식 사례 #4. 현대건축 실내에 전통양식을 반영한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한국건축양식 사례 #5. 현대건축물의 불투 및 비례감이 한식미를 일부 전통요소를 적용한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한국건축양식 사례 #6.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전통의 현대건축이 결합한 경우**



▶ **참고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DQ1 귀하의 업무 및 소속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개 선택

1) 업종	<input type="radio"/> 설계업	<input type="radio"/> 시공업
	<input type="radio"/> 교육	<input type="radio"/> 연구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2) 소속(학점이나 소속) (예시: 중앙건축사협회)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DQ2 활동지역 1개 선택

서울경기권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강원도권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DQ3 성별 / 연령 1개 선택

1) 성별	<input type="radio"/> 남성	<input type="radio"/> 여성			
2) 연령	<input type="radio"/> 20대	<input type="radio"/> 30대	<input type="radio"/> 40대	<input type="radio"/> 50대	<input type="radio"/> 60대 이상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출단을 완료하신 분께는 1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제공을 위해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휴대폰)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오류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입한 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외 정보는 상품 제공을 위한 정보만 사용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이용 목적 : 건축건축양식 사례수집을 위한 조사 용달자 연락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수집 이용항목 : 필수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 수집방법 : 온라인(웹페이지 링크)
- 관련권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3개월
 - 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한, 정보일 후에는 공중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운영진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유, 이용되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
- 동의할 거부할 권리 및 동의할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수요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상품이 지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과외 같이 귀하의 개인(성명/성명, 휴대전화번호)을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DQ4 상품권 수령 휴대전화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옥건축양식은 무엇입니까?

A1 귀하께서 한옥건축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축물의 사진을 최소 5건 이상, 최대 15건까지 업로드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사례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진도 통용이 가능합니다)

사진 #1 [찾아보기...]	사진 #2 [찾아보기...]	사진 #3 [찾아보기...]
사진 #4 [찾아보기...]	사진 #5 [찾아보기...]	사진 #6 [찾아보기...]
사진 #7 [찾아보기...]	사진 #8 [찾아보기...]	사진 #9 [찾아보기...]
사진 #10 [찾아보기...]	사진 #11 [찾아보기...]	사진 #12 [찾아보기...]
사진 #13 [찾아보기...]	사진 #14 [찾아보기...]	사진 #15 [찾아보기...]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옥건축양식은 무엇입니까?

A1-1 귀하께서 한옥건축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축물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input type="radio"/> 사진 #1 	<input checked="" type="radio"/> 사진 #2 	<input type="radio"/> 사진 #3
<input type="radio"/> 사진 #4 	<input type="radio"/> 사진 #5 	<input type="radio"/> 사진 #6
<input type="radio"/> 사진 #7 	<input type="radio"/> 사진 #8 	<input type="radio"/> 사진 #9
<input type="radio"/> 사진 #10 	<input type="radio"/> 사진 #11 	<input type="radio"/> 사진 #12
<input type="radio"/> 사진 #13 	<input type="radio"/> 사진 #14 	<input type="radio"/> 사진 #15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1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선정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2 건축물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주소: [주소 자동입력 찾기]
[주소 입력란]
[주소 입력란]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B3 건축물의 주용도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공공 주거 상업 전시
 교육 종교 문화 및 집회 기타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B4 건축물의 "형태 및 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건축물의 형태 및 구성	예시 이미지
<input type="radio"/> 한옥형의 단독구성	 한식지붕, 기둥, 복의 형태(옥구드 외 가능)
<input type="radio"/>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한식지붕, 기둥 보 중 1개 이상 미식별
<input type="radio"/>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과 현대건축이 결합된 구성이며 하나의 건물로 구성될 경우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B4-1 그렇다면, 건축물의 "조합방식"은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개 선택

한옥(하중)+비한옥(상중) 수직조합 비한옥(하중)+한옥(상중) 수직조합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기타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50% 100%



B5 건축물의 "한국 비례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둥보 및 지붕형상 등 요소간 길이, 크기, 형태 등 비례관계)

1개 선택

한옥부	<input type="radio"/> 비례 준수	<input type="radio"/> 비례 미준수
비한옥부	<input type="radio"/> 비례 준수	<input type="radio"/> 비례 미준수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6. 건축물의 "적도"는 무엇일까요?
 ※ 한국(주거용)의 적도가 만들어 내는 인간적 스케일의 볼륨감과 현대건축 구조기술에 의한 대형 볼륨감을 구분)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완속 적도(1칸 2~3m)	<input type="radio"/> 현대건축 적도(대공간 적용)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완속 적도(1칸 2~3m)	<input type="radio"/> 현대건축 적도(대공간 적용)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7. 건축물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목조, 기구 <input type="radio"/> 목조, 경량 <input type="radio"/> 합근콘크리트, 벽 <input type="radio"/> 석조, 조적	<input type="radio"/> 목조, 기구(중용) <input type="radio"/> 합근콘크리트, 리면 <input type="radio"/> 철골조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목조, 기구 <input type="radio"/> 목조, 경량 <input type="radio"/> 합근콘크리트, 벽 <input type="radio"/> 석조, 조적	<input type="radio"/> 목조, 기구(중용) <input type="radio"/> 합근콘크리트, 리면 <input type="radio"/> 철골조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8.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무엇일까요?
 ※ 외벽면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료를 선택)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목재 <input type="radio"/> 합재 <input type="radio"/> 세인트 <input type="radio"/> 외인도	<input type="radio"/> 석재 <input type="radio"/> 유리 <input type="radio"/> 외벽 및 흙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목재 <input type="radio"/> 합재 <input type="radio"/> 세인트 <input type="radio"/> 외인도	<input type="radio"/> 석재 <input type="radio"/> 유리 <input type="radio"/> 외벽 및 흙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text"/>

다음

(au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9. 건축물의 "전통의장 외관 적용법"은 무엇일까요?
 ※ ①재현은 건축의 구조, 형태, 비례 등의 규범을 준수하고자 한 경우,
 ②응용은 복합구성 등 현대적 건축물에 전통요소가 적용된 경우,
 ③추상화는 실내에 전통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 경우)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외관, 재현 <input type="radio"/> 외관, 추상화	<input type="radio"/> 외관, 응용 <input type="radio"/> 외관, 기타 <input type="text"/>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외관, 재현 <input type="radio"/> 외관, 추상화	<input type="radio"/> 외관, 응용 <input type="radio"/> 외관, 기타 <input type="text"/>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10 건축물의 "전통의장 내부 적용법"은 무엇입니까?
 (※ ①개항한 건축의 구조, 형태, 비례 등의 규범을 준수하고자 한 경우,
 ②중요한 복원구상 등 현대적 건축물에 전통요소가 적용된 경우,
 ③추상화는 실내외에 전통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 경우)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외관,거면	<input type="radio"/> 외관,윤곽
	<input type="radio"/> 외관,추상화	<input checked="" type="radio"/> 외관,기타 <input type="text"/>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외관,거면	<input type="radio"/> 외관,윤곽
	<input type="radio"/> 외관,추상화	<input checked="" type="radio"/> 외관,기타 <input type="text"/>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11 건축물에 적용된 "기술"은 무엇입니까?
 (※ 사례 1번과 같이, 시공법, 설비, 재료 등에서 현대기술 반영 여부)

1개 선택

건축부	<input type="radio"/> 전통방식	<input type="radio"/> 현대기술
비건축부	<input type="radio"/> 전통방식	<input type="radio"/> 현대기술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12 건축물의 "부속요소"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모두 선택

건축부	<input type="checkbox"/> 연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	<input type="checkbox"/> 다른
	<input type="checkbox"/> 아담 및 정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 및 누각	<input type="checkbox"/> 문양
	<input type="checkbox"/> 기차	<input type="text"/>	
비건축부	<input type="checkbox"/> 연등	<input type="checkbox"/> 담	<input type="checkbox"/> 다른
	<input type="checkbox"/> 아담 및 정실	<input type="checkbox"/> 담 및 누각	<input type="checkbox"/> 문양
	<input type="checkbox"/> 기차	<input type="text"/>	

다음

(aur_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B13 건축물에서 다음 건축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식별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별명 1개 선택

<응답시 참고사항>

- 전통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많음'으로 해당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을 때에는 '식별 불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앞서 언급하신 '전통의장 적용방법'에서 실내용 선택과 주선 경우에도 동일하게 식별되는 요소를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부만 특정한 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건축을 전체에 있어 전통요소가 점유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평가 해 주십시오.

전통요소 식별 정도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보통	다소 있음	매우 많음	식별 불가
1) 기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공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합식지붕형식 ※ 서까래를 제외하고 합식지붕의 형상만을 두고 평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지붕_서까래 ※ 추녀 포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지붕_기왓장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지붕_마루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기단 ※ 현대건축물을 전통부에 주어 기단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해당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외벽_인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외벽_기마 (문간 분절요소) ※ 지붕부 제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외벽_팔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외벽_문양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실내의 바닥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다음

5) SOM 분석 결과 데이터

Cluster Description	C 1	C 2	C 3	C 4	C 5	C 6
Abs. Profile Median	0.5137	0.5524	0.6484	0.5814	0.613	0.7945
Frequency	25.81%	18.82%	12.37%	17.20%	10.79%	15.09%
1) 형태: 한옥형태 단독구성	1	0	0.391	1	1	0.071
2) 조합방식: 한옥형태 단독구성	1	0	0.391	1	1	0.071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비례준수	1	0.2	0	1	1	0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비례 미준수	0	0.8	1	0	0	1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재현	1	0.171	0	0.969	0.9	0
4)-1척도 복합구성: 한옥 척도(1칸 2~3m)	1	0.257	0.087	1	0.65	0
4)-1척도 복합구성: 현대건축 척도(대공간 적용)	0	0.743	0.913	0	0.35	1
4) 척도: 한옥 척도(1칸 2~3m)	1	0.971	0.087	1	0.65	0
4) 척도: 현대건축 척도(대공간 적용)	0	0.029	0.913	0	0.35	1
3) 한옥비례: 비례준수	1	1	0	1	1	0
3) 한옥비례: 비례 미준수	0	0	1	0	0	1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재현	1	1	0	0.969	0.9	0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응용	0	0	1	0.031	0.05	0.071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응용	0	0.571	1	0.031	0.05	0.071
2) 조합방식: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0	0.629	0.13	0	0	0
1) 형태: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0	0.943	0.13	0	0	0
2) 조합방식: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0	0.286	0	0	0	0
9) 기술: 현대기술	1	0.543	1	0	1	1
9) 기술: 전통방식	0	0.457	0	1	0	0
9)-1 기술 복합구성: 현대기술	1	1	1	0	1	1
9)-1 기술 복합구성: 전통방식	0	0	0	1	0	0
5)-1 구조 복합구성: 목조_가구	0.875	0	0.13	0.906	0	0.214
5) 구조: 목조_가구	0.875	0.8	0.13	0.906	0	0.214
5) 구조: 철근콘크리트_라멘	0.021	0.057	0.391	0	0.8	0.429
5)-1 구조 복합구성: 철근콘크리트_라멘	0.021	0.4	0.391	0	0.8	0.429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세멘트	0	0.2	0.261	0	0.25	0.071
6) 외벽 주요 마감재: 세멘트	0	0.029	0.261	0	0.25	0.071
6) 외벽 주요 마감재: 목재	0.458	0.714	0.087	0.594	0	0.25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목재	0.458	0.086	0.087	0.594	0	0.25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석재	0.146	0.543	0.435	0	0.05	0.607
6) 외벽 주요 마감재: 석재	0.146	0.086	0.435	0	0.05	0.607
1) 형태: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0	0.057	0.478	0	0	0.929
2) 조합방식: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0	0.057	0.478	0	0	0.929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추상	0	0	0	0	0	0.857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추상	0	0.114	0	0	0	0.857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추상	0.104	0.143	0	0	0	0.929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추상	0.104	0	0	0	0	0.929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응용	0.292	0.514	0.609	0.188	0.25	0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응용	0.292	0.171	0.609	0.188	0.25	0

Cluster Description	C 1	C 2	C 3	C 4	C 5	C 6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재현	0.396	0.686	0	0.719	0.65	0.036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재현	0.396	0.029	0	0.719	0.65	0.036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기타	0.208	0.314	0.391	0.094	0.1	0.036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기타	0.208	0.143	0.391	0.094	0.1	0.036
5)-1 구조 복합구성: 철골조	0.021	0.086	0.174	0	0.05	0
5) 구조: 철골조	0.021	0.086	0.174	0	0.05	0
6) 외벽 주요 마감재: 철재	0	0	0	0	0.05	0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철재	0	0	0	0	0.05	0
6) 외벽 주요 마감재: 회벽 및 흙	0.229	0.086	0.043	0.313	0.05	0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회벽 및 흙	0.229	0	0.043	0.313	0.05	0
5)-1 구조 복합구성: 철근콘크리트_벽	0	0.286	0.304	0	0.05	0.25
5) 구조: 철근콘크리트_벽	0	0.057	0.304	0	0.05	0.25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기타	0	0	0	0	0.05	0.071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기타	0	0.143	0	0	0.05	0.071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기타	0.021	0.029	0	0.063	0.1	0.036
6) 외벽 주요 마감재: 기타	0.021	0.029	0	0.063	0.1	0.036
5) 구조: 기타	0	0	0	0	0.1	0
5)-1 구조 복합구성: 기타	0	0	0	0	0.1	0
6) 외벽 주요 마감재: 유리	0.125	0.057	0.13	0.031	0.05	0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유리	0.125	0.114	0.13	0.031	0.05	0
6) 외벽 주요 마감재: 페인트	0.021	0	0.043	0	0.45	0.036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페인트	0.021	0.029	0.043	0	0.45	0.036
5)-1 구조 복합구성: 석조_조적	0.021	0.2	0	0.063	0	0.071
5) 구조: 석조_조적	0.021	0	0	0.063	0	0.071
5) 구조: 목조_귀틀(적층)	0	0	0	0.031	0	0
5)-1 구조 복합구성: 목조_귀틀(적층)	0	0	0	0.031	0	0
5)-1 구조 복합구성: 목조_경량	0.063	0.029	0	0	0	0.036
5) 구조: 목조_경량	0.063	0	0	0	0	0.036
2) 조합방식: 한옥(하층)+비한옥(상층) 수직조합	0	0.029	0	0	0	0

6) 한옥건축양식 사례 DB

대장정보 연계 부분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1	청와대 영빈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	-	-	-	-	-	-	-	-
2	삼청동K	서울 종로구 삼청동	2008	민간	661.9	361.83	-	-	-	-	-
3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	-	-	-	-	-	-	-	-	-	-
4	명지원명가	광주 서구 치평동 1227-2	2007	민간	992	673.13	2875.09	근린생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5	서울 진각종 전승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	2017	민간	14783	1625.05	6798.43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6	1	철근콘크리트구조
6	중원대학교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	2009	민간	323312	26442.41	149299.21	대학교	10	2	철근콘크리트구조
7	스타벅스 소공동	서울 중구 소공동 87-10	1982	민간	-	-	-	근린생활시설	1	-	철근콘크리트구조
8	스타벅스 문경새재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88-33	2006	민간	311	184.85	334.65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9	스타벅스 대릉원	경북 경주시 황남동 140-2	1985	민간	1029	506.74	1013.48	근린생활시설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10	스타벅스 경주터미널	경북 경주시 사정동 488-7	2016	민간	874	259.93	362.415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1	맥도날드 경주	경북 경주시 노동동 102-6	1971	민간	406	409.57	2242.04	근린생활시설	5	1	철근콘크리트구조
12	할리스 보불로	경북 경주시 하동 319-3	2013	민간	921	141.48	141.48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13	캐틀앤비 황남관	경북 경주시 황남동 328-6	2018	민간	-	113.05	198.12	근린생활시설	2	0	일반목구조
14	엔제리너스 경주점	경북 경주시용강동 425	2008	민간	1599	199.2	199.2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철골구조
15	드롭탑 황남점	경북 경주시 황남동 184-3	1996	민간	909	327.32	679.62	근린생활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16	투썸 침성대점	경북 경주시 인왕동 739-1	-	-	-	-	-	-	-	-	-
17	투썸 보문점	경북 경주시 천군동 391-1	2016	민간	1190	236.16	448.92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8	할리스 늘봄농원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7-2	1986	민간	-	88.56	88.56	주택	1	0	세멘벽돌조
19	투썸 은평한옥	서울 은평구 진관동 9993-104	2017	민간	188.8	94.01	307.55	근린생활시설	2	1	일반목구조
20	씨유 은평한옥	서울 은평구 진관동 205-9	2017	민간	189.5	93.69	296.49	근린생활시설	2	1	일반목구조
21	카페베네 울산	울산 중구 성안동 825-3	2011	민간	691.6	199.84	199.84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22	할리스 송도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17	2014	민간	12564.8	2020.37	4468.85	근린생활시설	2	1	일반철골구조, 일반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23	오가타 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5-11	1995	민간	291.2	172.06	610.01	근린생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조적조
24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서울 종로구 숭인동 750	1965	공공	-	-	107.87	주택	1	0	일반목구조
25	글마루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5-24	2010	공공	880	341.46	441.09	교육연구시설	2	0	한식목구조
26	청운문학도서관	서울 종로구 청운동 4-20	2014	공공	1238.5	157.87	744.82	공공도서관, 휴게음식점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27	북촌문화센터	서울 종로구 계동 105	-	공공	697.5	237.32	237.32	-	1	0	일반목구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28	코모도호텔	경북 경주시 신평동 410-2	1979	민간	30366	6045.48	23956.72	숙박시설	10	2	철근콘크리트구조
29	장석교회	서울 노원구 월계동 873-1	1995	민간	7001	1367.79	17329.39	문화및집회시설	4	4	철근콘크리트구조, 라멘조
30	상흥리공소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 159-2	1919	민간	-	168.75	168.75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31	대한성공회 온수리성당	인천 강화군 김상면 온수리 505-3	1910	공공	6391	588.03	588.05	종교시설	1	0	일반목구조
32	진천성당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42	1989	민간	9382	1918.95	2388.61	종교시설	2	0	연와조
33	성공회 마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46-23	1979	민간	-	-	398.32	교회	3	1	세멘벽돌조, 철근콘크리트구조
34	전남축산위생 사업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군자리 198-10	2010	공공	14694	2595.08	3774.23	연구소	2	1	일반목구조
35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	-	-	-	-	-	-	-	-	-
36	장성공공도서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1-5	2012	공공	4798	1690.7	3501.04	공공도서관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37	윤봉길기념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6	1988	공공	-	829.77	2627.05	전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38	강남출판문화센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1990	민간	-	637.3	6525.79	근린생활시설	6	3	철근콘크리트구조
39	제주도립탐라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812-1	1989	공공	15897.2	2570.25	4998.22	공공도서관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40	혜화동 주민센터(한옥청사)	서울 종로구 혜화동 74-30	-	공공	808	217.97	232.46	근린생활시설	1	1	일반목구조
41	두기현	서울 종로구 사간동 80	1979	민간	34	18.51	37.02	근린생활시설	2	-	벽돌구조
42	원서동 공중음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 34	-	민간	-	-	181.2	근린생활시설	2	-	일반목구조
43	라궁	경북 경주시 신평동 719-70	2007	민간	-	1529.81	1842.27	관광휴게시설	2	1	일반목구조
44	목경현	서울 은평구 진관동 202	2015	민간	280.3	89.1	178.98	주택	2	1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5	나비잠호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7-1	2015	민간	414.7	192.24	382.86	근린생활시설	2	-	내화집성목
46	남향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갈리 753	2014	민간	6241	620.2	768.93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47	충무현 다목적센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612	2014	공공	1753	172.72	172.72	근린생활시설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48	정읍 한옥(정읍 사랑방)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304-1	2015	민간	1171	206.64	323.2	근린생활시설	2	0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9	관훈재	서울 종로구 관훈동 32	2011	민간	109	63.21	187.91	근린생활시설	2	1	일반목구조
50	무무현	서울 종로구 가회동 31-32	-	민간	-	-	69.42	주택	1	0	일반목구조
51	자선당	경기 광주시 중대동 210-19	2012	민간	1213	223.15	223.15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한식목구조
52	동인재	-	-	-	-	-	-	-	-	-	-
53	열주택	서울 종로구 가회동 35-1	2009	민간	152.64	64.76	133.56	단독주택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54	소인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 45-1	2010	민간	136.8	62.86	149.06	단독주택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55	아틀리에 R(항기든자리)	대구 중구 계산동1가 27	-	민간	-	98.65	98.65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56	학교재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241-19	-	민간	-	-	172.2	주택	1	0	일반목구조
57	남산동 한옥(아라카키레우동)	경북 경주시 남산동 108-3	2013	민간	627	51.03	51.03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58	은평한옥마을 시범한옥(셋이서문화관)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5-29	2015	공공	361.68	71.1	142.2	문화및집회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59	경상북도관광홍보관	경북 경주시 신평동 375-6	1998	공공	2465	314.34	614.69	근린공공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60	고회재	경기도 여주 강천면 적금리	-	-	-	-	-	-	-	-	-
61	덕성여대 덕우당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1999	민간	-	402.76	243.74	교육연구시설	2	0	일반목구조
62	루치아의들	충남 공주시 중동 171-2	1982	민간	-	35.44	35.44	휴게음식점	1	0	일반목구조
63	불국사역버스정류장	-	-	-	-	-	-	-	-	-	-
64	이육사문학관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900	2017	공공	8027	-	90.72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65	전주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35-10	1981	공공	-	-	1721	역사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66	착한낙지경주점	경북 경주시 황오동 76-3	1991	민간	603	288.08	421.16	대중음식점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세멘벽돌조, 세멘브록
67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아토피힐링센터)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144	2013	공공	3151	41.31	41.31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68	태화루	울산 중구 태화동 91-2	2014	공공	10138	881.35	731.01	문화및집회시설	2	0	한식목구조
69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574	2000	공공	8063.2	207.9	207.9	전수관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70	전통문화마을 (조령민속공예촌)	충북 괴산군 영동면 원풍리 422-2	1999	공공	8121	930.99	839.89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경량철골구조
71	영암 영산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292	2011	공공	18345	1925.3	2692.24	기타일반숙박시설	2	0	일반목구조, 한식목구조
72	정창원	-	-	-	-	-	-	-	-	-	-
73	창평면사무소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82-2	1990	공공	5351	735.78	735.78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74	금산주택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136-23	2011	민간	867	75.6	75.6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75	아산주택	-	-	-	-	-	-	-	-	-	-
76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1997	공공	8727	770.5	6439.36	공공업무시설	6	1	철근콘크리트구조
77	은평 근린생활시설	서울 은평구 진관동 219	2016	민간	330	175.05	723.52	근린생활시설	5	1	철근콘크리트구조
78	관훈동 미현(모란나비)	서울 종로구 관훈동 75	2009	민간	99.2	59.48	113.18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79	DBEW 디자인센터	서울 종로구 원서동 9-9	-	민간	-	-	70.08	기숙사	1	0	일반목구조
80	함양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25	2013	민간	223.9	111.12	168.3	단독주택	2	0	일반목구조
81	MANSION5	대구 중구 종로2가 5	1982	민간	309.7	102.47	102.47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82	임재양외과	대구 중구 삼덕동3가 331	2012	민간	-	185.03	185.03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83	전주한옥마을기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98-13	2019	민간	-	31.8	59.7	근린생활시설	2	0	일반목구조
84	초코루체	충남 공주시 중동 171-1	-	민간	168.6	64.94	65.94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85	호원재(남만한옥)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139-4	2017	민간	126	75.33	111.49	사무소	2	0	일반목구조
86	어련당	울산 중구 동동 385	2014	공공	627	268.58	440.49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87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본소(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삼열리 1-1	2011	공공	487088	14703.43	14999.2	교육연구시설	2	0	일반철골구조
88	관광정보센터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5	2009	공공	1583	126.28	225.99	문화및집회시설	2	0	일반목구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남악마루(전남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89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쌀박물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07	2012	공공	-	795.24	1728.36	문화및집회시설	2	1	일반철골구조
90	홍천어린이집(성북구 느티나무어린이집)	서울 성북구 돈암동 595	2015	공공	-	320.94	591.86	노유자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목구조
91	국립중앙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	1992	공공	-	11344.18	19797.81	전시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92	청와대 본관	-	-	-	-	-	-	-	-	-	-
93	청와대 춘추관	-	-	-	-	-	-	-	-	-	-
94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1	1978	공공	-	12307.98	8779.36	근린생활시설	4	1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95	휘닉스프링스 컨트리클럽 한옥연회장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6	2009	민간	-	771.52	1868.37	근린생활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96	불국사역	경북 경주시 구정동 459-2	-	공공	-	187.72	187.72	운수시설	1	0	일반목구조
97	전라남도 공관 여진누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22	2006	공공	1357.1	296.92	444.7	단독주택	1	1	일반목구조
98	영암 도기 박물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354	2008	공공	-	1763.57	3239.5	문화및집회시설	3	0	철근콘크리트구조
99	진관사 템플스테이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	1969	민간	-	-	371.06	문화및집회시설	1	0	일반목구조
100	UN기념공원 정문	-	-	-	-	-	-	-	-	-	-
101	국립묘지 현충문	서울 동작구 동작동 224-11	2010	공공	1404032	375.15	375.15	묘지관리시설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102	통일전	경북 경주시 남산동 941	1978	공공	-	164.61	164.61	휴게소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103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북구 매곡동 430	1981	공공	-	2518.3	7525.03	박물관	4	2	철근콘크리트구조, 세벽
104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	-	-	-	-	-	-	-	-	-
105	천리포 수목원(민병갈기념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875	1998	민간	1420	265.58	399.21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06	천리포수목원 플랜트센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976-8	2017	민간	2823	455.44	673.83	근린생활시설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107	국립진주박물관	경남 진주시 남성동 169-17	1984	공공	17772	3514.81	7587.94	문화및집회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108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631-2	2017	공공	30000	6066.61	12233.98	문화및집회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109	삼국유사기온누리	-	-	-	-	-	-	-	-	-	-
110	전남도립도서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48	2011	공공	27583.2	2206.265	12078.56	교육연구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111	토산리주택(일라빌레클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493-2	2016	민간	774	146.38	191.25	단독주택	2	1	일반목구조
112	한국근대문학관	인천 중구 해안동2가 6-2	2013	민간	1037.33	771.9	1601.94	교육연구시설	3	1	일반철골구조
113	주한프랑스대사관	서울 서대문구 합동 30	1978	-	9289.3	1874.44	4109.49	외국공관	-	-	-
114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1975	공공	69051	2944.75	5989.5	고고관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115	충남역사박물관	충남 공주시 중동 284-1	1973	공공	-	864.92	1648.54	전시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116	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	1978	공공	-	12001	55364.115	문화및집회시설	6	3	일반철골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17	국립국악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50-124	1996	공공	41338	8337.4	36622.65	관람및집회시설	4	3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1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제주시 일도리동 996-1	1984	공공	-	4256.07	6685.58	문화및집회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119	국립청주박물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	1987	공공	63463	6555.85	10704.6	문화및집회시설	1	1	라멘조, 경량철골구조
120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34-1	2000	공공	-	11104.89	43869.31	근린생활시설	5	2	철근콘크리트구조
121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1999	공공	-	392.4	392.4	관람및집회시설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122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1978	공공	-	12307.98	8779.36	근린생활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123	금산주택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387	-	-	-	-	-	-	-	-	-
124	국수리주택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이문리고갯길 9-17	-	-	-	-	-	-	-	-	-
125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로)	1978	공공	55758.8	13170.88	64094.71	문화및집회시설	6	3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26	장면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5길 53 (명륜1가)	1955	공공	-	-	165.29	주택	1	1	일반목구조
127	아넌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24-34 (신평동)	1978	민간	-	1368	1587.6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28	사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77번길 55 (사송동)	1919	민간	343	65.64	65.64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징크철판
129	살라맹방콕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다길 40 (익선동)	-	민간	132.2	-	93.26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연외조
130	-	전라남도 순천시 금옥길 6 (육천동)	1935	민간	-	23.14	23.14	주택	1	0	일반목구조
131	권진규아트리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마길 2-15 (동선동3가)	-	-	-	-	-	-	-	-	-
132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상현동)	1994	민간	-	112.26	112.26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133	한옥어린이집(행궁야해꿈누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23번길 32 (신평동)	2016	공공	646	355.66	584.3	노유자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134	성주예산리만산댁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30-2	1937	민간	-	287.78	346.1	주택	2	0	일반목구조
135	성주 예산리 배리댁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22	1915	민간	-	172.5	231.36	주택	2	0	일반목구조
136	관청리근대한옥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1길 5	1925	민간	1713	153.3	153.3	주택	1	0	일반목구조
137	롯데부여리조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00	2010	민간	31710.1	12413.34	57497.84	숙박시설	10	1	철근콘크리트구조
138	대연동 800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93 (대연동)	2001	공공	14796.39	190.23	46.889	근린생활시설	1	0	철근콘크리트구조
139	통의동 35-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7 (통의동)	2013	민간	613.5	366.39	1189.8	근린생활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140	가회 한경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70 (가회동)	2013	민간	77.3	46.36	125.44	문화및집회시설	2	1	일반목구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141	3	경상남도 함천군 가회면 목곡1길 41-6	-	-	-	-	-	-	-	-	-
142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55 (삼청동)	-	-	-	-	-	-	-	-	-
143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화동)	-	공공	-	-	12132.07	교육연구및복지 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연와조
144	북촌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7 (계동)	-	공공	697.5	237.32	237.32	-	1	0	일반목구조
145	백인제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7길 16 (가회동)	-	공공	2459.5	459.17	481.44	주택	2	0	일반목구조
146	낙락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7-12 (진관동)	-	-	-	-	-	-	-	-	-
147	원서동 2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3 (원서동)	-	민간	460.1	258.78	1061.14	전시시설	4	2	철근콘크리트구조
148	천현동 588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545번길 180 (천현동)	-	-	-	-	-	-	-	-	-
149	서울한방진흥센터(제기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지중앙로 26 (제기동)	2017	공공	2789.5	1651.36	9703.27	근린생활시설	3	3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150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266 (성동동)	-	민간	-	1006.64	876.56	운수시설	1	0	조적조
151	경북도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015	공공	245000	14251.6	93390.77	업무시설	7	2	철근콘크리트구조
152	화천한옥학교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모현동로 182-35	2008	공공	7213	1519.15	1768.2	기숙사	1	0	일반목구조
153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9번길 74 (송학동1가)	-	공공	-	352.36	368.46	주택, 공판경비실, 창고	1	1	연와조, 일반목구조, 시멘트벽돌조
154	중가우리 267-1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동약골길 105-31	2017	민간	1590	203.56	158.4	단독주택	1	0	일반철골구조
155	만화당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한옥마을1길 28-6	2017	민간	408	126.34	126.34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156	가구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성북동)	2005	민간	1800	511.18	846.33	문화및집회시설	1	1	철근콘크리트구조
157	서울 은평구 진관동 9993-20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상봉길 77 (진관동)	-	-	-	-	-	-	-	-	-
158	하선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94-7 (가회동)	-	-	-	-	-	-	-	-	-
159	계동 146-1 카페 어니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5 (계동)	1965	민간	-	-	1912.08	근린생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60	내소사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2003	민간	933	231.75	455.12	문화및집회시설	1	1	일반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61	개평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0-13	1925	민간	-	195.03	195.03	주택, 창고, 문방	1	0	일반목구조
162	군자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육십령로 2582	1997	민간	-	56	56	제실	1	0	일반목구조
163	관저동1893-17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82 (관저동)	2016	민간	339.5	104.59	178.48	단독주택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64	미사리 한채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 38 (미사동)	2015	민간	972	199.48	336.6	근린생활시설	2	0	일반철골구조, 일반목구조
165	한국미술관 미술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89 (가회동)	1968	공공	1233.1	-	1173.28	다가구주택, 문화및집회시설	3	0	철근콘크리트구조

번호	사례	주소	건축연도	소유주 (민간, 공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용도	지상층수	지하층수	주구조
166	새남터성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80-8 (이촌동)	1987	민간	3629.85	1297.8	4691.38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및복지 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67	화계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수유동)	2017	민간	6035	582.45	1861.28	사찰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68	진남휴게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 1356	1993	민간	5395	1429.88	4017.32	관광휴게시설	3	1	일반목구조
169	계동 144-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7 (계동)	1985	민간	-	-	487.49	근린생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70	재동 106-4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 (재동)	1986	민간	-	-	898.08	근린생활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71	스위스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77 (송월동)	2018	공공	2377.3	968.3	2895.94	외국공관	3	0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172	재동 57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	1978	민간	1993.92	1002.87	4920.54	업무시설	4	2	철근콘크리트구조
17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3	-	.	.	-
174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3-4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14-8 (성동동)	1979	민간	195	56.52	56.52	근린생활시설	1	0	일반목구조
175	예천군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2019	공공	-	4105.71	16018.95	업무시설	5	1	철근콘크리트구조
176	롯데아울렛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7	2015	민간	-	13973.13	26539.59	판매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177	절두산 천주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6 (합정동)	1967	민간	-	936.21	1691.03	종교시설	1	2	철근콘크리트구조, 연외조
178	고려군 한옥호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울림픽로 1169	2016	민간	9797	1996.77	2387.9	전시시설	1~3	0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179	한옥호텔 더 신라	경상북도 경주시 소티남길 19-25 (율동)	2018	민간	563	111.9	150.54	단독주택	2	0	일반목구조
180	황룡원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0 (신평동)	2015	민간	-	2722.46	9772.03	교육연구시설	4	1	철근콘크리트구조
181	한옥호텔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38 (황남동)	2013	민간	1460	176.58	176.58	단독주택	1	0	일반목구조
182	전주 도립국악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400 (덕진동2가)	1985	공공	-	666	2171.8	교육연구시설	3	1	철근콘크리트구조
183	은평한옥마을 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2 (진관동)	2016	공공	273.9	110.36	249.16	마을회관	2	1	복합구조
184	경원재 엠베세더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송도동)	2015	민간	28005.9	3204.33	6702.22	숙박시설	1~2	0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목구조
185	커피스미스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68 (신평동)	2004	민간	1041	192.96	385.92	근린생활시설	2	0	철근콘크리트구조
186	경북관광홍보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24-9 (신평동)	1998	공공	2465	314.34	614.69	근린공공시설	2	1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특성 기입 부분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1	청와대 영빈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2	삼청동K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응용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3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페인트	-	기타	-	추상	-	현대기술	-
4	명지원명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라멘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	서울 진각종 전승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6	중원대학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세멘트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7	스타벅스 소공동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응용	-	추상	-	현대기술	-
8	스타벅스 문경새재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 미준수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골조	철골조	유리	유리	응용	응용	기타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9	스타벅스 대릉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세멘트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10	스타벅스 경주터미널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 미준수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철근콘크리트_라멘	세멘트	세멘트	응용	응용	기타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11	맥도날드 경주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세멘트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2	할리스 보불로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3	캐틀앤비 황남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4	엔제리너스 경주점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골조	-	유리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15	드롭아웃 황남점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골조	철골조	유리	유리	재현	응용	기타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16	투썸 청성대점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골조	-	유리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17	투썸 모문점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철골조	-	유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8	할리스 늘봄농원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9	투썸 은평한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20	씨유 은평한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21	카페베네 울산	한옥형태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단독구성				(1칸 2~3m)											
22	할리스 송도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23	오가다 전주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24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골조	·	석재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25	글마루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26	청운문학도서관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석재	재현	응용	기타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27	북촌문화센터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기타	·	전통방식	·
28	코모도호텔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세멘트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29	장석교회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벽	철근콘크리트_벽	세멘트	세멘트	재현	응용	기타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30	상홍리공소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응용	·	기타	·	현대기술	·
31	대한성공회 온수리성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32	진천성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석조_조적	·	기타	·	재현	·	기타	·	전통방식	·
33	성공회 마산교회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석조_조적	·	기타	·	재현	·	기타	·	전통방식	·
34	전남축산위생 사업소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회벽 및 흙	석재	재현	재현	응용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35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36	장성공공도서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37	윤봉길기념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38	강남출판문화센터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기타	·	재현	·	현대기술	·
39	제주시립탈라도서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40	해화동 주민센터(한옥청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41	두가현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42	원서동 궁중음식연구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석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43	라궁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44	목경현	한옥형태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단독구성				(1칸 2~3m)											
45	나비잡호텔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46	남향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47	충무현 다목적센터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48	정음 한옥(정음 사랑방)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49	관훈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0	무무헌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석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1	자선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2	동인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석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3	엘주택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추상	.	현대기술	.
54	소안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5	아틀리에 R(항기든자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56	학교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석재	.	재현	.	추상	.	현대기술	.
57	남산동 한옥(아라카기래우동)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경량	.	회벽 및 흙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58	은평한옥마을 시범한옥(셋이서문학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59	경상북도관광홍보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60	교회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경량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61	덕성여대 덕우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62	루치아의뜰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63	불국사역버스정류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골조	.	철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64	이육사문학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경량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65	전주역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66	착한낙지경주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석조_조적	.	석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67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아토피힐링센터)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68	태화루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69	동면제 판소리 전수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라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70	전통문화마을 (조령민속공예촌)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71	영암 영산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72	정창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거름(적층)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73	창평면사무소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74	금산주택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75	아산주택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회벽 및 흙 석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추상	현대기술	현대기술
76	전주시청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석재	재현	추상	재현	추상	전통방식	현대기술
77	은평 근린생활시설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추상	현대기술	현대기술
78	관훈동 마헌(모란나비)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79	DBEW 디자인센터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골조	목재	유리	재현	응용	재현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80	함양재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기타	재현	기타	재현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81	MANSION5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목재	재현	기타	재현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82	임재양외과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하층)+비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세멘트	재현	기타	응용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83	전주한옥마을기와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페인트	재현	응용	재현	추상	전통방식	현대기술
84	초코루체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목조_경랑	목재	목재	재현	재현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85	호원재(낭만한옥)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86	어련당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석재	재현	재현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87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한옥+비한옥	비한옥(하층)+한	비례준수	비례준수	한옥 척도	한옥	목조_가구	철근콘크	목재	석재	재현	재현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본소(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복합구성	옥(상층) 수직조합			(1칸 2~3m)	척도(1칸 2~3m)		리트_라멘								
88	관광정보센터 : 남악마루(전남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목재		재현		재현		전통방식	
89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쌀박물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목재		재현		재현		현대기술	
90	흥천어린이집(성북구 느티나무어린이집)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1칸 2~3m)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세멘트	재현	응용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91	국립중앙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석재	재현	추상	재현	기타	현대기술	현대기술
92	청와대 본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세멘트		재현		응용		현대기술	
93	청와대 춘추관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철근콘크리트_라멘	석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94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석재		재현		재현		현대기술	
95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 한옥연회장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목재		재현		재현		현대기술	
96	불국사역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벽		세멘트		응용		응용		현대기술	
97	전라남도 공관 어진누리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목조_가구		목재		재현		재현		현대기술	
98	영암 도기 박물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벽		석재		응용		기타		현대기술	
99	진관사 템플스테이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세멘트	재현	응용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100	UN기념공원 정문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석재		추상		추상		현대기술	
101	국립묘지 현충문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세멘트		재현		재현		현대기술	
102	통일전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철근콘크리트_라멘		세멘트		재현		재현		현대기술	
103	국립광주박물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비례준수		한옥 척도(1칸 2~3m)		철근콘크리트_라멘		페인트		재현		응용		현대기술	
104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목재		추상		추상		현대기술	
105	천리포 수목원(민병길기념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목재		추상		추상		현대기술	
106	천리포수목원 플랜트센터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목재		추상		추상		현대기술	
107	국립진주박물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석재		추상		추상		현대기술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처도	4)-1 처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108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목조_가구	-	목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09	삼국유사가온누리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석조_조적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0	전남도립도서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기타	-	현대기술	-
111	토산리주택(빌라빌레콜라)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목조_경량	-	목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2	한국근대문화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석조_조적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3	주한프랑스대사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세멘트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4	국립경주박물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5	충남역사박물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6	세종문화회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7	국립국악원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19	국립청주박물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20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21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22	독립기념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기타	-	기타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123	금산주택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한옥 처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124	국수리주택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목조_가구	-	목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25	세종문화회관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처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26	장면가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처도(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27	아덴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처도(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벽	-	페인트	-	재현	-	기타	-	현대기술	-
128	사송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처도(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추상	-	현대기술	-
129	살라맹방곡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처도(1칸 2~3m)	-	기타	-	유리	-	응용	-	재현	-	현대기술	-
130	-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준수	한옥 처도(1칸 2~3m)	한옥 처도(1칸 2~3m)	목조_가구	석조_조적	목재	석재	재현	응용	기타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131	권진규아틀리에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한옥 척도(1간 2~3m)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회벽 및 흙	세멘트	재현	기타	재현	기타	전통방식	현대기술
132	심곡서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33	한옥어린이집(행궁아해꿈누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전통방식	.
134	성주예산리만산택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전통방식	.
135	성주 예산리 배리택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응용	.	전통방식	.
136	관청리근대한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응용	.	응용	.	전통방식	.
137	롯데부여리조트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유리	재현	추상	재현	추상	전통방식	현대기술
138	대연동 800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라멘	.	세멘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39	통의동 35-32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한옥+비한옥 수평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목재	재현	추상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140	가회 한경헌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41	3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42	32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43	3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44	북촌한옥마을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석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45	백인제가옥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46	낙락헌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세멘트	재현	기타	응용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147	원서동 219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추상	.	현대기술	.
148	천현동 588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세멘트	재현	응용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149	서울한방진흥센터(제기동)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골조	철근콘크리트_라멘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150	경주역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기타	.	응용	.	추상	.	현대기술	.
151	경북도청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라멘	철근콘크리트_라멘	기타	석재	재현	응용	응용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적용)										
152	화천한옥학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응용	.	전통방식	.
153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154	중가구리 267-1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철골조	.	기타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155	만화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응용	.	전통방식	.
156	가구박물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57	서울 은평구 진관동 9993-203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페인트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158	하선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59	계동 146-1 카페 어니언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유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60	내소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61	개평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62	군자정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63	관저동1893-17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기타	.	기타	.	응용	.	현대기술	.
164	미사리 한채당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간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165	한국미술관 미술연구원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세멘트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66	새남터성당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67	화계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68	진남휴게소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재현	.	응용	.	현대기술	.
169	계동 144-1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170	재동 106-4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171	스위스 대사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목조_가구	.	목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72	재동 57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벽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17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74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3-4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간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번호	사례	1) 형태	2) 조합방식	3) 한옥비례	3)-1 한옥비례 복합구성	4) 척도	4)-1 척도 복합구성	5) 구조	5)-1 구조 복합구성	6) 외벽 주요 마감재	6)-1 외벽 주요 마감재 복합구성	7)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7)-1 전통의장 외관 적용방법 복합구성	8)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8)-1 전통의장 내부 적용방법 복합구성	9) 기술	9)-1 기술 복합구성
175	예천군청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석재	·	응용	·	응용	·	현대기술	·
176	롯데아울렛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77	절두산 천주교회	비한옥 형태 단독구성	·	비례 미준수	·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	철근콘크리트_리멘	·	석재	·	추상	·	추상	·	현대기술	·
178	고려궁 한옥호텔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79	한옥호텔 더 신라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회벽 및 흙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80	황룡원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석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응용	전통방식	현대기술
181	한옥호텔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전통방식	·
182	전주 도립국악원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석재	·	재현	·	추상	·	현대기술	·
183	은평한옥마을 회관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준수	비례 미준수	한옥 척도 (1칸 2~3m)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목조_가구	철근콘크리트_벽	목재	석재	재현	응용	재현	재현	현대기술	현대기술
184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목조_가구	·	목재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185	커피스미스	한옥+비한옥 복합구성	비한옥(하층)+한옥(상층) 수직조합	비례 미준수	비례 미준수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현대건축 척도(대경간 적용)	철근콘크리트_벽	철근콘크리트_벽	세멘트	세멘트	응용	응용	응용	응용	현대기술	현대기술
186	경북관광홍보관	한옥형태 단독구성	·	비례준수	·	한옥 척도 (1칸 2~3m)	·	철근콘크리트_리멘	·	페인트	·	재현	·	재현	·	현대기술	·

전통요소 식별 부분

번호	사례	1) 기둥	2) 보	3) 한식지붕_형상	4) 지붕_서까래	5) 지붕_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_분절요소)	10) 외벽_창호	11) 외벽_문양	12) 실내외_바닥재
1	청와대 영빈관	5	3	3	2	3	2	2	0	0	0	1	1
2	삼청동K	2	4	4	4	3	4	1	2	0	3	2	1
3	스웨덴 스톡홀름 동아시아박물관 한국실	0	5	0	0	0	0	0	0	0	0	0	0
4	명지원명가	5	5	3	5	4	3	2	5	4	2	0	4
5	서울 진각종 전승원	3	2	4	3	4	3	2	1	4	1	0	0
6	중원대학교	4	2	4	3	3	4	2	0	0	0	0	0
7	스타벅스 소공동	1	1	3	4	5	4	1	0	0	0	1	1
8	스타벅스 문경새재	3	3	5	5	5	5	1	0	2	0	2	1

번호	사례	1) 기둥	2) 보	3) 한식지붕 형상	4) 지붕_ 서까래	5) 지붕_ 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 분절요소)	10) 외벽_ 창호	11) 외벽_ 문양	12) 실내외 바닥재
9	스타벅스 대릉원	3	3	5	5	5	5	1	1	0	2	1	1
10	스타벅스 경주터미널	3	3	4	4	5	5	0	0	0	0	1	1
11	맥도날드 경주	3	3	4	4	5	5	1	0	0	0	1	1
12	할리스 보불로	5	5	5	5	5	5	2	4	0	4	1	1
13	캐틀앤비 황남관	5	5	5	5	5	5	5	5	2	4	1	1
14	엔제리너스 경주점	2	1	3	3	5	5	1	1	0	0	1	1
15	드롭탑 황남점	2	2	4	4	5	5	1	0	1	0	1	1
16	투스섬 첨성대점	2	1	4	4	5	5	1	0	0	0	1	1
17	투스섬 보문점	3	1	4	4	5	5	5	0	0	1	1	1
18	할리스 늘봄농원점	5	5	5	5	5	3	1	5	4	3	1	0
19	투스섬 은평한옥	5	5	5	5	5	5	5	5	0	4	1	1
20	씨유 은평한옥	5	5	5	5	5	5	5	5	0	0	1	1
21	카페베네 울산	5	5	5	5	5	5	5	5	0	1	1	1
22	할리스 송도	5	5	5	5	5	5	5	5	1	1	1	1
23	오가다 전주	5	5	5	5	5	5	5	5	0	2	1	1
24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1	1	3	5	5	5	1	1	0	1	1	1
25	글마루	5	5	5	5	5	5	5	5	4	5	1	1
26	청운문학도서관	5	5	5	5	5	5	5	5	0	5	1	5
27	북촌문화센터	5	5	5	5	5	5	5	5	1	5	1	5
28	코모도호텔	1	1	3	1	3	1	1	0	3	1	1	1
29	장석교회	2	1	3	3	5	5	1	1	1	1	1	1
30	상흥리공소	1	1	3	5	5	5	1	1	1	1	1	1
31	대한성공회 온수리성당	3	3	5	5	5	5	4	4	0	3	1	1
32	진천성당	5	5	5	5	5	5	5	5	1	0	1	5
33	성공회 마산교회	5	5	5	5	5	5	5	5	0	5	1	5
34	전남축산위생 사업소	3	3	5	5	5	5	1	2	0	1	4	1
35	F1 자동차경주장 한식육교	5	5	5	5	4	5	2	5	0	5	5	2
36	장성공공도서관	3	2	4	3	4	4	1	3	2	2	4	1
37	윤봉길기념관	0	0	4	2	4	4	2	0	0	0	0	2
38	강남출판문화센터	5	5	0	0	0	0	0	5	0	4	4	4
39	제주시립탐라도서관	2	0	2	0	0	0	0	0	0	1	0	1
40	혜화동 주민센터(한옥청사)	5	5	5	5	5	5	4	4	0	5	3	1
41	두가현	5	5	5	5	5	5	2	1	0	5	2	1
42	원서동 궁중음식연구원	4	4	5	5	5	5	2	3	0	3	2	1
43	라궁	5	5	5	5	5	5	4	4	0	1	1	3
44	목경현	5	5	4	4	5	5	2	1	5	5	0	2
45	나비잠호텔	5	5	5	5	5	5	2	5	5	5	2	4

번호	사례	1) 기동	2) 보	3) 한식지붕 형상	4) 지붕_ 서까래	5) 지붕_ 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 분절요소)	10) 외벽_ 창호	11) 외벽_ 문양	12) 실내외 바닥재
46	남향재	5	5	5	5	5	5	2	5	0	5	2	4
47	충무헌 다목적센터	4	2	5	5	5	5	2	3	0	1	0	1
48	정음 한옥(정음 사랑방)	5	5	4	5	4	3	1	2	0	1	0	1
49	관훈재	5	5	5	5	5	5	4	4	0	5	2	4
50	무무헌	5	5	5	4	4	4	3	4	0	3	4	3
51	자선당	5	5	5	5	5	5	4	4	0	5	5	5
52	동인재	4	4	5	4	4	4	4	4	0	4	4	4
53	열주택	5	4	5	5	5	5	2	5	0	4	3	4
54	소인재	5	4	5	5	5	5	4	5	0	4	4	4
55	아틀리에 R(향기든자리)	2	3	5	4	4	4	0	0	0	0	0	2
56	학교재	3	4	5	5	5	4	1	1	0	1	0	0
57	남산동 한옥(아라키카레우동)	5	2	4	3	4	4	2	3	0	3	0	0
58	은평한옥마을 시범한옥(셋이서문학관)	5	4	5	5	5	5	4	5	0	4	4	4
59	경상북도관광홍보관	5	5	5	5	5	5	5	5	0	5	5	1
60	교회재	4	3	2	3	3	2	3	5	2	3	2	4
61	덕성여대 덕우당	5	5	5	5	5	5	2	5	4	5	5	3
62	루치아의뜰	4	4	3	4	2	4	1	4	0	5	5	5
63	불국사역부스정류장	5	5	5	1	5	5	5	5	0	5	5	5
64	이육사문학관	3	3	3	3	3	2	2	4	5	3	2	4
65	전주역	5	5	4	5	5	3	2	4	0	2	2	1
66	착한낙지경주점	4	4	5	5	5	5	3	4	0	3	2	2
67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아토피힐링센터)	5	5	3	3	4	3	4	5	0	2	1	5
68	태화루	5	5	5	5	5	5	5	5	3	5	5	5
69	동편제 판소리 전수관	5	5	5	5	5	5	5	5	0	5	5	3
70	전통문화마을 (조령민속공예촌)	5	5	2	1	1	1	3	2	0	5	5	5
71	영암 영산재	5	5	3	5	5	5	5	5	5	5	5	4
72	정창원	5	5	5	5	5	5	5	5	0	5	5	5
73	창평면사무소	5	5	4	5	5	5	5	5	0	4	5	1
74	금산주택	3	2	2	3	1	0	0	0	0	1	0	0
75	아산주택	2	2	3	2	2	1	1	1	0	2	2	1
76	전주시청	2	1	3	3	3	3	5	1	0	2	0	2
77	은평 근린생활시설	2	1	2	2	4	4	1	0	0	0	0	2
78	관훈동 미헌(모란나비)	3	2	4	2	4	5	3	0	0	3	4	1
79	DBEW 디자인센터	5	5	5	5	5	5	5	1	1	1	1	0
80	함양재	5	5	5	5	5	5	5	3	0	5	1	5
81	MANSSION5	5	5	5	5	5	5	5	5	0	5	2	4
82	임재양외과	4	4	3	5	2	4	2	4	2	3	3	4

번호	사례	1) 기둥	2) 보	3) 한식지붕 형상	4) 지붕_ 서까래	5) 지붕_ 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 분절요소)	10) 외벽_ 창호	11) 외벽_ 문양	12) 실내외 바닥재
83	전주한옥마을기와	5	5	5	5	5	5	2	5	0	2	4	2
84	초코루체	4	4	3	4	2	3	2	4	0	2	2	3
85	호원재(남만한옥)	5	5	5	5	5	5	5	5	0	5	5	5
86	어련당	5	5	5	5	5	5	3	5	0	5	5	5
87	전남 축산기술 연구소 본소(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5	5	5	5	5	5	3	5	0	5	5	5
88	관광정보센터 : 남악마루(전남관광안내소 관광정보센터)	5	5	5	5	5	5	2	5	0	5	5	3
89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쌀박물관	5	5	5	5	5	5	3	5	0	5	5	5
90	흥천어린이집(성북구 느티나무어린이집)	5	5	5	5	5	5	4	5	3	5	5	5
91	국립중앙박물관 (현 국립민속박물관)	3	3	4	3	4	3	4	2	4	3	3	3
92	청와대 본관	5	4	5	5	5	5	5	4	0	4	4	4
93	청와대 춘추관	5	4	5	3	4	4	5	2	0	5	4	3
94	독립기념관 거래의 집	5	4	5	1	4	4	3	0	0	0	0	1
95	휘닉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 한옥연회장	5	5	5	5	5	5	3	5	0	4	0	2
96	불국사역	1	1	5	5	4	4	1	1	0	1	4	1
97	전라남도 공관 여진누리	5	5	5	5	5	5	5	5	0	5	5	5
98	영암 도기 박물관	4	4	4	5	5	4	3	5	0	1	4	1
99	진관사 템플스테이	5	5	5	5	5	5	5	5	0	5	5	5
100	UN기념공원 정문	3	0	3	0	1	3	0	0	0	0	1	1
101	국립묘지 현충문	5	4	5	4	4	4	0	0	0	2	3	1
102	통일전	4	4	5	4	5	5	3	0	0	2	1	2
103	국립광주박물관	4	2	5	3	5	5	2	2	0	2	1	2
104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5	4	0	3	0	0	1	0	0	2	2	1
105	천리포 수목원(민병갈기념관)	4	3	0	1	0	0	0	0	0	0	0	0
106	천리포수목원 플랜트센터	4	3	0	0	0	0	0	0	0	0	0	0
107	국립진주박물관	0	0	3	2	2	0	1	0	3	0	0	0
108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4	2	2	1	1	1	0	0	0	1	0	1
109	삼국유사가온누리	3	0	2	1	1	0	0	2	1	0	0	1
110	전남도립도서관	2	1	2	1	1	1	1	1	1	1	1	1
111	토산리주택(빌라빌레쿨라)	2	3	3	2	1	2	2	1	0	1	1	4
112	한국근대문학관	1	1	3	2	1	3	1	1	0	1	1	2
113	주한프랑스대사관	3	3	1	0	0	0	0	0	0	0	0	0
114	국립경주박물관	3	0	1	0	2	1	0	0	0	1	0	1
115	충남역사박물관	0	2	1	1	0	0	0	0	0	0	0	0
116	세종문화회관	3	2	1	2	1	0	3	0	0	2	4	2
117	국립국악원	0	0	1	0	0	0	0	0	0	1	3	0

번호	사례	1) 기동	2) 보	3) 한식지붕 형상	4) 지붕_ 서까래	5) 지붕_ 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 분절요소)	10) 외벽_ 창호	11) 외벽_ 문양	12) 실내외 바닥재
1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	2	2	0	2	1	4	0	0	0	1	2
119	국립청주박물관	1	0	3	3	1	0	0	0	0	0	1	1
120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3	0	1	2	1	1	3	0	0	1	0	1
121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3	3	2	0	0	0	1	0	0	0	0	0
122	독립기념관	3	3	3	3	3	3	3	3	0	3	3	3
123	금산주택	3	3	3	3	3	3	3	3	0	3	3	3
124	국수리주택	1	1	0	1	0	0	1	0	0	1	1	3
125	세종문화회관	3	2	1	2	1	0	3	0	0	2	4	2
126	장면가옥	4	4	4	4	4	4	4	3	0	4	4	4
127	아민	5	1	5	5	5	5	5	5	0	1	2	1
128	사송	5	5	5	5	5	5	4	5	0	1	1	1
129	살라맹방곡	5	3	5	5	5	5	2	4	0	5	3	2
130	-	4	4	4	4	5	5	2	5	0	4	1	4
131	권진규아틀리에	4	5	2	1	1	1	2	4	0	3	1	2
132	심곡서원	4	4	4	4	4	4	4	4	0	4	3	4
133	한옥어린이집(행궁아해꿈누리)	5	4	4	4	4	4	4	4	3	4	4	3
134	성주예산리만산댁	5	5	5	5	5	5	3	4	3	3	3	4
135	성주 예산리 배리댁	5	5	5	5	5	4	3	4	0	4	4	3
136	관청리근대한옥	5	5	5	5	5	5	3	5	0	4	4	3
137	롯데부여리조트	5	5	5	5	5	5	5	5	1	5	5	5
138	대연동 800	4	6	5	5	5	5	2	5	0	1	5	4
139	통의동 35-32	5	5	5	4	4	4	5	4	0	4	4	4
140	가회 한경헌	4	5	5	5	5	5	3	4	3	4	2	2
141	3	2	2	2	2	2	2	2	2	0	2	2	2
142	32	2	2	2	2	2	2	2	2	0	2	2	2
143	3	2	2	2	2	2	2	2	2	0	2	2	2
144	북촌한옥마을	3	4	5	5	5	3	3	3	2	4	4	2
145	백인제가옥	4	4	5	5	5	4	5	4	0	4	3	4
146	낙락헌	4	4	5	5	5	3	2	2	0	3	2	3
147	원서동 219	5	5	5	5	5	1	2	2	0	4	1	1
148	천현동 588	5	5	5	5	5	5	2	5	0	3	5	3
149	서울한방진흥센터(제기동)	5	5	5	5	5	5	2	4	0	5	4	1
150	경주역	1	1	5	2	5	5	1	1	0	1	4	1
151	경북도청	4	4	5	5	5	5	1	4	0	2	3	3
152	화천한옥학교	4	4	4	4	4	4	4	4	0	4	4	4
153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3	3	3	3	2	2	3	3	0	3	3	3
154	중가구리 267-1	3	1	5	1	5	5	2	1	0	1	1	1

번호	사례	1) 기둥	2) 보	3) 한식지붕 형상	4) 지붕_ 서까래	5) 지붕_ 기와재	6) 지붕_마루	7) 기단	8) 외벽_인방	9) 외벽_처마 (중간 분절요소)	10) 외벽_ 창호	11) 외벽_ 문양	12) 실내외 바닥재
155	만화당	5	5	5	5	5	5	5	5	0	5	5	3
156	가구박물관	5	5	5	4	5	5	5	5	3	4	3	4
157	서울 은평구 진관동 9993-203	4	4	4	4	4	4	4	4	3	4	4	4
158	하선재	4	4	4	4	4	4	3	4	0	3	1	4
159	계동 146-1 카페 어니언	5	5	5	5	5	4	5	3	0	1	1	3
160	내소사	5	5	5	5	5	5	5	5	3	5	5	5
161	개평리	5	5	5	5	5	5	5	5	1	5	5	5
162	군자정	5	5	5	5	5	5	5	5	0	5	5	5
163	관저동1893-17	5	1	5	4	5	4	5	1	0	4	1	1
164	미사리 한채당	4	3	5	5	4	5	5	4	0	4	4	4
165	한국미술관 미술연구원	2	2	4	2	2	2	2	1	0	2	2	1
166	새남터성당	4	4	4	4	5	5	3	3	3	1	4	2
167	화계사	5	5	5	5	5	5	2	4	4	5	5	3
168	진남휴게소	4	2	5	5	4	4	2	1	0	1	1	1
169	계동 144-1	3	2	2	1	4	4	1	1	0	2	6	0
170	재동 106-4	4	1	3	3	3	2	1	1	0	0	1	0
171	스위스 대사관	4	3	2	2	2	1	1	1	0	2	2	1
172	재동 57	2	2	2	1	2	2	2	1	1	1	5	1
17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5	5	5	5	1	5	5	5	1	5	5	5
174	경북 경주시 성동동 223-4	5	5	3	5	1	1	3	4	0	1	5	1
175	예천군청	3	3	4	3	4	4	5	2	0	1	1	1
176	롯데아울렛	5	5	5	5	5	5	2	3	0	2	3	1
177	절두산 천주교회	3	2	1	1	1	1	1	3	0	3	6	1
178	고려궁 한옥호텔	5	5	4	4	5	5	4	4	0	4	6	4
179	한옥호텔 더 신라	4	4	4	4	4	4	5	4	0	4	4	4
180	황룡원	4	4	4	4	4	4	4	3	0	4	6	4
181	한옥호텔	5	5	5	5	5	5	4	5	0	4	6	4
182	전주 도립국악원	3	2	4	4	4	1	1	1	0	1	1	1
183	은평한옥마을 회관	3	4	4	4	4	4	5	4	0	3	3	3
184	경원재 엠베세더 인천	4	3	5	5	4	4	2	3	0	3	3	2
185	커피스미스	2	2	5	3	5	4	2	0	0	1	1	4
186	경북관광홍보관	5	4	5	5	5	5	5	1	0	1	1	4